





#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 학자대회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일 자 | 2016. 7. 7(목) ~ 10(일)

| 장 소 | 당진시청, 세한대 당진캠퍼스,  
당진 및 내포지역

### 자료집2 분과회의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 1분과 고대 해상세력의 교류문화
- 2분과 항로와 해역, 그리고 경계
- 3분과 한일 간의 교역과 갈등
- 4분과 도서 연안지역의 사회사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 ● 세부 프로그램

### 제1일차 <전체회의> 7월 7일(목) 13:30~18:2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당진시청 대강장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개 회 식

사회 : 김형서 (세한대학교)

13:30~14:00

- 개회사 :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장 강봉룡
- 환영사 : 당진시장 김홍장, 세한대 총장 이승훈
- 축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충남도지사 안희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귀영  
당진시의회의장

#### 기조발표

사회 : 김형서 (세한대학교)

14:00~14:30

-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백제모델
- 발표 : 윤명철(동국대)

#### 주제발표

사회 : 홍선기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14:40~15:10

- [주제발표 1]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 발표 : 최미순(세한대) ●토론 : 김승진(선장, 팀 아라파니)

15:10~15:40

- [주제발표 2] 환황해권 해양 신산업 발전 방안
- 발표 : 강길모(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토론 : 임용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5:50~16:20

- [주제발표 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 지중해'
- 발표 : 권덕영(부산외대) ●토론 : 윤재운(대구대)

16:20~16:50

- [주제발표 4]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 관념
- 발표 : 이윤선(목포대) ●토론 : 정병모(경주대)

#### 종합토론

17:00~18:20

- 좌장 :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참석 : 전체회의 발표자, 토론자

## 제2일차 <분과회의 및 융합토론> 7월 8일(금) 09:00~18:3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1관, 2관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오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09:00~12:00	[1분과] 고대 해상세력의 교류문화 ●좌장 : 박종기(국민대)	205호
	[3분과] 한일 간의 교역과 갈등 ●좌장 : 이근우(부경대)	206호
	[5분과] 도서해양 민속과 공연예술 ●좌장 : 송화섭(전주대)	207호
	[7분과] 어촌사회와 어로문화, 그리고 해양푸드 ●좌장 : 홍석준(목포대)	306호
	[9분과] 도서해양 생태자원 ●좌장 : 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307호
	[11분과-특별] 해양문화유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좌장 : 곽유석(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08호
	[13분과-특별] 대중국 교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좌장 : 오석민(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406호
	[15분과-특별] 당진항 활성화 (한국해운물류학회) ●좌장 : 이철영(한국해양대)	407호

### 오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13:30~16:30	[2분과] 항로와 해역, 그리고 경계 ●좌장 : 김보한(단국대)	205호
	[4분과] 도서 연안지역의 사회사 ●좌장 : 김동전(제주대)	206호
	[6분과] 도서해양의 문학적 형상과 언어문화 ●좌장 : 배정희(한국해양대)	207호
	[8분과] 도서해양 콘텐츠와 관광 ●좌장 : 김동현(청암대)	306호

오후 분과회의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근학관(2관)

13:30~16:30	<b>[10분과]</b> 도서해양의 법과 정책 ●좌장 : <b>김민영</b> (군산대)	307호
	<b>[12분과-특별]</b> 해양레저스포츠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좌장 : <b>이영오</b> (세한대)	308호
	<b>[14분과-특별]</b> 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당진항토문화연구소) ●좌장 : <b>이인화</b> (한국도량형박물관)	406호
	<b>[16분과-특별]</b> 화성 당성과 향해 실크로드 (한양대 문화재연구소) ●좌장 : <b>권덕영</b> (부산외국어대)	407호

융합토론

장소 : 세한대 당진캠퍼스 본부관(1관) 5층 대공연장

16:40~18:30	●좌장 : <b>이귀영</b>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발표 : 분과별 좌장
-------------	--------------------------------	--------------

제3일차 <내포지역 해양문화 답사> 7월 9일(토) 09:00~

- 대 주 제 : 현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태안·보령 일원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월 9일(토)

09:00-10:00	세한대 당진캠퍼스 → 굴포운하유적
10:00-11:00	굴포운하 답사
11:00-12:00	굴포운하 → 태안 안흥정터
12:00-12:40	안흥정터
12:40-13:40	맛있는 점심식사
13:40-14:00	식당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4:40-15:3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보존센터
15:00-16:00	태안보존센터 → 안면운하
16:00-16:30	안면운하
16:30-17:30	안면운하→충청수영성
17:30-18:30	충청수영성, 계급장군청덕비
18:30-19:30	맛있는 저녁식사
19:30-20:45	충청수영성 → 세한대 당진캠퍼스

**제4일차 <당진 및 난지도 해양문화 답사> 7월 10일(일) 09:00~**

- 대 주 제 :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 장 소 : 당진 일원
- 주관/주최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월 9일(일)**

09:00-10:00	세한대 당진캠퍼스 → 도비도선착장
10:00-10:20	티케팅, 승선자 명단 작성
10:20-10:50	도비도선착장 → 소난지도
10:50-11:20	*항일의병총
11:20-11:50	소난지도→도비도선착장
11:50-13:00	맛있는 점심(도비도 선착장 근처)
13:00-13:50	도비도선착장→당진안국사지
13:50-14:40	당진안국사지 및 매향암각
14:40-15:10	당진안국사지→당진 무공사
15:10-15:40	당진 무공사(복지검장군 유적지)
15:40-16:20	당진 무공사→세한대 당진캠퍼스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2009년 목포에서 시작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삼척(2011년 2회), 여수(2012년 3회, 2013년 4회), 경주(2014년 5회), 목포(2015년 6회) 등지를 거쳐 이번에 충남 당진에서 7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7월 7일에 개최되어 우연히도 행운의 숫자 7이 세 개 모였으니 행운이 넘쳐흐르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간 해양문화학자대회를 통해서 발표된 해양 관련 논문은 약 1,000여 편에 달합니다. 이번 당진 대회는 전체회의와 16개 분과를 통해서 200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역대 최대의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행운의 대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회는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큰 주제를 내걸고 첫날 당진시청에서 전체 회의, 둘째 날 세한대에서 분과회의를 진행하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충남 내포지역의 해양 문화와 당진 난지도를 답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꾸몄습니다. 일부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는 당진시의 전격적인 지원 약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여기에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동참하고 충청남도도 후원에 가세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해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과 함께 대회를 이끌어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이번 대회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고, 현지 대학인 세한대학교가 대회장과 숙소를 제공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해양재단도 후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각 분야의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바다와 섬을 소재로 삼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열린 학술 난장입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통해서 바다와 섬을 학문 연구에 끌어들이 욕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학문 연구의 풍토를 서서히 개선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2017년 8회 대회는 군산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 논의가 있습니다만, 개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큰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와 함께 차기 개최지가 정해지는 대로 바로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양문화의 연구와 해양사상의 고취 및 확산을 위해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2016년 7월 7일

공동 개최 및 후원 기관들을 대표하여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장 강 봉 룡 배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장 김홍장입니다.

산과 들, 그리고 바다와 하늘 모두 각기 푸른빛을 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당진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를 주제로 하는 제7회 전국해양학자문화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기까지 많은 준비를 해주신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전국 도서해양 전문 연구자 여러분을 17만 당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09년 첫 개최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7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해양 연구자들이 각양각색의 해양 관련 주제를 총망라하며 그 범위와 깊이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학술대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로 발전하기까지에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하는 해양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함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오늘날 바다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식량과 물류,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생존과 번영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해양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욱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이 바닷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40%를 바다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바다에 얼마나 많은 천연자원이 있는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대두한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맞아 서해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깨워 환황해 경제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신해양산업 육성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수도권을 잇는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기반으로 당진항을 동북아의 물류거점항만으로 키워나가는 동시에 김승진 선장의 요트세계일주 모험인 왜목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및 국제해양레저스포츠제전 유치로 대한민국의 해양레저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당진에서 개최되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서 풍성한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와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은 물론 당진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거듭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자대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당진시장 김 홍 장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를 당진에서 개최하도록 도움을 주신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김홍장 당진시장님, 강봉룡 도서문화연구원장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 그리고 학술토론의 장에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4일간에 걸쳐 학술토론과 인근 지역 답사, 그리고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가 준비한 해양스포츠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09년 목포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서해안시대의 다른 중심인 당진에서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환황해권을 경제 번영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평화의 무대로 그 효용성을 넓혀가는 충청남도의 도정 방향과 어우러져 특별한 의의가 더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와 세한대가 공동으로 귀한 손님맞이 채비를 하였으니, 열띤 학술토론의 장을 만 들어주시고, 고귀한 학술적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대학 당진캠퍼스에 머무시는 동안 단 한 점의 불편함도 없이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진에서 열리는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세한대학교 총장 이 승 훈

축 사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환황해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21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충남을 방문해 주신 해양 전문가 여러분과 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충남도는 2012년 도 청사를 대전에서 내포(홍성·예산지역)로 이전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건도(建道) 충남」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는 등 환황해시대의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까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많은 갈등과 전쟁, 침략이 있었습니다. 황해 역시 제국주의 시기, 그리고 불과 수십 년 전 큰 전쟁의 시기까지 폭력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환황해지역은 평화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중국의 문물은 황해를 건너 이곳 충남의 옛 나라인 백제에서 꽃을 피웠고, 다시 일본으로 전해져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황해는 한·중·일 고대 3국의 공동번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제 황해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세계시민으로서 하나로 이어진 우리가 이 바다를 통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광복절에 환황해지역을 돈과 사람, 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하나의 시장으로, 그리고 집단안보 체제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EU수준의 공동체로 구성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고대의 황해를 넘어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공동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풀어 나갈 것입니다.

충남은 환황해지역 ‘평화의 제도화’라는 목표 아래 이 지역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과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첫걸음인 환황해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내 지방의회와의 연합체 형성을 위한 동북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충남에서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저명한 해양문화학자 여러분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충남의 해안을 답사하는 것은 우리 충남이 그리는 ‘아시아의 지중해, 황해’라는 미래상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바다가 평화와 번영의 공간, 즐거움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대회 준비에 애써 주신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 축 사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국회의원 어기구입니다.

더위가 한창입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뜨겁다고 하지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의 열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은 전 세계의 인류가 공유하는 총유의 자원으로서 지구적 잠재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간입니다. 세계가 경쟁적으로 해양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의 이용과 해양문화에 대해 집약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도 7회째를 맞는 시점에서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대주제로 항만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당진시에서 개최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진의 한자지명을 보면 당나라 唐, 나루 津으로 중국 산둥반도와 매우 가까워 일찍이 당나라와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 항만시설은 5천톤~20만톤 규모 35선석이 있으며 2015년 물동량 6931만7천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목마을에 중국 기업이 1150억규모의 마리나항만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등 항만과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렇듯 당진시민들의 항만과 해양관광의 욕구가 팽배한 가운데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을 발표하고 해양레저·스포츠·관광 거점 구축에 관한 방안, 해양신산업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니 참으로 기대됩니다.

해양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해양문화를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의 주관과 주최를 담당할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7일  
국회의원 어 기 구

## 축 사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이끌어주신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과 이번 대회가 당진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주시고 주관해주신 충청남도 당진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재단 등의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제3회 대회부터 도서관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본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장해가고 있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볼 때마다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해양학자들은 역사, 문화, 과학, 경제, 정치,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해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해양시대, 해양문화강국으로 나가는데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대회가 역사시대의 국제 항구이자 신해양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당진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해양 미래의 원동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마지 않습니다. 여기 참석한 많은 연구자들께서는 해양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대회를 단편적인 학문의 연구를 뛰어 넘어 다양한 시각에서 학문적 해안을 만들어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또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우리나라 해양문화연구의 마당으로 거듭나고 세계인의 해양문화학자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약하는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다시한번 이번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련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이 귀 영

##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7회 전국해양문화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술회의 준비에 애써주신 전국해양문화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탐험가인 월터 롤리가 남긴 말인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다는 세계 물류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해산물과 각종 자연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관광과 레포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항만과 해양관광물류의 개발은 인천과 부산, 제주 등 일부 도시의 전유물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중국을 비롯한 환황해권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지역의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술대회가 충남도내 각 시군의 공동 관심사인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전문가와 참석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과 열정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충남 무역항, 특히 당진항 발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의 빛나는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당진시의회 의장

축 사

오늘 이곳 충청남도 당진에서 전국에서 모인 해양학자들과 함께 환황해권 역사와 문화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충청남도는 백제로부터 시작해도 황해와 함께 천오백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일구워 왔고, 그에 앞서 선사시대를 아우르면 수 천년 동안 황해와 함께 생활 터전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역사적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 있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바다 속 세계조차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알려주고 있어 충청남도는 황해를 둘러싸고 진행된 역사의 보물창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환황해권’은 충청남도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포함하여 황해 연안의 여러 도시와 지역들이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바다를 매개로 한 교류와 소통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단지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거나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7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장 호 수

## 축 사

전국의 해양문화학자 분들이 다함께 모이는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이 곳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고대 동아시아 해양 강국 백제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당진(唐津)은 그 지명이 말해 주듯이 중국 당나라와 교류했던 해상 교역의 관문이었습니다. 당진에 있는 또 다른 항구 한진(漢津) 역시 그 지명에서 이곳이 중국 한나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동안 냉전과 갈등의 바다였던 황해가 이제 다시 교류와 번영의 바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황해를 품고 있는 충청남도도 해양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해에 가까운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였고, 해양수산물 출범시켰으며, ‘해양건도, 환황해권의 새로운 중심지’라는 해양수산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진 또한 시대를 넘어서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황해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여러 지역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왜목 마리나항에 중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과 당진이 환황해 시대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철강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로 알려진 당진시가 해양도시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여 충남과 당진의 미래를 밝히는 좋은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국의 해양문화학자들께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님과 당진시 김홍장 시장님,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강봉룡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회 해양문화학자대회의 당진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전국에서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번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당진에서 행복한 3박 4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7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 자료집 1 목차

전체회의 [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

〈기조발표〉 환황해권의 해양역사상과 발전정책 -백제모델 윤명철   동국대학교	36
〈주제발표1〉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최미순   세한대학교	53
〈주제발표2〉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방안 강길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0
〈주제발표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 지중해' 권덕영   부산외국어대학교	93
〈주제발표4〉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 관념 이윤선   목포대학교	105
〈토론문1〉 요트 세계일주를 통한 국가홍보 사례와 해양레저문화 활성화 방안 김승진   팀 아라파니	121
〈토론문2〉 환황해권 해양신산업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임용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24
〈토론문3〉 동아시아 역사 공간 '황해지중해'를 읽고 윤재운   대구대학교	126
〈토론문4〉 이윤선교수의 “환황해권 민화에서 읽어보는 도서해양개념”에 대한 논평 정병모   경주대학교	128

● 자료집 2 목차

[ Session 1 ] 고대 해상세력의 교류문화

장보고의 죽음과 (841년 11월의) 彗星 서영교   중원대학교	37
고대 탐라국 탄생 신화에 숨겨진 벽랑국 이해 채바다   고대항해탐험연구소	44
무령왕 탄생지 가카라시마에 대한 문헌적 탐색 니시미나오코   큐슈박물관	51
백제 무령왕이 태어난 일본의 섬은 어디인가? 우치다사유리·시바모토 타쿠미   큐슈박물관	58
금강 하구 나리포의 역사적 의미 곽장근   군산대학교	66
경북 동해안 감은사지 금당터 건축구조와 만파식적 설화 이병건   동원대학교	72
내포지역 백제부흥전쟁 연구 김학로   백제부흥전쟁기념사업회	78
왕건의 고려건국과 해양세력 강봉룡   목포대학교	84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충남지역 제해권 검토 김명진   경북대학교	92
고려시대 內浦地域의 佛教寺院 배상현   동서문물연구원	99
고려시기 해상교류의 성격-번성론과 소극론 박종기   국민대학교	105
선유도 고려시대 유적의 현황 조명일   군산대학교박물관	112
한국역사상 島嶼(섬)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도서(섬) 인문지리학을 통한 해양권역 연구 활성화 - 홍영의   국민대학교	119

● 자료집 2 목차

[ Session 2 ] 항로와 해역, 그리고 경계

잇혀진 使行路 黃海南路의 역사적 의의 ..... 박영철   군산대학교	129
1323년 신안선의 항로 ..... 윤용혁   공주대학교	135
13세기 서해안 해참 분석 ..... 이종수   중앙대학교	139
임진왜란 초기해전의 연구 ..... 제장명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146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공수 ..... 한성일   부산대학교	152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 동향과 전망 ..... 한정훈   목포대학교	159
프랑스 선교사의 서해안 입국로 모색 ..... 김수태   충남대학교	165
서해 최대의 험지 안흥량과 굴포운하 ..... 문경호   대전과학고등학교	170
백제 백강과 백촌강 ..... 서정석   공주대학교	176
제주도 해안의 환해장성과 규슈 해안의 石壘의 역사적 고찰 ..... 김보한   단국대학교	181
동해안 주상절리 분포 실태와 활용방안 ..... 최재영   경주대학교	186
문명 간 교류 유형 비교연구 ..... 김정하   부산외국어대학교	195
환황해권 교류 탐색을 위한 예비적 고찰 ..... 임용덕   제주대학교	203



● 자료집 2 목차

[ Session 3 ] 한일 간의 교역과 갈등

조선초기 대마도의 向化倭人 平道全 한문종   전북대학교	211
선조대 경인통신사의 상반된 보고와 그 대응 김 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6
조선후기 왜관통제와 교간사건의 처리 장순순   전북대학교	223
조선후기 대일무역과 구무(求貿)의 전개 이승민   동국대학교	233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공목(公木) 김영록   부산대학교	240
풍계 현정(楓溪賢正)의 『일본표해록』 향로 탐사 궁인창   생활문화아카데미	246
『해동제국기』의 「琉球國之圖」의 원본에 대하여 이근우   부경대학교	253
개항 전 일본의 조선연안 정보 입수와 해도 제작 및 활용 한철호   동국대학교	259
개항기 일본의 조선어업 침략과 부산주재 일본영사의 어민관리 최보영   동국대학교	267
총독부 관리가 증언한 조선의 수산업 김수희   영남대학교	274
방계현상과 바닷길 이소라   민족음악연구소	276
1920년대 지식인이 본 서남해 탁현진   목포대학교	283

● 자료집 2 목차

[ Session 4 ] 도서 연안지역의 사회사

삼국시대 고분 출토 상어와 고고환경 김재홍   국민대학교	291
가야와 왜의 주형토기 및 고대 선박 고찰 이효웅   이사부기념사업회	296
지형학적 관점에서 본 도서지역 선사시대 주거지 입지변화 박지훈   공주대학교	302
고려시대 어민의 생활과 어량소 이정신   한남대학교	308
고려~조선시대 하천 제방에 대하여 차순철   동국문화연구원	315
토정이지함의 섬과 바다에 대한 공간인식 장용기   목포 MBC	322
조선후기 '해도진인설'의 의미 박상현   부산대학교	330
재일 제주인 '제주도 수산업개척 선각자' 박기만과 해녀들의 이주와 정착 김동전   제주대학교	336
근세 동아시아 어보의 역사 김문기   부경대학교	346
18~19세기 西海 島嶼住民의 거주 양태 임학성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355
일본인 염업기술자들이 전하는 식민지기 조선의 염업 류창호   인하대학교 박물관	361
천일염전 개발과정 분석을 통한 섬의 인문환경 연구 최성환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369
충남 당진군 삼화2리의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성격 이창섭   부산대학교	374

● 자료집 3 목차

[ Session 5 ] 도서해양 민속과 공연예술

황해해양문화와 임경업 킬리콘텐츠 ..... 이창식   세명대학교	36
서남해안 해안표착형 돌배설화 연구 ..... 송화섭·김경미   전주대학교	37
환황해권 天主教 敎案으로 본 補儒論의 西學의 意義와 한계 ..... 김치완   제주대학교	48
해신이 된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역 강관순 선생의 딸 ..... 오문수   오마이뉴스	56
절걸궁으로서의 鳩聚와 바다 ..... 박흥주   곳연구소	62
남해군의 정월대보름 민속대축제 ..... 정의연   남해안역사문화연구소	64
해양왕국 고려시대 차문화 연구 ..... 정서경   목포대학교	72
카스피해 연안의 고대 민족과 문화 전통 ..... 김영술   전남대학교	77
환황해권에 부는 생명의 바람神, 영등 ..... 김승훈   제주대학교	83
개화기 인천의 일본 공연예술 고찰 ..... 신근영   고려대학교	89
개항장 원산에 설립된 지역극장과 운영에 관한 연구 ..... 김남석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95
한반도 해역의 구분과 문화권역의 전개 ..... 홍순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99
해양 실크로드와 악기의 전파 ..... 전인평   중앙대학교	107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음악교류 ..... 김정예   서울시립대학교	113

● 자료집 3 목차

[ Session 6 ] 도서해양의 문학적 형상과 언어문화

비네타, 발트해의 사라진 도시의 전설 ..... 배정희   한국해양대학교	120
『모비딕』에 나타난 포경선의 세계일주 항로로 본 19세기 태평양의 정치적 상황 ..... 김낙현   한국해양대학교	126
문무대왕릉에서 발견 했다는 ‘원효결서’ 의 정체 ..... 장정태   동국대학교	133
역사인물 흥가와라와 「흥길동전」을 통해 본 해양문화의 세계 ..... 설성경   연세대학교	140
김상헌의 제주 체험과 제주에 대한 인식 ..... 김기림   조선대학교	147
〈최척전〉에 나타난 바다의 의미 ..... 이채경   성균관대학교	154
판소리계소설에 나타나는 ‘바다’ 이미지 및 인식 연구 ..... 김미령   조선대학교	163
최인훈 소설 〈颱風〉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연구 ..... 박해랑   성신여자대학교	170
한국 노래가사에 나타난 해양문학의 의미 ..... 정석원   부산대학교	177
완도군 금일의 해양 지명어 ‘모리’ ..... 조미라   목포대학교	180
보길도(甫吉島) 격자봉(格紫峰, 430.3m) ..... 천기철   한국사진작가협회	187
‘소래’ 포구의 어원에 대하여 ..... 손희하   전남대학교	193

● 자료집 3 목차

[ Session 7 ] 어촌사회와 어로문화, 그리고 해양푸드

문서를 통해 본 염전과 염부이야기 ..... 김경옥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
어업민속의 지역성 ..... 권삼문   여헌기념관	208
기술변동에 따른 미역 인공양식의 확산과 어민들의 생업전략 ..... 박혜영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14
1990년대 초 보령 무창포의 어촌생활 ..... 신용희   금강뉴스	222
미륵도 풍화리 위당계(慰堂契)의 운영 ..... 이혜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29
여수해역 하계 수산물 보양식 4선 ..... 임여호   한국수산회	235
화성시 갯벌지역 어업민속과 전통지식 ..... 편성철   목포대학교	238
경기 아산만 하구의 정치 어구와 그 특징 ..... 오창현   국립민속박물관	251
마을어장 공유의 공식화와 전통적 운영방식의 지속 .....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57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서해의 어업 전진 기지 어청도 ..... 이재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65
오징어의 모든 것 : 오징어를 소재로 한 푸드아트테라피 ..... 이정연   목포대학교	271
동양 전통 氣味論에 기초한 해양식품의 食治활용 연구 ..... 박성혜   광주여자대학교	278
‘섬의 인문학’ 주창과 ‘도서해양문화학’ 정립을 위한 제언 ..... 홍석준   목포대학교	284
김 양식업의 기술발달이 어촌사회에 미친 영향 ..... 최홍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94
해녀 어업의 전승과 인식 변화 ..... 이유리   목포대학교	300

● 자료집 3 목차

[ Session 8 ] 도서해양 콘텐츠와 관광

생 자크 조가비 콩포스텔라의 순레코드와 문화생산 코드 선미라   이화여자대학교	308
『하멜표류기』에 의한 관광문화산업의 허와 실 이영란   조선대학교	313
전남서남권 무인도서의 관광활성화 방안 김형서   세한대학교	322
제주 - 완도 연계 해상관광특구 조성 방안 황상석   장보고글로벌재단	330
도서해양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적 활용 곽수경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336
경남 사천 ‘지역문화로서의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안영숙   경남문화예술교육연구소	342
신라방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박재완   남도 마실길	349
장보고의 티-세라믹로드에 대한 고찰 김대호   중국 광서사범대학교	355
한국근대해양선박여행의 정치적 심상지리 차혜영   한양대학교	359
전통소금 ‘자염(煮鹽)’의 복원과 활용사례 정지수   태안문화원	366
지오투어리즘을 적용한 여수시 낭도의 자연관찰로 개발 이정훈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371
남해안 다도해섬 개발과 마리나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현   청암대학교	377

● 자료집 4 목차

[ Session 9 ] 도서해양 생태자원

기후변화와 매립에 의한 경기만의 기초생태 변화 .....	36
최중기   인하대학교	
기후변화에 따른 함평만 염생식물 성장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	40
이점숙   군산대학교	
해안사구에서 식물 성장 및 생리적 반응을 적용한 외래식물 관리방안 .....	42
명현호   국립공원연구원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경관 변화 .....	45
박정원   국립공원연구원	
태안해안국립공원 북부지역 해빈의 계절적 변화 .....	53
장성건   국립공원연구원	
신안군 수개 도서의 염생식물 분포 특성 .....	60
양효식   목포대학교	
해양쓰레기와 해양생물 피해 특성 .....	64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	
전남 신안군 지역의 교량 건설과 토지이용에 따른 경관구조 .....	68
김재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S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해안선 잔존유정의 변화 .....	74
김진석   국립공원연구원	
해상 및 해안국립공원의 외래식물 관리 .....	80
오장근   국립공원연구원	
해양보호지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 .....	85
최종관   국립공원연구원	
연륙교 건설에 따른 어촌 공동체와 지역정체성의 변화 .....	88
이경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신안군 자은면 도서자생식물을 활용한 테마공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	95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자료집 4 목차

[ Session 10 ] 도서해양의 법과 정책

세월호 사건으로 영향 받은 국내법제와 내용 연구 .....	104
이동원   독도조사연구학회	
국내 해양사고의 특성 분석 .....	111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의 도서 관리 동향 .....	115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수 목적 무인도서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	120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보는 한국의 견해 .....	126
김영주   독도조사연구학회	
독도교육,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 .....	129
최홍길   선정고등학교	
전남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근무장소에 따른 특성의 차이 .....	134
조유향   초당대학교	
『섬』 정의(定義)의 혼선과 정립에 관한 고찰 .....	139
신순호   목포대학교	
군산항 관련 사진·통계자료의 현황과 연구방향 .....	145
김민영   군산대학교	
연태항의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한중경제의 신기회 .....	150
김덕수   중국절강해양대학	



● 자료집 4 목차

[ Session 11 ] 특별-해양문화유산

국립어업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전시 방향 곽유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57
조선통신사선 원형복원을 위한 추정설계 홍순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3
3D스캐닝을 활용한 고선박 선형복원 강원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69
수중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기본적 법률 및 관리체계 정용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75
수중 출수 금속문화재의 물리적 클리닝 적용 실험 연구 김서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79
『세계의 배』 역사 전시 구성의 사례 진호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84
고려 삼별초 유형 일고찰 윤형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88
신안선 유물 출수 양상의 고고학적 검토 조진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92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해양문화유산조사 수습 도자기의 현황과 성격 김애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97
역사기록 속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신미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4

● 자료집 4 목차

[ Session 12 ] 특별-해양레저스포츠

“원동컵” 국제범선경기 왕보기   청도범선협회	212
남한강 수변 레저스포츠 시설 활성화 방안 고재곤   여주대학교	213
해수변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주성택   경희대학교	220
수변지역 선진사례 박창욱   여주대학교	221
수변지역 체육시설 활용방안 이용수   여주대학교	222
한국의 해양스포츠 연안산업발전의 대표적 저해요인 류효정   (주)라라마린아카데미	223
해양레저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홍석호   성결대학교	228
수도권 주민 ‘생존수영’의 장으로서 한강 활용에 관하여 박진   서울여자대학교	232
해양 수상스키 쇼의 초대 박정수   한서대학교	235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방안 박종욱   세한대학교	245
스킨스쿠버시설과 장소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 유동균   세한대학교	242
마리나 시설의 범죄안전을 위한 셉테드(CPTED)적용방안 함주일   대구과학대학교	246
해양레포츠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규길   세한대학교	250
생활체육으로서 해양레저 활성화 방안모색 김영주   세한대학교	251
해양레저스포츠안전관리 이영오   세한대학교	264
스포츠권의 법리 심재영   세한대학교	268

● 자료집 5 목차

[ Session 13 ] 특별-대중국 교류

한중FTA가 충남농림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강마야   충남연구원	36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박경철   충남연구원	43
서해안 어업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종화   충남연구원	49
중국의 남색경제정책 추진동향 박인성   충남연구원	55
중국인 유치를 위한 충남차이나벨트 조성방향 송두범   충남연구원	65
‘한류’의 산업적 의미 홍원표   충남연구원	70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해양실크로드 발전 방안 강희정   한밭대학교	75
전파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관계 오석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76
백제의 관음신앙과 바다길 이경복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87
남송 학인 정신보의 고려 이거경위와 그 의미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94
조선 천주교의 서양 교류 김정환   교회사연구소	100

● 자료집 5 목차

[ Session 14 ] 특별-내포문화권의 해양역사문화

내포-대중국 교류의 창(窓) ..... 김추윤   신한대학교	108
백제 신라시대 서산지방의 해양문화사 ..... 이은우   충청문화연구소	118
천혜의 관광지 안면도의 발전과 미래 ..... 정우영   태안향토문화연구소	127
보령 외연도 동제의 변화과정 ..... 황의호   보령향토문화연구소	132
개신교 성경 최초 전래지 서천 마량진 갈곶(葛串)과 그 활용 방안 ..... 유승광   공주대학교	141
당진 해안의 어촌 민속 ..... 이인화   한국도량형박물관	147
내포(마한)지방의 문화와 서해 ..... 박태신   예산향토문화연구소	156
당진 동학농민혁명과 승전목 전투 ..... 김영곤   당진역사문화연구소	162
황해 근대 해양문학의 한 검토 ..... 김영미   공주대학교	169
白魚, 白小魚에 대한 고찰 ..... 정 일   목포대학교	176

● 자료집 5 목차

[ Session 15 ] 특별-당진항 활성화

항만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	186
노홍승   한국교통연구원	
당진시와 당진항의 상생발전 전략 .....	203
박창호   인천재능대학교	
당진항 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	214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미래지향적인 당진항 활성화 과제 .....	232
강상곤   영진공사 기획실	

● 자료집 5 목차

[ Session 16 ] 특별-화성 당성과 항해 실�크로드

당성과 한반도의 실�크로드 배기동   한양대학교	262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실�크로드 길 팀 윌리엄   런던대학교	268
화성 당성 제3차 발굴조사의 성과와 전망 김기룡   한양대문화재연구소	270
성곽유적의 정비와 복원 이화중   고려문화재연구원	277
당성 출토 명문기와와 중국자기의 의미 이상현   한양대문화재연구소	285
한반도 중부지방의 신라성과 한강유역 복진로 서영일   한백문화재연구소	291
서안에서 산둥까지의 길과 문화흐름의 기록 정일교   수원여자대학교	299
당성의 고대문헌연구의 한계와 새로운 다학문적 연구 필요성 김성일 · 이병준   한양대문화재연구소	304
중국과 한반도의 해상 실�크로드 모이다   링보박물관	313
《管子》“发、朝鮮之文皮”의 고고학적 탐색 왕 청   산둥대학교	320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상의 제사유적 임효재   서울대학교	341
청해진 발굴성과와 장보고의 해상활동 조유전   前국립문화재연구소	348
동아시아 결상이식 분포와 교류관계 마쓰우라 유이치로   동경국립박물관	354

## 1분과

### 고대 해상세력의 교류문화

장보고의 죽음과 (841년 11월의)彗星	서영교	중원대학교
고대 탐라국 탄생 신화에 숨겨진 벽랑국 이해	채바다	고대항해탐험연구소
무령왕 탄생지 가카라시마에 대한 문헌적 탐색	니시미나오코	큐슈박물관
백제 무령왕이 태어난 일본의 섬은 어디인가?	우치다사유리 시바모토 타쿠미	큐슈박물관
금강 하구 나리포의 역사적 의미	곽장근	군산대학교
경북 동해안 감은사지 금당터 건축구조와 만파식적 설화	이병건	동원대학교
내포지역 백제부흥전쟁 연구	김학로	백제부흥전쟁 기념사업회
왕건의 고려건국과 해양세력	강봉룡	목포대학교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충남지역 제해권 검토	김명진	경북대학교
고려시대 내포지역의 불교 사원	배상현	동서문물연구원
고려시기 해상교류의 성격-번성론과 소극론	박종기	국민대학교
선유도 고려시대 유적의 현황	조명일	군산대학교박물관
한국역사상 島嶼(섬)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홍영의	국민대학교





## 장보고의 죽음과 (841년 11월의) 彗星

서 영 교 ■ 중원대학교

본 장의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보고가 암살된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장보고의 사망연대에 대해서는 국내자료와 일본측 자료와의 사이에 4-5년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는 그가 846년 봄에 암살당했다고 한 데 비하여 일본측 기록에는 841년(문성왕 3년) 11월중에 그러했다고 되어 있다. 『속일본후기』 권11, 승화 9년[842] 정월 乙巳 조를 보자.

그 후 어여계(於呂系) 등이 귀화하여 와서 우리들은 장보고가 다스리든 섬의 백성입니다. 장보고가 昨年(841년) 11월중에 죽었으므로 평안하게 살 수 없었던 까닭에 당신 나라에 온 것입니다.

어여계 등은 장보고 사후 신라정부의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망명한 완도의 사람들이다. 엔인의 『입당구법순례행기』의 여러 기록을 고려하고 『삼국사기』 문성왕 4년 3월에 김양의 딸을 왕비로 들였다는 기록을 염두에 둔다면, 장보고의 사망 연대는 841년 11월이 확실하다.<sup>1)</sup>

『삼국사기』에 연대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장보고 여 납비에 대한 조정내의 반대 분위기를 담고있는 기록과(『삼국사기』 권11, 문성왕 7년[845] 3월 조) 그리고 장보고의 반란을 다루고 있는 기록(『삼국사기』 권11, 문성왕 8년[846] 봄 조)의 내용을 결코 버릴 수 없다. 문성왕 즉위 이후부터 장보고가 사망하기까지의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 841년 11월을

1) 岡田正之, 「慈覺大師の入唐紀行に就て」 『東洋學報』 13-1, 1924, 27쪽.

今西龍, 「慈覺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を讀みて」, 『新羅史研究』, 1933, 321쪽.

기준으로 그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전자의 기록과 후자의 기록이 거의 1년의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 전자는 3월의 일이고 후자는 1년 후 봄의 일이다. 그렇다면 문성왕이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맞이할 것을 제안하고 이것이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 된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근거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고, 그 해 11월 신라조정이 보낸 염장이란 자객에 의해 장보고가 암살된 셈이 된다.

그렇다면 장보고가 신라조정에 대해 반란의 의지를 표출 한 것은 841년 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일길찬 홍필(弘弼)의 반란이다. 『삼국사기』 권11, 문성왕 3년(841) 봄 조를 보자

“(841년 봄) 一吉澮 홍필이 謀叛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海島로 도망갔는데, 잡으려고 하여도 잡지 못하였다”.

일길찬 홍필이 누구이고, 그가 왜 모반을 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문성왕정부는 장보고의 군사적 후원 아래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신료들 가운데 청해진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홍필이 海島로 도망했는데 잡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와 청해진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정은 할 수 없다.

어떻든 장보고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840년(문성왕 2년) 3월에 장보고 女의 납비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것이 무산된 것이 확실해지자 1년 후인 841년 봄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추측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기존의 지적대로 납비문제의 제기와 무산, 장보고의 반란 그리고 신라조정의 자객 파견과 장보고의 암살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이 841년 11월 이전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제 신무왕의 즉위 시점으로 돌아가 본론을 재구성해 보자.

839년 1월 대구의 결전에서 승리한 김우징은 민애왕 정부를 전복했지만 곧장 즉위하지는 않았다. 김우징은 자신이 전왕을 왕좌에서 시체로 끌어내리고 즉위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여기에는 禮적 의식과 절차라는 포장도 필요했다.

먼저 피살된 민애왕을 고왕(古王)의 禮로 후히 장사지냈다. 그 장례의식은 기록에 없지만 왕경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엄한 애도의 의식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자신의 즉위식도 절차와 형식을 지켰던 것 같다. 『삼국사기』 권10, 신무왕 원년 조를 보면 “희강왕의 종제 예징등이 이미 궁궐을 廓淸한 후 예를 갖추어 왕을 즉위하게 했다”고 한다. 김우징이 즉위한 그때가 839년 4월이었다.<sup>2)</sup>

2) 『삼국사기』 권44, 김양전.

즉위 후 신무왕은 아들 경응을 태자로 책봉했고, 자신을 왕위에 올린 청해진대사 장보고를 감의군사로 봉하는 동시에 식읍 2000호를 내려주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장보고에 대한 채무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장보고의 딸과 혼인이란 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혼인의 당사자였던 신무왕은 즉위 3개월 만(839년 7월 23일)에 사망했다.

신무왕을 이어 즉위한 문성왕의 왕좌 앞에는 장보고가 서 있었다. 장보고의 힘을 빌려 민애왕정권을 전복하고 들어선 정권은 확실히 허술하게 지탱되고 있었다. 문성왕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삼국사기』 권11, 문성왕 원년 8월 조를 보자.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청해진대사 궁복은 일찍이 兵力으로서 聖考(신무왕-김우징)를 도와 선조(조부-김균정)의 巨賊(민애왕-김명)을 멸하였으니 그 功烈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하고 이에 그(장보고)를 배하여 진해장군으로 삼고 겸하여 章服을 내렸다.

문성왕은 즉위 직후인 839년 8월에 장보고에게 진해장군의 칭호와 장복을 하사했다. 자신이 즉위했지만 장보고의 도움이 없었다면 조부의 원수도 갚지 못했고, 자신도 현재 이(국왕) 자리에 있지도 못했으며, 父王대와 변함없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고 재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보고와 신라조정 사이의 평온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맞이하려다 장보고의 신분이 본래 미천하다하여 불가하다는 廷臣들의 반대에 부딪혔다.<sup>3)</sup> 물론 문성왕이 먼저 장보고의 딸을 次妃로 받아들여려고 한 것은 장보고 군사력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성왕은 조정의 중론을 거부할 수 없었다. 만일 그것을 무시하고 장보고의 여를 차비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귀족들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나아가 내분을 또 다시 불을 수도 있다. 물론 납비를 거부한다면 장보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그래도 문성왕은 장보고의 무력적 외압보다는 내분이 더욱 무섭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권11, 문성왕 19년 9월(856년 가을) 조에 문성왕이 남긴 유언은 주목된다.

“과인은 보잘 것 없는 자질로 높은 지위에 있어, 위로는 하늘로부터 죄를 얻을까 두렵고 아래로는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신망을 잃을까 염려스러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삼가고 두려워하여 마치 깊은 못과 얇은 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았다. 公卿大夫와 여러 신하가 좌우에서 도와 준 데 힘입어 왕위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략…”.

필자는 이 유언을 결코 형식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성왕에게 있어 통치행위는 끊임없이 긴장되는 노력을 뜻한다. 그는 세상의 위험을 두려워하는 법을 일찍이 터득하고

3) 『삼국사기』에 의하면 845년(문성왕 7년) 3월

있었다. 이는 그의 인생역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성왕은 애초에 왕이 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의 조부 김균정이 흥덕왕과 4촌 일 따름이었다. 836년 쥔내에서 그의 조부가 살해된 후 그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졌다. 흥덕왕 사망 후 이어진 왕위계승쟁탈전에서 패하여 그의 조부는 피살되고 아버지 김우정은 지명수배자가 되었다. 이제 그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쫓기는 망명객의 아들로 전락했다. 837년 5월 영접결에 아버지를 따라 청해진으로 간 그는 낯선 그곳에서 2년에 걸친 망명생활을 했다.

그 동안에도 신성한 왕족의 피가 궁궐의 바닥을 적셨고 그 피는 그 후에도 마르지 않았다. 마르기 전에 왕족들의 새로운 피가 계속해서 흘렀기 때문이다. 숙부인 김균정을 죽인 희강왕 자신도 838년 정월에 그곳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으며, 희강왕을 죽인 민애왕 또한 839년 정월에 김우징이 끌고 온 장보고 군대에 칼을 맞고 비명에 갔다.

아버지 신무왕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것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짐이었다. 그 왕좌는 여러 사람의 죽음 위에 서있는 저주받은 것이었다. 시련이란 가장 허약한 인간에게도 냉정함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듣거나 목격하고 경험한 문성왕은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본성을 가지게 되었으리라.

문성왕은 왕좌에서 단두대까지 불과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뿐이며, 궁궐이 바로 자신의 피를 적실 수도 있는 죽음의 앞뜰이라는 사실도 일찍이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권력이 흐르는 것이라고 느꼈고, 모든 불확실한 것 속에서도 위험을 볼 줄 알았다. 왕관이 유리로 만들어져서 아무 때라도 자신의 손길을 빠져나가 깨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움켜쥐었다.

장보고는 용기와 결단력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문성왕을 능가했다. 그러나 문성왕은 혼자서 장보고와 맞서는 것은 아니었다.

위의 기록에서 “公卿大夫와 여러 신하가 좌우에서 도와준 데 힘입어 왕위를 떨어뜨리지 않았다”라 하고 있듯이 장보고와의 싸움에서 문성왕 주위에는 한 무리의 참모부가 그를 도왔다. 문성왕은 불확실성을 알고 있었기에 적절한 시기에 조용하고 통찰력이 있는 김양과 김의정 등을 불러모아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미 예상했듯이 841년 어느 시기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근거로 하여 반기를 들었다. 『삼국사기』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청해진대사 弓福(장보고)이 자기의 딸을 왕이(妃)로 들이지 아니한 것을 원망하여 鎭(청해진)에 거(據)하여 반기(叛旗)를 들었다. 조정에서는 그를 치자니 불측의 환(患)이 있을지 모르고 또 그대로 내버려두자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으므로 우려(憂慮)에 쌓여(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중, 그때 용장(勇壯)의 사(士)로 세상에 저문(著聞)된 무주(武州-지금의 光州) 사람 염장(閔長)이란 자가 와서 고하기를, 조정에서 만일 자기의 말을 들어 준다면 자기는 한 명의 병졸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맨 주먹을 가지고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다고 하였다. 왕은 이에 따랐다.

위의 기록에서 “장보고를 치자니 불측의 환이 있을 지도 모르고”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신라정부는 장보고의 군대와 정면대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병이 주력이든 장보고군대의 위력은 불과 몇 년 전에 달구벌 전투에서 증명된 바 있다.

장보고가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이 왕경에 전해지자 그것은 신라 왕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기에 충분했다. 위의 기록에서 “우려에 쌓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표현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든 그 와중에 염장이란 자객이 나타나 장보고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어느 시기에 청해진에 들어간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장보고가 살해된 841년 11월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어지는 『삼국사기』 기록을 보자.

염장이 거짓 나라를 배반한 척하고 청해진에 투항하니 공복은 (원래) 장사를 사랑하였으므로 아무 시의(猜疑-시기하고 의심하는)하는 바 없이 그를 맞아 상객을 삼고 술을 먹으며 환락(歡樂)을 다하였다. 공복이 취하자 염장은 그의 칼을 빼어 목을 벤 후…락….

장보고의 화려한 등장과 활약에 비해 취종피살로 생을 마감한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허망한 것이었다. 그것도 청해진에 있는 자신의 廳舍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신의 칼에 당했다. 무엇보다 그의 죽음은 자객과 술을 먹다가 일어난 일이라 어처구니가 없고, 그 결과 한순간에 청해진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이 있다. 장보고는 왜 무척 기뻐하며 술에 대취했는가? 정확히 말해 무엇이 장보고로 하여금 대취하여 쓰러질 정도로 그를 기분이 좋았다는 말인가.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염장은 용감하고 굳세기로 소문난 장사(壯士)였다. 장보고는 분명 장사를 사랑했으며, 자신의 휘하에 그러한 출중한 인물을 두게된 것을 그토록 기뻐했을까.

필자는 염장의 투항 때문이라 보다 당시 장보고는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염장의 투항을 쉽게 받아준 것은 장보고 자신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역으로 신라조정이 염장이란 자객을 파견한 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신라조정은 염장이란 자객이 청해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고,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장보고를 암살할 수 있다는 확신도 못했다. 어떻게 일개 지방관리의 말을 믿고 그에게 국가의 중대사를 맡긴다는 말인가.

그것이 실패하고 염장이 체포되어 고문에 못 이겨 신라조정이 사주한 암살계획을 누설한다면, 장보고가 관련자들을 청해진으로 소환하라는 압력을 넣어 중앙에 수모를 줄 수도 있다. 나아가 그것은 청해진의 군대가 김양 등의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왕경에 다시 진격할 확실한 구실이 된다. 자객의 파견도 신라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었음이 확실하다.

사실 자객 염장이 청해진에 파견된 841년 11월에 혜성이 떴이었다. 『신당서』 권32, 천문

지를 보자.

“(會昌元年)十一月壬寅, 有彗星於北落師門, 在營室, 入紫宮, 十二月辛卯不見”.

841년 11월 壬寅부터 12월 辛卯까지 혜성이 하늘에 떠 있었다. 『구당서』 본기18 상은 이보다 더 그 기간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고 있다.

(무종 회창원년-841) 獎朗十一月丁酉朔. 壬寅夜, 大星東北流, 其光燭地, 有聲如雷, 山崩石隕. 其彗起於室, 凡五十六日而滅.

이 혜성이 출현 한 것은 841년 11월 초 하루이며, 56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다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엔인의 일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 혜성을 日僧 엔인이 중국에서 육안으로 목격했다는 것은 그 만큼 규모가 컸다는 것을 말해준다. 『입당구법순례행기』 841년 11월 조를 보자.

“(841년)11월 1일 오늘은 冬至이다. 彗星이 나타나더니 며칠이 지나자 점점 더 커졌다. 관청에서는 여러 절로 하여금 불경을 외우도록 부탁하였다.

12월 3일 西院으로 옮겼다.

12월 4일 달과 태백성이 서로 가까이 한 곳에 모여 운행했다.

12월 8일 오늘은 나라의 제삿날이다. 이 절에도 관청이 재를 마련하였다. 성안의 여러 절에서 목욕을 했다. 彗星이 점차 사라졌다”.

위의 기록에서 11월 1일에 나타난 혜성이 며칠이 지나자 점점 더 커졌다고 하고 있다. 그것은 12월 8일에 가서 작아지기 시작했고, 『구당서』의 기록대로 56일간 하늘에 떠 있었다면 12월 26일에 가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이 혜성은 841년 11월 1일날 나타나서 12월 26일 경에 가서 사라졌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장보고가 혜성이 떠있는 가운데 사망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11월 1일에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전란을 예고하듯이 맑은 겨울 하늘에 칼이 떠있었다. 혜성을 신라백성들이 모두 보고 있는 가운데 왕경에 있는 진골귀족들의 마음도 무거워졌을 것이다. 평온한 상태에서도 혜성이 나타나면 전란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겁을 먹고 있을 터인데 지금은 납비 문제를 놓고 청해진과 팽팽한 긴장이 오고가는 상황이 아닌가.

혜성이 날이 지날수록 점점 커졌다. 그것이 커지는 만큼이나 장보고의 기쁨도 커졌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던 신라조정은 내부 분열의 낚시마져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염려되는 시점에 자객염장의 청해진 파견이 결정되었다.

장보고에게 염장이 청해진으로 투항해 온 것은 확실히 신라조정이 분열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보였을 수도 있다. 올 것이 온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투항을 더 있을 것이다. 장

보고가 염장과 술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혜성은 하늘에 떠 있었을 것이다. 장보고에게 앞으로의 상황은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였고, 자신이 곧 왕이라도 된 듯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보고는 염장에 대하여 의심의 끈을 풀었다. 술에 취한 장보고는 문성왕이 보낸 자객에 의해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다.

『삼국사기』 권11, 문성왕 8년 조를 보면 “궁복이 취하자 염장이 그의 칼을 빼어 목을 벤 후 그의 무리들(장보고의 부하들)을 불러놓고 說諭하니 그들은 땅에 엎드려 감히 움직이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장보고의 베어진 머리를 본 부하들은 분노했던 것이 아니다. 놀라 얼이 빠져 있었기 보다 841년 11월 혜성의 출현이 신라국왕이 아니라 상업영주의 죽음을 예언한 전조였다고 먼저 직감했을 것이다. 그들이 땅에 엎드려 감히 움직이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장보고의 부하들은 거대한 天體를 인간사와 관련 지우고, 그것을 차후에 일어날 어떤 사건의 전조로 보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들의 심정 상황은 천체의 일종인 혜성을 인격화하고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는 상호 침투적인 상태에 있었다. 하늘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역시 인간 세상에도 일어나며 인간세계에 일어날 일은 하늘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혜성의 출현과 장보고의 죽음이란 사건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 고대 탐라국 탄생 신화에 숨겨진 벽랑국 이해

채 바 다 ■ 고대항해탐험연구소장, 시인

##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2006년 4월 고대 탐라국 탄생 신화에서 세공주가 왔다는 벽랑국은 과연 어디인가를 찾고자 탐험을 하였다. 이 탐험에서도 1996년과 1997년에 이어서 2001년 4월 전남 영암군 대불항에서 일본 규슈 가라스 향까지 왕인탐험에서 통나무 떼배를 복원하여 항해에 나섰다.

필자가 고집스럽게 이런 원시 형태의 떼배를 이용하여 탐험 배경은 이 떼배가 오늘날 선박의 始原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통나무 떼배는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를 비롯한 동서남해안 도서에서 해상 활동과 문화 이동 수단으로 이용한 소중한 문화 유산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본고는 제주시 화북포구, 일명 별도포라고 불리는 곳에 후풍관(候風館)이 있었다. 이곳은 1820년 한상목 목사에 의해서 海神祠로써 안전한 항해를 기원 드리는 제례를 올리고서 탐라국 탄생신화에서 3공주가 왔다는 벽랑국을 찾는 탐험에 나섰다. 필자가 찾아 나선 벽랑국은 동국 여지승람에서 나오는 벽랑도를 벽랑국으로 유추 하여 항해에 나선 배경과 목적들을 담아서 이 줄고에서 기술하고 있다.



## 2. 떼배의 시원과 등장

제주 고산리 융기문토기(隆起文土器)와 빗살무늬 토기등은 경남 동쪽 해안에서부터 서쪽으로 흑산도에 이르는 남해안의 도서지방을 거쳐 제주해협을 건너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얼마전 국립 김해 박물관이 발굴한 8천년전 통나무배는 우리나라 배의 역사를 알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통나무배는 강 유역에서부터 고기잡이,물자이동 수단으로 이용하였음을 알수 있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도서들은 지리적으로 시인(視認)거리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문화이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된 고인돌 분포와 1998년 목포대학 박물관은 강진에서 고인돌 83개群 687基로 있음을 조사 결과에서 나타 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산강 유역의 고인돌과 제주시 용암동 고인돌 집단과 유관한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또한 제주 용담동 옹관묘가 발견된 것은 영암의 옹관묘 집단들이 장묘문화가 건너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영산강유역에서 고대로부터 제주로 문화이동이 이어졌음을 고고학적 자료들에서 찾게 된다. 이러한 문화 이동들은 통나무 떼배를 시작으로 범선시대로 이어지면서 대 향해 시대의 서막이 되고 있다.

강진 고려청자 도요지는 지금까지 2백여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청자는 동서 남해안을 거쳐서 개경으로, 일본과 중국으로 팔려 갔다

강진을 비롯한 해남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제주에서 어마(御馬),병마(兵馬)을 비롯한 많은 물산들이 오갔던 해상의 관문이 되고 있다. 이 뱃길은 제주 유배길로 가던 보길도에서 고산 윤선도를 만날 수 있는것 처럼 청음 김상헌, 우암 송시열,추사 김정희로 이어지는 유배의 뱃길로도 시대의 아픔들이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다.

## 3. 탐라국 탄생 신화와 벽랑도

필자는 동국여지승람에서 벽랑도를 찾게 된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고려사지리지.탐라지.영주지등 여러 고문헌들에서 탐라국 탄생신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 하고 있다.

-원래 사람이 없던 한라산 북쪽 기슭 모흥혈에서 3신인이 솟아 나와 사냥으로 생업을 개척하고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하루는 바닷가에서 사냥을 하는데 목함이 떠 오고 있었다.

그 목함에는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使者)가 타고 있었다.

이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벽랑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이 세 공주를 기르시고 말씀 하시기를 서해중 산 기슭에 세 신인(神人)이 계시어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는데 배필이 없으시다 하시고 신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시라 하였습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으셔서 대업을 이루소서”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이 목함을 열어 보니 세공주는 오곡과 송아지, 망아지를 가지고 와서 .이들 고,양,부 세 을 나에게 전하고 이곳에서 혼인을 하여 탐라국을 열어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공주가 상륙한 곳으로 알려진 서귀포시 온평리 해안도로에 “연혼포“라는 곳은 이들 세 공주의 첫 발을 내 디딘곳이며 이곳 해안에서 서쪽으로 2키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들 세쌍이 혼례를 올렸다는 ”혼인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해오고 있다.

탐라 탐진 뱃길에서 필자가 고,양,부 세 청년과 벽랑국 세공주 혼인이 이루어진 신화의 뱃길이 숨겨져 있음을 유추하게 된것은 이상의 기록을 추적하면서 이루어 졌다.

필자는 세 공주가 왔다는 벽랑국(碧浪國)을 일본국, 또는 상상의 나라로 기록하고 문헌들에 큰 실망과 많은 의문을 가져 왔다. 벽랑국을 일본국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 고려사지리지에서 富仁島.恩波島.碧浪島.仙山島.莞島가 장흥부 속 탐진현 5개 도서에서 동국여지승람(1486년)에 莞島.古爾島.助藥島.新智島.加背島.所訖島.多也島.銅梁島, 富仁島.恩波島.碧浪島.竹島.載馬島.仙山島 14개 강진현 도서에 존재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서 碧浪島가 존재 하고 있었음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 기록에서 벽랑도의 섬 규모는 4리라고 되어 있다.이후 김정호의 동여도(1861년).대동여지도(1864년)에 강진 23개 도서에도 벽랑도를 확인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지도상에서 벽랑도는 지워지고 말았다. 일제 강점으로 이 벽랑도는 지도상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이러한 지명 삭제는 새로운 지각 변동과 국가 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과거 고구려,백제의 지명들을 한반도 지명들을 바꾸워 놓았다. 일본도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국토의 지명들을 바꾸워 놓았다. 이것은 나라 잃은 수난의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벽랑도라는 지리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은 지도상의 지명들은 점령자에 의해서 바뀌고 말았다. 과거의 지명과 현 지명이 다른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 하고 있다. 이처럼 벽랑도는 1864년 대동여지도를 마즈막으로 지도상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벽랑국이라는 신화의 지도 때문이라는것은 명약 관화 하다.

필자는 우선 진도로 달려 가서 김정호 진도문화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김정호 원장도 지

금의 벽랑도로 추정하는 곳은 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 스러웠다. 김정호 원장은 전남의 옛 지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자료들을 분석하여 여러권의 연구 보고서들을 펴낸바 있다. 오늘날 완도군 금일을 사동리 소랑도를 벽랑도로 유추하고 있는 필자로써는 실종된 “신화의 벽랑국”을 찾는 출구가 되리라 믿고 있다.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일이다.

## 4. 벽랑국을 일본국으로 지목한 탐라국 탄생 신화

‘삼국사기’ 신라본기 670년 문무(文武10년12월)에 보면 ‘倭國更號日本.自言近日所出以爲名’이란 기록이 있다. 이 말을 풀어 쓰면 “왜나라가 국호를 바꿔 일본이라 하였다”. 이는 스스로 말하기를 해뜨는 곳이 가까운곳에 있으므로 그와 같이 이름을 지은것을 중국의’구당서(舊唐書)’동이전(東夷傳)’에서 왜가 일본으로 국호를 바꾼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日本國者倭之別稱也 以其國在日處故爲名.或曰倭國自惡其名不雅.故改爲日本”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일본국은 왜의 다른 명칭이다.이는 나라가 해 뜨는 곳에 있어서 만들어진 이름이요.혹은 말하기를 왜국이라 함은 떼떈하지 못한 이름이어서 스스로 싫어하였으므로 그런 이유로 일본이란 이름을 고쳤던 것이다.”라는 뜻이다.

일본이라는 국호는 서기 670년에 등장한다. 1907년에 출간된 일본의 저명한 고대 사학자 요시다 도고(吉田東伍·와세다대 교수)가 쓴 ‘대일본지명사서(大日本地名辭書)’라는 책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합병한 1910년보다 3년 앞서 일본에서는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 받는 책으로 알려진 권위 있는 문고로써 그 제3부 ‘국호편’에 ‘일본’이란 국호의 뿌리를 풀이한 대목은 이러 하다. “일본이란 국호는 한민족이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었으나 일본 사람들이 아름답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쓰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만고 불변의 국호로 삼았다”라고 쓰고 있다.

이 문고가 처음 출판된 후 1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이러한 해석에 반문을 제기하는 일본 학자들은 아무도 없다. 이 밖에 반노부도모(伴 信友), 호시노히사시(星野恒), 기무라마사지(木村正辭),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도 그의 저서 ‘일본상고사개요’에서 “일본의 국호는 한인들이 지었다”라고 쓰고 있다.

이상 지적한 대로 고려사에 세공주가 왔다는 탐라국 탄생 신화의 시대 배경은 고랑부 세

청년이 출현 했다는 혈거생활과 채집생활 시대와는 현격한 시대상황을 말해주고 있기에 탐라국 탄생 신화에서 세공주가 ‘일본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로 운운 하는것은 설득력이 없게 된다.

## 5. 탐진의 지명 유래

“신증동국여지승람“강진현편에 탐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탐라의 사자가 신라에 조공할 때에 배를 여기에 머물렀으므로 이름을 탐진이라 하였다.”고려사 지리지“에는 고을나의 15세 후손인 고후 고정,고계 3형제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탐진에 이르렀는데 대개 신라의 성시(盛時)였다....라고 쓰고 있다.

1601년(선조34년)7월 제주 御使로 왔던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16)에 이렇게 써 있다.

강진 해남 두 懸은 모두 바다에 있는데 제주를 왕래 하는 공식적인 뱃길은 반듯이 여기에 와서 배를 탄다. 해남은 館頭梁이고 강진은 白道島 인데 영암의 이진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이곳에 모이고 매년 강진.해남 양 읍에서 모여서 떠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항해를 준비 하면서 50~60년 전 돛배를 타고 수십년 동안 강진 칠량옹기를 싣고 제주바다를 드나들었던 20여 명이 넘는 사공 가운데 강진 봉황리에 유일한 생존자인 신일봉(84세)씨와 김우식(83세)씨를 만나서 제주 뱃길을 오갔던 항해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두 노인은 제주를 이 뱃길에서 마지막 증인이 될것이다. 반세기가 넘는 옛 항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수백년전 항해 모습을 그대로 듣는 것 같았다. 이 두 사람의 제주와 강진을 오가면서 다도해에 많은 섬들이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 주었다고 한다. 예상치 않은 큰 바람을 만나면 가까운 대모도 청산도·소안도·추자도로 피난처로 삼을수 있어서 어려운 항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제주로 향하는 동안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피난처를 찾아야 했다. 이처럼 제주로 가는 바람을 만나려면 몇 일씩 쉬어 가는 후풍처에 정박할 수밖에 없다. 날이 맑으면 여기서 한라산이 선명하게 보일 때 다시 돛 을 올려 제주로 향했다..

이들은 주로 강진 칠량옹기를 싣고 제주시를 비롯하여 서쪽으로는 애월 한림항으로 동쪽은 조천,김녕,행원,세화,성산포항으로 소비처를 찾아서 항해를 하였다고 한다. 제주는 강진에서 중요한 옹기 소비시장 으로 떠오른 것이다.

## 6. 제주 뱃길에서 만나는 표류 사례

1470년 8월 김배회 등 7명이 제주에서 진상품을 신고 한양에 갔다가 제주로 돌아 오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나 13일만에 중국 절강성으로 표류하여 돌아왔다.

1477년 2월 김비의등 8명이 제주에서 진상하는 감귤을 신고 추자도에 이르렀을 때 폭풍을 만나 14일 동안 바다를 떠돌다 유구국(일본 오키나와)으로 표류하여 3명만 살아 남고 2년 4개월 만에 일본을 거쳐 돌아 왔다.

1487년 최부(崔溥)는 9월 추쇄 경차관이 되 제주에서 일을 보던중에 아버지 상을 당하여 급히 고향으로 돌아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나 중국에 표류하였다. 온갖 고초를 겪어 북경을 거쳐 한양에 돌아 왔다.

장한철은 제주 사람으로 1771년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육지로 나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유구국에 표착하였다. 이밖에도 이방익도 제주 사람으로 만경 현령을 지낸 아버지 이광빈을 만나러 출륙하다가 중국 평호에 표류하여 1797년 윤 6월에 북경을 거쳐 서울에 돌아 왔다.

이러한 표류 기록 이외에도 표류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처럼 제주로 오고가는 뱃길은 예상 보다 험난 하였음을 알게 된다.

## 7. 마무리 하면서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옛 탐진과 제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왕래가 이루어 졌듯이 고대항해에서 탐라국과 벽랑국의 만남을 쉽게 접근할수 있었다.

탐라국 탄생 신화는 가락국 김수로와 인도의 아유타 허황옥과 만남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신화는 타임 캡슐에 갇혀 있는 것 처럼 혼란과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처럼 신화는 신비감에 사로 잡혔었게끔 선조들은 스토리 텔링에 뛰어난 창작력을 발휘 하고 있다. 이처럼 신화는 신비의 세계로 빠져 들게 하는 것도 신화의 중심적 컨셉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신화는 깊숙한 심해에 난파되어 있어서 그 추적은 신의 몫이라 하지만 해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알게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고려지에 그 여운들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벽랑도에서 벽랑국을 유추할수 있었던것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이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금맥을 찾아서 탄광을 파 헤쳐 나가는 심정으로

연구를 거듭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것으로 보인다. 보트 피플 처럼 벽랑국 세공주가 왔다는 신화는 그 실마리가 탐라 탐진 뱃길 탐험에서 유추 할수 있었다는것은 일생에서 다행스런 일로 기억 될것이다.

옛 선조들이 깊숙이 신화속에 숨겨논 역사의 숨결과 현장을 찾아 나설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내 던지는 도전과 용기에 스스로 자위 해보게 된다. 부족함이 많이 따르지만 탐라국 탄생 신화 뱃길과 문화이동 해상로를 재 조명할수 있었다는 것은 21세기 제주와 강진그리고 지금은 행정 구역상 완도군에 소속한 금일읍 소량도가 실종된 역사의 현장으로 새로운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탐라와 탐진으로 이어지는 고대 뱃길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남도의 해상 실크로드로 우뚝서는 신화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 참 고 문 헌

- 정영화 구석기시대 穴居유적에 대하여1974.한국문화인류학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학연문화사 1995.  
김원용,임효재 남해도서 고고학.1968.  
김재근,우리배의 역사서울대 출판부1991  
강진군마을사,,1996,강진군 발행  
제주도 문화원 연합회 제주인의 표해록>2001  
고려사지리지1451  
탐라지1653,이원진>제주도신화 제주대 현용준저1976.  
瀛洲誌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전남의 옛 지도,향토문화진흥원 김정호,1994  
박병식,도적맞은 우리국호 日本,1998  
  
하멜표착지연구채바다.제주도사연구회1999년제7집

# 무령왕 탄생지, 가카라시마에 대한 문헌적 탐색

니시미 나오코 西見尙子 ■ 큐슈박물관

## 1. ‘무령왕 탄생지’, 가카라시마에 대한 조사

사가현 요부코항에서 가까운 가카라시마(加唐島)라는 작은 섬에서 한국의 왕이 탄생했다는 전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 왕이 고대 일본과 관련 깊은 나라였던 백제의 무령왕이라는 것. 최근에 가카라시마(加唐島)에서는 이 무령왕 탄생전설을 통해 백제의 고도인 현 공주시와의 교류, 전문 학자를 초청한 심포지움이나 무령왕 탄생축제 등을 통해서, 섬 전체가 한국과의 민간교류를 활발하게 시행해 오고 있다.

이 탄생전설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서기』 웅락5(461)년의 조의 기술인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백제 개로왕이 남동생 곤지를 일본에 보낼 때 곤지의 부탁을 듣고 왕의 부인을 주었다. 이 부인은 임신해서 산달이 되었는데 왕은 혹시 일본에 가는 도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배에 태워 돌려보내라고 했다. 6월에 부인은 치쿠시의 가쿠라시마(各羅嶋)에서 출산, 태어난 아이 이름을 도군이라고 했다. 이에 곤지는 도군을 배에 태워 백제로 돌려보냈다. 이것이 무령왕이고, 이에 백제인들이 이 섬을 니리무세마(임금의 섬)라고 부른다.」

위의 기록 중에 있는 치쿠시의 「가쿠라시마(各羅嶋)」는 현재의 가카라시마(加唐島)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술은 한국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또 일본에서는 백

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인지 그다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백제 중흥의 시조로 알려진 무령왕은 삼국시대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시마(斯麻)’라는 이름으로 『일본서기』와는 달리 동성왕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신장은 8척, 얼굴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정이 깊고 관대한 성격으로 인해 백성들이 잘 따랐다고 한다. 무령왕이 고대 동아시아사에 있어서 일약 그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1971년의 무령왕릉의 발견이었다. 이 왕릉에서 지석이 나와서 명확해진 탄생년도가 『일본서기』의 기술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서 이제까지 간과되던 『일본서기』의 내용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동시에 왕릉에서 출토된 일본 고유의 나무인 고야마키(金松)로 만들어진 목관이 백제와 고대 일본의 깊은 교류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었다.

이번에 우리 규슈국립박물관 자원봉사자들은 박물관으로부터의 “가카라시마 무령왕 탄생 전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해보자”는 제안을 계기로 모이게 되었다. 보통은 박물관의 문화교류전시실에서 전시품의 해설을 하거나, 한국에서 찾아온 손님을 안내하거나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다. 고대사나 한국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무령왕의 탄생 전설에 대해서는 가카라시마라는 이름이나 위치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종래의 학설 등에 얽매이지 않고 학문의 담을 넘어서 자유로운 발상으로 새롭게 하나하나 이 전설에 대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박물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령왕 탄생 전설에 관한 역사와 논의를 문헌에서 조사하고 가카라시마에 수차례 찾아가서 섬 내부를 답사하면서 섬 사람들과부터 이야기를 듣거나 배를 타고 가카라시마 일대의 해상을 조사하였다. 인근의 도서관과 박물관, 연구기관에서 문헌과 지도, 전문지식 등을 배우고 때로는 역사학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해상보안청에 섬 주변의 물살이나 해류에 관해 문의하는 등 바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각도로 이 전설에 접근해 본 것이다.

본 조사를 통하여 가카라시마의 무령왕 탄생 전설과 그곳에서 엿볼 수 있는 일본과 한국의 고대로부터의 깊은 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 2. 무령왕 탄생 전설에 관한 의문

가카라시마(加唐島)의 무령왕 탄생 전설을 조사함에 있어서 우선 훑어본 것이 최근에 발표된 전설에 관한 논문이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카라시마가 탄생지로 부각된 가장 근거가 되는 논문이 2000년에 발표된 경북대학교 문경현 명예교수(역사학)의 「백제무령왕의 출자



에 대하여」이다.<sup>1)</sup> 거기에는 『일본서기』에 기재된 무령왕의 계보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비해 신빙성이 있어서 『일본서기』의 내용이 가장 사실에 가깝다고 전개하였다. 문교수는 1989년에 가카라시마를 조사하고 무령왕 탄생 전설이 섬에도 남아 있는 등의 근거로 탄생지는 가카라시마라고 보았다. 섬을 더 조사한 결과 섬의 서쪽에 있는 오비야우라(オビヤ浦)가 무령왕의 탄생 장소라고 추정했다. 이 발표 이후 한국의 학계에서는 당연히 반론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sup>2)</sup>

일본에서는 츠지 시호(つじ 志保)씨가 이 전설에 관해 2003년과 2005년에 섬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sup>3)</sup> 거기에는 섬의 많은 사람들이 전설을 ‘어느 날 돌연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듯한’ 이야기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오비야우라에서 누군가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적에 들었다든지, ‘임신 축하 행사였다’는 말은 들었다고 한다. 오비야우라(オビヤ浦)는 삼한정벌을 위해 바다를 건너려고 한 신공황후(神功皇后)의 복대의식(腹帶儀式, 임신 5개월 때 순산을 빌며 복대를 매는 축하행사) 전설도 남아 있어서 무령왕탄생 전설과의 경계가 애매하다. 츠지(つじ)씨는 무령왕탄생지에 대해 논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서기』에 기술된 ‘가쿠라시마(各羅嶋)’에 대하여, 몇 개의 사료와 문헌을 참조해서 가카라시마로 보아도 괜찮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의 의문이 드러난다. 문교수가 지지하는 것처럼 무령왕의 탄생이 『일본서기』의 기술대로라고 한다면, 『일본서기』에 기술된 ‘가쿠라시마(各羅嶋)’를 표기가 다른 ‘가쿠라시마(各羅嶋)’로 보아도 괜찮은 것일까? 다른 섬이나 지역일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또 한 ‘가쿠라시마(各羅嶋)’가 가카라시마(加唐島)라고 한다면, 그 탄생지로서 오비야우라(オビヤ浦)가 괜찮은 것일까? 우리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문헌과 지도 및 지명에 관한 조사, 섬에서의 탐문조사, 현지조사 등 새롭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각도로 조사하고 검증해보기로 했다.

이 장에서는 무령왕과 가카라시마를 취급한 사료와 문헌을 조사한 결과를 참조하면서 일본에 있는 무령왕 탄생전설과 그 탄생지에 관한 논의를 더듬어 가고자 한다.

### 3. 옛 사료에 나타난 무령왕과 가카라시마(加唐島)

『일본서기』 성립 이전의 화동(和銅) 6년(713)의 조칙에 의해 각 지역에 편찬된 지지(地誌)에 『풍토기(風土記)』가 있다. 현재의 가카라시마가 속한 지역에 대해 쓴 『비전풍토기(肥前

1) 문경현 「백제무령왕의 出自에 대하여」 『사학연구』 60, 한국사학회, 2000

2) 윤용혁 「한국에서의 무령왕 탄생 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 (2004.6.27. 포럼 발표 내용) 『백제무령왕 일한교류 23년의 발자취』 무령왕교류 가라츄시 실행위원회 2012

3) 辻志保 「百済王伝説—佐賀県加唐島の武寧王生誕伝説をめぐって」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平成18年, (2005)

風土記)』는 발췌하여 기술하는 형식으로 각 군과 지방의 개요, 지명의 유래, 전승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이 대륙과의 왕래를 배경으로 한 오토모노 사데히코(大伴狭手彦)와 사요히메(佐用姫)에 얽힌 설화는 등장하지만 무령왕탄생전설에 관한 기술은 없다. 가카라시마에 관해서는 치카고(値嘉郷)에 나오는 배를 정박시킨 선착장의 하나인 ‘천원포(川原浦)’를 가카라시마라고 한 설<sup>4)</sup>도 있으나 이것을 고토열도(五島列島), 후쿠에시마(福江島)의 가와하라(川原)라고 하는 설<sup>5)</sup>도 있어서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고려시대에 쓰여진 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sup>6)</sup>의 무령왕에 관한 부분에서도 탄생에 관한 기술은 아예 없고 501년에 40세로 즉위하기까지의 경과도 거의 없다. 기타 중국의 『양서(梁書)』<sup>7)</sup>에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 때때로 고구려를 패배시키고 처음으로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맺고 백제를 다시 강국으로 만든 것과 양으로부터 영동대장군에 임명된 것 등 무령왕이 ‘백제중흥의 시조’라고 불리게 된 까닭을 알려주는 기술만 있다.

한참 뒤인 에도시대에 접어들면 마츠우라(松浦) 지방에 관한 고문서가 얼마간 남아있다. 『송포고사기(松浦古事記)』 『송포습풍토기(松浦拾風土記)』 『송포고래약전기(松浦古來略伝記)』<sup>8)</sup> 등이 그것인데, 모두 마츠우라(松浦) 지방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것들은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어서 신사와 절에 관한 내용, 역사나 사적, 여러 가문의 계보 등이 기술되어 있으나 가카라시마에 대한 내용은 주로 전담의 수량이나 특산품의 기록 등으로 무령왕에 관한 기술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쇼와(昭和) 이후에 간행된 2권의 문헌<sup>9)</sup>에는 『송포고래약전기(松浦古來略伝記)』에 무령왕탄생전설을 볼 수 있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가라츠(唐津) 시립근대도서관에 소장된 기시다가(岸田家) 문헌 및 도쿄대학사료편찬소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된 고다마(児玉)씨 소장 『송포고래약전기(松浦古來略伝記)』를 확인해 봤지만 여기에는 가카라시마에 관한 「진수무족이인(津守無足貳人) 족경이인(足輕貳人)」이라는 내용 외에는 없었다.

4) 『日本歴史地名体系第42巻 佐賀県の地名』平凡社 昭和55年(1980)

5) 『肥前風土記の世界展図録』佐賀県立博物館 平成17年(2005)

6) 金富軾著 金思煒譯『完駅 三国史記』明石書店 昭和55年(1980)

一連著 金思煒譯『完駅 三国遺事』明石書店 昭和55年(1980)

7) 井上秀雄他訳注『東アジア民族史1 正史東夷伝』平凡社 昭和49年(1974)

8) 『松浦古事記』寛政元年(1789)、『松浦拾風土記』文化年間(1804~1818)、『唐津拾風土記抄』(成立時期不明)

※上記はいずれも 吉村茂三郎編『松浦叢書』昭和49年(1974)に所収。

9) 佐賀大学教育学部学生社会科研究室『我らの郷土研究加唐島社会科機関誌:第11巻第2号』昭和35年(1960)  
福岡博『佐賀豆百科』昭和45年(1970)

## 4. 『태재관내지(太宰管内志)』 와 무령왕 탄생전설

같은 에도시대에서도 『태재관내지(太宰管内志)』<sup>10)</sup>에는 『일본서기』의 무령왕 탄생부분을 인용하는 형태로 이 전설이 등장해서 ‘가쿠라시마(各羅嶋)’가 ‘가카라시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태재관내지(太宰管内志)』는 치쿠젠(筑前)의 국학자인 이토 츠네타리(伊藤常足)에 의해 천보(天保) 12년(1841)에 완성되어 후쿠오카번에 헌상한 규슈 전역의 상세한 지지(地誌)이다. 이 책 가운데 ‘가쿠라시마(各羅嶋)’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肥前 5, 松浦郡 各羅島) ‘각라(各羅)’는 ‘加加良(가카라)’라고 읽는다는 스승 후쿠오카영주이며 국학자인 아오야나기(靑柳種信)의 주장에 의하여 마츠우라군(松浦郡) 요부코(呼子)의 앞바다에 있는 가카라시마가 바로 무령왕이 탄생한 섬이라고 한 것이다.

이 책에는 그 밖에 타니가와(谷川)라는 사람이 “가쿠라시마(各羅嶋)를 치쿠젠(筑紫)의 섬(島郡)이라고 보았다”고도 기술되어 있는데, 혹시 이세(伊勢)의 국학자 타니가와(谷川士清)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의 저서 『일본서기통증(日本書紀通證)』<sup>11)</sup>에 의하면 가쿠라시마(各羅嶋)는 『화명초(和名抄)』에 기재된 치쿠젠국(筑前国) 시마군(志摩郡)의 ‘카라시마(韓良志麻)’라는 주석이 있다. 치쿠젠국(筑前国) 시마군(志摩郡)이란 현 후쿠오카현 이토시마(糸島) 반도 부근을 지칭하므로, 그 무렵에는 가쿠라시마(各羅嶋)에 관해 가카라시마 이외의 해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도 중기 무렵에 국학이 유행하고 고전을 연구하게 됨에 따라 『일본서기』의 가쿠라시마(各羅嶋)에 대한 해석이 나온 것일 것이다.

## 5. 근현대의 문헌에 보이는 가카라시마와 무령왕 탄생 전설

메이지 이후에 행정 구역이 새롭게 바뀌어 자치단체사가 편찬되게 되었다. 마츠우라 지방에 대해 쓰여진 『동송포군사(東松浦郡史)』<sup>12)</sup>는 동송포군교육회(東松浦郡教育会)가 당시 가라츠 중학교 교원이었던 마츠시로마츠(松城松太郎)씨를 편찬 주임으로 1915년에 발행되었다. 이것도 역시 『일본서기』의 무령왕탄생 부분을 인용한 후 ‘가쿠라(各羅)’는 현재의 ‘가카라’라고 써서 ‘가쿠라시마(各羅嶋)’를 ‘가카라시마(加唐島)’라고 보았다. 앞서 에도시대의 마츠우라에 관한 고문서에는 무령왕탄생 이야기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 무렵에 이르면 『일본서기』의 기술이 이곳에도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이후 자치단체사와 가카라시마에 대해 쓰여진 문헌에는 무령왕 탄생전설이 언급되게 되었다. 또 이 책에는 하

10) 『太宰管内志 上巻』 文献出版 昭和元年(1899)

11) 小島憲之開題 『日本書紀通證』 臨川書店 昭和53年(1978)

12) 東松浦郡教育会 『東松浦郡史』 大正4年(1915)

기노(荻野由之) 씨가 『대일본통사(大日本通史)』<sup>13)</sup>에 ‘가쿠라시마(各羅嶋)’를 치쿠젠(筑前) 시마군(志摩郡)의 ‘카라라(韓良)’라는 설을 싣고 있으나 이것은 하카타만 쪽의 한 지역으로 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을 부정하고 있다. 하기노씨의 『대일본통사(大日本通史)』는 원문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타니가와씨와 마찬가지로 ‘가쿠라시마(各羅嶋)’를 ‘치쿠젠(筑前) 시마군(志摩郡)’이라고 해석하는 설도 별도로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 후 1962년에 편찬된 『진서정사(鎮西町史)』<sup>14)</sup>에는 가카라시마에 관한 곳에 무령왕탄생전설과 오비야우라의 신공황후전설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 오비야우라는 신공황후의 ‘복대(腹帶) 축하 행사’가 있었던 포구라고 되어 있다. 1952년에 민속학자인 츠보이(坪井洋文) 씨가 약 1개월간 섬에 체재하면서 조사한 내용<sup>15)</sup>에도 산육(産育)의 장소로 오비야우라의 신공황후전설을 언급하고 있어 이 무렵에는 아직 오비야우라가 무령왕탄생 장소라는 설은 없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이 책의 흥미로운 기술은 섬의 전설에 ‘백제인의 집락(集落)’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별도의 주석이 없어서, 어쩌면 무령왕 탄생설에서 말해져 내려온 것을 추측한 내용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뒤에 편찬된 『신판진서정사(新版鎮西町史)』<sup>16)</sup>에있어서는 같은 내용의 기재는 없어 확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해신의 선물(海神の贈物)』을 쓴 타니구찌(谷口健一)씨가 섬을 방문해서 섬의 주민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sup>17)</sup>, 역시 섬에는 백제인의 집락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는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쇼와 이후에 몇 개의 문헌<sup>18)</sup>을 확인했지만 『일본서기』를 인용하는 형태로 무령왕탄생에 관해 언급하는 내용뿐이었다.

2009년에 발행된 『신수 지마정사(新修志摩町史)』<sup>19)</sup>에서는 무령왕의 이름이 묘지에 ‘시마(斯麻)’라고 기록된 것에 주목하고 고대 일본에 있어서 왕의 자녀의 이름이 그 출생지의 지명이나 유모의 성씨에서 유래하는 관습에서 후쿠오카현 이토시마반도의 현 이토시마시(糸島市) 지마정(志摩町) 일대를 지칭하는 지역이 탄생지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타니가와(谷川)와 하기노(荻野由之)에 의한 ‘치쿠젠(筑前) 시마군(志摩郡)의 ‘카라라(韓良)’를 부정하는 이유와는 다르지만, 후쿠오카현 이토시마반도는 가카라시마와 같이 대륙과의 고대 교통의 요충지여서 무령왕 탄생전설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지역인 것 같다.

13) 荻野由之 『大日本通史』

14) 鎮西町史編纂委員会 『鎮西町史』 昭和37年(1962)

15) 坪井洋文 「佐賀県鎮西町加唐島」 『離島生活の研究』 日本民族学会 昭和42年(1967)

16) 鎮西町史編纂委員会 『新版 鎮西町史』 平成19年(2006)

17) 谷口健一 「百濟王誕生秘史」 『海神の贈物』 小学館 平成6年(1994)

18) 鎮西町史編纂委員会 『鎮西町史跡の話』 昭和47年(1972)

福岡県立城南高等学校 郷土研究部 『離島調査加唐島』 昭和42年(1967)

19) 『新修 志摩町史』 編集委員会 『新修 志摩町史』 平成21年(2009)

## 6. 마무리 말

여기까지 무령왕과 가카라시마에 관한 사료, 문헌을 조사하여 무령왕 탄생전설과 그 탄생지에 관한 논의를 조사해 보았지만 전설에 관해서는 『일본서기』를 인용한 2차적인 것 들 뿐으로 가카라시마에 전해져오는 전설을 확인하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한편 ‘가쿠라시마(各羅嶋)’의 해석에 관하여, 사가현 가카라시마라는 설과 후쿠오카현 이토시마 반도라는 설 이 둘 다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토시마 반도를 섬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하는 쪽도 있는 것 같으나 이토시마 반도는 에도시대에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시토(志登) 부근만 육지에 붙어있었던 것으로, 섬처럼 생겼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 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번역: 나정희)

## 백제 무령왕이 태어난 일본의 섬은 어디인가?

우치다 사유리  
시바모토 타쿠미

큐슈국립박물관 자원봉사자

### 1. 들어가기



[사진 1] 2015 년 무령왕제 사진

일본의 가쿠라지마(各羅島)라 하는 작은 섬에서 ‘백제 무령왕이 한반도에서 규슈로 오는 도중 태어났다’라는 전설이 있다. 최근 이 가쿠라지마는 현재 사가현 가카라시마(佐賀県加唐島)로 되어, 무령왕(이하 왕으로 표기)의 탄생전설을 통해, 백제의 옛 도시인 공주시(現)와 교류 및 왕의 탄생제가 행해지고 있다. 이 탄생전설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일본서기’의 기술1

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렇다할만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있다. 이 섬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71년 공주시에서 왕릉이 발견되면서부터이다. 이 때 묘지석이 출토되었는데 기재된 왕의 사망연령과 연대가 ‘일본서기’ 기술의 탄생년과 일치함으로써, 같은 서기제의 ‘치쿠시의 가쿠라지마에서 왕이 탄생했다’ 라는 내용이 주목되게 되었다.

이번에 우리 큐슈 국립 박물관 봉사자 일동은 박물관이 제시한 ‘무령왕 탄생 전설의 가쿠라지마(各羅島)는 가카라시마(加唐島)인가?’ 라는 테마로 조사를 시행했다. 멤버는 평소 박물관의 전시 해설이나 한국에서 오신 분들께 박물관 안내등을 하고있는 일반시민이다. 각각의 고대사 또는 한국에 흥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령왕 탄생전설과 가카라시마라는 이름이나 장소조차 모르는 아마추어들이지만, 지금까지의 학설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발상으로 이 전설의 섬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2.

## (1) 조사 방법에 대해

현재 정설로 되어있는 ‘가쿠라지마는 가카라시마’라는 것은 일단 거리를 두고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조사를 시행했다.

- (A) 일본서기 이외의 각종 문헌과 고대 지도 등으로 가쿠라지마의 명칭의 변천 및 섬의 위치에 대해 확인한다.
- (B) 가쿠라지마 추정 지역까지의 노선을 실제 해상으로부터 관찰하여 상황을 확인해 본다.
- (C) 해상 시야 차이에 관하여 조사한다.
- (D) 추정 지역의 섬에 어떤 전설이 전해져 오는지 조사한다.

이상의 4개의 주된 항목에 관해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A)의 문헌 조사 과정에서 가쿠라지마는 에도시대(1841년)부터 이미 두 곳의 추정지로 인식되어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그 어느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림 1] 두 곳의 카쿠라지마 추정지

이번 보고는 이 두개의 추정지(가카라시마 혹은 이토시마 반도(糸島半島))에 대해 주목하고, 해상으로부터의 현지조사 (B)항과 (C)항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두 개의 추정지와 한반도 및 규슈 본토와의 위치관계는 그림 1에 표시했다.

## (2) 바다로부터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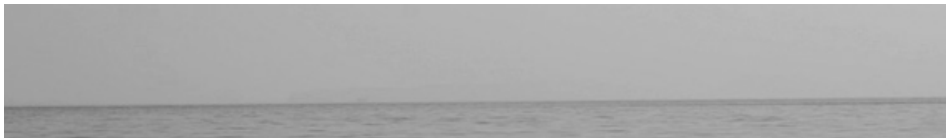
(2-1) 이키섬(壱岐 : 대마도와 규슈사이의 섬)의 항행 루트에서 바라본 가카라시마와 이토시마 반도

2013년 9월 14일, 배를 빌려 이키섬로부터 규슈본토를 바라봤다. 규슈 북부를 겨냥한 루트는 그림2에 나타나 있다. 대마도로부터 이키섬남부까지의 루트는, 대마해류의 영향이 적은 이키섬동쪽으로 생각된다. 이키섬의 출발지 또한 남동쪽으로 고려되며, 그림2의 ①부터 규슈 본토를 겨냥한 각 관찰점의 상황을 이하에 설명한다.



[그림 2] 항해 루트와 관측위치

①에서 바라본 규슈 북부는 사진2에 나타나 있다.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했던 것은, 가카라시마와 마쓰시마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뒤로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이토 반도 또는 규슈 본토의 산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진2] ①에서 바라본 북부규슈

가카라시마와 이키섬의 중간보다는 이키섬쪽의 ②에서 겨우 가카라시마와 마쓰시마의 윤곽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사진3)





[사진3] ②에서 바라본 가카라시마(좌측)와 마쓰시마(우측)

간점의 ③까지 오게 되면 가카라시마, 마쓰시마, 오가와시마도 보였지만, 규슈 본토는 보이지 않는다. 마쓰시마는 작지만 표고 138m로 가카라시마의 123m보다 높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였다. 또한 오가와시마는 표고 61m로 낮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다.(사진 4)



[사진4] ③에서 본 오가와시마, 가카라시마, 마쓰시마

④에서 본 가카라시마 최북단의 가리오 갑 근처를 사진5에 표시했다. 여기까지 남하해도 규슈 본토의 이토시마 반도나 그 바로 앞의 히메시마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오가와시마는 규슈 본토에 다가갈수록 가카라 시마에 가려져 랜드마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가카라시마 북부는 층암절벽으로 상륙이 불가능해 보였다.



[사진5] ④에서 바라본 가카라시마 북부

이상의 결과와 같이 이키섬에서 지면을 보며 항해하는 방법으로 규슈 본토에 향하는 경우 마쓰시마와 가카라시마를 랜드마크로 삼아 남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날씨가 맑고 파도가 잔잔했던 조사 당일의 해상 시야로 생각해보면 맑은날씨라 하더라도 이키섬에서 이토시마 반도로 직접 향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된다. 이토시마 반도에 가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가카라시마와 마쓰시마를 목표로 하여 항해한 이후, 히메시마 혹은 규슈 본토의 해안 연안을 바라보면서 대회전하여 동쪽으로 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당시의 배 속도

인력으로 항해한 배의 속도를 확인해 정리한 것을 표1에 나타냄.

No	선 종	항해 구간	항해 거리 (km)	소요 시간 (h)	속도 (km/h)	비 고
1	카약	대마도 - 부산	52	7.33	7.1	2006 한일 교류 행사
2	노 젓는 배	가카라시마 - 요부코	7	1.0	7.0	伝馬船
3	야생 호	이키 - 요부코	28	8.5	3.3	고대 추정 선박
4	워지 왜인	(쿠야 한국 - 트마국)	(60)	(12)	(5.0)	(魏志倭人伝より)

[표 1] 동력이 인력밖에 없을 때 배의 속도

이로부터 생각해 보면 인력만으로 항해했다고 생각할 때, 당시의 배의 속도는 5km/h 정도로 추정된다. 앞서 말한 바다에서 본 해상 시야와 항해 속도를 같이 생각해 보면, 항해거리가 길며 긴급 피난 장소도 없는 ‘이키섬-이토시마 반도 직행 루트’는 평상시의 맑은 날씨라면 모르겠지만, 출산 당일의 항해로는 택할 수 없는 루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령왕 탄생지는 이토시마 반도가 아닌 가카라시마로 판단하고 이하에 서술한다.

단, 시야를 확인한 것이 하루뿐이므로 관찰일의 시야가 ‘우연이라면?’ 이라는 의문은 남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찰하겠다.

## (2-2) 가카라시마의 지형과 무령왕 탄생 장소에 대하여

일단, 가카라시마 전경을 바라보자. 섬의 북측 풍경은 이미 사진4에서 설명했으므로 동쪽, 서쪽, 남쪽의 순서로 해안의 상황을 확인한다. 사진6는 동쪽의 오가와시마로에서 바라본 가카라시마에서 섬의 동쪽은 대부분 날카로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진6] 동쪽(오가와시마)에서 바라본 카카라시마



[사진7] 서쪽(마다라시마)에서 바라본 카카라시마와 마쓰시마

서쪽의 마다라시마(馬渡島)에서 본 가카라시마는 사진7에 표시했다. 서쪽 또한 동쪽과 마찬가지로 주변은 절벽으로 가카라시마 혹은 마쓰시마는 항해의 랜드마크로서 가능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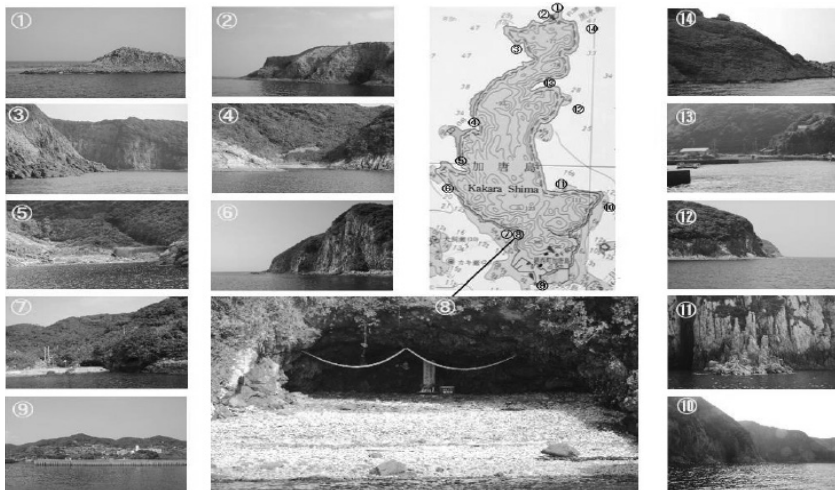
만 상륙할 섬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쪽에서 본 가카라시마는 사진8에 있다. 여기서의 가카라항을 중심으로 거주 구역이 집중되고, 고대의 상황은 알 수가 없었다. 단, 섬에서 제일 살기 좋은 장소에 있는 것은 틀림없으므로, 당시에 주민이 거주했을 가능성은 부정할수 없다.



[사진8] 남쪽에서 바라본 가카라시마

다음으로 가카라시마를 배로 일주하며 조사한 결과를 사진9에 나타낸다.



[사진9] 바다에서 바라본 카카라시마

- (a) 상륙가능한 장소는 섬의 서쪽에서 ④⑤⑧(⑦), 동쪽에서는 ⑬으로 한정된다.
- (b) 서쪽의 동굴에서 상륙가능 혹은 비바람을 버틸 수 있는 장소는 ⑧의 오비야포 동굴밖에 없다.
- (c)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⑬의 오토마리의 시냇물, 또는 ⑧의 오비야포의 용수로, 이 지하수는 옛 주민이 음료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섬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승선하였다면, 가카라시마의 서쪽을 향해해 산모가 산기가 온 시점에서 동굴이나 모래사장이 있는 ⑧ 오비야포에 상륙했을 가능성이 크다.

### (3) 기상과 해상 시야의 확인

#### (3-1) 관측 장소와 보이는 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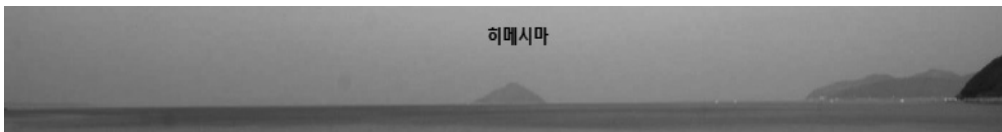
기후와 해상시야를 확인하기 위해, 규슈 본토에서 이키섬이 보이는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장소에서 멀고 가까운 여러 섬들이 보이므로 시야 확보에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그림 3에서는 규슈 본토에서의 관측 장소와 그 곳으로부터 보이는 섬들을 표시했다. 관측장소에서 보이는 상황을 사진 10~12에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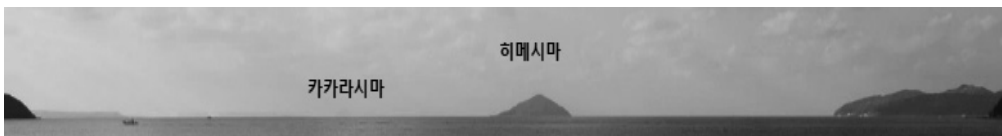
[그림 3] 관측장소와 보이는 섬들



[사진10] 2010년 7월 26일, 맑은날, 이키섬을 포함한 모든 섬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11] 2013년 11월 24일, 맑은날, 히메시마와 가시와지마 밖에 보이지않는다.



[사진12] 2013년 12월7일, 맑은날, 카카라시마는 보였으나 이키섬은 보이지않는다.

(4-2) 관측결과 정리 (표2, 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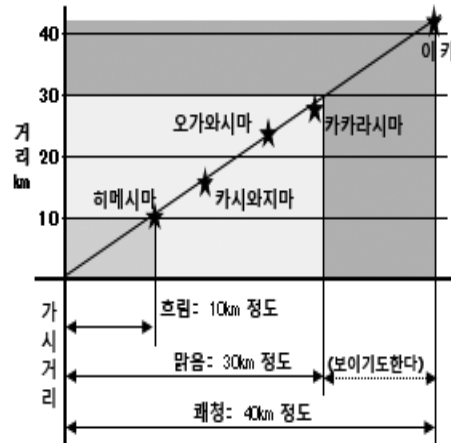
(a) 약 40km앞의 이키섬이 보이는 것은 드물며, 이것은 화창하게 맑은 날이라도 어려웠다.

(b) 맑은 날씨라도 때에 따라선 편차가 있으며, 20km ~ 30km정도까지가 가시거리라고 사료된다.

(c) 눈이나 비 오는 날의 가시거리는약10km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No	관측 일	날씨	가시 거리 (보이는 섬)				
			히메시마 10km	카시와지마 15km	오가와시마 23.5km	카카라시마 28km	이키 41km
1	2010/7/26	쾌청	○	○	○	○	○
2	2011/8/13	맑음	○	○	○	○	△
3	2013/8/1	맑음	○	○	○	○	△
4	2013/12/7	맑음	○	○	○	○	×
5	2013/11/24	맑음	○	○	×	×	×
6	2013/11/9	결구 흐림	○	○	○	○	×
7	2013/9/7	흐림	○	×	×	×	×
8	2013/11/16	흐림	○	×	×	×	×
9	2013/12/1	이슬비	△	×	×	×	×
시인 비율(참고)			94.4%	66.7%	55.6%	55.6%	22.2%

○:보였다 △:희미하게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표 2] 조사결과 -1

[그림 4] 조사결과 -2

따라서 2013년 9월 14일의 맑은 날에 우리가 확인한 시야 반경은 특별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맑은 날의 시야 반경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로 인해 가카라시마 또는 마쓰시마가 랜드마크로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무령왕이 태어난 가쿠라지마는 가카라시마 인 것으로 추정된다.”

항해 중의 산기로 긴급히 가카라시마의 오비야포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별도로 가카라시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탄생전설을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 단, 왕이 이 섬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어디에서 자라났는지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宇治谷 孟, 『全現代語訳日本書紀』, 講談社学術文庫, 1988년6월第一刷發行
2. 큐슈국립박물관게시판 제9호 2013년3월 (九州国立博物館紀要, 第9号 2013年3月)

# 금강 하구 나리포의 역사적 의미

곽 장 근 ■ 군산대학교

## I. 들어가는 글

흔히 고고학에서는 강과 바다를 옛날고속도로라고 부른다. 군산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북쪽에 금강, 남쪽에 동진강, 서쪽에 서해 등 4개의 옛날고속도로를 거느린 교통의 중심지이다. 금남호남정맥의 신무산 뜯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백제의 고도인 공주·부여를 거쳐 군산에서 서해로 흘러든다. 금남정맥의 밤샘과 호남정맥의 까치샘에서 각각 발원하는 만경강과 동진강도 호남평야를 넉넉하게 적셔주고 서해로 들어간다. 금강·만경강·동진강 내륙수로와 해상교통로가 잘 갖춰져 삼국시대까지는 연안항로가 그 이후에는 古群山群島(이하에서 군산도로 통일하여 사용)를 경유하는 횡단항로와 사단항로가 발달했다. 새만금<sup>1)</sup> 속 군산도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물줄기가 바다에서 한데 모이는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줄곧 동북아 해양문물교류의 허브였다.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무대로 한 해양문화와 내륙수로로 통한 내륙문화가 가장 잘 응축된 곳이다. 여태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sup>2)</sup>가 개통되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래에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문헌 및 옛 지도에 접목시켜 금강 하구 나리포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

1) 호남평야의 심장부인 김제·만경평야를 달리 ‘금만평야’라고 부르는 데, ‘새만금’은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이다.

2) 전북 군산시 비응도에서 야미도와 신시도를 거쳐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33.9km로 방조제를 쌓아 갯벌과 바다를 땅으로 전환하는 간척사업을 말한다.

려고 한다.

## II. 제나라 전횡 망명과 중국식 동검

기원전 202년 제나라 田橫<sup>3)</sup>이 새만금 내 군산 어청도로 망명해 왔다.<sup>4)</sup> 그를 모신 사당인 溜東廟<sup>5)</sup>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 있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도 전횡장군사당이 있으며, 해마다 음력 2월 14일 외연도 당제에서 풍어의 신으로 전횡을 제사하고 있다. 외연도 동쪽 녹도에도 전횡을 모신 사당이 있는데, 사당의 주신으로 전용대감(전횡대감)을 모신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비응도에 전횡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구전으로 전횡이 쓰던 칼이 사당에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군산의 潭陽 田氏는 전횡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겨 1926년 溜東廟를 건립하고 그를 배향하고 있다.

초기철기시대 때 전횡의 망명은 역사적인 대사건이다.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 상림리에서 나온 26점의 중국식 도씨검이 교역보다 망명객이나 표류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 반면에 중국식동검과 달리 검신이나 병부의 단면이 편평하고 무게도 차이를 보여 중국에서의 수입품보다 방제품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국식 도씨검은 제나라 전횡이 군산 어청도, 비응도에 도착한 뒤 전북혁신도시 일대로 정착했을 개연성을 뒷받침해 주는 고고학적 증거물이 아닌가 싶다.

진나라 서복의 불로초탐사, 제나라 전횡의 망명, 다음 장에서 설명할 고조선 멸망 이후 준왕의 남천으로 선진문화 및 선진문물이 바닷길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전북혁신도시가 초기철기시대 테크노벨리로 급성장하면서 만경강유역이 새로운 초기철기문화의 거점지역으로 부상한다.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 신평유적을 중심으로 완주 갈동, 전주 여의동·중인동·중화산동·효자동·만성동·원장동·중동·마전유적, 익산 다송리·오룡리·신동리·오금산·평장동유적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우리나라에서 초기철기시대 다양한 유적이 가장 밀집된 곳이 만경강유역이다.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 신평유적에서는 가지기에서 57기, 나지기에서 24기 등 모두 81기

3) 사마천의 『사기』 「전담열전」에 따르면, 전횡은 삼형제가 평민의 신분으로 몸을 일으켜 번갈아서 제나라의 재상을 거쳐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그의 호걸다운 면모는 유방에게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유방이 황제로 등극하여 팽월을 양나라 왕으로 삼자 피살될 것을 두려워한 전횡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 500여 명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 섬에서 살았다. 유방은 전횡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신을 보내어 회유했으나 전횡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사신이 낙양에 당도하기 전에 스스로 칼로 목을 찔러 목숨을 끊는다. 유방이 그 소식을 듣고 의롭게 여겨 섬에 남아 있는 부하들을 데려오도록 했으나 사신으로부터 전횡의 비보를 접한 500여 명 모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4)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에 제나라 사람 田橫을 모신 溜東廟가 있다. 치동묘에 얹힌 전설에 의하면 “제나라 사람 왕담 동생으로 전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횡은 훗날 제나라의 재상에 오른 뒤 왕까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전횡은 한의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이긴 후 천하를 통일하고 초패왕 항우가 자결하자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 두 명의 형제, 측근 및 병사 500여 명을 거느리고 돛단배를 타고 서해로 탈출한지 3개월 만에 어청도에 도착했다고 한다. 전횡 일행이 어청도를 발견한 날은 바다 위에 안개가 약간 끼어 있었는데, 갑자기 푸른 섬 하나가 우뚝 나타나자 전횡을 비롯한 군사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지르며 섬에 상륙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횡은 이 섬의 이름을 푸른섬이라 하여 어청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라고 전해진다.

5) 여기서 치동묘는 제나라 도읍 임치 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사당이라는 뜻이다.



의 토광묘가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이다. 전주와 익산, 완주 등 만경강유역이 당시 테크노벨리로 급성장한 것은, 군산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이래로 잘 구축된 해상교통로와 관련이 깊다. 서해의 해상교통로와 만경강의 내륙수로가 그물조식처럼 잘 갖춰져 선진문물 및 선진문화가 전북혁신도시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말 전북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적석목관묘에서 세형동검과 검파형동기 등 청동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그 개연성을 더욱 높였다.

그리하여 만경강유역에서 조문경이 세문경으로 바뀌었고, 전북혁신도시에서 세문경이 집중적으로 생산됐다. 이외에도 무기류인 세형동검·동과·동모·동촉, 공구류인 동부·동착·동사, 의기류인 간두령이 더 있다. 그렇다면 선진문물을 가진 선진세력이 만경강유역에 정착함에 따라 청동유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유적의 개발도 불가피했을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에서 호남정맥의 마치를 넘어 섬진강 상류 마령분지를 거쳐 금남호남정맥의 신광치를 넘으면 장수 남양리에 도달한다. 초기철기시대 분묘유적인 장수 남양리에서 멀지 않은 진안 대량리 製銅遺蹟<sup>6)</sup>이 청동의 주된 원료인 구리를 공급할 목적으로 전북혁신도시 내 세력집단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전북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일대에 구리를 생산하던 제동유적이 있다. 고려시대 동향소가 설치된 구리고을로 대량리 창말마을 남서쪽 구릉지에 슬래그가 폭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분포 범위가 200m 내외이다. 오래 전 계단식 농경지로 개간된 뒤 다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져 제동유적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400m 가량 떨어진 문필봉 북쪽 기슭 중단부에 구리광산이 폐광된 상태로 남아있다. 그리고 전북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안누룩골마을 남서쪽 산기슭에 구리광산과 동향면 자산리 범바위마을 부근에 제철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지조사 때 유적 및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1989년 전북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농공단지 부근 밭에서 무 저장 구덩이를 파다가 우연히 청동유물과 철기유물이 쏟아졌다. 장수 남양리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5기의 고분은 들판의 강자갈과 모래를 장방형으로 파낸 뒤 그 안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천석을 가지고 조잡하게 벽석을 쌓았다. 무덤의 내부에는 목관 또는 목곽을 안치하고 나무로 천정을 덮고 그 위에 강자갈을 올려놓았다. 전북 진안군 동향면과 장수군 천천면 경계인 열원리재를 넘으면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에서 장수 남양리까지 아주 손쉽게 도달할 수 있다. 최근에 진안고원 일대 지표조사에서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을 중심으로 4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어 대규모 철산지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6) 진안고원 내 전북 진안군 동향면에 속하며, 구리의 고을이라는 동향의 지명처럼 일찍부터 구리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 Ⅲ. 고조선 준왕과 금강 하구 나리포

1986년 금동제 관모와 금동제 신발이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되어 당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익산 입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리포가 있다. 전북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원나포마을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선 숙종 25년(1720) 충남 연기 나리촌에 설치된 관영포구로 경종 2년(1722) 이곳으로 옮겼다. 나리포를 중심으로 대규모 분묘유적과 관방유적, 생산유적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다. 금강 하구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토착세력집단은 해상교통로와 내륙수로로 백제의 중앙과 긴밀한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발전한 해양세력으로 추측된다. 문헌 및 유적, 유물을 중심으로 금강 하구 나리포의 역사적인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준이 왕이라고 일컫다가 연나라에서 도망해 온 위만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겨 좌우궁인을 거느리고 바닷길로 나아가 한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했다. 그 이후 절멸됐으며, 지금도 한인 중에는 아직도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7)</sup> 금강 하구 공주산과 아래산성, 도청산성에 準王의 남천과 관련된 이야기<sup>8)</sup>가 전해진다. 전북 군산시 임피면 소재지 서북쪽 龍泉山에 입지를 둔 용천산성은 동쪽 골짜기를 아우르는 포곡식으로 그 둘레가 800m 이상이다. 이 산성을 준왕이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마한에 54개의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한의 영역이 오늘날 경기 서해안·충남·전북·전남 등에 걸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소국들은 대체로 현재 시·군 단위마다 하나씩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산에는 두 세 개 이상의 마한 소국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소국들은 해양세력이거나 아니면 해상교역을 담당하던 정치집단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마한 분구묘 출토 원통형토기

7) 『후한서』 동이전 한조에는 “조선왕 준은 위만에게 격파되자 나머지 무리 수천인을 거느리고 바다를 거쳐 마한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스스로 한왕이라고 했다. 준왕 이후 절멸됐으며, 마한인이 다시 자립하여 진왕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8) 고조선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땅을 찾았는데, 그때 준왕이 처음 상륙한 곳이 금강 하구 나리포의 공주산이라고 한다. 준왕은 산을 넘어 익산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때 준왕의 딸인 공주가 머물렀던 산을 공주산이라고 불렀고, 준왕이 공주를 데리러 왔다고 하여 공주산 앞쪽 산을 御來山이라고 부른다.

마한의 지배자 혹은 지배층 무덤으로 알려진 마한의 말무덤이 군산과 그 주변지역에 집중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말무덤은 말이 마(馬)의 뜻으로 보고, 말은 머리 혹은 크다 뜻으로 우두머리에게 붙여진 관형사로 파악하여 그 피장자는 마한의 지배층으로 점쳐진다. 흔히 말사슴을 왕사슴, 말매미를 왕매미, 말벌을 왕벌로 부르는 것과 똑같다. 말무덤은 그 자체만으로도 군산의 발전상을 일목요연하게 대변해 주고 동시에 마한의 시대상과 사회상을 전해 주는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다.

군산은 한마디로 말무덤의 왕국이다. 군산대 캠퍼스 내 미룡동 일대에 10여 기의 말무덤이 무리지어 있다.<sup>9)</sup> 월명산에서 남북방향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로 그 남쪽에는 대규모 생활유적이, 서쪽과 남쪽 기슭에 패총이 자리하고 있다. 군산 미룡동 말무덤에 대한 학술발굴에서 그 성격이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졌다. 분구묘는 시신을 모시는 매장주체부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도랑을 두른 형태를 말한다. 하나의 커다란 봉분 안에 그 조성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기의 무덤들이 배치되어 있다.

군산 미룡동 분구묘에서 토광묘와 옹관묘 등의 매장주체부에서 낙랑토기의 속성이 강한 토기류와 철기류가 나왔다. 군산 수송동 축동, 임피면 축산리 분구묘에서도 마한의 최고위층과 관련된 분주토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sup>10)</sup> 이를 통해 밝혀진 군산지역 마한 묘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한마디로 묘제의 다양성과 역동성이다. 더욱이 말무덤의 성격이 마한의 상징적인 묘제인 분구묘로 밝혀져 군산이 또 다른 마한의 중심지였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금강과 만경강 사이에 위치한 군산지역은 달리 패총의 왕국이다. 이제까지 학계에 보고된 600여 개소의 패총 중 130여 개소가 군산지역에 자리한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그 규모가 100m 내외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마한의 말무덤과 함께 군산지역에 기반을 둔 마한세력의 역동성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말무덤 및 패총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군산지역이다.

그렇다면 군산지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하나는 소금 산지와 다른 하나는 소금루트를 통한 교역체계이다. 소금은 인간생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필품이다. 어떤 집단이나 국가의 성장에 있어서 국력 및 부의 요체가 되는 소금 산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군산지역은 소금을 생산하던 제염유적과 관련된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천혜의 교역망을 통해 군산에서 생산된 소금이 소금루트를 통해 각지로 공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에서 철기문화의 전래와 해상교통로의 발달로 갑자기 패총의 규모가 커진다. 고고학에서는 패총을 해양문화의 백미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학계에 보고된 600여 개소의 패총 중 200여 개소가 새만금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흔히 패총이 해양경제를 상

9) 군산지역에는 18개소의 분묘유적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30여 기의 말무덤이 남아있다. 전북 군산시 미룡동을 중심으로 개정면에서 5개소, 서수면·성산면·임피면·회현면에서 2개소, 개사동·개정동·옥구읍·옥산면에 1개소의 말무덤이 있다.

10) 築洞 혹은 築山里는 그 지명 속에 造山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대형 무덤이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징해 준다고 한다면, 말무덤은 해양경제를 토대로 발전했던 마한 소국들의 존재를 말해준다. 선사시대부터 줄곧 군산과 그 주변지역이 소금생산을 기반으로 발전했던 마한 해양세력의 거점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마한의 핵심세력이 해양세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군산에서 해양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금강 하구 나리로포 망명한 준왕의 남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IV. 나오는 글

우리나라에서 강과 바다를 하나로 묶어주는 교역망을 갖춘 곳이 군산, 군산도이다. 금남 호남정맥의 신무산 뜯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백제의 고도 공주·부여를 거쳐 군산에서 바다로 흘러든다. 만경강과 동진강도 호남평야를 넉넉하게 적셔주고 군산 남쪽에서 서해로 들어간다.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물줄기가 군산도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선사시대부터 줄곧 해양 문물교류의 허브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하여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강과 바닷길이 서로 교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해양활동이 왕성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해양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곳으로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원전 202년 제나라 전횡과 기원전 194년 고조선 준왕이 군산으로 망명해 왔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 패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마한의 지배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말무덤이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 말무덤과 패총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군산이다. 군산 미룡동 말무덤은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졌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그 길이가 100m 내외로 우리나라에서 학계에 보고된 패총 중 최대 규모이다. 초기철기 시대 때 전횡의 망명과 준왕의 남천은 군산의 해양문화가 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 하구 나리로포는 군산의 해양문화를 규명하는데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학계의 관심을 당부 드린다.

# 경북 동해안 감은사지 금당터 건축구조와 만파식적 설화

이 병 건 ■ 동원대학교

## I. 머리말

본 글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감은사지 금당터의 건축구조를 통해 만파식적 설화를 재조명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감은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나 끝내지 못하고 사망하여 그의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호국 사찰로 682년에 완공하였다고 한다. 이 절의 금당은 부왕이 죽은 뒤 그 화신인 용이 출입할 수 있도록 금당 밑 지하에 구멍을 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감은사는 이견대와 대왕암이 있는 동해바다에 이르기 직전의 산기슭에 있는데, 높은 축대 위에 거대한 삼층석탑이 금당 앞 좌우에 서 있으며, 그 앞은 동남으로 대종천이 흐른다. 금당터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높은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춧돌 밑에 지하공간을 구성하고, 장대석을 마루식으로 덮은 후, 그 위에 주춧돌과 대석을 놓아 건물을 조영하였다. 즉, 바닥에서 뜬 고상식 건물을 지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건물로는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 좌·우 금당터가 있으나 건물 조영방법에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은사지 금당터와 한반도에 있는 고상식 건물의 특징을 비교 검

토하여, 감은사지 금당터의 건축구조적 차별성을 살펴봄으로써, 만파식적 설화가 허구(Fiction)가 아닌 사실일 개연성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감은사지 유적현황을 검토해 보았고, 제Ⅲ장에서는 금당터와 만파식적 설화의 내용을 맞추어 봄으로써 기록의 신빙성을 추정해 보았다.

## Ⅱ. 감은사지 금당터 유적현황

감은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번지 연대산(蓮台山, 214m) 산기슭에 있다. 전면에 대종천이 흐르며, 가파른 언덕 위에 높게 석축 기단을 쌓은 곳에 위치해 있다. 유적은 대종천과 감포 앞바다에 있는 문무대왕 수증릉인 대왕암과 이견대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당시의 기록<sup>1)</sup>과도 부합되는 호국사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가람배치를 보면 가파른 축대를 올라 중문을 통과하면 좌우에 3층 석탑이 금당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서 있고, 그 뒤로 금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뒤로 강당까지 구비하고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雙塔一金堂式’ 사찰이다. 금당은 탑 중심선에서 15.6m, 중문터 중심선에서 31.4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규모는 정면 동서길이 15.5m, 측면 남북너비 9.0m(139.5㎡.42평)의 규모이다. 측면 : 정면 비율이 1 : 1.72로 동서로 긴 장방형 평면이다. 주춧돌 간격은 정면의 경우는 어칸 및 양 협칸이 3.5m이며, 양쪽 퇴칸이 2.5m이다. 측면의 경우는 어칸이 4.0m이며, 양 협칸이 2.5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유적은 다른 일반적인 접지식(接地式)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 몸체가 바닥에서 떠있는 ‘고상식(高床式)’을 취하고 있다. 지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의 주춧돌을 바닥에서 띄어 놓았다. 또한 미륵사지 금당터와 같이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주춧돌 위에 직접 기둥을 세운 형식이 아니라 장대석으로 그 위를 덮고 그 위에 다시 주춧돌을 놓는 형식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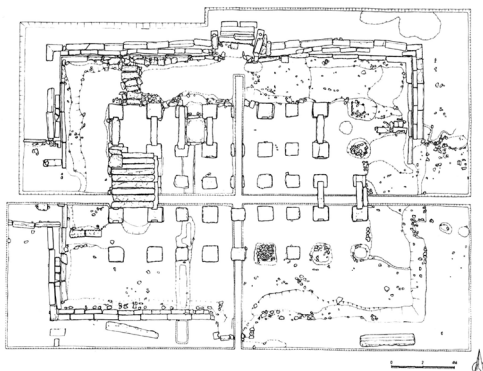
구조방법을 보면<sup>2)</sup> 우선 건물이 들어설 기단부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깎아 내어 기단을 높게 구성한 다음 황갈색의 자갈이 섞인 흙을 달구질하여 단단히 쌓아올렸다. 주춧돌이 놓일 자리에 거칠게 다듬은 90×90cm, 두께 45cm의 하대석을 놓고, 하대석 아래에서 18cm 정도를 산 흙으로 다져 덮었다. 즉, 지면을 먼저 마련하고 지면을 파내고 기초를 다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을 취하였다. 하대석 위에는 하대석과 비슷한 크기의 다듬은 상대석을 올려놓

1) 『三國遺事』卷第二 萬波息笛條.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21年條.

2) 감은사 금당은 지하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많은 석재들이 이용되었다. 석재를 이용해 목구조 형식으로 건물을 꾸미다 보니 부재를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또 이에 따른 혼돈이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구조에 대한 부재 이름을 따로 부여하고자 한다. 지하공간 구조는 우선 동일한 규모와 형태의 정방형 대석 2개를 지면 위에 쌓은 후 그 위에 한옥 나무마루 구조로 치자면 장귀틀, 동귀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길이 1.7m 안팎의 장대석을 종 방향으로 대석 홈에 끼웠다. 각 부재를 설명하는데 있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아래에 있는 대석을 하대석, 하대석 위에 있는 대석을 상대석이라 하고, 상대석 윗면 홈에 끼워지는 장대석을 귀틀석이라 하고, 귀틀석 위에 마루널처럼 횡 방향으로 덮여지는 장대석을 청판석이라 명명하기로 한다.(Key Word: 下臺石, 上臺石, 귀틀石, 廳板石)

았다. 상대석 윗면에는 위치에 따라 길이 10~15cm, 너비 35~40cm, 깊이 22cm 크기의 ‘ㄷ’자형 홈이 있다. 또한 정면 중심부 3칸, 측면 중심부 1칸에는 보조대석(80×80×42cm)을 놓되 그 높이는 ‘ㄷ’자형 홈의 바닥 높이에 맞추어 귀틀석 걸치는 높이와 같게 했다. 그 사이를 길이 1.7m 내외의 귀틀석을 남북으로 상대석 홈에 걸쳐 끼우고, 보조대석의 경우는 귀틀석을 그 위에 그냥 걸쳐놓았다. 그 위 청판석을 동서로 8개씩 23줄을 마루 널처럼 깔아 덮는 것으로 건물 몸체의 기단부분을 완성하고 상대석 위에만 주춧돌3)을 동서로 6개씩 4줄 놓았다.

한편 석조유구 가장자리 사면(四面)에는 너비 20cm, 높이 35cm안팎, 길이 1.2m안팎의 다듬지 않은 판상석을 세워서 막고, 판상석과 건물기단 사이는 흙으로 채웠다. 이렇게 하여 60cm 정도 높이의 완전한 지하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동 측면 북쪽 협칸과 바닥에는 지하공간에서 기단으로 향하는 너비 40~50cm, 길이 약 2m 크기의 판석이 깔려 있다. 바닥 유구 윗면은 기단 지대석 윗면과 같은 높이이다. 판석 양 측면에는 벽석을 세우고 개석을 덮어 기단 면석과 같은 높이의 지하통로를 만들어 면석에 닿도록 하고 그 위에 기단 갑석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삼국유사 기록의 ‘龍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sup>4)</sup> 건축적 목적은 밀폐된 지하 공간을 환기시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sup>5)</sup>



[그림 1] 감은사지 금당터 유적 현황도(자료: 『感恩寺發掘調査報告書』, 85쪽)

3) 금당터에서 원래 위치에 남아 있었던 주춧돌은 서측 외전의 남쪽에서 3번째에 있는 1개뿐이었다고 한다. 주춧돌은 응회암으로 만든 방형 주춧돌이며, 원형주좌를 다듬고 그 양쪽으로는 고막이도 함께 다듬었다. 고막이 한쪽에는 신방석도 다듬었는데, 고막이를 연장하여 이와 직각으로 교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주춧돌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개 1변 길이 75~78cm, 운두 약 28cm의 방형 주춧돌로 윗면에 지름 45cm, 높이 6cm의 원형주좌가 새겨져 있다.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感恩寺發掘調査報告書』, 1997, 96쪽.

4) 『三國遺事』卷第二 紀異 第二 「萬波息笛」: 李民樹譯, 『三國遺事』, 乙酉文化社, 1990, 118쪽. 제 31대 神文大王의 이름은 政明, 성은 金氏이다. 開耀 元年 辛巳(681년) 7월 7일에 즉위했다. 아버지 文武大王을 위하여 동해 변에 感恩寺를 창건했다.(절 안에 있는 기록에는 이렇게 말했다.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이 절을 처음 창건했는데 끝내지 못하고 崩하여 바다의 龍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開耀 二年(682년)에 공사를 끝냈다. 금당 뜰 아래에 동쪽을 향해서 구멍(穴)을 하나 뚫어 두었으니 용이 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개 유언으로 유골을 간직해둔 곳은 大王岩이고 절 이름은 感恩寺이다. 뒤에 용이 나타난 것을 본 곳을 利見臺라고 했다): 『KBS 역사스페셜』, 1999년 1월 30일 방송내용 참조.

5)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感恩寺發掘調査報告書』, 1997, 89~90쪽.

기단부는 남북국시대 신라지역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구식(架構式)으로 턱이 있는 지대석 위에 면석을 세우고 그 위에 부연이 있는 갑석을 얹어 꾸몄다. 지대석 바깥으로는 판석을 깔고 외곽에 장대석을 돌려 마감한 이중기단이다. 이러한 이중기단은 백제지역 건물터에서 보이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당시의 유적 중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한다.<sup>6)</sup>

기단을 마감하고 건물 네 변 중앙에는 각각 소맷돌, 지대석, 면석, 갑석을 갖춘 신라 고식 수법의 돌계단을 설치하였다.<sup>7)</sup>

이 건물의 평면형식은 외진주열 1점을 제외하고 모든 주춧돌이 결실되었으므로 주춧돌 밑에 놓여 있던 ‘ㄷ’자형 홈이 파인 상대석으로 기둥 배치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 상대석에 의하면 금당 외진은 5칸×3칸이고, 내진은 3칸×1칸의 평면으로 외진주 열과 내진주 열 사이에는 1칸의 공간이 생긴다. 정면의 양쪽 퇴칸과 측면의 양쪽 협칸 크기가 같아서 네 모서리에 위치한 칸은 정방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붕은 자연히 우진각이나 팔작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특히 이러한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은 외진주 열에서 기단까지의 너비가 전후좌우를 막론하고 모두 같다는 것이다. 또한 주춧돌 중심에서 기단까지 떨어진 거리를 살펴보면 상층기단까지는 3.5m이고, 하층기단까지는 4.1m로 퇴칸의 주간 거리인 2.5m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 처마의 실제 길이는 최소한 상층기단 너비보다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긴 처마를 둘 수 있는 구조는 출목을 둔 포작으로서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공포는 하양식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9)</sup>

지금까지 감은사지 금당터의 평면형식 및 구조형식을 살펴본 결과 일정 높이만큼 들어 올린 고상식 건물이라는 점과 미륵사지 금당처럼 주춧돌 위에 직접 기둥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지하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하대석과 상대석을 놓고, 남북방향으로 귀틀석을 건너지른 후 그 위를 빈틈없이 횡 방향인 동서로 청판석을 마루 널 깔 듯 했다는 점이 특이함을 알 수 있다.

### Ⅲ. 감은사지 금당터의 구조와 만파식적 내용

감은사지는 경상북도 동해안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있는 연대산 산기슭에 있다. 전면에 대종천이란 냇가 흐르고 있지만 절 전체가 낮은 평지가 아닌 높은 축대 위에 구축되어 있어 물이 금당 주변으로 유입되거나 습기에 의해 건물이 상할 염려는 전혀 없는 위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당 기단 아래에는 높이 60cm 정도의 지하공간을 구비하였고, 그 위에 돌

6) 이중기단의 예로는 부여 부소산성내 백제시대 건물지와 평양 고구려시대 청암리사지가 있다고 하나 이러한 이중기단의 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특수한 경우라 한다. 金載元·尹武炳, 『感恩寺址發掘調査報告書』, 國立博物館, 1961, 82쪽.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感恩寺發掘調査報告書』, 1997, 90쪽.

7)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感恩寺發掘調査報告書』, 1997, 92쪽.

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感恩寺發掘調査報告書』, 1997, 221쪽.

9)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感恩寺發掘調査報告書』, 1997, 221쪽.



로 마루 대석을 깔고 그 위에 주춧돌을 놓아 가구식 건물을 조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와 비슷한 예로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금당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미륵사지 금당터는 주춧돌이 지면에서 약 1m 정도 되는 높은주춧돌 위에 직접 기둥을 세운 가구식 구조였다. 상, 중, 하대석으로 완벽하게 지하공간을 구성하고 여기에 다시 주춧돌부터 새로 놓은 감은사 경우와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또한 미륵사지 일대는 당시 습지였음을 알 수 있다. 『三國遺事』武王條에 미륵사는 연못을 메워 세 개의 금당을 세웠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10) 즉, 사찰 일대가 습지였기 때문에 금당과 같이 바닥에서 건물 몸체를 띄운 고상식 건물을 세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은사 금당은 왜 그리 높은 곳에 고상식 건물 형식을 취했을까?

이는 만파식적 설화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인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고자 절을 창건하고 완성을 못보고 사망하자 바다의 용이 되었다고 믿었던 그의 아들 신문왕은 아버지의 유혼을 받들어 왜적에 대한 대항 의식과 함께 아버지를 효로 모시고자 하는 의도로 감은사를 완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용이 된 아버지의 휴식 공간을 건물 지하에 설정함으로써, 왜적 퇴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효를 표방하여 그의 정치적 역량을 굳건하게 하는 의도로 감은사 금당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물론 인간도 아닌 용이 그 지하공간에 들어와 쉼다고 하는 설화적인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 의지만큼은 명확하게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감은사지 금당터 전경

10) 『三國遺事』武王條: 李民樹 譯, 『三國遺事』, 乙酉文化社, 1990, 157쪽. 어느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獅子寺에 가려고 龍華山 밑 큰 못 가에 이르니 彌勒三尊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했다. 부인이 왕에게 말한다. “모름지기 여기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곧 知命法師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으니 신비스러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헐어 못을 메워 평지로 만들었다. 여기에 彌勒三尊의 像을 만들고 會殿과 塔과 廊廡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彌勒寺라 했다.



## IV. 맺음말

본 글은 감은사지 금당터에서 보이는 고상식 건물 형식을 해석함에 있어 삼국유사에 있는 기록이 과연 가능한 내용일까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진행되었다. 감은사는 지어진 위치로 보아 물에 의한 침습이나 습기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아래에 60cm 높이의 지하 공간을 구성한 것은 당시 외적을 물리치고자 했던 강력한 호국정신과 더불어 신문왕의 아버지인 문무왕을 효로 받들고자 했던 의도가 결들여져 만파식적 설화가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삼국유사』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감은사지 금당터는 한반도지역에서는 매우 특이한 구조의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내포지역 백제부흥전쟁 연구

김 학 로 ■ 백제부흥전쟁기념사업회

### 1. 머리말

나당연합군의 백제침공은 단기적으로 사비나 웅진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백제의 다른 지역 대부분은 나당연합군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백제의 수도와 백제의 중앙권력이 나당연합군의 침략에 패하여 항복한 것뿐이다. 따라서 백제의 패망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당과 신라에 항복한 세력이나 지방권력이 상당수 존재하였고, 그들은 그 댓가로 지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부류의 세력이나 지방권력 중에는 백제부흥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백제부흥군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부흥전쟁을 전개하여 한 때 사비성을 포위하여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왜국(倭國)에 있던 부여풍(夫餘豐)을 귀국시켜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러한 백제부흥군의 활약은 백제 전역에서 전개되었지만, 임존성(任存城) 등 내포(內浦)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부흥전쟁이 가장 뚜렷하다. 백제부흥전쟁과 관련하여 내포지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내포지역이 갖는 특별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포지역은 백제시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지역이었다. 백제가 남양만 일대를 고구려와 신라에 빼앗긴 이후에는 국경을 접한 최전선이 되었고, 지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 고구려(對 高句麗), 대 당(對 唐) 교류를 위한 전진기지로 역할을 담당한 지역이었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크게 패망한 이후 백제부흥군이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내포지역이 그 북판에 있었다. 백제부흥군이 최후의 저항을 한 임존성이 지금의 대흥 봉수 산이었음은 학계에서는 정설이다. 그리고 임존성과 관련한 각종 기록이나 정황으로 보아 백제부흥군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주류성(周留城), 피성(避城), 백강(白江)전투지 등이 임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위치도 임존성과 인접한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에 입각하여 백제부흥전쟁과 관련한 일련의 사실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 2. 백제부흥전쟁(百濟復興戰爭)의 전개와 양상

백제패망 이후 당의 가혹한 통치는 곧바로 백제유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신당서』 「흑치상지열전」에는 흑치상지(黑齒常之)가 부흥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다. 흑치상지는 처음에 백제의 패망과 함께 항복하였는데 백제가 패망한 후 나당연합군의 횡포에 분노하여 뜻을 함께하는 주변의 여러 장수들과 함께 임존성에서 백제부흥전쟁을 시작하였다. 흑치상지가 백제부흥전쟁을 시작하자 “10여일 만에 3만명이 모였고, 소정방이 군대를 보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에 흑치상지는 2백여 성을 되찾았다.”<sup>1)</sup> 이렇게 흑치상지의 경우에서 보듯이 백제가 패망하였지만 백제의 유민들은 백제의 패망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패망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즉각 부흥 전쟁을 시작하였다.

복신의 경우도 백제가 패망하자 곧바로 부흥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이에 관한 『일본서기』 기록에 의하면 “백제가 패망하자 복신이 매우 화가 나서 임사기산(任射岐山)에 웅거하고..... 진을 치고 흠어진 군졸을 불러 모아 신라군을 물리쳤다. 무기가 전의 싸움에서 다 없어졌으므로 막대기를 들고 싸워 신라군을 물리쳤다. 백제군이 그 무기를 빼앗았으므로 얼마 후 백제 군사들이 다시 날째져, 이후 당(唐)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였다.”<sup>2)</sup>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복신의 경우도 백제부흥군을 조직하고 참여하게 된 것은 백제의 패망을 보고 분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저항하는 수준에서 시작되었다가 점차 백제부흥군의 중심위치에서 부흥군을 이끌고 실질적 지도자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백제부흥군의 활동은 한때 사비성에 주둔하고 있던 나당연합군을 포위 공격할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후 661년 3월이 되어서야 당의 유인궐이 이끄는 구원병의 참전으로 사비성을 포위하고 있던 백제부흥군은 전투에

1) 『新唐書』卷一百一十 列傳 第三十五

黑齒常之, 百濟西部人. 蘇定方平百濟, 常之以所部降. 而定方囚老王, 縱兵大掠, 常之懼, 與左右酋長十餘人遁去, 嘯合逋亡, 依任存山自固, 不旬日, 歸者三萬. 定方勒兵攻之, 不克, 常之遂復二百餘城. 龍朔中, 高宗遣使招諭, 乃詣劉仁軌降. 累遷左領軍員外將軍. 洋州刺史.

2) 『日本書紀』권 26 天豐財重日足姬天皇 齊明天皇 六年秋九月

서 크게 패하여 사비성 포위를 풀고 임존성으로 퇴각하였다. 이것으로 백제부흥군의 기세는 한풀 꺾이고 백제부흥전쟁은 급격하게 기울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661년 9월 25일을 전후하여 “25일에 군사들이 나아가 웅산성(甕山城)을 포위하였다”<sup>3)</sup>하였고, “27일에 이르러 먼저 큰 목책(大柵)을 불태우고 수천 명을 잡아 목베어 죽여 마침내 항복을 받았다”<sup>4)</sup>고 하였다.

이렇게 나당연합군의 파상적인 공격에 백제부흥군은 일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백제부흥군이 취한 방법은 고구려와 왜국에 군사를 청하여 대항하는 것이었다. 660년 10월에 복신은 부여풍을 왕으로 모셔 오는 것과 함께 왜국에 구원을 요청하였다.<sup>5)</sup> 661년 9월에 비로소 왜국에 있던 부여풍은 군사 5천여 명을 거느리고 본국에 도착하였는데 “이에 풍장(豐璋)이 백제에 들어갈 때 복신이 맞이하러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라의 정사를 모두 맡겼다”<sup>6)</sup>고 『일본서기』는 전하고 있다. 이것으로 백제부흥군은 나라의 체계를 세우고 왜국의 지원을 끌어내 나당연합군에 맞서 싸울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백제부흥군의 새로운 수장이 된 풍왕은 나당연합군이 대대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주류성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제를 도우러 온 왜군과 연합하기 위해 백강으로 가 주둔하고 왜군을 맞이하게 된다. 백제부흥군의 입장에서는 왜국의 도움으로 백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을 것이다. 『일본서기』에는 풍왕이 1만여명의 왜군을 맞은 곳을 백촌강(白村江)이라고 하였는데<sup>7)</sup> 이는 중국 측 사서에서 말하는 백강과 같은 곳을 이르는 지명이다.

백강전투는 663년 8월 벌어진 동아시아 최초의 해상 국제전이었다. 나당연합군 대 백제-왜연합군의 국제해전은 나당연합군의 압승으로 끝났다. 『일본서기』에는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무술(戊戌) 적의 장수가 주유(州柔)에 이르러 그 왕성(王城)을 에워쌌다. 당의 군장(軍將)이 전선(戰船) 170척을 거느리고 백촌강(白村江)에 늘어섰다”<sup>8)</sup>고 하여 당의 유인계가 이끄는 당 수군의 모습을 소상히 그리고 있다. “처음 도착한 배들이 당의 수군과 만나 싸웠는데, 당은 굳게 진을 치고 지키기만 해 왜군이 불리하여 물러났다”<sup>9)</sup>고 하여 백제-왜연합군에 불리한 전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제-왜연합군은 장수들이 백제왕(白濟王)과 더불어 날씨를 살피지 않고 서로 “우리들이 선두를 다투어 싸운다면 그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sup>10)</sup>고 하면서 수적 우세만을 믿고 싸우다 참패하였다.

3) 『三國史記』卷第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文武王)一年秋九月二十五日

4) 『三國史記』卷第六 新羅本紀 第六 文武王(文武王)一年秋九月二十七日

5) 『日本書紀』 권 26 天豐財重日足姬天皇 齊明天皇6년 겨울 10월

6) 『日本書紀』 권 27 天命開別天皇 天智天皇7년 가을9월

7) 『日本書紀』 권 27 天命開別天皇 天智天皇 2년 가을 8월

8) 『日本書紀』 권 27 天命開別天皇 天智天皇 2년 가을 8월

9) 『日本書紀』 권 27 天命開別天皇 天智天皇 2년 가을 8월

10) 『日本書紀』 권 27 天命開別天皇 天智天皇 2년 가을 8월

### 3. 내포(內浦)지역과 백제부흥(百濟復興) 전쟁

지금까지 살펴본 백제부흥전쟁(百濟復興戰爭)은 오늘날 내포지역과 관련이 깊다. 내포 지역은 전체가 백제부흥 전쟁의 한복판에서 백제부흥군(百濟復興軍)의 주요 활동근거지이자 전쟁터였다. 백제부흥군의 주역이었던 복신(福信)과 흑치상지(黑齒常之)는 지금의 내포(內浦)지역에 해당하는 백제 서부 출신으로 내포지역에서 백제부흥전쟁을 이끈 인물들이다. 백제부흥군의 활동과 백제부흥전쟁의 전개과정에서도 오늘날 내포지역과 관련한 기록들은 상당수 존재한다.

흑치상지에 대한 『구당서』의 기록에 의하면, 흑치상지는 오늘날 내포지역에 해당하는 백제 서부인(百濟西部人)으로 임존성(任存城)에 의지하여 백제부흥전쟁을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1)</sup> 임존성은 예산 대흥면 봉수산에 위치한 산성으로 보고 있다. 복신에 대한 『일본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서부 은솔 귀실복신(西部 恩率 鬼室福信)이 임사기산(任射岐山)에서 웅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2)</sup> 『삼국사기』나 중국 측 기록에는 복신이 무왕(武王)의 조카로 왕족이었다고 기록하였다. 이렇게 복신이 임사기산에서 거병하자 백제 서부(西部)와 북부(北部)가 모두 성(城)을 뒤집고 여기에 호응하였다고 하였다.<sup>13)</sup> 여기서 임사기산은 임존산(任存山)으로 오늘날 대흥 봉수산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복신이 흑치상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내포지방인 백제 서부출신이었다는 사실과 대흥 봉수산에 해당하는 임사기산에서 웅거하여 부흥전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백강구의 위치 비정에 관한 문제이다. 『구당서』 등 중국 측 사서에는 660년 상황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금강을 일컬어 웅진강이라 하였다. 심지어 소정방이 바다를 건너 도착한 금강하구 해변을 웅진강 입구에 이르렀다고 분명히 하였다.<sup>14)</sup> 그런데 663년 왜의 지원군과 싸운 전투지에 대해서 백강구에서 싸웠다고 기록하였다.<sup>15)</sup> 이는 웅진강에서 출발하여 백강으로 가는 도중 백강입구에서 왜군을 만나 전투를 벌였다는 뜻이다. 중국의 모든 사서에서 오늘날 금강을 일컬어 웅진강이라 하고 웅진강과 백강을 구분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 측 사서의 기록은 신뢰할 만한 것이다.

『일본서기』에서는 백촌강구(白村江口)라 하였지만 백강구와 같은 곳을 이르는 말이다. 백강구 전투에 참여한 삼국의 사서에 공통으로 백강구 전투, 백촌강 전투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웅진강을 출발하여 백강에 이르렀다는 말은 오늘날 금강인 웅진강을 출발해서 백강이라는 다른 강에 도달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웅진강구와 백강구는 명확히 다른 곳을

11) 『新唐書』卷一百一十 列傳 第三十五 諸夷

黑齒常之, 百濟西部人. 蘇定方平百濟, 常之以所部降. 而定方囚老王, 縱兵大掠, 常之懼, 與左右酋長十餘人遁去, 嘯合遺亡, 依任存山自固, 不旬日, 歸者三萬. 定方勒兵攻之, 不克, 常之遂復二百餘城.

12) 『日本書紀』권 26 天豐財重日足姬天皇 齊明天皇 6년 가을 9월

13) 『舊唐書』東夷列傳 百濟

14) 『舊唐書』卷八十三 列傳 第三十三, 蘇定方,

“定方自城山濟海, 至熊津江口, 賊屯兵據江. 定方升東岸, 乘山而陣, 與之大戰”

15) 『舊唐書』東夷列傳 百濟

이르는 지명이고 백강구 전투가 벌어진 곳은 오늘날 금강하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진 국제해전이었음이 분명하다.

백제부흥군이 나당연합군에 대항하여 마지막까지 저항하였던 임존성, 주류성, 피성, 백강구 전투지는 임존성을 중심으로 하는 긴 전선이였다. 사비성의 서북부에 위치한 내포지역은 금북정맥으로 가로막혀 있어 신라로부터 멀고 안전하였다. 또한 배후에 바다가 있어 당으로부터 안전하였고, 고구려나 왜와 통할 수 있었으니 백제부흥군의 근거지로는 적합하였다. 백제부흥군은 전선을 여러 곳에 펼칠 정도로 강력하지 못해서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구심이었던 임존성과 왕성으로 구심 역할을 한 주류성이 서로 기각지세를 이루면서 백강을 통해 삼아 고구려나 왜와 교류하기 위해 바다로 진출입하였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백제부흥군 활동의 중심지인 임존성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주류성과 피성, 백강구의 위치를 찾을 수는 없다. 백제부흥군의 활동은 임존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백제부흥군의 활동 근거지가 임존성의 존재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임존성의 위치 비정은 대흥 봉수산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류성과 피성, 백강구 전투지가 임존성이 위치한 내포지역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절대적이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 4. 맺음말

백제부흥군이 나당연합군에 대항하여 마지막까지 저항하였던 임존성, 주류성, 피성, 백강구 전투지는 임존성을 중심으로 하는 긴 전선이였다. 사비성의 서북부에 위치한 내포지역은 금북정맥으로 가로막혀 있어 신라로부터 멀고 안전하였다. 또한 배후에 바다가 있어 당으로부터 안전하였고, 고구려나 왜와 통할 수 있었으니 백제부흥군의 근거지로는 최적지라 할 수 있다. 백제부흥군은 전선을 여러 곳에 펼칠 정도로 강력하지 못해서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구심이었던 임존성과 왕성으로 구심 역할을 한 주류성이 기각지세를 이루며, 백강을 통해 고구려, 왜와 바다로 진출입하며 교류하였다.

따라서 백제부흥군 활동의 중심지인 임존성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주류성과 피성, 백강구의 위치를 찾을 수는 없다. 백제부흥군의 활동은 임존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류성과 피성, 백강구 전투지가 내포지역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절대적이란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 백제부흥전쟁과 관련한 임존성, 주류성, 피성, 백강구 전투지는 내포지역에서 벌어진 백제부흥군의 역사적 흔적이다. 백제부흥군의 투쟁의 결과가 비록 백제 복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하였지만, 백제부흥군이 보여준 투쟁 의지와 저항 정신은 위대하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포 사람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백제부흥군의 역사와 유적지는 내포 전 지역에 걸친 것으로 작은 지역에 국한하여 경쟁하고 제한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백제부흥군의 활동을 계승하고 보전하는 문제는 내포지역이라는 공통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기반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왕건의 고려 건국과 해양세력

강 봉 룡 ■ 목포대학교 사학과

### 1. 해양강국 고려의 건국

왕건은 예성강유역에서 성장한 해상세력의 후예로서, 896년에 부친 용건과 함께 철원에서 대호족으로 성장한 궁예의 휘하에 들어갔다. 궁예가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우자 왕건은 경기·충청지역에 대한 공략에 나서 전공을 세우더니, 912년경에는 서남해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일약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떠올랐다. 서남해지역의 장악에 대하여 『고려사』에서 “삼한의 태반을 차지한 것”이라 평가할 정도로 서남해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지대한 것이었으니, 그것은 곧 장보고의 유산에서 연원하는 바였다.

왕건은 서남해지역을 자신의 주군이었던 궁예에게 바치지 않고 자신의 사적 세력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918년에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였고, 936년에는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는 최후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는 결국 왕건이 서남해지역에 남겨진 장보고의 유산을 장악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왕건은 장보고의 계승자라 할 수 있다.



## 2. 배경1 : 왕건(王建)의 뿌리는 해양세력

왕건이 서남해지역을 장악한 첫 번째 배경으로 그 자신이 해양세력의 후예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왕건의 선대(先代)에 대한 기록은 예종대(1146~1170)에 김관의(金寬毅)가 저술한 『편년통록』에 소개된 설화적인 기록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사』에 실려 전해지고 있는 이 기록은 왕건 가문의 태생적 기반과 성격을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록에 정리된 왕건 선대의 계보는 「호경(虎景)-강충(康忠)-보육(寶育)-진의(辰義)-작제건(作帝建)-용건(龍建)-왕건(王建)」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계보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보육이 그의 친형인 이제건(伊帝建)의 딸 덕주(德周)와 결혼하여 진의를 둘째 딸로 생산했다는 대목이다. 여기서 보육이 친조카인 덕주와 근친결혼 했다는 점, 6대에 걸친 왕건 선대의 계보 중에 진의라는 인물이 부계(父系)가 아닌 모계(母系)로서 끼어있다는 점이 다소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근친결혼과 모계적 계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관행으로서 결코 황당한 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자료의 신빙성을 해치는 요소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기록의 내용이 황당한 설화적 픽션의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호경이 평나산의 호랑이로 화한 여성 산신과 결혼했다거나 작제건이 서해 용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화적 이야기는 전근대사회에서 왕실을 신성화하려는 의도에서 흔히 쓰던 서술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상한 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고려 왕실은 용종설(龍種說)을 표방하여 스스로 용의 자손임을 자부하여 왕실 신성화를 내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왕건 선대 계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이전에 그 계보의 설화 속에 내포되어 있는 왕건 가문의 태생적 성격을 찾아보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호경은 백두산에서 편력하다가 개성지역 부소산(扶蘇山) 좌곡(左谷)의 부잣집에 장가들면서 이곳에 정착했다고 한다. 개성지역은 예성강과 임진강과 한강의 세 큰 강이 합류하는 지점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해양세력과 인연을 맺기에 적합한 지점이다. 여기에서 강충은 서강(西江) 영안촌(永安村)의 부잣집 딸인 구치의(具置義)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한다. 서강이란 예성강을 말하고, 영안촌이란 예성강 하구의 동안(東岸)에 위치한 개풍군 남포리 일대로 비정되는 곳이다. 그렇다면 호경과 강충은 부유한 처가의 덕에 힘입어 개성에서 예성강 하구에 이르는 지역에 세력을 확대해갔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엔 남자가 여자의 집에 장가가는 이른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선호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한편 보육의 딸 진의는 당나라의 숙종 황제라는 인물과 동침하여 임신하고, 숙종 황제라 칭한 인물은 활과 화살을 신표로 남기고 떠나버렸다고 한다. 진의는 왕건의 조부(祖父)인 작제건을 낳았으니, 전하는 바대로라면 왕건의 선대는 곧 당나라 숙종 황제의 자손인 셈이 된다. 그러나 이 대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마도 숙종 황제라는 인물은 당나라에서 건너온

대상인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가 스스로 숙종 황제임을 거짓 칭했거나, 계보 작성자가 조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육의 집은 이미 당나라 상인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행하면서 유력한 해상세력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보육의 딸 진의가 이국인과 관계를 맺은 것은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해양세력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역시 이상하게 여길 것은 아니다.

진의와 이국인 대상인 사이에서 태어난 작제건은 16세 성인의 나이가 되자 어머니 진의로부터 아버지가 남긴 신표인 활과 화살을 전해 받고 상선에 편승하여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고 한다. 그런데 작제건이 바다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흥미로운 설화의 형식으로 펼쳐진다. 그 내용은 내략 이러하다.

작제건은 서해상에서 상선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는 서해의 용으로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교활한 늑은 여우를 활로 쏘아 제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버지가 남긴 활로 늑은 여우를 사살한다. 이 공로로 작제건은 서해의 용궁에 초청받아 들어가 용의 장녀인 저민의(虯旻義)와 결혼하고 칠보(七寶)와 돼지를 얻어 칠선(漆船)에 싣고 돌아온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개(開), 정(貞), 염(鹽), 백(白)의 4주(州)와 강화(江華), 교동(喬洞), 하음(河陰)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영안성(永安城)을 쌓고 궁실을 지어준다. 그리고 돼지가 인도하는 바에 따라서 송악의 남쪽에 저택을 짓고, 영안성과 저택을 왕래하면서 살아간다.

이 이야기는 작제건의 해상무역의 성공담을 설화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이에 반영된 사실성을 도출하여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작제건은 당의 대상인인 아버지를 찾아나서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서해용으로 상징되는 유력한 상인의 딸과 결혼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칠보라 불리던 금·은·유리·차·거·마·노·호·박·산·호 등을 매입해 돌아와서, 개주(개성), 정주(풍덕), 염주(연안), 백주(백천)와 강화도 등지에 포진해 있던 연안 및 도서 해양세력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작제건의 아들이 용건이다. 용건은 그의 모친이 용녀(서해용의 딸 저민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용건은 꿈속에서 본 여인을 현실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그녀를 몽부인(夢夫人)이라 칭하였다 한다.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니, 그 역시 이국 상인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용건 역시 그의 할머니 진의와 아버지 작제건과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을 한 셈이 된다.

대를 이어 유력한 해양세력으로 성장한 용건은 큰 꿈을 품기 시작하였다. 먼저 그는 당시 풍수지리계의 전설적인 대가였던 도선(道詵)이 삼한을 통일할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집터에 저택을 짓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제왕이 될 인물임을 뜻하는 ‘왕건’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896년에 아들 왕건과 함께 철원을 중심으로 하여 대호족으로 성장한 궁예의 휘하에 들어가 후일을 도모하였다.

왕건은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자 경기·충청지역에 대한 공략에 나서 전공을 세

우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곧이어 서해안 해양세력과의 연대를 통해서 해양세력으로 서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해 갔다. 서해안 해양세력과의 연대, 이것은 왕건이 서남해지역을 장악하는 두 번째 배경이 되었다.

### 3. 배경2: 서해안 해양세력과의 연대

왕건이 전남의 서남해지역을 점령한 것은 육지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당시 후고구려(태봉)에서 전남지역에 이르는 사이에 후백제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닷길을 통하면 건너뛰기가 가능하다. 실제로 후고구려의 수군장군 왕건은 육로 대신에 서해의 바닷길을 통하여 후백제의 경계를 우회하여 서남해지역에 이를 수 있었다. 당시 왕건 함대의 출발지는 예성강 하구의 정주(貞州, 지금의 예성강 하구의 풍덕)였고, 최종 목적지는 영산강 변에 위치한 서남해지역의 중심도시 나주였다. 그리고 정주에서 나주에 이르는 서해안 바닷길의 중간 기착지로 혜성(檣城, 지금의 당진지역)을 활용하였다. 왕건은 출발지와 중간 기착지와 최종 목적지의 유력한 해양세력을 포섭하여 서해안 해양세력 연대를 확대해 갔으니, 정주의 유천궁(柳天弓), 혜성의 복지겸(卜智謙)과 박술희(朴述熙), 나주의 오다련(吳多憐) 등이 그들이었다.

먼저 왕건은 정주의 해양세력 유천궁을 포섭하는데 정략결혼을 이용하였다. 유천궁의 딸은 태조왕건의 첫째 후비(后妃)인 신혜왕후(神惠王后)가 되었다. 정주는 지금의 개풍군 풍덕에 비정되는 곳으로, 예성강과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가 만나고 강화도가 마주 보이는 바닷가에 임해 있어, 해양의 요충지로 꼽히는 곳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유천궁은 큰 부자였고 정주 사람들이 그를 장자(長者)라 칭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주 지역의 유력한 해양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주는 왕건의 출신지인 개성과 인접해 있어, 왕건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유력 해양세력을 확실한 협력자로 포섭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왕건이 유천궁의 딸을 첫 부인으로 맞이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려사』에서는 왕건과 유천궁의 딸의 만남을 ‘우연’의 소산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어느 날 왕건이 군대를 이끌고 정주를 지나면서 버드나무 아래에서 쉬게 되었는데, 그때 유천궁의 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동침하였다는 것이다. ‘우연’이란 항상 그 안에 ‘운명’의 의미를 내포한다. 『고려사』의 찬자는 두 사람의 만남이 운명임을 강조하고자 하여, ‘우연’의 이런 속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정략결혼의 소산이었다고 할 것이다.

왕건은 서남해지역으로 진군할 때, 912년과 914년의 두 차례에 걸쳐 정주에서 전함을 수리하여 대규모의 함대를 발진하였다. 장인 유천궁의 협조를 받아 정주를 가장 중요한 수군의 전진기지로 활용했던 것이다. 왕건이 서남해지역의 ‘도서 해양세력’과 견훤의 저돌적인 도전을 꺾고 서남해지역 쟁패의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유천궁의 적극적 협조

가 큰 힘이 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왕건은 두 번째 결혼을 통해서 최종 목적지인 나주의 유력 해양세력인 오다련을 포섭하였다. 오다련의 딸은 태조왕건의 둘째 후비인 장화왕후(莊和王后)가 되었다. 흔히 나주로 통칭되는 서남해지역은 장보고의 유산이 집적된 곳이었다. 국내외 해상교류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청자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왕건은 일찍이 서남해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서 진출을 꾀하였다. 그리고 오다련의 딸과 결혼을 결행하는 것을 서남해지역 진출의 돌파구로 삼았다.

오다련은 영산강유역의 나주지역에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오던 호족이었다. 먼저 그의 부친은 큰 부자를 뜻하는 부돈(富屯)이라 일컬어졌다. 그리고 오다련은 사간(沙干) 연위(連位)의 딸 덕교(德交)와 혼인하여 후에 장화왕후가 되는 딸을 낳았다. 사간(沙干)이란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이 스스로 칭하곤 했던 위호(位號)로서, 그의 처가 역시 나주지역의 유력한 호족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고려사』에 의하면 왕건이 오다련의 딸을 만난 것 역시 ‘우연’의 소산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느 날 오씨녀는 포구의 용이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그 얼마 후에 왕건이 영산강 하구의 목포에 정박하여 오색 기운이 감도는 천상(川上)에서 빨래하는 오씨녀와 우연히 만나 동침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오색 기운의 신비감으로 치장하여 ‘우연’의 운명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만남 역시 앞의 예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정략결혼의 소산이었음이 분명하다. 왕건이 903년에 단 한 번의 공략으로 나주 인근의 10여 군현을 점령한 것은, 오다련 등의 협력에 의한 ‘평화적 점령’이었다 할 것이다.

한편 왕건은 서남해지역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서 정주와 나주 사이의 서해안 바닷길을 이어줄 중간 기착지의 해양세력을 포섭하기도 하였다. 해성군(檣城郡) 출신의 복지겸(卜智謙)과 박술희(朴述熙)가 그들이었다.

해성군은 백제시대에는 해군(檣郡)으로,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는 해성군으로,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면천군으로 칭해지다가, 일제강점기에 면천면으로 강등되어 강진군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연혁 때문에 해성군을 오늘날의 면천면에 한정하여 보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해성군은 당진현(지금의 당진시), 여읍현(지금의 서산시 해미읍), 신평현(지금의 홍성군 장곡면) 등을 거느리는, 오늘날 내포지역을 망라한 서해안의 중심 고을이었다. 해성군은 신라시대 이래 대당교통과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번창한 곳으로서, 오랫동안 군격(郡格)을 당당히 유지해오고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면천군(해성군)의 주요 인물로 복지겸과 박술희 등을 들고 있다. 먼저 복지겸은 당에서 건너와 해적을 소탕하고 주민들을 보호하여 큰 신망을 얻었다는 복학사(卜學士)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어, 상당한 해양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후에 복지겸은 홍유, 신승겸, 배현경 등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하는데 앞장섰으며, 환산길과 임춘길의 모반을 적발하여 진압하는 등 왕건의 심복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박술희 역시 왕건의 심복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일찍이 궁예의 호위무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왕건의 천거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후에 태조 왕건이 자신의 후계자로 나주 출신 장화왕후 소생의 왕무(王武)를 지목하고 박술희로 하여금 그의 후견인이 되도록 부탁했던 것으로 보아, 박술희는 왕건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왕무는 왕건의 뜻에 따라 고려의 2대 혜종으로 즉위하였으니, 왕무의 왕위계승은 왕건과 혜성세력과 나주세력의 긴밀한 정치적 유대관계에 의해 성사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적 해석이 가능하다. 왕건이 서남해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정주의 유천궁, 혜성의 복지검과 박술희, 그리고 나주의 오다련 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해양세력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러한 서해안 해양세력의 연대는, 왕건 가문이 대대로 서해안의 주요 해양세력과 교류하면서 쌓아온 축적된 교분이 있었고, 여기에 왕건 개인의 헌신적 노력이 보태져서 맺어진 결실이었던다고 할 수 있다.

#### 4. 배경3: 고승들과의 결연(結緣)

당시는 불교신앙의 시대였기 때문에 고승들의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위로 국왕으로부터 지방의 호족, 그리고 일반 백성 및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불교를 신봉하고 불교의 지도자인 고승을 떠받들었다. 따라서 난세에 정치적 야망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고승들의 지지는 반드시 필요하였다. 왕건은 고승들과 인연을 맺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였다. 이것이 왕건이 서남해지역을 장악하는 세 번째 배경이 되었다.

왕건과 관계를 맺은 고승으로는 도선(道詵)을 비롯하여 이른바 ‘사무외대사(四無畏大師)’라 불리던 진철(眞澈) 이엄(利嚴), 대경(大鏡) 여엄(麗嚴), 법경(法經) 경유(慶猷), 선각(先覺) 형미(迥微) 등을 들 수 있다. ‘사무외대사’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860~870년대에 태어나 나말여초에 활동했다는 시기적 공통점, 그들의 고향이 각각 태안, 보령, 흥덕, 영암으로 서해안 출신이라는 공간적 공통점, 왕건과 인연을 맺어 고려 왕조의 개창과 통일 과정에 기여했다는 정치적 성향의 공통점이 그것이다. 827년에 태어나 고려 왕조가 출현하기 전인 892년에 입적(入寂)한 도선(道詵)은 영암 구림에서 태어나 이들보다는 4~50년 정도 먼저 활동한 선배 고승으로서, 활동한 시기는 다르지만 공간과 정치적 성향에서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도선과 ‘사무외대사’는 서해안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지지는 왕건의 서남해지역 진출 과정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서남해지역 출신의 도선과 형미가 왕건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다. 이들은 왕건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남해지역의 해양세력과 백성들로 하여금 친왕건의 정치성향을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먼저 도선(827~898)의 경우를 보자. 그는 827년에 영암에서 태어나 15세에 화엄사에 들

어가 화엄학을 수학하다가 신라말 선종 9산문의 하나인 곡성 태안사(泰安寺) 동리산문(桐裏山門)의 혜철화상의 문하에 귀의하였다. 이후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다가 37세부터 광양 옥룡사(玉龍寺)에 주석하여 898년에 72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그는 일찍이 동리산문과 인연을 맺은 선종 승려였으며 특히 풍수지리의 대가로 명성을 날리며 민중의 정신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의종(毅宗) 4년(1150)에 최유청(崔惟淸)이 왕명을 받들어 찬술한 「백계산옥룡사증시선각국사비명(白鷄山玉龍寺贈諡先覺國師碑銘)」에 의하면 875년에 도선이 세조(世祖)[왕건의 부친인 용건(龍建) 혹은 왕룡(王隆)]에게 찾아가 2년 후에 왕자(王者)가 태어날 것임을 예언했다고 하고, 『고려사』에서는 왕건의 나이 17세에 도선이 다시 찾아와서 ‘삼계창생(三季蒼生)의 임금’이 되리라고 예언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용건과 왕건이 도선의 예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도선의 예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소문만으로도 왕건이 서남해지역 해양세력을 포섭하는데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예컨대 왕건이 오다련에게 접근하여 그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도선의 예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용건 때부터 맺기 시작한 왕건가문과 도선의 인연은 왕건에 의해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되었고 이후 고려왕조의 역대 왕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태조 왕건은 훈요십조 중 제2조에서 도선이 정해놓은 곳에만 사원을 지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에 현종(顯宗)은 도선에게 대선사(大禪師)의 호를 증시(贈諡)하였고, 숙종(肅宗)은 왕사(王師)의 시호를 더하였다. 그리고 인종(仁宗)은 선각국사(先覺國師)로 추봉(追封)하였으며, 의종(毅宗)은 최유청(崔惟淸)에게 하명(下命)하여 그의 비문(「백계산옥룡사증시선각국사비명」)을 찬술하게 하였다. 도선은 고려 건국 이전부터 왕건 가문과 인연을 맺었고, 고려의 건국 이후에는 왕조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선이 왕건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면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이는 선각대사 형미(864~817)였다. 강진 무위사에 있는 「선각대사편광령탑비(先覺大師遍光靈塔碑)」에 의하면, 864년에 무주(武州)의 바닷가에서 태어난 형미는 15세에 보림사에서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한 체징(體澄)을 찾아가 출가하고 882년에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891년에는 사신선 편으로 유학을 떠났다. 10년 후인 905년에 영산강 변의 국제항구인 회진(會津)을 통해 귀국한 그는 지주소판(知州蘇判) 왕지본(王池本)의 권유에 따라 월출산 남록(南麓)에 위치한 무위사(無爲寺)에 주석하였다. 왕건이 형미와 인연을 맺은 것은 이 무렵이었을 것이다.

왕건은 903년부터 서남해지역 공략에 나서 이 지역의 해양세력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형미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형미는 왕건이 서남해지역 공략을 마무리 지은 912년경에 왕건과 함께 철원에 이르러 궁예를 섬기다가 고려를 건국하기 1년 전인 917년에 입적(入寂)한 것으로 되어 있다. 형미의 죽음에 대하여 「선각대사비」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왕건을 비호하다가 궁예에게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태조 왕건은 형미에 대한 극진한 존숭의 예우를 올렸다. 고려를 건국한 이듬해인 919년 3월에 형미의 제자를 불러 개성의 오관산(五冠山)에 산사(山寺)를 수리하게 하고 부도탑을 만들어 그의 사리를 모시도록 하였다. 921년에는 형미의 시호를 선각대사(先覺大師), 탑명을 편광령탑(遍光靈塔), 절이름을 태안사(太安寺)라 칭하도록 하였다. 형미에 대한 왕건의 이러한 예우는 서남해지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호하다가 궁예에게 시해당한 형미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다한 것이었다.



#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충남지역 제해권 검토<sup>1)</sup>

김 명 진 ■ 경북대학교 사학과

## 1. 머리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수행한 통일전쟁의 여러 전투 중에서 충청지역의 판세는 물론이고, 전체 전장의 판세까지도 결정지은 전투가 운주전투(運州戰鬪, 홍주, 충남 홍성)였다.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전투인 일리천전투가 발생하기 전에 고려와 후백제의 양국 판세를 결정지은 전투가 934년의 제2차 운주전투였다. 그런데 이미 927년에 제1차 운주전투가 발생하였다. 운주성은 충남지역의 양국 접경지였으며, 고려 측에서는 국왕인 왕건이 2차례 모두 친정(親征)하였다. 그만큼 중요한 곳에서 발생한 중요한 전투였다. 운주전투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로 인하여<sup>2)</sup> 그 실상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하지만 운주전투는 고려 통일전쟁의 마지막 판세와 충남지역의 해상에 대한 제해권(制海權) 향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사 측면에서 좀 더 조망할 필요가 있다.

1) 이 글은 주로 필자의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30, 부경역사연구소, 2012와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軍史』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에서 요약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2) 윤용혁,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운주, 홍주, 홍성」 『홍주문화』13, 홍성문화원, 1997;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한국중세사연구』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김갑동,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史學研究』74, 한국사학회, 2004.



## 2. 충남 해안지역의 세력 양상

고려 태조 왕건이 즉위한 918년 6월 이후에 모반이 여럿 발생하였다. 특히 충청지역의 청주 일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면서 즉위 직후의 정세는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와중에 충남지역의 내륙과 해안지역도 상당부분 고려로부터 이탈하였다.

가) 웅주(충남 공주)·운주(충남 홍성) 등 10여 개의 주현이 모반하여 (후)백제로 붙자 전시중(前侍中) 김행도(金行濤)를 동남도초토사(東南道招討使)·지아주제군사(知牙州諸軍事)로 임명했다.<sup>3)</sup>

태조 원년(918) 8월에 모반의 영향으로 웅주와 운주 등이 모두 후백제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원래 웅주(공주)에는 공주장군 홍기(弘奇)라는 지역세력이 존재하였다. 그는 904년에 궁예에게 귀부하였는데<sup>4)</sup> 그 뒤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공주는 내륙이면서 금강을 통하면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은 해상로 확보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이었다. 아마도 홍기는 918년 8월에 발생한 모반의 와중에 존재 또는 세력기반이 없어진 게 아닐까한다.

웅주·운주 등 10여 개의 주현이 모반하자, 왕건은 김행도를 아주(충남 아산)로 내려 보냈다. 김행도의 첫째 임무는 아산만일대 지역까지 확산될 조짐이 있는 모반 도미노현상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산만지역 일대를 관장하는 주책임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김행도의 동남도초토사(東南道招討使)·지아주제군사(知牙州諸軍事)라는 직책을 통해서 짐작된다. 또한 아산만을 확보하게 되면 해상교통로를 장악하게 되는 매력에 있게 된다. 김행도는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 그가 부임한 이후에 모반의 여파가 아주지역까지 넘어오지 않았으며 지역민의 동요도 없었기에 그리 판단된다.

아주지역은 김행도의 활약에 힘입어 고려의 영역으로 공고화 되었다. 그 바로 남쪽인 오늘날 온양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의 어느 지점에 탕정성(湯井城)이 있었다. 이곳도 동남도초토사·지아주제군사의 영향아래에 있었겠지만 좀 더 확고히 하기위해 왕건의 조처가 있었다. 김행도가 아주에 부임한 이래 10년이 지난 928년(태조11) 4월에 왕건이 직접 탕정군(湯井郡)에 갔다는 기록이 보인다.<sup>5)</sup> 다음은 그 3개월 후에 일어난 일이다.

나)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삼년성(三年城, 충북 보은)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드디어 청주(충북 청주)로 행차하였는데, (후)백제에서 장수를 보내어 청주를 침공하였다. 이때 유금필(庾黔弼)이 명을 받들고 탕정군에 성을 쌓고 있었는데, 꿈에 한 대인(大人)이 말하기

3)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원년 8월 계해.

4) 『삼국사기』권50, 열전10, 궁예.

5)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11년 하4월 경자.

를, “내일 서원(西原, 청주)에서 변란이 있을 것이니 빨리 가라” 하였다. 금필이 놀라 깨어서 바로 청주로 달려가서 (후백제 장수와) 싸워서 이를 패배시키고 추격하여 독기진(禿岐鎭)에 이르러 죽이거나 사로잡은 것이 3백여 명이었다.<sup>6)</sup>

이상은 928년 7월 전투에 관한 내용이다. 같은 해 4월에 왕건은 탕정군에 갔었다. 그 후 3개월 후인 7월에 왕건은 직접 후백제의 삼년성, 즉 삼년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왕건은 실패하고 청주로 돌아왔으나 후백제군이 쫓아와 공격하자 매우 다급한 상황이 되었다. 이때 유금필은 탕정군에서 성을 쌓고 있었다. 4월에 왕건이 탕정군에 왔던 이유는 바로 성곽 축조 때문이었다. 왕건은 이 성곽 축조의 책임을 유금필에게 맡겼다. 탕정군은 천안의 바로 서편에 접해 있는 곳이다. 7월에 청주에서 왕건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자 유금필은 후백제의 군대를 청주에서 격퇴시켰다.

이 전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왕건이 탕정군에 성을 축조토록 한 의도이다. 아주가 아산만의 연안을 공고히 했다면 탕정군은 아주의 남쪽 육지 쪽에 붙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일대가 고려의 영역이 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또한 개경(송악)에서 서해 뱃길로 내려와서 아산만의 해상로를 이용한다면 아주와 탕정성을 거쳐서 천안·목천·청주의 육로와 연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고려군의 내륙에서의 전투수행 능력은 속도전에서 매우 높아지게 된다.

아산만의 안쪽에 아주가 있고 그 서편에 몇 개의 지역이 연달아 이어져 있었다. 그 순서는 예산, 면천, 당진, 서산, 태안 등등이다. 이 일대에는 무한천과 삽교천, 당진천 등이 아산만으로 흐르고 있다. 이들 지역은 후백제의 영역인 운주(홍성)와 접경을 이루는 곳이었다. 예산은 중심부까지 바다로 연결이 가능하였던 곳이다. 무한천과 삽교천 그리고 아산만을 연계하면 해상교통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곳에 왕건이 관심을 두었던 때는 919년 8월이었다.

다) 오산성(烏山城)을 고쳐 예산현(禮山縣, 충남 예산)이라 하고, 대상(大相) 애선(哀宣)과 홍유(洪儒)를 보내어 유민(流民) 5백여 호를 모아 편안히 살게 하였다.<sup>7)</sup>

위의 내용은 왕건이 오산성을 고쳐 예산현(충남 예산)이라 하고 대상 애선과 홍유를 보내어 유민 5백여 호를 모아 편안히 살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왕건의 다음 수순은 예산현 바로 남쪽에 있는 임존성(任存城, 대흥현, 예산군 대흥면)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왕건은 925년 10월에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유금필(庾黔弼)을 보내어 후백제의 임존성을 공격해서 3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다.<sup>8)</sup> 예산현과 임존성은 운주(運州, 충남 홍성)를 북쪽과 서쪽에서

6) 『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11년 추7월.

7) 『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2년 추8월.

8) 『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8년 동10월.

접하고 있었다. 고려군은 이제 차츰 운주를 포위하는 형세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아산만의 초입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唐津과 瑞山이다. 충남 당진시는 원래 당진과 혜성(樸城, 당진시 면천면)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아산만의 다른 지역과 달리 혜성군에는 복지겸(卜智謙)과 박술희(朴述熙)라는 고려 태조대의 중요한 인물이 연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 중에서 혜성군과 관련된 지리지에 나타나는 연고성은 복지겸이 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sup>9)</sup> 이처럼 복지겸의 지역적 연고 때문인지 혜성군과 당진 쪽은 개국 초부터 변함없이 고려의 영역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산지역에 있었던 여러 군현 중에서 고려 통일전쟁기에 가장 주목받은 곳은 정해현(貞海縣, 충남 서산시 해미면)이었다. 정해현(貞海縣)은, 태조(太祖) 때에 몽웅역(夢熊驛, 서산시 해미면 동암리)의 역리(驛吏)였던 한씨(韓氏) 성을 가진 자가 큰 공로가 있어 대광(太匡)의 호를 내리고, 고구현(高丘縣)의 땅을 나누어 이 현을 설치하여 그의 관향으로 삼게 하였다<sup>10)</sup>라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태조대에 몽웅역의 역리였던 한씨가 큰 공을 세워 대광의 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씨가 세운 큰 공이라는 것은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운주전투(홍성)에서 그가 고려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3. 운주전투와 충남지역 제해권 향배

운주(충남 홍성)의 남쪽인 공주에 공주장군 홍기(弘奇)라는 인물이 있었다. 홍기는 904년에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따라서 공주의 북서쪽에 있는 운주도 이즈음에 궁예에게 귀부하였을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운주를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세력은 공준(兢俊)이었다. 앞에 기술했듯이 운주는 918년 8월에 공주와 함께 후백제로 넘어간 지역이었다. 다음은 그 후의 상황이다.

라) (927년 3월 신유) 왕(왕건)이 운주로 쳐들어가 그 성주(城主) 공준(兢俊)을 성 아래서 깨뜨렸다.<sup>12)</sup>

927년 3월에 왕건은 직접 운주로 쳐 들어가 성주 공준을 깨뜨렸다. 충남지역의 내륙 판세 및 해안지역의 제해권(制海權)에 영향을 준 이 전투가 바로 제1차 운주전투였다. 공준은 홍

9) 『신증동국여지승람』권19, 충청도 면천군 인물.

10) 『고려사』권56, 지10, 지리1, 홍주 정해현.

11) 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139쪽 참고.

12)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신유.

규(洪規)와 동일인물로 추정되고 있다.<sup>13)</sup> 운주성(홍주읍성의 모태)은 평지성이었다. 공준은 용감히 성 밖 평지전투를 감행했을 것이다. 이러한 설정이 가능한 것은 당시 전투가 운주성 아래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상황을 보건대 이 전투에서 공준은 패배하고 왕건에게 사로잡혔다. 하지만 왕건은 비록 적장이지만 접경지역인 운주성의 전략적 가치를 생각하여 공준을 회유하였다. 이후 공준(홍규)의 딸을 왕건은 자신의 제12비인 흥복원부인으로 맞아들였다.<sup>14)</sup>

그런데 이후의 어느 때에 운주는 후백제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그 근거는 뒤에 기술할 제2차 운주전투가 934년에 벌어졌으므로 그리 판단하게 된다. 934년 이전에 운주의 주인이 바뀐 것이다. 한편, 경상지역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왕건은 929년 12월부터 930년 정월 사이에 벌어진 고창군전투(경북 안동)에서 승리를 거두며 대반전을 이루었다.<sup>15)</sup> 그러나 바로 이어서 견훤은 나주(전남 나주)를 고려로부터 탈환하면서 역시 반전을 꾀하였다.<sup>16)</sup> 왕건은 경상지역을 공고히 하였지만 나주 서남해와 서해의 제해권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고려가 충청지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충청지역의 대표적 지역세력 중의 한 사람인 매곡산성(매곡성, 충북 보은군 회인면) 성주 공직이 고려로 귀부하였는데 이 때가 932년(태조 15) 6월이었다.<sup>17)</sup> 왕건은 이를 기회로 같은 해 7월과 11월 즈음에 매곡산성의 바로 서편 가까이 있는 일모산성(양성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을 연거푸 공격하여 마침내 성을 공략하였다.<sup>18)</sup> 이제 충청의 충북지역에서도 고려는 유리한 전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음 전선은 충남지역이었다.

이때 후백제도 반격 작전을 전개하였다. 932년 9월에 견훤은 후백제 수군을 동원하여 예성강 일대인 염주·백주·정주에서 선박 1백 척을 불사르고, 저산도에서 기르던 말 3백 필을 취하여 돌아갔다.<sup>19)</sup> 계속해서 후백제는 다음 달인 10월에 대우도를 공략하였다.<sup>20)</sup> 이는 아산만 입구 및 충남 서해안의 제해권을 후백제에게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운주가 다시 후백제 영역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1)</sup> 하지만 운주가 후백제로 넘어갔어도 공준은 왕건의 휘하에 남았다고 판단된다. 4년 뒤인 936년 9월의 일리천전투에 공준은 고려군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전하였기 때문이다.<sup>22)</sup>

왕건은 아산만일대를 공고히 하고 충남지역에서도 유리한 전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13) 윤용혁, 앞의 「지방제도상으로 본 홍주의 역사적 특성 -운주, 홍주, 홍성」, 25~26쪽; 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152쪽.

14) 『고려사』권88, 열전1, 후비1, 태조 흥복원부인 홍씨.

15) 『고려사』권1, 세가1, 태조1, 12년 12월과 13년 정월.

16)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2014, 140쪽.

17)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5년 6월.

18)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77~84쪽.

19)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5년 9월.

20)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5년 동10월.

21) 김갑동, 앞의 「고려초기 홍성지역의 동향과 지역세력」, 148쪽.

22)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9년 9월.

수순을 밟았다. 이는 서해 제해권 확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작전이었다. 934년(태조 17) 5월에 예산진(충남 예산)에 행차하여 자애로운 내용의 조서를 반포하였다.<sup>23)</sup> 왕건의 이런 행동은 곧 닥칠 9월 전투 준비를 위한 사전 포석의 하나였다.<sup>24)</sup> 드디어 제2차 운주전투가 발발하였다.

마) (934년 가을 9월) 왕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운주를 정벌하려 하니, 견훤이 이 소식을 듣고 갑사(甲士) 5천 명을 선발하여 (운주에) 이르러 말하기를, “양편의 군사가 서로 싸우면 형세를 보전하지 못하겠소. 무지한 병졸이 살상을 많이 당할까 염려되니 마땅히 화친을 맺어 각기 국경을 보전합시다” 하였다. 왕이 여러 장수를 모아 의논하니 우장군(右將軍) 유금필(庾黔弼)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형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원컨대 임금께서는 신들이 적을 쳐부수는 것만 보시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였다. 저 편에서 진을 치기 전에 굳세고 날랜 기병(勁騎) 수천 명으로 돌격하여 3천여 명을 목 베거나 사로잡고, 술사(術士) 종훈(宗訓)과 의사(醫師) 훈겸(訓謙)과 용맹한 장수 상달(尙達)과 최필(崔弼)을 사로잡으니, 웅진(熊津) 이북의 30여 성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항복하였다.<sup>25)</sup>

이상의 내용은 934년 9월에 발생한 제2차 운주전투의 실상이다. 고려군은 굳세고 날랜 기병으로 임혀지는 경기(勁騎) 수천 명이 포함된 최정예 병력이었다. 그러나 견훤이 직접 이끌고 있는 후백제군도 만만치 않았다. 비록 견훤이 먼저 화친을 제의했지만 왕건도 여러 장수들과 회의를 하면서 근심하는 모양새였다. 사료 마)에 나타나는 후백제의 갑사(甲士) 5천 명은 갑옷을 입은 사졸(士卒), 곧 보병을 지칭한다. 갑사는 보병인데 고려군의 경기와 맞먹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병은 기병 그것도 정예기병인 경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왕건은 후백제의 ‘갑사부대(甲士部隊)’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 갑사부대는 경기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일찍이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하기 전에 신라군으로 종군하며 자면서도 창을 베고(枕戈) 적을 대비했다고 하였다.<sup>26)</sup> 또한 신라는 긴 창을 다루는 부대인 비금서당(緋衿誓幢, 장창당長槍幢)을 보유하고 있었다.<sup>27)</sup> 아마도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후에 신라의 장창부대를 자기화했다고 여겨진다.

긴 창을 질러대는 후백제 갑사부대를 향해 고려군 경기의 말들이 함부로 돌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 수천 명을 대동한 왕건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해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군은 유금필의 주도아래 후백제의 갑사부대가 진을 치기 전에 먼저 타격을 가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제2차 운주전투에서 금준과 몽웅역의 한씨는 왕건에게 여

23) 『고려사』권2, 세가2, 태조2, 17년 하5월.

24) 윤용혁, 앞의 「나말여초 洪州의 등장과 運州城主 兢俊」, 16쪽.

25) 『고려사절요』권1, 태조신성대왕 17년 추9월.

26) 『삼국사기』권50, 열전10, 견훤.

27) 『삼국사기』권40, 잡지9, 직관 하, 무관, 구서당. 신라의 장창당에 대해서는, 서영교, 「新羅 長槍幢에 대한 新考察」, 『慶州史學』17, 경주사학회, 1998 참고.

러 도움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사료 마)에 의하면, 고려군이 승리했다는 소문을 듣고 웅진(충남 공주) 이북의 30여 성이 스스로 항복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고려군의 압승이었으며, 서해의 제해권은 고려의 수중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 4. 맺음글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통일전쟁기의 충남 해안지역의 세력양상은 이렇다. 먼저 공주에는 공주장군 홍기가 있었는데 그는 곧 기록에서 사라졌다. 918년 8월의 모반의 영향으로 웅주(충남 공주)와 운주(충남 홍성)는 후백제로 귀부하였는데 운주에는 공준(홍규)이라는 지역세력이 있었다. 그 외에는 이렇다 할 지역세력은 보이지 않고 왕건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의 활약만 돋보였다. 아주의 김행도, 탕정성의 유금필, 예산현의 애선과 홍유 등이 그 예이다. 당진쪽의 혜성군은 복지겸의 연고로 인하여 안정적이었다. 서산쪽은 몽웅역 역리인 한씨의 협조가 있었다. 이들의 활약으로 아산만 일대는 고려의 영역으로 공고화 되었다.

운주성의 지역세력인 공준은 918년 6월에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하자, 2달 후인 8월에 후백제로 귀부하였다. 하지만 공준은 927년 3월의 제1차 운주전투에서 왕건의 고려군에 패배하자, 다시 소속 국가를 바꾸어 왕건에게 귀부하고 말았다. 그러나 932년 9월을 전후하여 운주는 후백제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공준은 계속 고려에 잔류하였다. 왕건은 공준의 협조 속에서 934년 9월에 운주를 친정(親征)하였다. 왕건은 고려군 경기(勁騎)를 유금필에게 맡기어 견훤의 후백제 갑사부대(甲士部隊)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이 제2차 운주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하자, 웅진(공주) 이북의 30여 성이 고려로 투항하였다. 이후 서해의 제해권은 완전히 고려의 수중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왕건의 운주전투 승리는 고려 통일전쟁에서 그가 최종 승리를 쟁취하는데 큰 밑바탕이 하였다.

\* 참고문헌은 지면상 생략함.

# 고려시대 內浦地域의 佛教寺院

## － 농민군의 伽耶寺 공격을 중심으로 －

배 상 현 ■ 동서문물연구원\*

### I. 머리말

사원은 佛教라고 하는 종교의 의식을 수행하는 聖所이자 구체적으로 信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대다수의 민인들이 불교를 신앙하던 고려시대에 있어 사원은 각 지역에 분포하면서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불교사원이라 해서 그 기능이 종교적 성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방사회에서 불교사원의 기능이 종교적 성격 외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을까?

본고에서는 內浦地域의 사원인 가야산 伽耶寺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가야사를 초점에 두고자하는 이유는 1177년 농민군들에 의해 공격을 받은 사실이 기록에 남아<sup>1)</sup>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고에서도 이점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sup>2)</sup> 하지만 다시 들추어 보고자 하는 것은, 현지의 실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뜻도 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 재단법인 동서문물연구원 실장

1) 『高麗史』권19, 세가 明宗 7년 2월 庚辰

2) 배상현, 「鳴鶴所民 蜂起를 통해 본 佛教寺院과 地方社會」 『한국중세사연구』15, 2003. 본 발표문은 이 논문을 많이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 II. 내포지역과 불교 신앙

충청도 내포지역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일찍부터 불교문화가 융성하였다. 그 가운데 수덕사와 가야사는 널리 알려진 곳이었다.

충청도는 內浦를 제일 좋은 곳으로 삼는다. 公州에서 서북쪽으로 2백리 지점에 伽倻山이 있고, 서쪽은 큰 바다요, 북쪽은 경기도의 海晏과 큰 灣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곧 서해가 쏙 들어 온 곳이다. 동쪽은 대평야를 이루고 평야 안에는 또한 큰 포구가 있어, 由官津이라 한다. 滿潮를 기다리지 아니하면 배를 이용할 수가 없다. 남쪽에 떨어져 있는 烏棲山은 가야산에서 따라 나온 지맥인데, 이 산 동남을 따라 공주와 통한다. 가야산 둘레의 열 縣을 아울러서 부르기를 內浦라 한다.<sup>3)</sup>

가야산 주변의 德山 지역에는 일찍이 修德寺가 있었다. 백제시대 이곳에 머물던 僧 惠現의 求靜活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백제에 승려와 寺塔이 많았음은 萬邦에 알려진 사실이지만,<sup>4)</sup> 여기서 우리는 혜현의 활동과 더불어 그 무대가 오늘의 내포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곳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불교신앙이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sup>5)</sup>

① 승려 惠現은 백제사람이다. 어려서 출가하여 애써 뜻을 모아 『法華經』을 암송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부처께 기도하여 복을 청하매 영험한 感應이 실로 많았다. 三論을 다 배워 수행에 임하니 神明에 통하였다. 처음 북쪽의 修德寺에 살았다. 대중이 있으면 강론하고 없으면 경전을 암송하였으므로 사방 먼 곳에서도 그를 흠모하여 문밖에는 신이 그득 하였다.<sup>6)</sup>

② 가야동 안에 99암자가 있었으며 버선밭로 德山에 이른다고 하며, 盛寺時 그 찬란했던 金塔은 廢刹 당시 南延君墓의 일부에 묻었다.<sup>7)</sup>

아마도 내포지역의 불교전통은 사원과 信者 집단이 相補的 관계 속에서 더욱 두텁고 또 盛할 수 있었을 것이다. 香徒의 활동과 埋香信仰도 그러한 일환이었을 것이다.<sup>8)</sup>

그런데,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12세기 내우외환의 도정에서 이곳의 불교사원이 화를 입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이규보는 ‘賊兵’이 지나간 절에 머물렀던

3) 『擇理志』八道總論, 忠淸道

4) 『周書』권49, 열전41 異域 百濟

5) 百濟의 佛敎는 질병을 고친다거나 자식을 구한다거나 하는 개인의 現世利益을 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개개인의 영혼 구제보다는 오히려 나라의 평안을 비는 護國信仰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李基東, 『百濟史研究』—潮閣, 1996, 40~43쪽).

6) 『三國遺事』권5, 避隱 惠現求靜

7) 국립공주박물관, 『예산지역 불적조사』신서원, 1987, 45쪽 俗傳

8) 香徒의 활동과 그 성격,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이 살피고 있어 참고된다. 蔡雄錫, 「高麗時代 香徒의 社會的 性格과 變化」 『國史館論叢』2, 1989; 구산우, 「高麗前期 香徒의 佛事 조성과 구성원 규모」 『한국중세사연구』10, 2001.



승려로부터 그 내력을 듣고 다음의 시를 남겼다. 禮山の 香川寺는 그런 사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sup>9)</sup>

- 전략 -

香川은 옛날에 있던 곳인데  
구름과 물이 잘 있는지  
두어 칸 집을 한스럽게 바라보니  
반쯤은 쓰러져 바위 머리에 기댔구나  
혼자 말했네.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산신령께 부끄럼을 사과해야겠다고  
꿈이 몸보다 먼저 떠나  
만리에 살랑 바람을 따라갔네

- 후략 -<sup>10)</sup>

### Ⅲ. 가야사 공격의 배경

內浦 땅 가야산에는 伽耶寺가 자리하고 있었다. 일대는 바다가 깊숙히 들어 온 灣, 그리고 토지가 비옥하고 들이 넓으며, 물고기.소금 등이 넉넉하여 부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다.

伽倻洞 일대는 대사찰이 조영되었던 흔적을 보여준다. 瓦片和 瓷器片, 石材들의 분포 범위는 가람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sup>11)</sup>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전에 이곳에 金塔이 있었다고 하며, 鐵尖의 석탑이 있고 그 四面에는 石龕이 있어 각기 石製 佛像을 안치하는 매우 奇巧한 모습이었다고 한다.<sup>12)</sup>

가야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그 전통에는 산천 숭배의 神祀 역할을 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원에서는 흔히 山川祭의 전통을 계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야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한다. 가야산에는 해당 고을에서 春秋로 제사하게 한 伽倻岬祠가 있어<sup>13)</sup> 그 기능을 가야사가 주관하였을 가능성이

9) 香川寺는 현재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소재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화강석재로 만든 九層 石塔이 전해진다. 탑의 상륜부에는 노반과 보주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윤용혁, 「禮山 香泉寺의 역사와 유물-13세기 이규보의 향천사 시와 관련하여-」 『百濟文化』28, 1999; 忠淸南道.忠南發展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禮山郡-』2001, 130~131쪽).

10) 『東國李相國集』권8, 古律詩「次韻聆首座寄林工部並書」

11) 伽倻寺는 고려말에 복구되어 조선후기까지 그 명맥을 이었는데 大院君이 그의 父인 南延君 묘를 쓰면서 全燒된 것으로 알려진다(黃玿, 『梅泉野錄』권1). 사지에서 확인 수습된 고려 유물로는 龜趺, 石燈火舍石, 石塔(塔身과 寶輪) 등이 있는데, 이들 수습 유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李殷昌, 「德山 伽倻寺址의 石造遺物」 『考古美術』36, 1963; 「忠南 散逸文化財-聖住寺 金屬佛.普願寺 石塔金屬相輪.伽倻寺 石塔 其他-」 『考古美術』91, 1968.

12) 『梵宇攷』伽藍考 伽倻寺[權相老, 『韓國寺刹全書(上)』(『退耕堂全書』권2, 1990, 20쪽 재인용)]

13) 『新增東國輿地勝覽』권19, 德山縣 祠廟

높기 때문이다.<sup>14)</sup>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면, 가야사는 역사적으로 가야 산신에 대한 제사를 관장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역의 유력가는 물론 많은 민인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1177년 2월 농민군들이 이곳을 공격하였다.

① 亡伊 등이 다시 叛亂을 일으켜 伽耶寺를 침략했다.<sup>15)</sup>

② 右道兵馬使가 伽倻山の 賊首 孫淸 및 그 무리들을 잡아 죽였다.<sup>16)</sup>

공격의 주역은 亡伊·亡所伊가 이끄는 농민군들이었다. 이들이 이끄는 주력군은 鳴鶴所民이었다. 이른바 명학소민의 봉기로 이들의 저항 운동은 고려 武臣政權期 농민항쟁을 대표할 만큼 그 규모나 영향력이 매우 큰 사건이었다. 지배층으로 하여금 피지배층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고, 기층 民人들의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의 농민항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sup>17)</sup>

명학소민의 봉기는 1176년 정월, 公州를 함락시키는 것으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났다.<sup>18)</sup> 농민군은 스스로를 山行兵馬使라 지칭하면서 界首官의 위치에 있는 지방의 주요 치소를 수중에 넣은 세력이었다. 주력군의 성향으로 보면, 所民으로 과중한 수취의 부담과 지방 및 중앙 권세가들의 집중적인 침탈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sup>19)</sup>

그러나 이들은 정부측이 부곡제지역인 所를 縣으로 승격시키고 守·尉를 파견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 일종의 講和를 통하여 투항의 결정을 내리기에 이른다.<sup>20)</sup> 그러나 이도 잠시 농민군의 저항이 소강 국면에 이르자, 정부군의 대대적인 공세가 재개되었다. 주력군은 僧軍들이었다. 이에 맞선 농민군들은 가야산 가야사를 공격하는 것으로 항쟁을 재개하였다.

그렇다면 이들 농민군들이 가야사를 공격 목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유는 당시 가야사가 관군의 주둔지였을 가능성 때문이다. 명학소민이 재차 봉기하기 전 孫淸의 南賊은 가야산에 웅거하여 관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당시 관군들의 상당수는 僧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부대는 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야사는 산내 암자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는 중앙정부와 사측과의

14) 伽倻寺址 뒤편 병목안 정상 부근에는 觀音殿이라는 전각이 있다. 이전에 山祭堂이 있던 곳으로 알려진다. 현재 여기에는 觀音菩薩像과 山神圖가 봉안되어 있다. 이곳 외에도 상가리에는 동곳말 山祭堂이 있는데 내부에는 쇠로 만든 말과 호랑이 일곱 마리가 안치되어 있다. 이전 伽倻岬祠가 자리해 있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忠淸南道.忠南發展研究院, 『文化遺蹟分布地圖(禮山郡)』2001, 39~240쪽

15) 『高麗史』권19, 세가 明宗 7년 2월 庚辰

16) 『高麗史』권19, 세가 明宗 7년 2월 己亥

17) 李貞信, 「高麗時代 公州 鳴鶴所民의 蜂起에 대한 一研究」 『韓國史研究』61.62, 1988

18) 『高麗史』권19, 세가 明宗 6년 정월 己巳

19) 박종기, 「12·13세기 농민항쟁의 배경과 원인」 『한국사』6, 한길사, 1994, 174쪽

20) 李貞信, 앞의 논문, 202쪽.

긴밀한 이해 협력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가야사가 공격의 1차적 목표가 된 것은, 이곳의 입지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야사는 내포의 중심적 사원이기도 하였지만, 해로를 통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과 2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보여주는 弘慶院의 공격에서 보여주듯 이들은 중앙 정부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다.

한편 사원과 재지세력과의 관계는 토지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았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도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었다.<sup>21)</sup> 사원의 직접적 수요물품으로 淨油, 茶 등이 있겠으나, 실제로 생산·유통시킨 사례를 보면 그 범위는 훨씬 넓었다. 소금 전매와 釀造 활동은 대표적인 예이다.<sup>22)</sup>

무인정권기 가야사는 이 시기 대부분의 사원들이 그러하였듯이 사회모순의 중심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수확기를 전후한 시기 사원 지주들의 과도한 수탈과, 소민들이 농한기에 감내해야 하는 가혹한 역역의 부담은 결국 농민들을 결속시키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가야사가 이제 僧軍을 주력으로 하는 진압군의 주둔지가 되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 농민군의 공격의 표적이 되게 하였을 것이다.

가야사 공격과 더불어 농민군의 진영은 급속히 복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흩어졌던 농민군들은 결속을 더욱 강화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주력부대는 속히 전선을 弘慶寺로 옮기고 있었다.<sup>23)</sup> 그리고 주지승을 협박하여 서울로 가게 하였다. 불과 20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나고 있는 공격 행태는 가야사의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농민군의 주력은 명학소민이었지만 여기에는 많은 일반 농민들이 동참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토지의 소유나 경작으로부터 밀려난 유망 농민층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공격이 개시된 시기는 농한기이자 혹한기에 해당하였고, 이 시기 소민들은 특정 역에 동원되는 苦役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가야사 공격은 이들 농민군들의 요구가 총체적으로 분출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sup>24)</sup>

21) 李相瑄, 『高麗寺院의 商行爲 考』 『誠信史學』 9, 1991; 李炳熙, 『寺院의 商業·高利貸活動의 盛行』 『高麗後期 寺院經濟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86~100쪽; 蔡雄錫, 『香徒의 변화와 새로운 향촌질서의 모색』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209~214쪽

22) 『高麗史』 권79, 食貨2, 鹽法 忠宣王 元年 2月

23) 이 과정에서는 孫淸세력과 亡伊가 이끄는 鳴鶴所 농민군과의 제휴가 실상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시차를 두고는 있지만 망이세력과는 별도로 손청세력이 伽倻山에서 右道兵馬使에 의해 궤멸되었다는 사실과, 망이세력이 독자적으로 弘慶寺를 공격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24) 김호동은 명학소민의 첫 봉기가 정월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소민들의 특정 역의 부담에 따른 질곡현상이 그 근원이라 보았다(『12, 13세기 농민항쟁의 전개와 성격』 『한국사(6)』 한길사, 1994, 185~186쪽).

## IV. 맺음말

고려사회는 불교를 국교로 하여 대다수 민인들도 이를 신봉하였지만, 사원경제의 측면에서는 사원전을 둘러싸고 국가-사원-지방사회(재지세력과 농민)로 이어지는 구조속에서 미묘한 길항관계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사원은 국가나 재지 유력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그 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주적 존재로 田民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고, 내적으로 在地勢力과 결합하여 그들과 이해관계를 유지하였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농민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지방간의 갈등이나 정치세력의 부침에 대응하기도 하였으나, 반대로 과중한 수취와 지배로 인하여 그들로 부터 공격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가야산 가야사는 내포지역의 불교신앙을 대표할만한 유력 사원이었다. 그러한 가야사의 위상은 해로를 통한 중앙과의 긴밀한 교통과 그 용이성이 뒷받침되어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관군의 주둔지가 되고 있는 가야사를 공격함으로써 개경정부의 압박이 가능하다는 농민군의 전략적 선택을 결행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1177년 농민군들이 재차 봉기하면서 맨 먼저 가야사를 공격한 배경에는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고려시기 해상교류의 성격 – 번성론과 소극론

박 종 기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전근대 동아시아 해상교류는 중국대륙-한반도-일본열도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삼국을 이어주는 해상교류는 멀리 지중해를 거쳐 아라비아 서남아시아를 거쳐 남중국의 항구도시인 양주-천주-광둥으로 연결된 해상실크로드인 이른바 ‘남해로’와 연결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육상실크로드의 문물도 중국 대륙의 동쪽 끝인 산둥반도를 통해 동아시아 삼국의 해상 교역로와도 연결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삼국의 해상교류는 독자의 폐쇄된 형태가 아니라,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의 영향을 받은 개방된 형태였다. 고려왕조기 동아시아 삼국의 해상교류 역시 황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황해는 당시 해양교류의 중심지였다.

### 1. 고려시기 해상교류와 무역정책의 성격

고려왕조(918-1392)와 같은 시기 중국 대륙의 송나라(960-1279) 역시 건국 직후 상세商稅 규례를 만드는 등 해외무역을 장려하였다. 송나라 태종은 옹희雍熙 연간(984-987년) 남해의 제번諸蕃을 불러들여 무역을 장려했다. 특히 남송 대에는 금과 대치하면서 국가 수입의 증대를 위해 무역정책을 장려했다. 이로 인해 대식국 자바 팔렘방 등 서남아시아의 상선이 남중국 해안에 줄을 이어 들어 왔으며, 광주 명주 항주 등 남중국 항구에 시박사市舶司를 설치하여 교역에 다른 각종 세를 징수하는 등 재정수입을 증대했다. 송나라의 대외무역 장려책은 고려왕조에도 영향을 끼쳤다.

고려는 광종 13년(962) 송나라와 관계를 맺은 이래, 공무역은 물론 민간무역이 두 나라 사이에 크게 성행했다. 송나라 진종眞宗(998-1022년), 즉 고려 현종 때 고려에서 송나라 상인 활동이 본격화 한다. 고려 문종 때를 전후한 시기, 즉 북송 말기에서 남송 초기에 두 나라 사이에 대외무역이 가장 왕성했다. 이 무렵 송나라 신종神宗(1068-1022년)은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른바 ‘친려제료親麗制遼’ 정책을 채택하고, 1071년(고려 문종25) 약 50년간 중단된 고려와의 외교관계를 재개한다. 고려의 사신을 대등한 관계인 국신사國信使로 승격하고, 의례에서 서하보다도 상위에 두는 등 고려를 예우한다. 이같이 두 나라 사이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상인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 송나라 건국 이후 약 260여 년간 고려에서 송나라에 사신이 파견된 횟수는 57회, 반대의 경우는 34회이다. 그에 비해 송나라 상인이 고려에 온 횟수는 120회로서 3-4배 정도이며, 고려에 온 상인의 숫자는 최소한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김상기). 이 수치는 상인들이 고려 조정에 물건을 바쳐 기록에 남은 경우이며, 그렇지 않은 송나라 상인의 고려 방문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려왕조의 대외무역이 역대 어느 왕조보다도 활발했다는 설명으로, 이를 대외무역 번성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그동안 우리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송상의 왕래는 1012년(현종3) 처음 시작되었다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960년 송나라 건국 직후부터 송상宋商의 왕래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송상의 왕래는 단순히 교역의 업무만이 아니었다. 송나라 사신의 왕래 및 입려통지入麗通知, 고려사신의 입송入宋통지 및 귀국, 문서 전달 등에도 송상의 선박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무신정권 이후 송상의 왕래와 대외무역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기존의 견해를 부정하고, 무신정권 당시에도 해외무역이 여전했다고 한다(이진한). 또한 이 연구는 송상의 내왕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사례보다 훨씬 많았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자료를 많이 발굴했다. 고려왕조기 대외교역과 교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의 실증적인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해상무역에 대해 고려왕조는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종래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바 전체 120회, 연인원 5천 명 이상에 달하는 송나라 상인의 왕래 자체가 고려 해외무역이 왕성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고려정부는 당시 해외 무역을 장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허용할 경우 또 다른 해상세력이 등장하여 왕권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며, 토지 중심의 농업진흥책을 장려하면서 억상抑商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라 했다. 중농重農역상 정책의 틀은 성종 때 공인된 사행使行무역만 허용하고, 사무역은 금지하자는 최승로의 상소문이 채택되면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고려인의 해상활동은 위축되었다고 한다(이진한). 고려의 대외무역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주목할 만한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송나라 상인이 대부분 고려 국왕과 만나, 토물土物이나 방물方物을 바친 기록만 나타나고, 송상의 활동에 비해 고려 상인의 활동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일종의 대외무역 소극론 내지 위축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송나라 상인들이 국왕에게 물건을 바친 행위는

고려에서 합법적인 교역행위를 인정받는 의례절차이다. 고려에 온 송나라 상인들은 대개 평균 1년 정도 고려에 체류한다. 그들의 본격적인 교역은 국왕에게 방물을 바친 후, 고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의 교역이다. 고려 국왕이 이들의 내헌來獻을 허용한 것은 고려 정부가 대외교역을 주도하고 통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무역으로 새로운 세력집단이 발호하여 왕권을 위협하려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송상의 활동이 주로 국왕에 대한 내헌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고려왕조가 대외무역에 소극적이거나, 그것을 장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고려 상인의 활동이 송상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대외무역 소극론의 또 다른 이유이다. 대외무역을 포함한 고려왕조기 해양교류 전반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 고려왕조가 처한 대 내외적인 여러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2. 해상교류의 대외적 조건

고려왕조가 대외무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정책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송나라 상인이 고려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과 같이, 고려 상인이 송나라에서 그렇게 활동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이 언급된 기록의 하나이지만, 다음의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종은 1058년(문종12) 약 50년간 단절된 송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려 하자, 신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물과 예악이 번성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상선商船이 줄을 이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귀한 물자가 매일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야 외교관계를 맺어) 송나라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란국과 우호관계를 영원히 끊지 않을 바에야 송나라와 외교관계를 맺는 일은 마땅하지 않습니다.”(『고려사』 권8 문종 12년 8월조)

위의 기록은 대외무역이 위축되었거나 소극적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정황을 보여준다. 신하들이 문종의 조치에 반대한 것은 현재의 대외무역만으로도 외국 물자가 풍부하게 고려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계의 재개가 도리어 거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실리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물론 반대의 이유 속에는 신하들이 국왕 문종에게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계산도 담겨있다. 또한 위의 기록에서 무역을 통한 문물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반대하거나, 대외무역을 억제하려는 분위도 찾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왜 송상에 비해 고려 상인의 활동이 기록에 많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고려사』 등 연대기 자료가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고, 대외무역에 대한 『고려사』 편찬자의 부족한 관심도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보다는 고려왕조가 처한 당시 대외적인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거

란과 송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다투는 형세였다. 고려왕조는 거란과의 전쟁 이후 대륙으로 인접한 거란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외교관계가 재개된 문종 때까지 송나라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거란과 관계를 맺어야 했다. 거란은 고려가 송나라와의 관계를 맺어 거란이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때문에 거란은 항상 두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였다. 고려는 이 문제로 거란과 불필요한 대립과 마찰을 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정부는 선진적인 송나라의 문물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거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신을 통한 공식적인 교역 대신 송나라 상인의 활동을 통해 두 나라가 필요한 문물과 물자를 교류하려 했다. 사무역이 장려되고 활발하게 된 것은 고려가 처한 이 같은 국제정세 때문이다. 송나라와 외교관계를 재개한 1071년(문종25) 이후 고려는 거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예성강-웅진반도-대동강 입구 초도에서 산동반도의 등주로 가는 직선 항로 대신 황해 남안에서 흑산도를 거쳐 중국 남안의 명주로 가는 남선향로를 택하여, 송나라와 물자 및 문물을 교류했다(김상기). 이는 고려정부가 대외무역에 소극적이거나, 그로 인해 대외무역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고려정부는 이같이 대륙국가의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도 선진문물 및 물자를 수용하려는 실리적인 목적 때문에 선진국가인 송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기 위해 간접적으로 민간 차원의 대외무역을 허용하고 장려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송나라는 고려와 연결하여, 거란을 견제하려는 이른바 ‘친려제료親麗制遼’책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거란전 이후 두 나라의 공식 외교관계는 단절되었지만, 상인과 상선을 통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정보 및 문물 교류를 유지하려 했다. 송나라 상인이 주도적으로 두 나라의 교역을 매개하고 주도한 것은 바로 이같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때문이다. 송나라 상인에 비해 고려 상인의 송나라 왕래가 적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 3. 해상교류의 고고학적 증거와 국내적 기반

동아시아 해상교류는 황해를 중심으로 중국대륙-한반도-일본열도로 이어지는 해상에서 이루어졌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대륙과 일본열도를 잇는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중심지역이다.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가 적극적인 대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해상교역의 중심지에 놓여 있던 같은 시기 한반도의 통일신라와 고려왕조는 개방적인 대외무역의 추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문헌자료에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 자료가 많지 않지만,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활발한 해상교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70년 대 이후 한반도와 산동반도 일대에서 발굴된 중국과 고려 선박이 다수 출토, 발굴되었다. 이는 당시 성행한 해상교류의 모습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된다. 1976년 전남 신안 앞바다에 발굴된 원나라 선박의 신안선을 시작으로, 2008년 발굴이 시작된 고려 선박인 마도선까지 중국과 고려선박이 출토, 발굴된 것은 모두 16 사례나 된다. 이 가운데 6개 유적에



서 7척의 고려선박이 발굴되었다. 특히 2005년 7월에서 11월 사이 중국 산둥성 봉래시蓬萊市 북단의 봉래수성水城에서 발굴된 봉래 3호선과 4호선은 고려의 원양 항해용 선박이며, 고려 말에 건조되어 조선 초기까지 운항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선박들은 모두 전남 신안, 목포, 진도, 완도, 군산, 나주 및 충남 보령, 태안과 경기도 안산 등지에서 발굴되었다. 지금까지 발굴, 출토된 지역은 모두 중국 산둥반도에서 한반도의 서남해안에 이르는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길목에 위치한 지역이다. 또한 12세기인 고려 중기에서 고려 후기에 이르는 시기의 선박들이다(김성범 문경호). 특히 신안에서 발굴된 신안선은 13세기 무렵의 원나라 국제무역선으로, 중국 영파에서 한반도 황해의 서남해안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선박으로 확인되었다. 신안선에서 고려청자도 출토되었다. 당시 동아시아 삼국 간의 해상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잘 보여주는 적극적인 사례들이다.

한편 한국사의 역대 어느 왕조보다 고려왕조기에 해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국내의 여러 조건도 작용했다. 즉 고려왕조는 일찍부터 바다와 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런 모습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조운漕運제도가 고려왕조 때 처음 확립되었다. 해안에 조창漕倉을 설치하여, 각 군현에서 거두어진 조세를 모은 후 조운선을 이용하여 개경으로 조세를 운반한 조운제도는 고려 때 처음 실시되었다.

조운제도의 실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조운제도를 통해 전국의 군현에 대한 조세를 직접 거두어 들여, 집권체제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완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이 제도에 의해 한반도에서 바다와 강을 이용하여 물자를 운반하는 물류 시스템이 완비되었다는 점이다. 즉 조운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물류 시스템으로 체계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다와 강의 이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성종 때 확립된 12조창(뒤에 13조창으로 확대)은 모두 해안과 강안江岸에 설치되어, 그를 통해 전국의 조세가 수도 개경으로 수납되었다. 이 가운데 흥원창(강원도 원주)과 덕흥창(충북 충주)의 2개 창은 한강의 수운水運을 이용했으며, 나머지 10창은 모두 해운을 이용했다. 더욱이 해운을 이용한 조운로는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던 국제 해상 교역로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 초기 조운제도의 확립은 고려왕조가 통일신라 이래 활성화 된 해양교류의 이점을 계속 활용하려 한 증거이며, 아울러 본격적인 대외교역과 해양교류를 하는 국내적인 조건을 완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조운제도가 가능한 조건, 달리 한반도가 당시 동아시아 교역로의 중심지가 된 것은 서남해가 2천여 개의 섬이 펼쳐지고,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곳곳에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만이 발달된 지형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최근 발굴 출토된 고려선박 가운데, 십이동파선과 마도 1호선과 2호선은 그 규모로 보아 조운선으로 추정된다(문경호). 조운제도가 해양에서 문물교류를 촉진시킨 원동력이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된다. 고려왕조는 이같이 한반도 자연환경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운제도를 실시했다.

다음, 고려왕조는 바다와 섬의 이점을 인식하고, 그 이점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취했다. 다음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도의 어염魚鹽과 목축의 번성은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아직 신라와 백제를 평정하지 못했을 때, 먼저 수군을 다스려 친히 누선樓船을 타고 금성(錦城:나주)을 쳐서 이를 영유하였습니다. 이로써 여러 섬의 이권이 모두 국가에 소속되어, 그 재력에 힘입어 드디어 삼한을 통일했습니다(『고려사』 권118 조준 열전의 조준 상소).”

태조 왕건은 여러 섬의 어염과 목축의 이익을 알고 개발하여, 거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삼한을 통합했다고 한다. 이같이 고려왕조는 건국 초부터 강과 바다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고려 말 전제개혁논자인 조준의 견해로만 볼 수 없다. 조선 문종 때 이선제李先齊 역시 고려왕조가 바다와 강의 이점을 이용하여, 나라의 재정을 충실하게 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제왕이 재정을 관리하는 길은 한 가지 방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염魚鹽이 가장 으뜸입니다. (중략) 지금 (고려의) 식목도감 형지안形止案을 보니, 각 고을의 염전과 어량魚梁의 숫자와 관전藿田의 크기를 모두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중략) 그렇다면 한갓 토지의 조세만 믿고 산택山澤의 이익을 쓰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고기 소금 미역은 하늘과 땅에서 생산하므로 취하여 사용해도 끝이 없으니, 이를 백성들에게 후하게 거둔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부익富益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1450) 10월 10일조)

이선제는 조선왕조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왕조와 같이, 바다와 섬을 적극 개발할 것을 상소했다. 고려 말 조준의 생각과 다를 바 없다. 고려왕조는 이같이 농경을 토대로 하면서, 해양 경영에 대해 역대 어느 왕조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 이점을 활용하려 한 왕조였다. 이점에서 고려왕조는 해양국가적인 성격을 지녔다.

## 참 고 문 헌

저서

김상기, 1984『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출판부

강봉룡, 2005『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한얼미디어

박종기, 2008『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이진한, 2011『고려시대 송상왕래 연구』 경인문화사

권덕영, 2012『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문경호, 2013『고려시대 조운제도의 연구와 교재화』 공주대 박사학위논문  
논문

김상기, 1960「羅末 地方群雄의 對中交通」『동방사논총』서울대출판부(1984 재수록)

김성범, 2009「중국蓬萊水城 출토 고려선」『한국중세사연구』27집문경호,  
2013『고려시대 조운제도의 연구와 교재화』 공주대 박사학위논문  
논문

김상기, 1960「羅末 地方群雄의 對中交通」『동방사논총』서울대출판부(1984 재수록)

김성범, 2009「중국蓬萊水城 출토 고려선」『한국중세사연구』27집

## 선유도 고려시대 유적지 현황

조 명 일 ■ 군산대학교박물관

### I. 머리말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는 조선 초까지 군산도(群山島)라 불리었으나, 세종 때 군산도의 수군 만호영이 진포(鎭浦, 지금의 군산)로 옮겨 감에 따라 앞에 옛 ‘(고)古’자가 붙여졌다. 12개의 유인도와 50여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고군산군도의 중심에 선유도(仙遊島)가 있다. 선유도는 그 이름처럼 빼어난 경치와 지리적 위치 뿐 아니라,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들 중 단연 으뜸이 되는 곳이다. 지금까지 각종 연구 및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선유도에는 패총을 비롯하여 고분, 유물산포지, 건물지 등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아직까지 이 유적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선유도의 무구한 역사성을 면밀히 파악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선유도 북섬 중앙에 있는 망주봉 일원의 고려시대 유적지에 대한 몇 차례의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선유도가 고려시대 해양문화교류의 거점이었음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공이 국신사(國信使)의 자격으로 고려를 방문한 후 편찬한 『宣和奉使高麗圖經』에 기록된 군산도와 관련된 주요시설의 위치 및 범위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선유도 망주봉 일원의 고려시대 유적지에 대한 조사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 1] 선유도와 망주봉

## Ⅱ. 『宣和奉使高麗圖經』에 기록된 군산도의 주요시설

주지하다시피, 고려시대는 바다를 통해 국제해상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군산도는 당시 고려와 송나라를 잇는 중간 기항지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 인종 원년(1123)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를 방문한 후, 기록한 『宣和奉使高麗圖經』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서공은 중국 절강성 영파부 정해현을 출발해 서해 남북 사단항로를 거쳐 夾界山(소흑산도)-竹島(영광군 안마도 추정)-苦苦苦(부안군 위도)-군산도(군산시 선유도)를 경유하여 개경의 예성항에 도착하였다. 서공이 군산도에 도착했을 때, 고려 정부에서는 김부식을 접반사로 파견하여 국가차원의 영접행사가 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6일 정해에 아침 밀물을 타고 항행하여 진각(辰刻)에 군산도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그 산은 열 두 봉우리가 잇달아 둥그렇게 둘러 있는 것이 성과 같다.

여섯 척의 배가 와서 맞아 주는데, 무장병을 싣고 징을 울리고 호각을 불며 호위하였다. 따로 작은 배에 초록색 도포 차림의 관리가 타고 있는데 홀을 바로잡고 배 안에서 읊을 하였으나, 통성명은 하지 않고 물러갔다. 군산도의 주사(注事)라고 한다. 이어 역어관(譯語官)인 합문통사사인(閤門通事舍人) 심기(沈起)가 와서 동접반(同接伴) 김부식(金富軾)과 합류하였다. …… 배가 섬으로 들어가자 연안에서 깃발을 잡고 늘어서 있는 자가 1백여 인이나 되었다. 동접반이 서신과 함께 정사, 부사 및 삼절(三節)의 조반을 보내왔다. 정사와 부사가 접반에게 이첩(移牒)하여 국왕선장(國王先狀)을 보내니, 접반이 채색 배를 보내어 정사와 부사에게 군산정(群山亭)으로 올라와 만나주기를 청했다. 그 정자는 바다에 다가가서 있고 뒤는 두 봉우리가 의지하고 있는데, 그 두 봉우리는 나란히 우뚝 서 있어 절벽을 이루고 수백 길이나 치솟아 있다.

문(門) 밖에는 공해(公廨) 10여 칸이 있고, 서쪽 가까운 작은 산 위에는 오룡묘(五龍廟)와 자복

사(資福寺)가 있다. 또 서쪽에 송산 행궁(松山行宮)이 있고, 좌우 전후에는 주민 10여 가(家)가 있다.

오시 후에 정사와 부사는 송방(松舫)을 타고 해안에 이르렀고, 삼절은 수종 인원을 이끌고 관(館)으로 들어갔는데 접반과 군수가 달려와 맞이하였다. 뜰에는 향안(香案)이 마련되어 있는데, 궁궐을 바라보고 배례(拜禮)하며 무도(舞蹈)하고서는 공손하게 성체(聖體)의 안부를 물었다. …… (『宣和奉使高麗圖經』 권36 海道 3 群山島)

위의 기록을 보면, 영접행사가 열렸을 당시 군산도는 왕의 임시 거처인 송산행궁, 국빈에 대한 영접행사가 열렸던 군산정, 해신께 제사를 올리던 오룡묘, 사찰인 자복사 등의 국가의 주요 시설들이 갖추어진 국제 해양 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행궁의 앞에 수도 개경의 주산인 ‘崇山(송산)’이란 명칭을 붙인 것은 그 위계가 매우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진 2] 선유도 망주봉 고려시대 유적 추정지

이러한 국가 주요 시설들의 대한 위치가 선유도의 망주봉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위의 기록에 ‘군산정’을 묘사하면서 등장하는 두 봉우리에 대한 내용은 선유도 망주봉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며, 망주봉 동쪽 기슭에 지금도 오룡묘가 존재한다. 현 오룡묘의 위치가 고려시대 본래의 위치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제사공간이라는 유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을 추측되며, 이러한 점은 다른 국가 주요 시설들의 위치를 고증하는데 있어 하나의 좋은 기준이 된다.

1990년 대 중반부터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는 선유도는 물론 고군산군도 일원에 대한 학술지표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습된 유물의 양상, 지형변화, 탐문내용 등과 문헌 기록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등장하는 고려시대 주요 시설의 위치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사진 2 참조)

### Ⅲ. 선유도 망주봉 일대 고려시대 유적지 조사현황

#### 1. 2013년 송산행궁 및 군산정 추정지 시굴조사<sup>1)</sup>

선유도 망주봉 서쪽 봉우리의 남쪽 기슭과 하단부는 송산행궁과 군산정의 터로 추정된다. 이곳은 2~3단의 넓은 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표상에 상감청자편을 비롯하여 도기편, 기와편 등이 폭넓게 산재되어 있다. 2013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이 일대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는 토지사용 동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제반 문제로 인해 전체 구역인 아닌 일부 구역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유적의 전체적인 면모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곳곳에서 고려시대 건물과 관련된 담장시설, 적심, 배수로 시설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 일대 고려시대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특히 건물의 기둥을 세우기 위한 기초부인 적심의 직경이 1.5m에 달해 건물의 규모가 매우 컸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청자 양각 도철문 향로편, 압출양각대접, 흑백상감 기법의 청자편 등 11~14세기에 걸친 당대 최고의 청자들이 출토됨에 따라 이 일대에 있었던 건물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고려시대 송산행궁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

#### 2. 2015년 오룡묘 일대 시굴조사

『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오룡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사진 3] 청자양각도철문 향로편

오룡묘는 군산도(群山島)의 객관(客館) 서쪽 한 봉우리 위에 있다. 전에는 작은 집이 있었다. 그 뒤 두어 걸음 되는 데에다 지금 홀로 두 기둥이 있는 한 채의 집만을 새로 지었을 뿐이다. 정면에 벽이 서 있고 거기에 오신상(五神像)이 그려져 있는데, 뱃사람들은 그것을 펴 업

1) 군산대학교박물관, 2014, 『군산 선유도 崇山行宮址 시굴조사 약보고서』 참조.



숙하게 제사한다.

(『宣和奉使高麗圖經』 권17 祠宇 五龍廟)

위의 기록에서 보듯 오룡묘는 해양제사유적으로 당시 한 채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당시의 것이 아니고 후대에 다시 지어진 것이다. 현재 오룡묘는 선유도 망주봉 동쪽 봉우리의 산 중턱에 자리하는데, 이곳은 자연 암반이 해안으로 돌출된 지형으로 앞이 훤히 트여있다.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고려시대 오룡묘의 정확한 위치와 제사유적을 찾고자 현 오룡묘 주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sup>2)</sup>

조사 결과, 고려시대 오룡묘 건물의 정확한 흔적은 찾지 못하였지만, 건물지의 중첩흔적이 확인되었고 청자편을 비롯한 다량의 고려시대 기와편 등이 출토됨에 따라 고려시대 이곳에 건물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조선시대 백자와 기와편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오룡묘는 고려시대 이후에도 수 차례의 개·보수를 통해 그 명맥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본래 오룡묘가 교란 내지는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 조사가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아닌 제약된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였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범위를 넓혀 꾸준한 조사를 실시한다면 고려시대 오룡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진 4] 오룡묘 전경



[사진 5] 오룡묘 일원 출토 청자

### 3. 2015년 객관 추정지 시굴조사<sup>3)</sup>

2015년 군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망주봉 동쪽 봉우리의 하단부를 대상으로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곳은 『宣和奉使高麗圖經』에 등장하는 ‘객관’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2) 장제근, 2015, 「선유도 오룡묘 제사유적의 성격」, 『군산, 군산도 해양문화역동성』, 군산대학교박물관.

3) 군산대학교박물관, 2015,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참조.





[사진 6] 객관 추정지 전경

당시 조사는 객관 추정지 중 토지사용동의가 이루어진 가장 밑단의 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곳은 오랫동안 개간과 경작, 개발행위가 반복되면서 유적의 훼손이 이미 심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시굴조사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먼저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적심과 석렬(건물 기초부 또는 배수시설), 석축시설(담장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이곳에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 유구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건물의 정확한 구조 및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고려시대 청자편과 도기편, 기와편 등이 주로 출토됨에 따라 건물의 주된 운영시기가 고려시대임이 밝혀졌다. 또한 출토된 유물 중 흑백상감 청자, 앵무문이 음각된 청자합 편, 압출양각기법으로 제작된 청자접시 등 상급 유물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있던 건물의 위상이 높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나말여초기의 대표적인 토기로 알려진 파상문 대호편과 초기청자가 출토되었으며,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나라

토기병과 흡사한 유물이 출토되어 건물 존속시기의 상한과 하한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즉 나말여초기(후백제) 또는 고려 초에 조성되어 12세기에 최대 번성기를 누리다가 13세기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7] 객관 추정지 출토 청자편



[사진 8] 객관 추정지 출토 나말여초 유물

##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고려시대 군산도의 중심이었던 선유도 망주봉 일원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이루어진 조사내용과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현재 선유도는 새만금 국제해양관광조성사업과 맞물려 개발 붐이 불고 있으며, 군산 신 시도에서 선유도까지 연결되는 연육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유도가 지니는 무구한 역사성과 고려시대를 대표했던 국제해양도시의 위상은 뒷전으로 밀린 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망주봉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만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주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약된 범위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선유도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 및 효율적인 보존대책, 활용방안이 모색되기 위해서는 학자들 뿐 아니라, 관련 지자체, 지역민들의 관심과 필요한 실정이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선유도 고려시대 유적의 전모가 드러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새만금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한국역사상 島嶼(섬)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

— 도서(섬) 인문지리학을 통한 해양권역 연구 활성화 —

홍 영 의 ■ 한국 섬역사연구소 소장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1. 島嶼(섬) 기초자료의 정리와 연구 진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

도서(島嶼, 이하 섬으로 축약)은 살아있는 역사공간이다. 섬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 내륙과 해양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이며, 자연생태 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섬 주민의 생활 터전이며 활동 영역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이전의 섬은 하나의 문화권(문화체계)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삶을 축적해 왔다. 때문에 섬 연구자들은 육지에서 잃어버린 삶의 흔적이나 문화의 원형들을 섬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체 섬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인도에 관심이 많고, 그것도 연육교 개념으로 접근하는 육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섬에 대한 학계의 인식 또한 ‘고립·단절·유배’라는 관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섬에 대한 연구 자료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이 섬의 지명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정리, 섬 관련 색인어 추출, 웹(WEP) 검색망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연구의 확산이다. 이러한 계획으로 본 한국 섬(섬)역사연구소는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에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매년 2억 5천만원씩 3년간 7억 5천만원의 연구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참여

인원은 총 13명으로 연구책임자인 필자를 비롯해 공동연구원으로 각 시대사 전공자 6명, 박사급 전임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으로 5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있다.

## 2. 과거 도서(섬) 정책에 대한 반성과 관심 제고

섬은 ‘사방(사면)이 물로 싸인 육지’라고 한다. 바다의 섬, 강 안의 섬, 호수 안에도 섬이 있다. 고려 인종 때 송나라 사신 서공은 “바다 가운데 땅으로 촌락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주(洲)라고 하며, 주보다 작으나 역시 살 수 있는 것은 도(島)라고 한다. 도보다 작으면 서(嶼)라고 하고 서보다 작으면서 초목이 있으면 섬(苦)이라 하고, 섬과 서 같으면서도 그 바탕이 순전히 돌이면 초(焦)라고 한다.”라고 하였다(『고려도경』). 또 여기에는 고려가 ‘주도(洲島) 3천 7백’이라 하여 3,700개의 섬의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서공은 고려의 섬 숫자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오늘날 신해양법에서 보면, 섬이란 ‘수면으로 둘러싸인 만조시 수면위에 있는 자연히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라고 한다(유엔 해양법협약 1958년 영해법 제10조 1항; 1982년 신해양법 121조 1항). 이에 따르면, 2010년 1월 현재 국토해양부가 집계한 섬은 남·북한 합쳐 4,403개이다. 그중 남한에 3,358개가 있으며, 유인도는 482개, 무인도가 2,876개로 전체 섬의 85.65%를 차지한다(2010, 국토해양부,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사한 섬은 4,201개이다. 무인도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무인도는 2,642개이다.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2,020개)이며, 그 다음은 경상남도(565개), 충청남도(270개)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남북한 약 4,4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서남해 도서지역은 ‘새가 날다가 내려앉은 듯한’ 혹은 ‘하늘에서 바둑알을 흘트려 놓은 듯하다(『비변사등록』).’라고 하였다. 섬은 저마다 이름을 갖고 있다. 섬의 이름은 섬의 외형에 기인하고, 섬과 함께 한 사람들의 삶의 역사, 바다와 육지와의 관계, 다른 섬과의 유사성 등에서 지어지기도 하였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섬의 내면적 삶에서 끌어온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한국 고·중세 역사에서 섬의 지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1861년(철종 12) 김정호가 작성한 「대동여지도」이다. 「대동여지도」에는 바다와 하천에 총 1,260개 섬[島]과 암(巖)이 수록되어 있다. 명칭이 있는 섬은 963개로 바다 섬이 914개, 하천의 섬이 49개이다. 명칭이 없는 섬은 297개로 바다 섬이 282개, 하천 섬이 15개이다. 이와 같이 19세 후반 1,300여 개에 달하는 섬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만큼 해양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며, 섬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고려 초에 태조 왕건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왕건은 ‘해상의 경제상 이익[舟楫之利]’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고려 말의 학자이며 관리였던 조준·조운흘과 조선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또한 섬의 유용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준은 태조 왕건의 후삼국 통일 기반으로서 섬의 수입을 강조하였다(『고려사』권118 열전 31 제신 조준 및 『고려사』권82 지36 병2 둔전). 조운흠은 황폐화된 섬을 적극 개발하자고 하였다(『고려사』권112 열전25 제신 조운흠).

15세기 조선 세종 때에는 제주도 등의 인근 섬을 조사한 적이 있었다. 세종은 전라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어떤 섬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이들 섬에 공사(公私)의 선척(船隻)이 왕래할 수 있는지, 섬과 섬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들 섬에서 생산되는 물산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104권, 세종 26년 갑자). 이러한 중앙 정부의 섬에 대한 관심은 조선전기 지리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정약용은 “섬은 우리나라의 그윽한 수풀이니 진실로 경영만 잘하면 장차 이롭도 없는 물건이 솟아나듯, 산이 일어나듯 하여 …”라고(『경세유표』 권2 추관 형조5 수원사) 하여 섬의 경제성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학술연구는 육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강을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그 확장 또한 해로와 수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섬은 해로와 수로를 잇는 거점 지역으로서 식량 자원의 기지, 교통로의 연결점, 전략적 거점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근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차지한 섬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방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한국 고·중세사 연구의 확대를 위해서도 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가 주목한 것이 섬의 지명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정리와 이를 통한 새로운 연구의 확산이다. 현재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조사해 본 결과 한국 고·중세 섬 지명으로 약 2,800여 개의 표제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조선왕조실록』·『신증동국여지승람』·『증보문헌비고』·『대동지지』·『대동여지도』 등을 통해서 추출하였다. 이 섬 지명은 본 연구과제 DB 작업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 3. 한국 고·중세 연구 방법론과 연구 지평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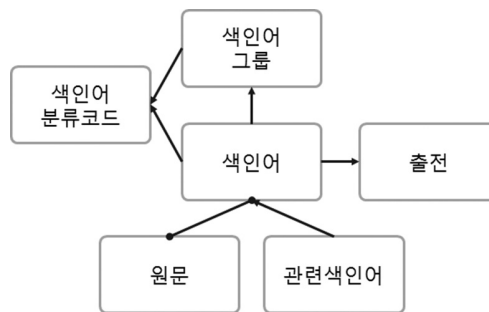
#### － 자료의 DB화 방법 및 내용

본 연구과제는 한국 고·중세 섬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관심을 유도하며,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중세 섬 관련 기초자료를 추출하고, 섬의 편년을 정리하여, 섬의 위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헌자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정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섬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 정리 역시 해당 자료를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합한 표제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먼저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도경』·『고려사』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증보문헌비고』·『여지도서』·『대동지지』 등과 같은 자료의 분류 방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분류 기준과 표제어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대분류로서 총류·지리·역사·행정·시설·경제·문화·인물

등의 범주로 나누었다.

상위분류[대분류]에는 섬의 구성요소에서 찾아지는 많은 하위분류 요소가 있다. 하위분류 요소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섬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표제어[중분류]의 정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표제어의 간략한 설명과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표제어에서 검출된 것이 가장 하위 단위의 구성요소인 색인어[소분류]가 되며, 이것이 최종 검색어가 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문헌자료 정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섬 관련 표제어 개념사전이 도출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어느 시기, 어느 범주의 용어를 표제어의 기준으로 삼는가의 문제는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 갈 것이다.

## 1) 자료의 구조



## 2) 기초자료 구축 방법

도서(섬) 지명 및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 과정



## 3) 자료의 구성

〈표 1〉 자료 구성

자료항목	자료설명	예시
색인어	색인어 명칭(한글/한자)	珍島郡(진도군)
색인어 그룹	색인어가 포함되는 그룹 명칭(또는 ID)	G0003245/珍島
분류코드	색인어 분류코드 부여 ex. A020918: 대분류[A]+중분류[02]+소분류[0918]	A020918
원문	색인어가 포함된 기사 원문(표제어 마크업 포함) -간략 마크업은 분류코드를 사용 ex. -----〈A020918〉표제어〈/A020918〉-----	海珍郡·珍島郡: 本百濟 因〈A020918〉珍島郡〈/A020918〉, 新羅改珍島, 爲務安領縣, 高麗爲羅州任內. 〈A021603〉海南縣〈/A021603〉, 本百濟〈A020321〉塞琴縣〈/A020321〉, 新羅改〈A021045〉浸溟縣〈/A021045〉, 爲陽武領縣, 高麗改海南, 爲靈巖任內. ... (중략)... 土宜五穀, 〈E030001〉桑〈/E030001〉·〈E030001〉麻〈/E030001〉·〈E030001〉木〈/E030001〉·〈E030001〉楮〈/E030001〉·〈E030001〉苧〈/E030001〉, 土貢, 〈E030002〉狐狸皮〈/E030002〉·〈E030002〉黃毛〈/E030002〉·... (후략)
출전	원문이 수록된 출전	『世宗實錄』地理志 / 全羅道 / 羅州牧 / 海珍郡②
관련 색인어	시대별 이칭, 관련 지역 등 해당 색인어와 연관된 다른 색인어	牢山郡/臨淮/買仇里縣/瞻耽縣/桑/麻/木縣/楮/苧/狐狸皮

## 4) 작업 화면

색인어 아이디	I0014592		
색인어	진도군		
색인어(한자)	珍島郡		
기사원문	<p>海珍郡, 珍島郡: 本百濟 因〈A020918〉珍島郡〈/A020918〉, 新羅改珍島, 爲務安領縣, 高麗爲羅州任內. 〈A021603〉海南縣〈/A021603〉, 本百濟〈A020321〉塞琴縣〈/A020321〉, 新羅改〈A021045〉浸溟縣〈/A021045〉, 爲陽武領縣, 高麗改海南, 爲靈巖任內. ... (중략)... 土宜五穀, 〈E030001〉桑〈/E030001〉·〈E030001〉麻〈/E030001〉·〈E030001〉木〈/E030001〉·〈E030001〉楮〈/E030001〉·〈E030001〉苧〈/E030001〉, 土貢, 〈E030002〉狐狸皮〈/E030002〉·〈E030002〉黃毛〈/E030002〉·... (후략)</p>		
분류코드	A020918	분류코드 변경	
색인어그룹	珍島	그룹 변경	
출전	『世宗實錄』地理志 / 全羅道 / 羅州牧 / 海珍郡②	출전 변경	

ID	한글	한자	삭제
R0020307	가흥	嘉興	삭제
R0043083	도산현	道山縣	삭제
R0065392	뇌산군	牢山郡	삭제
R0010336	임희	臨淮	삭제

추가

## 5) 분류체계의 설정과 적용

〈표 2〉 분류체계

순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0	총류 총류	일반	(1)各島 (2)江島 (3)孤島 (4)空島 (5)近島 (6)島長 (7)島嶼 (8)島人 (9)島巖 (10)配島 (11)苦嶼 (12)遠島 (13)絶島 (14)海島 (15)草(焦) (16)기타
		섬이름	(1)島 (2)嶼 (3)巖
1	지리	山	(1)山 (2)峯 (3)巖 (4)林 (5)기타
		水	(1)江 (2)川 (3)溪 (4)池 (5)瀑 (6)淵 (7)기타
		동물	(1)동물 (2)어류 (3)기타
		식물	(1)식물 (2)나무 (3)기타
		광물	(1)광물 (2)귀금속 (3)기타
2	역사	연혁	(1)삼국 (2)고려 (3)조선 (4)기타
		행정명	(1)牧 (2)州 (3)府 (4)郡 (5)縣 (6)面 (7)里 (8)村 (9)鄉 所 部 曲 (10)기타
		方面	(1)四境 (2)方里 (3)기타
3	정치	관청	(1)官舍 (2)客館 (3)倉庫 (4)기타
		관직	(1)지방관 (2)土官 (3)기타
		관방	(1)성곽 (2)鎭營 (3)堡 (4)墩臺 (5)烽燧 (6)기타
		군사	(1)軍丁 (2)營鎭軍 (3)水軍 (4)兵船 (5)武器 (6)일반군 (7)기타
		교통	(1)해로 (2)도로 (3)교량 (4)역원 (5)조운 (6)津渡 (7)浦港 (8)기타
		제사	(1)祠 (2)廟 (3)壇 (4)기타
4	경제	관개	(1)堤防 (2)堤堰 (3)狀 (4)기타
		인구	(1)호구 (2)인구 (3)노비 (4)기타
		토지	(1)전답 (2)간전 (3)수전 (4)목장 (5)어장 (6)기타
		조세	(1)田稅 (2)徭役 (3)大同 (4)糶糴 (5)기타
		물산	(1)土貢 (2)藥材 (3)土産 (4)海物 (5)기타
		기구	(1)농구 (2)어구 (3)선박 (4)기타
5	사회	시장	(1)場市 (2)波市
		형정	(1)犯罪 (2)刑獄 (3)法令 (4)訟事 (5)流配 (6)도망 (7)기타
		교육	(1)향교 (2)서원 (3)서당 (4)冊版 (5)기타
		재이	(1)천재지변 (2)역질 (3)화재 (4)표류 (5)사건·사고 (6)파난 (7)기타
		구휼	(1)救恤 (2)기타
		누정	(1)樓 (2)亭 (3)閣 (4)精舍 (5)기타
6	문화	능묘	(1)능묘 (2)비석 (3)기타
		가옥	(1)가옥 (2)정원 (3)별장 (4)기타
		생활	(1)음식 (2)의복 (3)주거 (4)기타
		민속	(1)冠婚喪祭 (2)洞祭 (3)명절 (4)기타
		종교	(1)불교 (2)도교 (3)무속 (4)기타
		예술	(1)미술 (2)건축 (3)공예 (4)음악 (5)기타
7	인물	유적	(1)古蹟 (2)善政碑 (3)遺墟碑 (4)遺墟地 (5)기타
		교류	(1)사신 (2)민간 (3)기타
		문학	(1)시 (2)소설 (3)기행문 (4)문집 (5)기타
		성씨	(1)姓 (2)續姓 (3)亡姓 (4)기타
		본관	(1)세거지 (2)기타
		인물	(1)급제자 (2)효자·열녀 (3)일반인 (4)기타



## 4. 도서(섬)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출

섬은 오늘날에도 영토적 가치, 생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산업적 가치 등에서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섬과 해양사의 관점에서 전체 역사를 엮고자 할 때 관건은 ‘거점과 교류’ 혹은 ‘거주’에 있다. 바다는 소통의 공간으로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한다. 연안과 내륙으로 왕래하는 상선·어선들이 드나들었던 연해 ‘서남해로(西南海路)’, 지방 세금을 수도인 개경이나 한양으로 옮겨야 했던 ‘조로(漕路)’, 중국과 일본 등을 서로 오갔던 사신들의 바닷길인 ‘사로(使路)’ 등은 바로 ‘거점과 교류’의 행로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섬과 해양을 통한 교류의 내용을 파악할 때 내륙과 해양 사이의 상호작용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땅히 섬과 섬 주민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소는 역사 지리적 조건과 함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육지 중심의 공간인식을 극복하고 해양 시대에 걸 맞는 공간인식의 정리와 새로운 시각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우리 학계의 연구는 고·중세 섬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도처럼 이슈가 되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이다. 한국 역사 속의 섬 지명 및 관련 자료의 DB 구축 작업과 같은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히 정리·집적되어야 할 섬 이름이 얼마나 되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초적 문헌자료조차 정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기존 문헌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 고·중세 섬 지명으로 약 2,800여 개의 색인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과제 DB 작업의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전근대 섬 지명과 관련 색인어를 추출하여 수집 정리된 자료의 DB화를 위해 대분류[상위분류]·중분류[표제어]·소분류[색인어-검색어] 등 세 분류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섬 역사 자료의 재배열 및 시대성을 부여하는 한편, 세부 주제어(소분류) 정리를 통한 섬 지역의 자연지리(생태환경)·정치·경제·문화, 영상자료(고지도·회화)의 구축을 통해 섬 문화콘텐츠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웹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가 지향하는 것은 소통과 교류를 추적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교류는 흔히 일컬어지는 단순한 인적·물적 교류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반도의식 혹은 육지의식[내륙 중심주의]과 바다사람의 의식[해양의식] 간의 접근·만남·소통을 추적하는 분석틀로서의 교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섬의 자료 축적을 통한 새로운 자료 발굴 소개, 둘째, 섬의 인문 지리적(역사·지리·환경) 변화 과정 추적, 셋째, 섬의 토산물과 물류 경로 확인 등을 주요 주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학술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며, 세미나·콜로키움·학술발표회를 통해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은 ‘한국 역사속의 도서(섬) 관련 자료 DB’로 정리되어 웹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되어 연구자와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자료가 제공될 것이며, 섬의 인문지리적(역사·지리·자연환경) 변화과정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섬의 토산물과 물류 시스템(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섬의 역사 지리학 및 인문학 연구 활성화 유도와 섬의 활성화(관광과 문화산업 인프라) 제공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2분과

### 항로와 해역, 그리고 경계

잊혀진 使行路 黃海南路의 역사적 의의

박영철      군산대학교

1323년 신안선의 항로

윤용혁      공주대학교

13세기 서해안 해잡 분석

이종수      중앙대학교

임진왜란 초기해전의 연구

제장명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궁수

한성일      부산대학교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 동향과 전망

한정훈      목포대학교

프랑스 선교사의 서해안 입국로 모색

김수태      충남대학교

서해 최대의 험지 안흥량과 굴포운하

문경호      대전과학고등학교

백제 白江과 白村江

서정석      공주대학교

제주도 해안의 환해장성과 규슈 해안의 石壘의  
역사적 고찰

김보한      단국대학교

동해안 주상절리 분포 실태와 활용방안

최재영      경주대학교

문명 간 교류 유형 비교연구

김정하      부산외국어대학교

환황해권 교류 탐색을 위한 예비적 고찰

임용덕      제주대학교





## 잊혀진 使行路 黃海南路의 역사적 의의

박 영 철 ■ 군산대학교 사학과

### 1. 황해북로와 황해남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단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와 중국을 왕래하는 使行路 즉 사절의 교통로는 지정학적 특성에서 육로와 해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해로의 경우는 가장 일찍 개발되고 가장 안전한 환황해 연근해항로와 황해중부 횡단항로, 황해남부 사단항로, 동중국해 사단항로, 동해남부 횡단항로 등의 명칭이 거론되고 있지만,<sup>1)</sup> 연근해항로와 중부횡단항로는 편의상 황해북로로 통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황해남부 사단항로와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중복되는 개념으로 보이기도 하여 여기서는 황해남로로 통칭한다. 동해남부 횡단항로는 고대신라와 중국을 연결하는 특별한 항로이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항로는 황해남로로서 한반도의 항구는 군산도를 마주보면서 금강하구 만경강 동진강이 만나 커다랗고 안정된 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항구를 지칭하는데, 전남의 영광, 영산강 하구의 회진, 청해진 해남 강진 등을 포괄할 수도 있다. 중국 측의 항구는 양자강 하구의 항구로서 항주, 영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강하구와 양자강 하구가 황해남로를 통해 연결되는 셈이다. 후백제의 견훤이 918년과 927년에 사신을 오월국의 항주에 사신을 파견한 항로가 이 항로로 추정된다. 유명한 국제 항구도시 寧波는 徐兢의 國信使 사절단이 고려를 향해 출발한(1123) 전진기지인데 寧波의 앞 바다에는 舟山群島라는 군산도와 닮은 꼴의 섬이 있어 선단

1) 윤명철, 2003,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pp.234-241.

의 기항지 역할을 한다.

금강하구와 양자강 하구를 연결하는 황해남로는 후삼국 시대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사행로로 대두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양세력을 기반으로 건립한 고려왕조는 황해남로의 주요한 항로이자 고려국의 관문으로서 군산도에 송산행궁을 설치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sup>2)</sup> 송산행궁의 설치는 해양국가인 고려가 관방의 차원에서 배려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송이 황해남로를 경유해 徐兢의 사절단을 파견해 온 것도 북방의 신흥 유목민족인 거란족의 대두에서 비롯된 동아시아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대륙과의 관계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 북방의 세력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육로와 해로의 비중도 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양을 사이에 둔 문약한 송과의 관계보다 육로로 직결된 북방의 유목강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한 고려국가는 송과의 지속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황해남로는 외교적으로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남송에 들어와서도 송상이 이 길을 통해 왕래하였다고 하듯이 빈번한 민간교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고려인이 적극적으로 이 길을 왕래한 흔적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송을 멸하고 대륙을 통일한 원제국의 시대에 와서도 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황해남로가 외교적으로 의미를 다시 찾게 된 것은 고려말에 이르러서였는데 황해남로의 재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金正浩(1804?-1866)와 같은 지리학의 대가도 큰 의의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김정호의 『大東地志』는 구체적인 항로는 명시하지 않고 조선시대 육로에 의한 조공은 조선 태종조부터 시작되었고 建文帝(1399-1402) 이전 즉 홍무제 때는 水路로 南京을 왕래했다고 한다.<sup>3)</sup> 홍무제 때는 水路로 남경을 왕래한 이 길은 바로 황해남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상한 것은 大東地志는 고려시대 서공의 황해남로를 상세히 언급하면서도, 고려말 황해남로의 재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金正浩(1804?-1866)는 大東地志에서 高麗圖經을 인용하여 羅州黑山島를 설명하는 중에 靈巖에서 출선하여 6일이면 台州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생각건대, 唐에 朝貢하는 使行路는 台州路를 경유하면 登州路를 경유하는 것보다 몇 배나 빠르다. 사천으로 피난 간 현종황제에 조공하러 갔을 때도 틀림없이 이 台州路를 경유했을 것이다.”<sup>4)</sup>라고 말한다. 또한 高麗圖經의 인용 말미에서 “고려 때 南商은 (바다 건너) 왕래하기를 강나루 건너는 것보다 쉽게 했는데, 지금은 (絶洋險津처럼) 天外世界가 되었다./高麗時 南商之往來易於涉津, 今則作天外世界也.”<sup>5)</sup> 라고 한탄하듯이 말한다. 金正浩는 고려와 조선의 차이를 크게 보고 있는 만큼 고려말 조선으로 이어지

2) 송산행궁과 군산도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졸고, 2013.8. 「黃海南路로서의 群山島의 역사적 위상」, 제4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1, 『바다와 섬, 소통과 교류 그리고 지속가능성』 참조.

3) 『大東地志』 권28, 海路/萬曆戊午以前入朝旱路라는 표제의 割註에 “自太宗朝旱路始, 建文以前則以水路通南京”이라고 한다.

4) 金正浩, 大東地志/程里·海路, “按唐朝之路, 由台州則於登州路當倍蓰矣. 此必朝明皇于蜀時由此.”

5) 金正浩, 大東地志/程里·海路. 이어서 동시대의 사례를 들고 있다. 지난 戊子년에 西江의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小船으로 延平 해중에서 바람을 만났는데 하루 晝夜만에 登萊에 표착했고, 또 丁酉년에 (강남의) 蘇州·杭州 사람이 羅州에 표착했는데 말하기를 하루 晝夜만에 왔다고 하니, 결코 絶洋險津이 아니다.

는 시기에 황해남로의 재개에 대해 어떤 의미부여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약간 의외이다. 그는 조선의 신하여서 그런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주지하듯이 조선시대의 경우 수많은 사신들이 한반도와 중국을 왕래하였지만 그 길은 대개 육로를 경유하는 육로로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고려시대의 경우는 육로와 수로를 수시로 변경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가 처한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정세 변동에 따른 것이다. 물론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육로로 한정된 것만은 아니지만, 고려의 경우는 훨씬 복잡하다. 특히 해로의 경우는 蘇定方 군대의 출항지이기도 한 산둥반도의 登州와 한반도의 덕적도를 연결하는, 황해를 북쪽으로 횡단하는 루트인 ‘黃海北路’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한편 북송대 徐兢 사절의 항로로 유명한 한반도와 중국을 斜斷하는 이른바 ‘黃海南路’항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大東地志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사행로 변화를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면서 그 격세적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외교 사절이 왕래하는 使行路의 변경은 곧 국제정세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서 해양사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한다. 조선시대에 와서 황해남로의 망각 내지 상실은 근대적 주요한 전환기에 처한 조선시대의 역사적 향방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 2. 황해남로의 재개

앞서 말했듯이 황해남로가 외교적으로 의미를 다시 찾게 된 것은 고려말에 이르러서였다. 이 역시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의 정치적 변화가 원인이었다. 고려말기에 중국 대륙에서 원·명의 교체가 일어나 남방에서 주원장의 명이 흥기하고 패망한 원의 후예가 북방으로 이주해 건설한 북원의 세력은 고려전기의 삼국정립의 국제정세를 방불케 한다. 건국 초기에 남경에 수도를 둔 명조는 고려와의 외교에 있어서 황해남로를 통해 교섭하였고 고려도 황해남로를 통해 교섭하였다. 熱河日記의 저자 朴趾源(1737-1805)은 尙瑞院에 보관되어 있는 皇明馬牌에 대해 고려말 군산도 경유의 사신단에 대해 내린 마패라고 한다.

尙瑞院에 보관되어 있는 明의 馬牌는 짙은 누런 빛 무늬 없는 비단에 烏木을 軸으로 한 두루마리다. 길이는 두 자 네 치요, 넓이는 다섯 치 남짓하고, 가장자리에는 螭龍을 수놓은 북판에 안장을 갖춘 붉은 말 한 필이 놓여 있다. 황제의 指示文을 썼는데, “공무로 가는 인원이 역을 통과하는 데는 이걸 나누어 가지고 가서 맞추어 본 다음에야 마필의 제공을 허락한다. 만일 이것을 맞추지 않고 함부로 역말을 준다든가,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정실에 따라 수응한 자는 함께 중죄로 다스릴 것이니, 마땅히 이 명령을 지킬지어다. 홍무(洪武) 23년(1390년) 월 일.”이라 하였다.

글자는 모두 검정 실로 수를 놓았고, 年號 위에는 玉璽를 찍었다. 그 璽文에는, ‘制誥之寶’라 하였다. 그리고 왼편에는 ‘通字七十號’라고 가는 글씨로 썼으며, 아래쪽 聯幅에는 작은 옥새의 절반을 찍었다. 또 붉은 말 한 필을 그린 軸에는 ‘通字六十七號’라 하였고, 푸른 말 한 필을 그린



축은 ‘通字六十八號’였고, 또 붉은 말 두 필을 그린 축은 ‘達字三十號’라 쓰여 있다. 대체로 홍무(洪武) 경오년(1390년)에 군산도(群山島)를 거쳐서 배가 출발하여 금릉(金陵)으로 조회할 때에 내린 마패의 네 종류이다.<sup>6)</sup>

熱河日記가 말한 皇明馬牌란 바로 辛禡12년(1386) 고려가 명에 헌납한 元의 8도의 마패 대신 명으로부터 새로 받은 쌍마4도와 단마2도의 마패를 가리킬 것이고,<sup>7)</sup> 이것은 元왕11년(1385) 10월에 曹敏修 등을 보내 책력과 부함을 요청한 것<sup>8)</sup>에 대한 급부일 것이다.<sup>9)</sup> 1390년에 금릉으로 입조한 사신 중에는 4월17일 개경을 출발하여 5월6일 남경에 입경한 密直副使 柳爰廷과 聖節使로 6월에 출발하여 9월18일 도착한 政堂文學 鄭道傳과 賀正使로 9월에 출발한 12월 20일에 입경한 密直副使 姜隱 등이 있었는데 군산도 경유의 황해남로로 입조한 것은 密直副使 柳爰廷일 것이다. 그의 목적은 홍무제의 十子 魯王의 問喪을 위해서였다.

皇明馬牌와 朴趾源의 증언은 조선왕조가 개창하기 직전까지도 황해남로가 한·중 간의 使行路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임진왜란 당시 柳成龍과 명의 戚繼兵과의 대화는 한반도와 중국의 정치적 친밀을 논하면서 황해남로의 역사적 존재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조선은 반드시 구제해야 할 나라이다. 예전에 성조가 燕京에 도움을 정하고 宣府·居庸 등의 關을 등으로 삼아 北胡를 막고 山東·조선을 왼팔로 삼아 海寇를 막았으니, 만일 조선을 구제하지 않으면 帝京이 불안하다.’ 하였고 인하여 손수 우리나라와 산둥이 바다를 끼고 서로 바라보는 형상의 그림을 그려 손가락으로 짚어 보이며 말하기를 ‘형세가 이러하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이 그림은 매우 좋다. 전에 金陵으로 조공할 때는 황해도 豐川에서 배를 띄워 며칠이면 금릉에 닿았으니 바닷길이 이처럼 가깝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내가 잘 안다’ 하였습니다.<sup>10)</sup>

『명실록』에 의하면 1371년의 고려사의 사절에 수반해서 “고려가 입공하고 高麗의 해선이 太倉에 당도하였는데 화물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묻다.”<sup>11)</sup>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황해남로를 이용한 조공무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1368년 명조의 건국 이래 이 때까지 양국 사절의 왕래는 대개 황해남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371년 11월에 고려에서는 중서성에 자문을 보내 육로개통을 요청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6) 『燕巖集』 권14, 熱河日記/口外異聞/皇明馬牌. 이가원역.

7) 辛禡十二年正月 太祖高皇帝, 收納前元給付, 鋪馬蒙古文字八道, 頒降符驗雙馬四道, 玄字四十七號·玄字四十八號, 玄字四十九號·玄字五十號. 單馬二道, 洪字二十二號·洪字二十三號. 起船二道, 安字一千三百三十六號·安字一千三百三十七號. 고려사, 권72, 輿服志1/印章/符驗.

8) 遣判門下府事 曹敏修, 贊成事 張自溫·禹玄寶, 簽書密直司事 河崙如京師, 謝恩. 且請曆日符驗. 仍納前元給付本國鋪馬蒙古文字八道. 고려사, 권135, 辛禡열전.

9) 조민수 사은사일행은 앞서 말한 부함을 갖고 1386년3월 귀국한다. 謝恩使 曹敏修·禹玄寶·張子溫·河崙, 進奉使 沈德符·任獻金子益等, 齋曆日及船馬符驗八道, 還自京師. 고려사, 권136, 辛禡열전, 元왕12년3월.

10) 宣祖實錄, 45권. 1593.윤11.16.

11) 明實錄, 권68. 1371.9.27.



이것은 무엇보다 해로의 험난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해로를 이용하는 도중에 난파당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하는데, 다음 사건이 대표적이다.

\*1372.8.5.에 중국에서 귀환 도중 해중의 許山에서 난파하여 홍사범 등 39인 익사하고 鄭夢周 등 113인이 표류.

\*1373.10.1.에 신정을 하례하기 위하여 출발하여 貢馬를 싣고 가는 도중 靈光 慈恩島에서 난파하여(11.5), 周英贊 등 38인과 제주마 24필이 익사.

또 난파는 아니지만, 해로의 험난함 때문에 사절이 기일을 어겨 고초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 1372년의 난파사고를 계기로 홍무제는 1373년 登州를 이용하여 귀국하라고 하여 육로를 허용하였지만, 이 약속은 이상하게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 후에 다시 請路表를 올려 요동로가 개통되었다. 한편 고려에서는 때로는 요동의 육로와 황해남로의 수로를 겸용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조공사로서 기일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사고도 발생하였다.

\*1383.8 門下贊成事 金庾와 密直副使 李子庸이 성절사와 천추절사로 파견되었지만, 해도가 험악하여 기일에 닿지 못하였다고 하여 홍무제가 法司에 회부하다.

이것은 고려말의 굴욕적인 대명 외교의 한 장면인데, 우왕은 1385년 유배에서 풀려나 귀국한 김유 등에 대해서 “경들이 사명을 받들고 28,000여 리의 먼 곳으로 유배를 갔다가 3년 만에 살아서 돌아왔으니 내가 매우 미안하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1384년 홍무제는 이 사건을 두고 遼東守將에게 ‘絶高麗勅’을 내리면서 “작년 봄 (고려 사절이) 수륙 양로로 오는 것은 신하의 예가 아니다(舊歲今春水陸兩至皆非臣禮)”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sup>12)</sup> 이것은 동아시아공동체 또는 ‘동아시아지중해’문명을 논할 때 있어서 그 문명이 도달한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음미해 보아야 할 말인 것으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본인은 고려의 조공을 거절하면서 하나는 수로로 반송하게 하고 하나는 육로로 반송하게 하는 괴이한 처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외교관계야말로 조공의 본질이면서, 황해남로의 재개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치적인 힘이 그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정치적인 힘은 특히 홍무제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영락제 때에 이르러 북경천도(1421)라는 결정적인 사건에 의해 황해남로는 역사적 소멸의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황해남로는 명의 건국과 함께 재개되었지만, 그 해로의 험난함과 고려의 요동로를 통한 입공로의 요청노력 및 1421년의 북경천도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북벌정책의 작용으로 북방

12) 明實錄, 권162. 이 문장은 暗行侮慢明彰褻瀆於是稽古典知此夷自古至今未嘗不侮慢中國而構兵禍構兵禍者也...로 이어진다.

이 중시되면서 등항해남로 해로의 험난함과 북방 세력의 안전과 요동을 통한 고려의 끈질긴 조공로 요청의 노력이 작용하여 점점

### 3. 황해남로의 소멸

고려말에 황해남로가 재개되었던 것은 신흥 명제국과 북방의 복원과 고려의 삼국정립적인 상황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특히 명의 수도가 남경에 있던 특별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황해남로는 육로에 비해 훨씬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선호되지 않았던 것 같다. 앞의 1390년의 세 번의 사행에서도 해로를 이용한 경우는 한 달이 걸리지 않지만, 육로를 이용한 경우는 보통 그 세 배인 3달이 걸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로는 오히려 問喪이라는 비상한 경우에만 이용되었던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해로는 가깝지만 위험했기 때문이다. 柳成龍의 대화도 전쟁의 비상시국에서 시급한 원조를 바라는 입장에서 황해남로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나온 임기응변의 말이라고 생각되며, 실제 조선왕조의 외교사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이후 황해남로로 使行路를 이용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 <고려사>와 <명실록> 등을 통해서 황해남로를 통해 왕래한 사행로를 검색해 보면, 의의로 조선왕조가 건국되는 1392년 이전에도 이미 황해남로를 통해 사행이 간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 개국 이후 황해남로를 통해 사행을 간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황해남로의 해로의 험난성과 함께 조선측의 사행로 변경의 요청노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1421년(영락19·세종3)의 북경천도라는 정치적 사건은 황해남로의 소멸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황해남로의 주요한 거점인 群山島의 경우 아마도 이곳에 배치된 수군진이 내륙의 沃溝(현재의 群山)의 鎭浦에 옮겨오면서 군산도는 고군산군도로 명칭을 바뀌게 되고, 鎭浦가 새로이 群山으로 불리게 된 것은 황해남로가 소멸되어 가면서 생긴 거대한 역사의 한 縮影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황해남로의 소멸은 세종시대 이후 우리 외교관계가 북방으로 치우치게 된 것을 의미하며 넓게 보아 대항해시대의 세계사적 조류에서 멀어지면서 동아시아의 한 폐쇄적인 변방세계로 후퇴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되돌아볼 의의가 있을 것이다.

# 1323년 신안선의 항로

윤 용 혁 ■ 공주대학교 교수

## 1. 신안선 항로에 대한 논의

신안선의 항로와 관련하여 우리가 갖는 오랜 의문은 역시 고려와의 관련성이다. 신안선의 적재 유물중 청자를 비롯한 고려의 유물이 확인된 것은 고려와의 관련에 있어서 의문을 끊임없이 부추겼다. 즉 일본으로 가는 도중 이 무역선이 고려의 항구에 기항하였을 가능성이 그것이다.<sup>1)</sup> 혹자는 이 배가 일본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서해와, 멀리는 필리핀까지도 연결하는 범위의 항로를 회항하는 무역선일 가능성도 제기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고려 항구에의 기항 가능성도, 고려청자의 선적 위치, 혹은 중심 선적품목인 도자기나 동전 등이 고려에서는 거의 필요하지 않은 상품이었던 점에서 경원(영파)에서 이미 선적된 물품일 것이라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고려 기항설이 입증되지 않은 단계에서 현재로서는, 다소 막연하지만 신안선이 영파에서 하카타로 향하던 중 태풍 등의 돌연한 해상 조건에 의하여 표류한 끝에 침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다.<sup>2)</sup> 필자도 종래 이같은 생각이었다.<sup>3)</sup> 그러나 이같은 정리에도 불구하고 신안선의 고려 기항 가능성은 한국 측에서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

1) 윤무병, 「신안침몰선의 항로와 제문제」 『신안해저문화』(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1977, pp.13-14

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바다로 보는 우리역사』 1995, p.53

3) 윤용혁, 「14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신안선」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김준엽선생기념서 편찬위원회 편, 아연출판부, 2010, p.262

다.<sup>4)</sup> 근년의 한 논문에서는 14세기 전반 원-일본간의 교역에 있어서 고려가 정례적 기항지로 이용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정기적 기항이나 표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sup>5)</sup> 또 일본 연구자 중에서도 신안선 유물 중 일부에는 고려행 물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6)</sup>

신안선의 고려 기항설은 여전히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신안선의 침몰이 고려의 서남해안 항로를 이용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였다는 생각을 필자는 가지고 있다. 하카타에로의 직항로 상에서 조난되어 서남해안으로 선체가 이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2. 13,14세기 일본 선박의 서해안 항로 이용

13, 14세기 고려 서해안에서는 일본 선박의 조난과 표류가 종종 기록되어 있다. 고려 서해 연안에서의 일본 선박의 조난은 실제 일본의 교역선이 고려의 연안 항로를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원종 4년(1263)의 기록이다.<sup>7)</sup> 신안선 60년 전에 해당한다.

6월, 일본 관선대사(官船大使) 여진(如眞) 등이 불법을 배우려 송으로 가던 중 바람을 만나 승, 속 합하여 230인이 개야소도(開也召島)에 닿고, 265인은 군산도와 추자도에 머물렀다.

태재부(太宰府) 소경전(少卿殿)의 상선에 탔던 78명이 송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다가 바람을 만나 배를 잃고 소선(小船)으로 전주(宣州) 가차도(加次島)에 정박하게 되었으므로, 전라도 안찰사에게 명하여 식량과 배를 주고 본국에 호송해 주었다.(6월)

7월(을사) 일본 상선 30인이 바람으로 표류하여 구주(龜州)의 애도(艾島)에 머무르므로 식량을 주어 (본국으로) 호송하였다.

이에 의하여 당시 고려 연안 해로에서 일본 선박의 해난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이에 따른 표풍인의 호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선박들은 모두 남송과 왕래하던 일본의 선박이며, 표류 혹은 정박 지점이 개야소도(현재는 군산시 개야도), 군산도

4) 김병근, 「신안선과 고대 동아시아 해상항로」 『수중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국학자료원, 2004 pp.112-113; 김성범 「한국 수중고고학 현황과 신안해저유적, 그리고 전망」 『14세기 아시아의 해상교역과 신안해저유물』 (학술회의 자료집),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6, p.396

5) 이강한, 「원-일본간 교역선의 고려방문 양상 검토」 『해양문화재』 1, 2008, pp.187-195.

6) 신안선 금속유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신안선의 항로를 '경원(영파)-하카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거울 등 유물의 일부는 하카타 이전, 또는 하카타 이후 회항하는 항구용으로 적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久保智康 「14세기 일본의 금속공예와 신안선 유물」 『신안선출토 금속유물과 14세기 동아시아의 금속공예』(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pp.137-144 참조.

7) 『고려사』27, 원종세가 4년 6월 및 7월

(군산 선유도), 추자도, 가차도(평북 선천), 애도(평북 구성, 현재는 정주) 등 거의 서해 연안 남북 전역에 걸쳐 있고 당시 일본의 대송 왕래가 강남으로의 직항로와 함께 한반도 연해를 북상하여 중국 연해를 돌아 남하하는 연안 항로가 종종 이용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8년 뒤인 1271년(원종 12) 진도 삼별초가 일본에 보낸 첩장 관련 자료 ‘고려첩장불심조’ 가운데는 ‘표풍인을 호송한 일(漂風人護送事)’이라는 항목이 있다. 일본측의 표풍인을 삼별초가 호송했다는 내용인데, 류영철은 이 표풍인의 호송이 구태여 ‘불심조조’에서 언급되었던 이유는, 당시 삼별초에 의한 ‘표풍인 호송사’에 대한 사실을 막부에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 하였다.<sup>8)</sup> 태재부(太宰府)의 소경전(少卿殿) 상선의 경우처럼, 당시 일본은 지방 영주, 혹은 사원이 주체가 되어 직접 상선을 파견하고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제반의 사실을 일본 정부 혹은 업무 담당자가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1270년 삼별초 봉기 이후 서남해 연안을 삼별초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서해 연안 표풍인 문제는 삼별초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삼별초는 잠재적 연합세력인 일본과의 통호(通好)를 여는 방안으로 이들을 본국에 호송하였고, 따라서 일본 측에 보내는 첩장에서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하여 언급하였을 것이다.

신안선 침몰 1년 후인 1324년(7월 계축)에도 서해 연안에서의 일본 선박의 조난이 기록되어 있다. “왜국 선박이 풍랑에 밀려 영광군에 도착하였는데 그 인원이 220여 명이였다. 선박을 준비하여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sup>9)</sup>고 하였다. 아마 복수의 선박이었을 이 일본 선박은 당시 한반도의 서남해안을 항해중에 있었고, 사고 이후 영광군의 해변에서 구조되었던 것이다.<sup>10)</sup> 신안선과는 딱 1년의 시차를 가진 것으로서, 신안선의 경우를 가늠하는 데 의미 있는 기록이다.

근년 서해안 태안반도 마도 해역에서의 조사에서는 도합 166점의 중국도자기가 출수되었다. 종류별로는 백자 97점(58.4%) 이외에 청자 15점(9.0%), 흑유 24점(14.5%)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송·원대 도자기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sup>11)</sup> 송상 등 교역선의 왕래를 입증하는 것이지만, 이들 자료는 “여송무역만이 아니고 송일(宋日)무역과도 관련한 송선(宋船)의 화물”로 추정되고 있다.<sup>12)</sup>

8) 류영철, 앞의 「『고려첩장불심조』의 재검토」 pp.168-169

9) “癸丑 倭舶飄風 至靈光郡 凡二百二十餘人 具舟楫歸之”(『고려사』 35, 충숙왕제가 11년 7월 계축일)

10) 이강한은 조난한 220명은 승려를 포함하여 대부분 상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강한, 앞의 논문, pp.192-193

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 마도 출수 중국도자기』 2013, pp.160-165 참조.

12) 다나카 가츠코(田中克子) 「한국의 태안 마도해역에서 출토된 중국도자기로 본 동아시아해역 해상무역의 양상」 『태안 마도 출수 중국도자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3, p.250

### 3. 신안선의 서해 항로 경유 가능성

1323년 신안선의 침몰은 한반도 서남 해안 신안군 증도 해역에서였다. 이 해역은 고려, 조선시대의 조운로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일대의 해로에 대해서는 『증보문헌비고』에서 “작고도·임치진·지도진·탐립도와 탈이도·증도·당지도·화난도 사이”<sup>13)</sup>라 하여 당시 조운선이 증도 부근을 통행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문경호는 “영산강 하구를 빠져 나온 조운선은 다시 병풍도와 증도 사이, 임자도와 지도 사이의 수도해역”을 거친다고 하였다.<sup>14)</sup>

신안선의 침몰지점이 고려 조운로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실제 신안선이 이 항로를 이용하여 운항중이었을 가능성을 높인다.

신안선 침몰은 신안선의 침몰이 대략 1323년의 6월 중하순 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간에 적힌 날짜는 4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21점이다. 이것은 물품을 포장하여 적재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5월 11일 36점, 6월 3일 55점이고, 확인된 자료중 6월 3일이 마지막 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263년의 경우 혹은 1324년의 경우도 조난 혹은 본국 환송의 시점이 6월 혹은 7월이어서 연안 해로에서의 조난의 시점은 대략 6, 7월 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태풍이 부는 계절이기도 하다. 조난의 원인이 태풍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신안선의 경우도 이같은 범주 안에서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태풍과는 다른 이야기이지만, 신안선이 조난된 시기에 고려 연안에서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였다는 점이다. “왜구가 회원(마산)의 조운선을 군산도에서 노략”하고(정해, 6월 27일), 다음 날(무자, 6월 28일)에 왜구가 추자도 등지를 횡행하며 포로를 잡아갔다. 그리고 7월에 정부는 송기를 전라도에 파견하여 왜구 100여 명을 사살하였다.<sup>15)</sup> 이렇게 보면 서남 연해에서 왜구가 횡행하던 시점과 신안선의 침몰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신안선의 운항 시점과 때맞추어 나타나는 근해에서의 왜구의 요란한 출몰 현상은 신안선의 운명에 왜구가 일정부분 연관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1323년 신안선은 강남과 일본열도의 직항로가 아닌 바로 고려 서해 연안 해로를 이용 중에 조난, 신안 증도 해역에서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13) 『증보문헌비고』 35, 해로 1

14) 문경호 『고려시대 조운제도 연구』 해안, 2014, p.216 및 p.233의 지도

15) 『고려사』 35, 충숙왕세가, 10년 6월, 7월

16) 이강한 교수는 14세기 후반 원-일본 교역선의 비정기적 고려 기항이나 표착이 종종 발생하였고, 특히 1320년대는 이러한 사례의 발생 빈도가 더 높았던 시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강한, 앞의 논문, p.195 참조.

# 13세기 서해안 해참(海站)분석

– 탐라, 해남, 서해안, 벽란도, 직고 항로를 중심으로 –

이 종 수 ■ 중앙대학교<sup>1)</sup>

## 1. 들어가는 글

○ 본 고는 13세기 전후 고려의 해참(海站) 운영사례와 주요 영향을 서해연안과 탐라(제주와 혼용)해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12~13세기 고려시대는 강진과 개경 간에 청자뱃길이 활발했던 시기임. 또 이 시기를 전후해 제주와 강진, 강진과 개경, 원제국을 연결하는 다양한 해로가 있었음(조원, 2016, 윤은숙, 2016, 이개석, 2016, 배영환, 2016, 윤형원, 2016, 김경주, 2016).

○ 해참(수참)은 원(元)나라 참적제도(站赤制度)의 영향을 받아 설치됨. 수참은 참선(站船)을 두어 군량미·조세 운반, 나루[津]를 오가는 사람들을 규찰하는 구실과 물건을 실어나르는 걸 상호 보조하는 수상 교통 수단의 하나 자리잡았음. 따라서, 참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역참과 수참의 총칭임.

○ 참(站)은 고려·조선 시대 역로(驛路)에서 공문(公文)을 중계, 공용 여행자에게 교통 편

1) Lee, jongsoo(Chung-ang University, Ph.D.). ljsjs4329@hanmail.net

의를 제공하던 시설임. 원나라의 전명기관(傳命機關)인 참적(站赤)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참(驛站)으로 통용됨. 원나라의 역참 제도가 고려 후기 충렬왕 이후부터 설치되었는데, 육지에 주로 설치한 역참(몽고의 육참) 외에 수참을 설치함. 수참이란 수역(水驛)이라고도 하며, 1281년(충렬왕 7)에 육참을 설치하고, 이어서 1304년에는 탐라에서 압록강 연해까지 약 30여 개의 수참을 설치함.

○ 주요 항로는 탐라, 해남, 서해안, 당진, 벽란도, 직고 항로 등임(이종수, 2014 : 273 ; 윤은숙, 2016 ; 이개석, 2016 ; 배영환, 2016 ; 윤형원, 2016 ; 김경주, 2016 ; 조원, 2016 ; 서인범, 2015).

○ 원제국의 다루가치 항로, 서금의 고려 항로를 보면 중국에서 태안반도, 안흥(정) 등의 사례가 북송의 서금 해로에서 확임됨.

- 고려의 경우 1207~08년 나주 해남, 장흥에서 개경으로 항해함(고경희, 2014). 마도 3호선(1200년대, 고경희 2014 참조). 신안선(1323)은 중국-고려-일본 무역선이었음. 다양한 물품들을 교역함(윤형원 : 6).

○ 개경에서는 해외무역도 성행함(김일우, 2004 : 24). 최종 정박지는 개경에서 30여리 떨어진 禮成江 하류 碧瀾渡였음. 벽란도는 무역선으로 돛대 숲을 이름(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16). 개경상인은 코리아란 이름으로 세계각지와 교역함.

## 2. 13세기 다루가치와 해참 체제

○ 대원제국의 해양지배 구조로서의 다루가치는 대원의 중서성에서 임명(조원, 2012). 총관부는 정동행성 소속이며, 수도 개경과 탐라국에는 로에 해당하는 총관부를 두었음(김구진, 1989 : 88-89). 총관부의 다루가치(達魯花赤, Darughachi) 중심구조였음.

○ 고려시대 제주는 수도인 개성과 교류를 트기 시작함(이종수, 2015). 『고려사』에 의하면 제주도는 덕종 3년(1034) 11월 팔관회때 탐라에서 토산물을 진상한 기록이 있고, 이후 계속해서 팔관회에 참석해 문물을 교류함.

○ 13세기 몽골에 복속된 모든 나라들은 元의 ‘육사(六事)’의 의무조항을 강요받았음(박용운 외 : 183). 육로교통망을 있는 역참을 설치하는 설역(設驛), 수참, 해참 등 등임.



○ 탐라 다루가치는 충렬왕 4년에 이미 나주, 해남 방면에 역참을 설치해 운영함. 탐라에서 거두어들인 물자의 원제국 수송을 위해 운영됨. 탐라와의 연결로는 해로(水驛)였음. 해상 잠치(水站)는 물자의 대도(大都) 수송용임. 제주도->한반도 서안->직고 항로. 잠치는 약 40여개가 있었다가 20여개로 줄어듦. ‘천하참명(天下站名)’에 의하면 의주->개성->합포 노선과 나주->탐라노선 등을 확인(모리히라 마사히코 : 185-188). 탐라는 명월포에서 중국 명주부 정해현으로 7일 동안 항해함(배숙희, 2012 : 201 ; 조원, 2013, 2016).

○ 주요 항로는 첫째, 의주-개성-합포 ; 둘째, 의주-개성-나주탐라 명월포 ; 셋째, 탐라-서해-직고 등임(삼평아연, 2011 ; 조원 : 9).

○ 충렬왕 13년, 원이 탐라 다루가치로 탑자아(塔刺兒) 등을 임명함(『高麗史』권 30 세가 30, 충렬왕 13년 11월 기사). 다루가치는 주둔군 관할과 貢賦를 걷고 모시포 進貢을 수행함(『역주원고려기사』: 285 ; 윤은숙, 2016 : 8-10). 실리백 사례(이개석, 2016 : 3-4). 아달 사례, 노열리타 사례를 참조함(이개석 : 6-9 ; 『元典章』권7, 吏部-官制, 職品 ; 조원 : 7).

○ 다루가치 탑자적(1276-1286)의 10 여년 간의 탐라 행적을 추적(남도영, 2003 : 170-173)해 보면, 그는 10여년 동안 4회에 걸쳐 원에 왕래함(윤은숙, 몽골학회 2016 : 8-9 ; 강만익, 2016 : 29 ; 이종수, 2014 ; 조원, 2013).

### 3. 13세기 탐라, 개경 등 서해연안 해참 분석

○ 고려의 조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운을 이용, 세곡 운송(고경희, 2014 : 499). 거점에 조창운영

○ 서해안 태안반도는 개경길목으로 사신선, 무역선 항해. 서공 선단은 개경을 가는 도중 안흥정에 정박함. 안흥은 사고가 빈번했던 해역임(고경희 : 500).

○ 『증보문헌비고』 여지고에 따르면, “고려 충렬왕 30년(1304)에 탐진(耽津)에서 압록강까지, 그리고 양주(楊州)의 연해 30여 군데에 수역을 설치하였다.”고 함. 또, 『만기요람』에는 ‘고려 말 정몽주(鄭夢周)의 건의에 따라 설치하였다.’고 함.

○ 고려도경에 보면 김해에서 서울 소요시간 60여일임. 고려 고종 10년(1223) 전후는 최상품 강진청자를 개경으로 활발히 실어나르던 시기임(고경희, 마도 3호선). 남해에서 개경

으로 떠나 조운선인 ‘마도 1호선’사례가 있음(연합뉴스, 2014.11.26).

○ 마도 1호선은 개경으로의 공물운반선임(고경희 : 500). 조운선인 마도 1호선은 지난 2010년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역에서 수중 발굴된 고려 시대 선박으로 배 안에서 각종 곡물류와 도자기, 대나무 제품, 식품류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됨.

○ 이 배는 함께 발견된 목간(木簡)이나 죽찰(竹札)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 1208년 전라남도 해남·나주·장흥 등지의 지방 향리가 개경의 대장군, 별장 등 당시 권력자에게 보내는 물품을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조운선임을 알 수 있음. 마도 1호선은 길이 15.5m, 너비 6.5m, 높이 3.2m의 규모로 현재 용량으로 약 30톤의 화물을 실었음.

○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 정월에 수참전운소완호별감(水站轉運所完護別監)을 두어 용산강에서 충주 연천(淵遷)에 이르는 지역에 7개소의 수참을 설치. 그리고 각 수참에는 민호 30호를 예측시키고, 참선(站船)을 배치함. 이에 수참 조직은 한강변의 진도와 조운 왕래처에 설치.

○ 1398년(태조 7) 2월에 정도전(鄭道傳)이 북방 지방을 개척하고 행정 구역을 편성할 때 참도 동시에 설치되었는데, 그 인적 조직은 사리(司吏) 2인, 일수양반(日守兩班) 5인, 관부(館夫) 5인, 급주인(急走人) 5인, 마부 15인으로 편성됨. 그 뒤 참에는 참리(站吏)·참일수(站日守)·조역백성(助役百姓)·노비가 배속되어 참역을 수행함.

○ 참의 재원으로는 참부전(站夫田) 외에 아록전(衙祿田) 5결(結)이 지급되어 소요 경비에 충당됨. 특히, 황해도 7참은 사신 왕래가 빈번해 어느 참보다 중요시 함. 참의 명칭은 황해도·함경도의 역에 주로 사용되었고 평안도에는 주로 관(館)이 사용됨. 그리하여 조선 시대의 역은 역참, 관역(館驛)·우역(郵驛) 등으로 혼용되었음.

○ 강진, 해남, 관두량, 추자도, 애월(국립박물관, 2007 : 218). 강진의 옛 이름은 탐진(耽津)이었음. 강진군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보면 강진은 신라 35대왕인 경덕왕 16년(757) 탐진이란 지명을 사용해 왔음. 그러다가 고려시대 940년(태조 23)들어 도강군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조선시대 들어 태종 13년(1413년)에 강진이란 현 지명을 얻었음.

○ 영산강과 섬진강 사이 탐진강은 전남 3대강임. 탐진(강진)강은 장흥 유치면 세류리 기동마을 북서쪽 궁성산(484m) 범바윗골 성터샘에서 발원하여 강진읍 목리에 이름(57km).

○ ‘강진을 탐진이라 했으니 그 이유는 탐라 사람들이 배를 처음 대었기 때문임’(강진일

보, 2012.09.11). 옛날부터 이 뱃길은 강진의 옛 지명을 따 ‘탐진항로’라고 불렸다. “50여년 전까지만 해도 강진 칠량옹기의 가장 큰 소비처가 제주였다”고 말함.

○ 『고려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음. ‘고을나(高乙那)의 15대손 고후(高厚)등 형제 3인이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에 이르렀다. … 읍호를 탐라(耽羅)라 하니 이것은 올 때 처음 탐진에 배를 대었기 때문이다.’

○ 이보다 앞선 기록으로 삼국사기가 있음.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 문주왕 2년(476)에 탐라에서 백제에 조공을 바쳤으며 이것은 백제멸망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기록함.

○ 또 『조선왕조실록』 정조 18년(1794) 12월 28일자 기록에는 ‘제주 세고을의 수령과 사신이 왕래할 때에 강진, 해남, 영암이 도회를 나누어 정해서 각 1년씩 돌아가면서 거행한다’고 함(강진신문, 2011.1.21).

○ 관두량은 중국과 제주를 잇던 고려 최대 국제교역항이었음(해남신문, 2003년 12월 19일).

○ 1429년 조선 세종 11년에 제주를 드나들던 사람들을 위한 숙박소가 해남 관두량에 설치. 그 이름은 해진성관, 이곳 주민들은 이곳을 제주관으로 기억함.

○ 선조 34년(1601) 김상헌은 서울에서 육로를 통해 강진, 해남, 관두량에 이르고, 해로를 통해 제주 애월에 도착함(김상헌, 南槎錄). 김상헌(1570~1652)의 ‘남사록’에는 <강진·해남 두 현은 모두 바다에 있다. 무릇 제주를 왕래하는 공행(公行)은 반드시 여기에 와서 배를 탄다. 해남은 관두량(館頭梁)이고 강진은 백도도(白道島), 영암의 이진포(현재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가 강진과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세 곳에 모이고, 매년 강진·해남 양읍(兩邑)에서 모여 관섭(管攝) 호송하는 일을 윤번을 정한다>고 적었음.

○ 인조 4년의 동지성절사 김상헌은 장산도에서 항해에 곤란을 겪자 천비(天妃)에게 제사를 지냄(김상헌, 청음선생집, 권 9).

## 4. 주요 시사점

○ 해참과 수참의 운영주체는 다루가치임. 그들은 공물 등 물자수송과 군사용, 지역 진무의 기구였음. 동시에 백성들의 공물진상로였음.

○ 바다(해로, 해참)를 통한 교류, 상업활동, 진상에 이용함. 특히 원제국은 해상교역과 국제질서유지를 위해 서해와 탐라지역 등 바다를 중시함.

○ 12세기를 전후한 고려시대는 강진과 개경 간에 청자뱃길이 활발했던 시기임. 이 시기를 전후해 제주와 강진, 강진과 개경, 제주와 원제국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류가 있었음.

## 참 고 문 헌

- 강만익. (2016). 「13-14세기 탐라목장의 변천과 영향」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한국몽골학회, 2016.
- 국립박물관 (2007). 『제주의 민속문화 ⑤, 제주의 음식문화』
- 고경희 (2009). 「고려시대 주류음식문화 : 12-14세기 시문명과 관서명 청자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4-2, 한국식생활문화학회.
- 고경희 (2014). 「태안 마도 1,2호선 해양유물로 본 고려시대의 음식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9권 6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 499-510.
- 고경희 (2015). 「태안 마도 3호선 해양유물 중심으로 본 고려시대의 음식문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0권 2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 158-169.
- 김경주. (2016). 「고고자료로 살펴 본 원과 제주문화」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한국몽골학회, 2016.
- 김상헌 저, 박용후 번역(1976). 『남사록(南槎錄)』 제주도교육연구원.  
金尙憲. 『淸陰先生集』 권9, 朝天錄, 「長山島天妃祭文」
- 김일우. (2004). 「고려시대 탐라주민들의 거주지역과 해상활동」 『한국사학보』 제18호 : 9-35.
- 류진귀. (2013). 「제주도의 중요성 : 동북아거점으로서의 제주도」 『제주발전연구』 제17호, 제주발전연구원 : 145-164.
- 배숙희. (2012.2). “원나라의 탐라 통치와 이주,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 제76집: 95-122.
- 배영환 (2016). 「제주어 속의 몽골 차용어에 대한 연구 : 연구사적 검토와 앞으로의 연구 전망을 중심으로」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한국몽골학회.
- 서인범 (2015). 「조선 使行의 海路朝貢路와 海神信仰」 이재성, 김장구, 서인범 외, 『한국과 동부유라시아 교류사』 학연문화사 : 347-393.
- 오영주 (2016). 「동몽골 할흐골지역과 제주도 음식문화의 친연성」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논문집』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한국몽골학회, 2016.
- 윤은숙 (2016). 「토곤테무르 카안의 탐라공전」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한국몽골학회.
- 윤희원 (2016). 「유목제국 몽골(元)의 해양경영과 제주도 : 고고학자료를 중심으로」 『제37회 한, 몽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한국몽골학회.
- 이개석 (2016). 「몽골의 탐라지배와 항파두리성」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한국몽골학회, 2016.

- 이종수 (2016.3). 「13세기 탐라와 원제국의 음식문화 변동 분석」 『아세아연구』제59권 1호,  
고려대 아세아연구소 : 143-179.
- (2014.12). 「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26권 4호,  
한국지방자치학회 : 269-286.
- 조 원.(2016). 「쿠빌라이의 동아시아 해상진출과 탐라」 『제37회 한,몽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 한국몽골학회, 2016.
- (2013). 「대원제국 다루가치체제와 지방통치 : 다루가치의 掌印權과 職任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제125집, 동양사학회 : 251-295.

## 임진왜란 초기 해전의 연구

제 장 명 ■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 I. 머리말

임진왜란 해전사에 대한 연구는 광복 이후부터 선학들에 의해 수행된 후 꾸준히 계승되어 왔다. 7년간의 해전과 수군사에 대한 연구이다 보니 연구자별로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한 가운데 오류와 쟁점들도 많았다. 그러다가 2천 년대에 들어와서 큰 부분에서 일단락되었다. 박사학위 논문 형태의 이 연구 성과는<sup>1)</sup> 임진왜란 해전을 통시기적으로 밝힌 연구로서 해전사 연구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연구 성과이다. 그만큼 통시기적인 연구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해전별로 쟁점들이 다수 나타나는 가운데 완벽한 해전사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진왜란 개전 시점에 있었던 해전부터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옥포해전 시 조선수군(전라좌수군+경상우수군)은 거제도 남단을 돌아갔는가? 아니면 북단을 경유하여 옥포만에 진입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고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에 천착한 기존 연구에서 나름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sup>2)</sup> 일부 연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만<sup>3)</sup> 필자는 핵심적인 부분에서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적진포해전지의 위치 비정 역시

1) 李敏雄, 『壬辰倭亂 海戰史 研究』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2

2) 정진술, 「조선수군의 임란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5집(2000.12),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101~146

3) 이민웅, 「경상도 남서해안의 수군 유적지에 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37집(2006.8),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1~32

학자들 간에 통일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이 외에도 임진왜란 개전기 경상좌수군의 활동에 대해 밝힌 연구도 있다.<sup>5)</sup>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해전 중 조선 수군의 제1차 출전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고찰한 후 이를 해소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먼저 조선 수군의 제1차 출전 경과를 살펴본 후 쟁점 사안별로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임진왜란 해전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Ⅱ. 조선 수군의 제1차 출전 경과

이순신은 1591년 2월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래 전선을 건조하고 무기를 정비함은 물론 본영 방비태세를 강화하면서 유사시를 대비하여 제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1592년(임진) 4월 15일에 경상우수사 원균으로부터 일본군이 부산으로 침입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임전의 태세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그 후 원균으로부터 구원요청을 받은 이순신은 몇 차례의 작전회의를 통해 부하들과 출전 의지를 다지면서 조정에 출전여부를 묻는 장계를 올렸다. 당시로서는 관할구역을 임의로 이탈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월 27일에 영남해역으로 출전을 허용하는 조정의 지시를 받은 후, 다음 기록과 같이 출동을 알리는 장계를 조정에 올리면서 역사적인 첫 출전을 단행하였다.

5월 4일 새벽 전라좌수영 전선은 이순신의 지휘 하에 노를 힘차게 저어 나갔다. 전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동원 어선) 46척으로 도합 85척의 함대를 편성하여 이동해가다가 이틀 후 한산도에서 1척의 전선을 타고 온 경상우수사 원균이 합류하였고, 곧 이어 원균 휘하 경상우수군 장수들이 전선 3척과 협선 2척을 이끌고 합세함으로써 총 91척의 경상-전라 통합함대가 형성되었다.

이순신은 작전계획을 세우고 거제도 송미포에서 밤을 지낸 후, 7일 아침 일본전선이 머물고 있다는 가덕 방면으로 항진하였다. 그러던 중 정오 무렵에 거제도 옥포 앞바다에서 척후선으로부터 일본전선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조선 수군은 일본전선은 50여 척(《임진장초》에는 30척)을 맞아 이순신의 지휘 하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에 임했다. 그 결과 적의 선봉선을 포함하여 순식간에 일본전선 26척이 격침되었다. 26척 중 21척은 전라좌수군이, 5척은 경상우수군이 각각 격침시켰다.

해전종료 후 영등포(거제군 장목면 구영리) 앞 바다로 물러난 후 이순신은 척후선을 배치

4) 2014년 1월 24일 경남 고성에서 ‘조선시대 경상도 고성지역 수군진보와 남촌진(적진포)’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서 적진포해전지에 대한 위치 비정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학자들간의 주장이 달라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5) 이민웅, 「임진왜란 초기해전 연구 1」 『해양연구논총』 제39집(2007.5),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121~141 : 조선수군의 제1차 출전을 중심으로

하고는 군사들을 휴식시켰다. 이 때(하오 4시경) 척후선으로부터 적의 대선 5척이 지나간다는 보고를 받고는 즉시 함대를 지휘하여 이를 추격하게 했다. 조선 수군이 추격하자 일본함대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도망하다가 웅천 합포(오늘날 진해구 원포동 학개마을)에 이르러서는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했다. 조선수군은 적선들을 모두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리고는 밤중에 건너편 창원 남포에 이르러 정박하였다.

이튿날(5월8일) 아침에 피란민들로부터 ‘진해땅 고리랑에 일본군선이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는 즉시 출전하였다. 조선함대가 주변을 수색하면서 저도(돼지섬)를 지나 고성 땅적진포에 이르렀을 때 척후선으로부터 ‘일본군선 대·중·소선 13척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선봉함대가 적진포에 도착했을 때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위세를 바라보고는 모두 산 위로 도망쳐 버렸다. 그리하여 조선 수군들은 일본의 빈 전선들을 모두 격침시켰다. 이로써 세 번째 전투인 적진포 해전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조선 함대는 이 해전을 마친 후 소식을 하고 휴식하던 중에 전라도 도사(都事) 최철견으로부터 선조가 관서지방으로 피난한 소식을 들었고, 이후 뱃길을 돌려 5월 9일 정오 무렵에 전라좌수영으로 귀항하였다.

### Ⅲ. 제1차출전의 주요 쟁점

#### 1. 옥포해전 출전 경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포해전을 시작하기 전에 전라좌수군은 경상우수군과 한산도 근처에서 만나 함께 옥포만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조선 수군이 옥포만을 목표로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천성·가덕 방향으로 가다가 옥포만에 적이 있다는 척후선의 연락을 받고 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거제도 송미포에서 밤을 보낸 후 천성·가덕방면으로 가다가 옥포해전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송미포의 위치가 거제도 남단이나 북단이나에 따라 남로설과 북로설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주장해 온 남로설과 북로설에 대한 주장 현황을 정리해 보자.

〈표1〉 옥포해전 직전 조선 수군의 이동경로 제설

이동 항로	주장자	근거 문헌	연도	송미포 위치비정
북로	有馬成甫	조선역수군사(69쪽)	1942	거제도 고현 부근
북로	해군본부	한국해양사(249쪽)	1954	거제도 고현 부근
남로	최석남	한국수군활동사(165쪽)	1965	거제도 구조라 부근



이동 항로	주장자	근거 문헌	연도	송미포 위치비정
남로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권(289쪽)	1967	거제도 구조라 부근
남로	조성도	총무공 이순신(93쪽)	1982	거제도 다대만 부근
남로	국방부	임진왜란사(123쪽)	1987	거제도 다대만 부근
남로	이은상	완역 이충무공전서, 상권(138쪽, 478쪽)	1989	거제도 남부면 갈곶리
남로	오봉근	조선수군사(369쪽)	1991	
북로	박준섭	국역충장공정운장군실기(부록)	1992	
북로	최두환 등	총무공이순신	1998	송진포
남로	정진술	해양연구논총(제25집)(135쪽)	2000	거제도 남부면 대포

※출처 : 정진술, 「조선수군의 임란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제25집), 31쪽의 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필자가 보완한 것임

위 <표1>에서 보면 북로와 남로가 병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북로와 남로에 대한 고증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주장하고 있다. 기존 연구 학자 중 이동 경로에 대해 천착한 학자는 정진술이 유일하다.<sup>6)</sup> 그는 여러 가지 관련 문헌과 당시 상황을 검토한 결과 남로설로 확정하고 있다.

정진술이 남로설로 설정하는 근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므로 핵심적인 관련 주장을 열거하면서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 한산도에 주둔 중인 통제사 이순신에게 거제현령이 보고하기를, 왜선 1척이 거제도 남쪽에 있는登山을 돌아서 (거제도 서남쪽 끝단에 있는) 松未浦로 들어왔다고 하였다. 이경에 다시 보고하기를 (거제도 서쪽에 있는) 아자포로 옮겨대었다가 견내량을 지나 넘어갔다고 하였다.

(a)-1 등산 : 거제도 남쪽 끝에 있는 지금의 망산을 의미하며, 거제 남부면 다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다.

(a)-2 아자포 : 거제도 둔덕면 법동리 아지랑으로 추정된다.

위의 주장 (a)는 난중일기 병신년 8월 11일의 기록을 토대로 연구자가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그러면 위 주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송미포라는 지명만 확실히 고증된다면 출전경로가 남로인지 북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진술의 주장에 의하면 고려시대 고려사신과 몽고사신이 함께 일본으로 가기 위해 거제도 송변현에 정박하여 양호한 해상상태를 기다렸다는 기록에서 당시 송변포가 지금의 거제도 남쪽 저구리 포구라고 주장한다. 저구리가 송변포라고 본다면 송변포의 아래 포구인 대포(大浦)를 송미포라고 주장한다.<sup>7)</sup>

6) 정진술, 「조선수군의 임란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5집(2000.12),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101~146

7) 정진술, 「조선수군의 임란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5집(2000.12),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134~135

그러나 대포가 송미포라는 주장은 추정일 뿐이지 확실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등산을 현재의 망산으로 비정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아울러 아자포를 거제도 둔덕면 아지랑으로 추정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필자가 이렇게 수궁을 하기 어려운 것은 다른 기록에서 송미포의 위치가 복단에 있다는 근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음의 기록들을 검토해 보자.

(b)초저녁에 종 돌세가 와서 말하기를, “왜선 3척과 소선 1척이 등산 바깥바다로 부터 합포에 와서 정박해 있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사냥하는 왜군인 것 같아 곧 경상수사, 방답첨사, 우우 후에게 명하여 정탐해 보도록 하였다.(『亂中日記』 乙未年 12월 13일)

(c)초저녁에 거제현령이 급히 보고하기를, “왜선 한 척이 등산에서 松末浦로 들어왔다”고 했다. 밤 10시경에 또 보고하기를, “阿自浦로 옮겨 정박하였다.”고 했다. 배를 정비하여 내어 보낼 즈음에 또 다시 보고하기를, “견내량을 넘어갔다”고 했다. 그래서 복병장이 잡으러 찾아갔다.(『亂中日記』 丙申年 8월 11일)

(d)왜선 6척을 뒤쫓아...猪島에서 2척을 불태웠다. 고성땅 阿自音浦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亂中日記』 甲午年 3월 4일)

위의 기록에서 볼 때 송미포가 거제도 복단에 있다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자료 (b)에서 ‘왜선 3척과 소선 1척이 등산 바깥바다로부터 합포에 와서 정박해 있다’고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합포는 현재 마산이다. 당시 마산포와 합포는 같은 지명이면서 다르게 불리어진 곳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등산은 현재의 고성에 위치한 산으로 합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산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료(c)에서 ‘왜선 한 척이 등산에서 송미포로 들어왔다’고 한 부분을 주목해 볼 때 송미포는 거제도 복단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추가하여 정진술이 거제도라고 추정한 아자포는 아자음포라고도 부르는데, 자료(d)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자음포는 고성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송미포가 거제도 복단에 위치하고 있음은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음을 밝힌다.

## 2. 적진포해전지

적진포해전지 역시 여전히 논란이 있다. 지난 2014년 1월의 학술발표회에서도 적진포해전지에 대한 위치 비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2000년 정진술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게 위치 비정을 했음에도 발표된 논문이 해군 내에 제한된 면이 있고, 각 지역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적진포해전지에 대한 선입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진술이 천착한 위치 비정<sup>8)</sup>에 대해 필자도 동의하면서 보완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적진포로 비정되고 있는 곳은 적덕, 화당, 신룡, 당동, 내산 등 5곳이다. 이는

8) 정진술이 주장한 적진포해전지는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전도마을 적포이다.

1965년의 최석남의 『한국수군활동사』(1965)에 처음으로 적진포를 현재의 통영시 광도면 지역으로 비정한 이래, 이은상은 광도면 적덕동으로 비정하였다.<sup>9)</sup> 이후 모든 관련서들이 아무런 고증 없이 이 견해를 그대로 인용해 왔다.<sup>10)</sup> 이러한 이유에 대해 정진술은 기존 연구자들이 저도의 위치를 착오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즉 이순신이 말하는 저도는 광도면의 작은 섬인 저도(딱섬)가 아니라 창원시 귀산면 귀북리에 있는 큰 섬인 저도(돛섬)을 의미한다.<sup>11)</sup>

만일 적덕동이 적진포라면 옥포파왜병장의 ‘至固城境界赤珍浦’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적진포는 옛 진해와<sup>12)</sup> 고성외의 경계에 있어야하는데, 적덕동은 경계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해전상황과도 모순되는데, 남포에서 적덕동까지 수색하면서 이동한 거리는 해로 19마일로써 당시 함대 이동속도 3노트를 적용시 6시간이상 소요된다. 이순신은 아침 일찍(早朝) 출발했으므로 출항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0500시 전후이며, 12시 쯤 돼서야 적덕동에 도착할 수 있다. 전투를 2시간 정도 지속했다면 오후 2시경에 종료된다. 그런데 전투 후에 조식을 했으므로 오후의 식사가 조식이 될 수 없다.

#### IV. 맺음말(생략)

9) 이은상, 『역주해난중일기』 1968, 331쪽; 『태양이 비치는 길로』, 上(서울:삼중당, 1973), 354쪽

10) 정진술, 「조선수군의 임란 초기대응에 관한 연구」 『해양연구논총』 제25집(2000.12), 해군사관학교 해군해양연구소, 139~140쪽.

11) 위의 글, 140쪽.

12) 옛 진해는 지금의 창원시 진동면 일대를 말한다.

##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궁수

한 성 일 ■ 부산대학교

### - 초 록 -

14세기 말~15세기 초 왜구들의 침입 가운데 탄생한 조선 수군의 주된 전술은 궁시(弓矢)와 같은 발사 무기를 통해 거리를 두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15세기~16세기 군선의 형태가 변했으며, 점차 선상에서 사용하는 화약무기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궁시를 통한 공격은 여전히 수군 전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따라서 조선 수군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군선의 승조원 중 상당수를 궁수로 확보해야 했다.

조선시대 군역제의 특징은 군인으로 복무하는 호수(戶首)가 보인(保人)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자비(自費)로 복무에 필요한 장비와 유지비를 마련해야 했다. 당시 수군으로 복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활 등의 장비는 값비싼 장비였으며, 복무를 위한 유지비 또한 상당했다. 그리고 궁술의 특성상 궁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궁술을 익히고 있어야 했다. 따라서 수군에 궁수로 충원될 수 있는 이들은 복무를 위한 장비와 유지비를 마련하고 평소에 궁술을 익힐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양인들이어야 했다.

하지만 15세기 후반~16세기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양반과 부유한 양인들이 군역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수군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하였다. 따라서 수군은 전투력을 갖춘 궁수를 확보할 수 없었다. 실제로 15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16세기 수군은 만성적인 궁수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되었다.

16세기 왜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선 국가는 수군의 전력을 확충해야만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선 국가가 수군에 부유한 이들을 충원하여 궁수를 보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 국가는 저항을 감수하는 대신, 육군 중에 궁술에 능한 이들 및 군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거시험 등을 위해 궁술을 익혔던 한량과 같은 상층 양인들을 임시적으로 편성, 수군을 지원하게 하였다. 이러한 수군 지원 형태는 16세기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고, 임진왜란까지 이어졌다.

## 머리말

조선 전기 수군의 총 숫자는 4만 명을 넘었으며, 보인(保人)까지 포함하면 약 20만 명 이상의 민들이 수군에 포함되었다. 이후 수군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15~16세기 민들이 몰락하여 군액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수군은 형식상으로나마 상당한 규모로 존재했다.

다만 조선 수군이 편성된 원칙 및 구조는 당시의 전술 및 무기체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의 전술 및 무기체제는 이를 운용하는 국가의 사회경제 및 정치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수군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전반적인 전술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sup>1)</sup>

조선 수군의 전술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군선의 발달 및 화약무기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언급되었다.<sup>2)</sup> 하지만 왜변이 급증한 16세기 초의 해전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했을 때 궁시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는 것이 조선의 가장 주된 전술이었다. 16세기 중반 이후 해전에서 화약무기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했지만, 활은 여전히 해전에서 가장 주된 무기 중 하나였다.

다만 궁술의 특성상 숙련된 궁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했으며, 궁시(弓矢)의 구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군역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자비로 부담하던 조선 전기 군역의 양상으로 미루어 볼 때, 궁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가진 양인(良人)이어야 가능했을 것이다.

15세기 중반~후반 상층 양인 및 사족층은 수군에서 점차 이탈해하고 수군 내에는 가난한 양인들만 남았다. 따라서 16세기 왜변이 급증할 당시 수군은 더 이상 숙련된 궁수를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16세기 급증하는 왜변 속에서 조선 국가는 수군을 강화시켜야만 했다.<sup>3)</sup> 따라서 조선 국가는 기존의 수군 강화책과는 다른 형태로 궁수를 확보해야만 했다.

1) Lynn White Jr., 『중세의 기술과 사회변화』 강일휴 역 (지식의 풍경, 2005), 45쪽.

2) 나종우, 「조선 수군의 무기체계와 전술 구사」 『한일관계사연구』 10 (1999);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 본 朝明日 삼국의 전략전술 비교」 『군사』 51 (2004); 조원래, 「임란초기 해전의 실상과 조선수군의 전력」 『조선시대사학보』 29 (2004); 제장명, 「조선시대 화포의 발달과 수군의 총통 운용」 『해양전략』 132 (2006.12); 김병륜, 「조선시대 학익진의 도입 과정과 그 운용」 『학예지』 15 (2008).

임용한, 「고려 후기 수군개혁과 전술변화」 『군사』 54 (2005)와 김병륜, 「조선시대 수군 진형과 함재 무기 운용」 『군사』 64 (2010)는 화기 이외에 무기들의 위력 및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3) 수군 내의 직역 및 신분계층의 관계에 대해서는 盧永九, 「朝鮮初期 水軍과 海領職의 변화」 『韓國史論』 33 (1995)가 주목된다. 張學根, 『朝鮮時代海洋防衛史研究』 (創美社, 1988)와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은 수군 궁수의 부족을 수군의 처우 악화와 관련지어 서술하였다.

## I. 16세기 수군 전술과 궁시(弓矢)

고려 후기 수군의 경우는 궁시 사격이 전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조선 초기 수군 또한 이러한 전술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sup>4)</sup> 실제로 15세기 수군의 전투원으로 언급된 이들은 궁수였으며<sup>5)</sup>, 수군의 궁술 훈련 및 궁수의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회자되었다.<sup>6)</sup> 또한 당시 전투 기록에서도 조선군의 전과들은 대부분 활에 의한 것이었다.<sup>7)</sup>

16세기 삼포왜란과 같이 왜인들의 침입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궁시를 이용한 사격 중심의 전술은 지속되었다. 1510년(중종 5)과 1511년(중종 6)에 벌어진 해전에서 조선군은 왜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적을 포위 한 후, 활로 왜구를 제압하였다.<sup>8)</sup>

1523년에 나타난 두 차례에 걸친 해전에 대한 기록에서는 더욱 자세한 전투 장면을 볼 수 있다. 1523년(중종 18) 5월에 전라도 초도 앞 바다에서 왜의 대선을 공격할 때에 조선군은 화약무기와 화살을 발사하면서 전투를 시작하였다. 조선 수군이 왜선을 포위하여 공격하자 왜구들은 모두 배 안으로 숨은 채로 배를 저어 도망쳤다. 이에 조선군은 화전을 놓아 적선에 화공을 가했으며, 불을 끄려고 배 밖으로 나온 왜인들을 활로 공격하였다.<sup>9)</sup> 같은 해 6월 전라도 부안현 앞바다에서 벌어졌던 해전 또한 이와 비슷한 형태였다.<sup>10)</sup>

16세기 중반 이후 왜선이 대형화됨과 동시에 방패 등의 방어구를 강화하고, 화약무기 등의 장거리 무기를 보강하자 궁시 중심의 조선군의 전술은 위기를 맞이하였다. 조선 국가는 을묘왜변(1555년) 왜구의 화기에 대응하여 판옥선(板屋船)과 같은 대형선을 도입하였다.<sup>11)</sup>

또한 대형선과 함께 대형 총통으로 적선을 공격하는 방안이 대두되었다.<sup>12)</sup>

다만 당시 등장한 대형선과 대형 화기는 궁수의 역할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판옥선은 상장·방패 등을 설치하여 궁수를 보호할 수 있었다.<sup>13)</sup> 또한 대형 총통들은 명중률·사정거리·발사 속도 등에 한계가 있었기에, 대형화기 만으로는 적을 격파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비교적 근거리에서 왜구를 공격할 무기가 필요했으며, 이는 전통

4) 임용한, 「고려 후기 수군개혁과 전술변화」 『군사』 54 (2005).

5)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9월 1일(정축);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9월 21일(무진), 81권, 세종 20년, 5월 23일(병오).

6)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8일(임신);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1월 16일(신사), 7권, 세조 3년, 4월 6일(기해), 40권, 세조 12년, 11월 2일(경오).

7) 『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6월 10일(계사); 『성종실록』 249권, 성종 22년, 1월 5일(임오); 『연산군일기』 35권, 연산 5년, 9월 23일(경진);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19일(갑자).

8)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 2월 12일(무술);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6일(임진).

9)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1일(경자).

10)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7월 6일(갑술).

11) 『약전집(藥泉集)』 24권, 가승(家乘), 「5대 중조 자헌대부 한성부판윤 겸 지훈련원사 오위도총부도총관 공 묘지명(五代從祖賓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訓鍊院事五衛都總府都總管公墓誌銘)」.

12) 허선도, 「朝鮮中期 火器의 發達」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일조각, 1994) 참조.

13) 『백사집(白沙集)』 5권, 차자(筴子), 「경자년에 도체찰사로 전라도에서 올린 차자(庚子以都體察使在全羅道筴)」; 『포저집(浦渚集)』 16권, 서(書) 12수(十二首), 「주사의 일에 대해 논하면서 모인에게 준 글(論舟師與人書)」.

적으로 사용되던 활이었다.<sup>14)</sup> 16세기 중반~임진왜란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해전의 사례에서도 활이 사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sup>15)</sup>

## Ⅱ. 16세기 수군 공수 부족 현상

1485년(성종 16)의 기록에 의하면 사관(射官)은 병선 전체 승조원의 약 33~38%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이는 18세기 초 판옥선 전체 승조원의 약 32%가 전투원이었던 것과 유사한 수치이다.<sup>17)</sup> 수군의 각 병선은 적어도 이와 같은 비율로 공수가 있어야 정상적인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6세기 전반에 걸쳐 수군은 만성적인 공수 부족문제에 시달렸으며, 이는 궁술과 조선 전기 군역제의 특징과 관련이 깊다. 숙련된 공수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궁술훈련이 필요하였다.<sup>18)</sup> 그러나 조선 전기 군사 복무 만으로는 훈련량이 부족했기에, 숙련된 공수가 되기 위해서는 궁술을 스스로 연마해야 했다.<sup>19)</sup> 또한 공수가 되기 위하여 구비해야 했던 활과 화살은 값비싼 물건이었다.<sup>20)</sup> 하지만 조선 전기 군역의 특성상 군인들은 활을 비롯한 군복무에 드는 일체의 장비와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sup>21)</sup>

따라서 숙련된 공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생산 활동에서 벗어나 궁술의 훈련을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장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이들을 군역에 충원해야 했다.<sup>22)</sup>

하지만 조선 초부터 수군역은 오랜 복무기간과 잡역으로 인해 고역으로 지목 받았다.<sup>23)</sup> 따라서 15세기 중반 이후 수군들 중 향산이 있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수군에서 빠져나갔으

14) 박해일이유찬, 「천자총통에서 쓴 대장군전의 탄도와 귀선에 있어서의 유효 사거리 확정」 『학국과학사학회지』 11권 1호 (1989), 8~9쪽; 김병륜, 「조선시대 수군 진형과 함재 무기 운용」, 169~170쪽.

15) 『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6월 15일(임인), 21권, 명종 11년, 8월 12일(무술), 명종 12년, 7월 7일(무오); 『임진장초』, 「2번째 당항포 등 4곳에서의 승첩을 알리는 계본(二度唐項浦等四處勝捷啓本)」, 「3번째 한산도에서의 승첩을 알리는 계본(三度閑山島勝捷啓本)」.

16) 『성종실록』 174권, 16년 1월 16일(기해).

17)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69책, 숙종 42년, 10월 24일, 「양남수군변통절목(兩南水軍變通節目)」.

18) 『사법비전공하(射法秘傳功瑕)』, 사휘해(射彙解), 사법인단(射法引端); 『태종실록』 20권, 태종 10년, 10월 29일(임술).

19) 『난중일기』의 기록에서 이순신이 몸이 불편한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5~10순(巡)의 활을 쏜 것이 확인 된다. 이는 비록 무사의 경우지만, 궁술을 익히고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이민웅, 『임진왜란해전사』, 160쪽 참고).

20) 『만기요람』, <재용편(財用編)> 1, 「각공(各貢)」, 선혜청 57공(宣惠廳五十七貢).

21) 김중수, 「군역제도의 붕괴」 『한국사』 28권 (국사편찬위원회, 1996), 89~90쪽.

22) 1502년(연산 8) 곡식을 내어 방수를 대신하는 일에 대해 병조는 “향산이 있는 이들은 오래 재주가 있으나, 향산이 없는 이들은 대개 잔약하고 용렬하다.”하다는 점을 들어 병사를 대립하는 것이 불가함을 주장했다(『연산군일기』 43권, 연산 8년, 3월 12일(갑신)).

23) 김중수, 「군역제도의 붕괴」, 104쪽.

며, 점차 수군에는 가난하고 무재가 없는 이들만 남게 되었다.<sup>24)</sup>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어 15세기 후반에 들어 수군 사관들의 궁술 저하 및 장비 부실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sup>25)</sup> 또한 16세기에 들어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어 수군들이 군역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유망하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sup>26)</sup>

### Ⅲ. 16세기 육군 · 한량층의 수전(水戰) 동원

16세기 왜변이 발생이 급증하면서 수군의 전력 확충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조선 국가는 상층 양인과 사족층의 저항을 받으며 수군 내에 궁수를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수군 이외의 병종 및 민간에서 궁수를 모집하여 수군에 동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수군의 부족한 궁수를 육군에서 보충하려는 시도는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었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성종의 거절로 인하여 당장은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8)</sup> 그러나 성종 말년 북방 지역으로 원정에 앞서 남방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이 수군진에 파견되었으며,<sup>29)</sup> 연산군대에는 왜군을 수토하는 과정에서 연해 고을의 효용군(驍勇軍)이 동원되었다.<sup>30)</sup>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왜구의 침입이 격화되는 가운데서 육군의 수군 파견이 제도화 된 것으로 보인다. 삼포왜란 직후, 각 수군진을 통합하여 방어함과 동시에, 각 포의 방어를 위하여 육군을 파견하였던 것 같다. 그 결과 수군과 육군이 같은 거점에서 방어를 하게 되었으며, 지휘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병사(兵使)가 수사(水使)를 아우르는 제도가 확립되었다.<sup>31)</sup>

삼포왜란이 끝난 후 상당기간 동안에도 수군과 육군이 함께 방어하거나 혹은 긴밀한 체제 속에 있었다. 1513년(중종 8) 경상도 연해지역의 여러 수군진을 방어하기 위하여 기병(騎兵)을 동원되었으며,<sup>32)</sup> 1523년(중종 18) 충청도에서 왜적을 수토하는 과정에서도 수군

24) 『세종실록』 6권, 세종 1년, 12월 16일(병술).

25) 『성종실록』 260권, 성종 22년, 12월 9일(신해).

26) 김종수, 「군역제도의 붕괴」, 102쪽.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1월 21일(계묘);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3월 25일(무인).

27) 『성종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10일(계유).

28)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288~290쪽.

29) 『성종실록』 255권, 성종 22년, 7월 18일(임진).

30)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8일(경오).

31)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6월 25일(기유).

32)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1월 2일(병인).



이외에 효용군(驍勇軍) 1백여 명이 동원되었다.<sup>33)</sup>

하지만 16세기 들어 군역제 해체가 가속화되었기에, 육군도 전력을 유지하지는 못했다.<sup>34)</sup> 정규군이 전투력을 상실한 과정에서 군사로 복무할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무재를 익힌 계층으로 지적된 것은 한량(閑良)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사족이거나 사족의 자제와 같은 신분으로,<sup>35)</sup> 무과에 응시하거나 상급병종에 입속하기 위해 궁술을 익혔던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삼포왜란 당시 한량들은 외방의 한산(閑散)한 무사, 무과초시 입격자 등과 함께 무재를 익혀 정예군으로 편성될 수 있는 존재로 지목되었으며, 이후 왜변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었다.<sup>37)</sup> 따라서 16세기 왜변이 발발 하던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한량층을 수군 궁수로 동원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한량들은 내금위, 검사복, 정로위와 같이 입사(入仕)가 용이한 병종에 편입되어 수전에 동원되기도 하였다.<sup>38)</sup> 삼포왜란과 을묘왜란 당시에 상당수의 금군이 파견되었으며, 1522년 신달량에서 일어났던 왜변 당시에도 금군과 정로위가 각 수군진에 배치되었다.<sup>39)</sup> 다만 금군과 정로위는 정원이 적었기에, 조선 전체의 궁수 수요를 볼 때에는 턱없이 모자랐으며,<sup>40)</sup> 중앙군이었기에 지방 유방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sup>41)</sup>

따라서 조선 국가는 위기 때 마다 무재 있는 한량들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과정 없이 초발하여 수군진으로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삼포왜란의 진압과정에 동원된 다수의 한량들은 각 지방관에 의해 파악되었거나, 혹은 무과 및 도시에 응시한 한량들이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42)</sup> 삼포왜란 직후에는 해안 지역의 방비를 위해서 한량들이 군사들과 합번하여 해안 포구에 부방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sup>43)</sup> 1522년(중종 17) 신달량(新達梁)에 침입한 왜인들을 방비하기 위해 100여명의 한량들이 동원되었다.<sup>44)</sup>

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도 왜구의 위협이 대두될 때마다 한량들이 동원했다. 1544년(중종 39) 가덕도 진와 천성진을 방어하기 위해 한량들이 부방하였다.<sup>45)</sup> 1546년에는 울진에 나

33)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6일(을축).

34) 김성우, 「공민층의 몰락과 국역체제의 해체」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111~115쪽.

35)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11일(병신);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7월 8일(병진).

36) 궁술은 유교적 교양인 육예(六藝)의 하나였기에 사족들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궁술을 익히기도 한 것 같다. (심승구, 「미미라를 통해 본 조선시대 한 무관의 삶과 행적」 『학예지』 13 (2006), 114쪽 참조).

37)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11일(병신), 45권, 중종 17년, 6월 26일(신축);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6일(기유).

38) 김성우, 「반상제의 대두와 그 한계」, 277~290쪽.

39) 장학근, 『조선시대해방방위사』, 133쪽.

40)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 5월 16일(병신), 64권, 중종 23년, 윤10월 12일(경진).

41) 이이는 당시 지방에 호족을 초발하여 금군을 증가시키는 조치는 지엽적인 방법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지적하였다(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근세조선전기편』, 367쪽).

42)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4월 11일(병신).

43)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5월 9일(계해), 12권, 중종 5년, 8월 20일(계묘).

44) 『중종실록』 45권, 중종 17년, 6월 26일(신축).

45) 『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9월 26일(임술).

타난 왜선을 방어하기 위하여 무재 있는 군사 및 한량들이 동원되었다.<sup>46)</sup> 1555년 을묘왜변 당시에도 금군 및 한량, 산관직에 있는 무신, 심지어는 노비들까지 모집 전선으로 파견되었다.<sup>47)</sup> 방어사였던 남치근과 육군 지휘관이었던 병사가 병선을 지휘한 것으로 보아 한량들 또한 승선하여 궁수로 활약한 것으로 추정된다.<sup>48)</sup>

을묘왜변 이후 정립된 제승방략은 한량층의 초발 및 수군 지원을 더욱 수월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중엽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절제방략(節制方略)』에서는 각 도의 무재(武才)있는 이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유사시에 각 지역으로 달려가 방수하도록 한 규정들이 다수 등장한다. 특히 기미년(1559)의 조항에서는 각 지역의 전선(戰船)에 사관(射官)을 미리 지정하여 둘 것을 지시하고 있다.<sup>49)</sup>

임란 당시 전라좌수군에 갑사(甲士), 정병(正兵), 신선(新選), 조방(助防) 등의 육군이 상당수 포함되었으며,<sup>50)</sup> 임란직후에 수군을 재건할 당시에 궁수는 여전히 출신(出身), 군공(軍功), 정로위, 별시위(別侍衛), 갑사(甲士), 신선(新選) 등의 정예병종이 궁수로 동원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sup>51)</sup>

## 맺음말

## 참 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 light-cavalry@daum.net

본 발표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공간한 논문인,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궁수」 『역사와 세계』 39(2010년)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46) 『명종실록』 4권, 명종 1년, 11월 20일(계유).

47)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5월 18일(신해), 18권, 명종 10년, 5월 16일(기유).

48)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6월 12일(을해).

49) 『비어고(備禦考)』 6권, 「절제방략(節制方略)」.

50) 『임진장초』, 「3번째 한산도에서의 승첩을 알리는 계본(三度閑山島勝捷啓本)」.

51) 『남파상국집(南坡相國文集)』 5권, 서장(書狀), 「경상감사시의 서장(慶尙監司時書狀)」 을묘(乙卯).

한량층의 동원이 임진왜란까지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김성우의 경우 을묘왜변까지 이어진 사족의 군역 동원이 임진왜란 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김성우, 「16세기 중반 국가의 군역동원 방식과 성주 사족층의 대응」, 104쪽).

#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 동향과 전망

한 정 훈 ■ 목포대학교 사학과

## 1. 머리말

2014년 초겨울 마도4호선으로 명명된 고선박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2000년대 이래로 고선박의 출현 소식은 그렇게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지만 마도4호선은 최초의 조선시대 선박이면서 세곡을 실어 날랐던 漕運船임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세간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향후 마도4호선의 발굴을 계기로 한동안 주춤하였던 조선시대 조운제의 연구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사적 관심에 부응하여 조선시대 조운제에 관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연구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동향

조선시대 조운제에 관한 연구는 崔完基의 성과를 기준으로 전후시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의 연구 업적은 조선시대 조운제 이해의 방향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崔完基의 탁월한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제는 그 내용을 재검토해 볼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는 조운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나 사례 고찰에 주안을 두고 진행되었다. 조운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漕倉과 같은 조운거점, 漕役집단과 조운선, 조운 기구와 관원, 조운로와 조운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 1) 조창

각 지역에 산재하는 조창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개별 漕倉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다. 개별 조창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전세수납체계의 변화에 따른 조창의 정비과정(置廢나 移建의 문제)이나 수세구역, 漕卒 및 漕運船의 규모와 같은 조창의 구성 문제 등을 다루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이해에 더불어, 각 조창별 漕運穀量을 추정하거나(최완기, 1976) 倉城과 같은 조창시설에 대한 건축사적 접근(임초룡)도 시도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 후기 연구는 개별 조창에 관한 풍부한 사료 분석을 통해 조창의 운영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폈다. 조운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19세기 말엽 聖堂倉 租稅 領運官 趙熙百(1825~1900년)이 쓴 『漕行日錄』이다. 이 자료를 분석하여 19세기 조창의 구조와 조운작업의 구체적 실태를 고찰한 吉田光男의 논문(1984)은 선구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漕行日錄』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捧稅廳, 창마당(倉庭), 창고, 沙工廳, 줄바탕, 順風堂 등 성당창의 조창관련 시설을 복원하여 조운활동의 핵심공간인 조창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안길정) 최근에는 法聖倉의 주요시설의 구성을 밝힌 연구도 제출되었다.(변남주)

## 2) 漕役집단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자료에서 漕卒·漕軍·格軍 등으로 불리는 漕役집단의 확보는 조운제 운영에 필요한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던 것이었다. 漕船 1척당 40명의 조운을 배속시켜 총 5,960명을 확보하였던 상황을 전하는 『經國大典』의 기사에 대해 六反田豊은 선행 연구와 달리, 5,960명의 漕軍이 전라도 조창에 배속된 인원으로 충청도를 비롯한 당시의 조운활동에 여전히 船軍이 동원된 것으로 이해하였다.(1997) 조선 후기 漕卒에 관해서는 최완기의 견해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조행일록』에서 확인되는 성당창 조졸의 존재양상에 대해서만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조선 후기 각 조창의 漕役집단 구성과 존재양상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상세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 3) 조운선

조선 초기 『經國大典』 戶典 漕轉에서 영산창에 53척, 법성포창에 39척, 덕성창에 63척의 조운선이 배속되었음이 확인된다. 조선 후기는 조운체제의 변화로 인해 조운을 주로 담당하던 선박이 조창 소속의 漕船에서 地土船·京江船·都監船으로 전환되었다. 최완기는 지방 각처의 지방민이 소유하였던 다양한 유형의 지토선을 지역별·형태별·크기별·용도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1989)

또한 조운선 연구에서는 선박의 구조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아 조선공학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최병문은 조선 전·후기 漕船의 형태를 戰船과 비교 연구하였다.(2004) 이 내용으로 볼 때에 조선시대 漕船의 형상은 尖底形이면서 또한 첨예한 船首형상을 갖고 있는

선박이었다. 이러한 漕船과 戰船 船形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兼用의 실행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2014년에 마도4호선이 출수되었기 때문에 향후 조선시대 조운선의 구조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

#### 4) 조운 기구와 관원

六反田豊은 조선 초기 조운제의 정비·변천과정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中央官司나 水站과 같은 조운 기구와 海運判官·差使員 등의 담당 관원에 관해 고찰하였다.(1990; 1994) 하지만 조선 초기의 조운관리체계가 후기로 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목요연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조행일록』을 통해 漕船의 乘船者 현황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吉田光男; 안길정) 이렇게 현장에서의 관원 뿐 아니라 조선 후기 중앙의 漕運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 5) 조운로 관리와 조운 규정

해난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태안반도의 조난지대에 漕渠를 굴착하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항해 여건을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관련 조운 규정을 마련하여 불의의 사고를 막고자 노력하였다. 安興梁의 漕渠 굴착공사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꾸준히 이어졌다.(이종영; 박정현; 곽호제; 문경호) 또한 조운로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조운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선 초기의 조운 규정은 『經國大典』 戶典 漕轉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는 조운제 강화를 위해 조운 규정을 점차 보완해 나갔다. 여러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해당 규정(發船 및 上納期日, 漕船의 運航 및 敗沒 규정 등)에 관해서는 초기 연구 때부터 거론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조선 후기 조운 규정을 옮겨 제시하는 것에 그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의 그것과 비교하여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추적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해난 사고를 중심으로 조선전기의 『經國大典』과 후기의 『續大典』에 나오는 조운규정을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조선후기에 해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체계와 관리 규정을 더욱 구체화·엄격화한 것으로 이해한 연구가 있다.(임종길)

#### 6) 경제사·해운사 분야의 성과

經濟史나 海運史 전공자의 성과도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였다.(김옥근; 오호성; 손태현; 이원철) 財政史의 관점에서 수송비의 증대로 인한 수송의 문제를 조선 경제의 애로점으로 거론한 점이나 수송효율의 악화가 조선 후기 재정 위기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하여 海運史 연구자들도 조선 후기 조운제도가 선박, 항로와 항해기술, 항만 시설과 같은 기술수준의 낙후성으로부터 세곡의 수취·수송·검사·입고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임종길) 이러한 이해 방식은 최완기·고동환 등의 문헌사학자의 시각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 3. 향후 연구 과제

앞의 내용에 의거하여 3장에서는 조선시대 조운제 연구사에서 미진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앞으로 고찰이 더 필요한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조운제 연구는 전체적으로 조운체제와 같이 總論的 性格의 연구 보다는 조운제 구성 요소 개별 주제에 치중한 연구가 많았다. 물론 이러한 개별 요소에 대한 연구가 쌓여서 조운제 운영방식이나 그것의 변화상 파악에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측면이 다분하다. 근래에는 이러한 연구 경향 속에서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최완기의 官船漕運體制 논의가 조선 후기 船運業의 발달 배경으로 조선 전기 조운활동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官船 보다는 私船에, 漕卒(=漕軍) 보다는 船運業者에 초점을 맞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한정훈, 2014)

앞서 언급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다시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조선 후기에 위상이 약화된 漕倉의 실태를 비롯하여 조운제의 운영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관련 사료의 발굴·재정리, ②‘私船賃運體制’로 규정한 조선 후기 조운체제 하에서 雇立化된 漕役집단(조군·조졸)과 賃船의 성격을 띤 漕運船에 대한 세밀한 검토, ③조선 후기 조운체제의 변화에 따라 재편된 조운 관할 기구와 관원에 관한 고찰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주제별로 보완할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조선 전기에 비해 후기 연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후기 연구가 조운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풍부한 사료 검토를 통해 보완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開港期로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근대사회로의 전개과정 속에서 조운제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조선 후기 조운제에 관해 다음의 몇 가지는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①조선 후기 조운제의 변화상을 船運業의 관점이 아니라 漕倉·漕卒을 비롯한 조운제 운영의 주체 입장에서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②19세기 法典의 조운 규정이 강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故意·過積·添載化 경향, 낮은 수준의 조선술·항해술, 官員과 漕卒의 부패 등으로 인해 海難사고가 현저히 증가하였지만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견해(吉田光男·임종길)와 ③당시 漕運을 둘러싼 생산관계의 불평등과 낮은 수준의 생산력으로 인해 세곡운송에 참여하였던 船商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한 견해(오호성)에 대한 재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 결국 ②과 ③번 내용은 財政史의 관점에서 농업생산성의 하락과 세곡 수송효율의 악화문제로 19세기에 재정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이해 방향은 조선 후기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에 힘입어 私船에 의한 세곡운송을 통해 성장한 선운업자들이 상업유통경제의 발달로 인해 상업자본의 축적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이해한 전통적인 견해(최완기·고동환·나애자)와는 상반된 것이다. 역사학계의 전통적인 이해 방향은 기본적으로 조선사회의 내적 발전을 통해 상업자본이 축적되고 근대자본

주의의 토대가 이루어졌다는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이 19세기 세곡운송활동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은 당시 조선사회의 성격 논의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조운제 연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연구과제이다.

## 4. 맺음말

본문에서 서술한 내용 중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가급적이면 조운제 구성 요소(개별 조창·조운선·漕軍·조운 규정·해난 사고 등) 개별에 관한 各論 보다는 조운제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總論的 성격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으면 한다. 설령 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더라도 운영체제나 그것의 변화상에 어떠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지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선 후기의 풍부한 사료 속에서 확인되는 조운 실태에 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선운업자가 아닌 중앙정부나 漕倉·漕卒과 같은 운영 주체의 입장에서 조선 후기 조운제의 운영과 변화상에 관해 고찰하였으면 한다. 해당 연구주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고찰된다면, 18·19세기 조운제 안에 내재적 발전의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주요 연구논저 목록

- 崔完基, 1989, 『朝鮮後期 船運業史研究』, 一潮閣  
 최병문, 2004, 『朝鮮時代 船舶의 船型特性에 관한 研究』,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吳浩成, 2007, 『朝鮮時代의 米穀流通시스템』, 국학자료원  
 임종길, 2011, 『조선의 해운경제 -조운 시 해난사고를 중심으로-』, 위드스토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전통선박 조선기술』 IV(漕運船)  
 六反田豊, 2014, 『朝鮮初期漕運制研究』, 九州大学博士学位論文
- 崔完基, 1976, 「朝鮮前期 漕運試考-그 運營形態의 變遷過程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20  
 孫兌鉉, 1982, 「朝鮮時代의 漕運」 『韓國海運史』, 亞成出版社  
 金鎔坤, 1983, 「朝鮮前期 漕軍; 漕運과 관련하여」 『明知史論』 창간호  
 朴正賢, 1988, 「韓國中世의 漕運과 泰安漕渠」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高東煥, 1998, 「京江船運業의 발전과 京江船人船商의 성장」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研究』, 지식산업사  
 羅愛子, 1998, 「開港前後 船運業의 실태와 외국상인의 침투」 『韓國近代海運業史研究』, 國學資料院  
 이원철, 2000, 「朝鮮時代의 漕運 用語에 관한 小考」 『韓國海運學會誌』 30  
 金點容, 2001, 「朝鮮時代 全羅道 漕倉의 運營과 그 實態」, 전북대 석사논문



- 崔完基, 2001, 「朝鮮時代 牙山 貢津倉의 설치와 운영」 『典農史論』 7  
 임초룡, 2007, 「아산 공세곶창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안길정, 2008, 「“조행일록”으로 본 19세기 조운의 운영실태」 『史林』 29  
 곽호제, 2009, 「고려~조선시대 泰安半島 漕運의 실태와 運河掘鑿」,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이은미, 2013, 「고려말 조선초 충주 지역 조창의 운영과 그 변화」,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문경호, 2014, 「안흥량과 굴포운하 유적 관련 지명 검토」 『도서문화』 43  
 문경호, 2014, 「여말 선초 조운제도의 연속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7-1  
 文光均, 2014, 「17~18세기 경상도 세곡운송체계의 변화와 三漕倉의 설치」 『대동문화연구』 86  
 변남주, 2014, 「영광 법성포 조창과 수군진의 변화」 『島嶼文化』 44  
 한정훈, 2014, 「조선 전기 ‘官船漕運制’ 연구에 대한 재검토」 『역사문화연구』 51  
 한정훈, 2014, 「한국 중세 漕運史 시기 구분 試論」 『지역과 역사』 35  
 한정훈, 2015, 「15·16세기 漕倉制의 재정립과 그 이해방향」 『역사와 경계』 94  
 吉田光男, 1984, 「李朝末期の漕倉構造と漕運作業の一例-“漕行日録”にみる1875年の聖堂倉-」  
 『朝鮮學報』 113  
 吉田光男, 1986, 「19世紀忠清道の海難-漕運船の遭難190事例を通して-」 『朝鮮學報』 121  
 六反田豊, 1987, 「李朝初期の田稅輸送體制-各道單位にみたその整備・變遷過程-」 『朝鮮學報』  
 123  
 六反田豊, 1994, 「李朝初期の漕運運營機構」 『朝鮮學報』 151  
 六反田豊, 1997, 「朝鮮初期漕運制における船卒・船舶の動員制」 『朝鮮文化研究』 4



## 프랑스 선교사의 서해안 입국로 모색

김 수 태 ■ 충남대학교

1820년대 중반 유진길 등이 올린 서한이 마카오의 포교성성 대표부를 경유하여 로마로 전달되면서 한국 천주교회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주문모 신부와 같이 중국에서 중국인 사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아주 먼 나라인 프랑스에서 주교와 사제들이 선교사로서 한국에 오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유럽에 있는 선교회들 가운데 조선 선교를 단독으로 담당할 곳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 외방전교회의 브뤼기에르 주교가 조선 선교를 지원하고, 이후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면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들이 어떻게 조선으로 입국하느냐의 문제가 있었다.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로 모색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up>1)</sup> 이를 살펴보면,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로를 다룬 연구의 대부분이 페레올 주교의 조선 대목구장 재임 시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육로보다는 해로의 개척

1)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로 모색 방안을 다룬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차기진,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 《교회사연구》 12, 1997.

김정환, <18. 19세기 조청교역로를 통한 조선천주교회의 대외교류>, 《부산교회사보》 50, 2006.

서종태, <김대건 신부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5, 2008.

조현범, <중국 체류 시기 페레올 주교의 행적과 활동>, 《교회사학》 5, 2008.

——,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2008.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여행기가 지닌 교회사적 의미>, 《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2008.

김규성, <19세기 전·중반기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시도와 서해 해로—1830~50년대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32, 2009.

조현범, <조선 대목구 설정과 선교사 입국>,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 2, 2010.

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더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페레올 주교의 시대에 와서 김대건 신부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해로 개척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까닭에 제1대 조선 대목구장인 브뤼기에르 주교를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 제2대 조선 대목구장이 된 앵베르 주교의 조선 입국로 모색 방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느낌을 주었다. 물론 브뤼기에르 주교의 여행기를 통해서 혹은 앵베르 주교가 주장한 조선 국내와 외부 세계의 연락망 구축 방안 등이 간단하게 지적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세 명이나 되는 조선 대목구장들의 조선 입국로 방안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sup>2)</sup>

이 글에서는 앵베르 주교(1796~1839)를 중심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해안을 통한 조선 입국로 모색 방안을 새롭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앵베르 신부가 이전과 달리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로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육로와 달리 해로는 더 안전하고 더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조선 교우들이 주문모 신부가 했다는 예언에 따라 배를 타고 오는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게 해로를 이용하면 중국의 선교 지역들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앵베르 신부가 프랑스의 군함을 이용하여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입국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때 그는 1820년에 시베리아의 캄차카 반도에서 마카오까지 해안을 따라 남하한 라스호라는 작은 군함을 탄 선원들이 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 조선 해안을 따라 남하했을 때 선원들은 망원경으로 여러 외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올리며 천주교의 특징적인 다른 몸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이다. 조선 교우들이 해변에 살고 있어 해로로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브뤼기에르 주교 당시에는 조선의 해변에 천주교 신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혼란을 일으켰는데, 앵베르 신부는 서해안에 조선 교우들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까닭에 앵베르 신부는 신앙심이 깊은 프랑스의 샤를르 10세가 바다를 종횡으로 누비는 프리깃 함의 선장들 가운데 한 명에게 명령하여 페낭이나 마카오로 가서 선교사를 돕도록 지시하게끔 간청하자고 한다. 그곳에서 조선으로 갈 선교사와 통역할 수 있는 조선인 신학생을 승선시킨 다음 조선 연안을 따라 항해하고 정찰하다가 조선의 해안에서 천주교 신자 같은 몸짓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작은 배를 바다에 띄워 그 사람들과 대화해 보도록 신학생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선교사도 상륙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후 1835년에 이르면서 정세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래도 해군 장관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하면 그가 어떤 프리깃 함을 지명하여 자신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았다. 자신이 보기에 이것만이 선교사들이 조선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2) 김수태,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로 모색방안」, 『교회사연구』 41, 2013.

이와 함께 앵베르 신부는 브뤼기에르 주교에 대해서도 새로운 요청을 하고 있다. 브뤼기에르 주교가 입국한 다음부터는 해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그것이 어렵다면 일단 조선에 입국한 다음에 역시 해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복건 대목구장처럼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즉 조선에 들어간 다음 작은 배 한 척을 구입하고 나서 조선인 어부 여러 명이 연락책 한 명을 데리고 그 배로 마카오까지 다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조선 대목구가 마카오 극동대표부와 값싸고, 안전하게, 그리고 중국의 선교 지역들이 피해를 보는 일 없이 교류할 수 있을 것이며,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조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동 지역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폐낭이나 마카오 극동대표부와 바로 직접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브뤼기에르 주교가 처음에 제시한 여러 가능성의 하나가 앵베르 주교에 의해 다시 언급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설명을 따른다면 해로 입국이 앵베르 신부의 기본 생각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앵베르 신부는 1836년 4월 26일 조선 대목구의 부주교로 임명되었으며, 그다음 해인 1837년 5월 14일에 제2대 조선 대목구장이 되었다. 이제 앵베르 주교는 브뤼기에르 주교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조선으로 입국하느냐의 과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의 조선 입국로는 본래의 희망과는 달리 육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 들어온 세 번째 선교사인 앵베르 주교는 가장 먼저 브뤼기에르 주교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조선 입국로 모색에 대한 여러 논란을 정리하고 있다.

이때 그가 여전히 해로를 통한 조선 입국로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앵베르 주교는 1838년 12월 3일자 서한에서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배를 가져 해로를 이용하면 더 쉽고, 더 빈번한 연락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앵베르 주교는 해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다. 먼저 교우인 중국인 어부 한두 집안과 관계를 맺어 그들이 우리와 친해지게 한 다음, 그들을 조선의 해안에서 되도록 멀리 않은 ‘양부’라고 하는 큰 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항구 근처에 정착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머무를 집과 작은 배 한두 척을 구입할만한 자금을 준다는 것이다. 이때 약속 장소를 압록강 하구에 있는 만에 있는 곳으로 정하게 되면, 몇몇 조선 교우들이 어부로서 이를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 만에 중국 어부들도 고기를 잡으러 오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보낸 조선 어부들과 선교사의 일을 돕는 중국 어부들이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신호를 보게 되면,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서로 연락을 하여 주고받을 것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앵베르 주교는 오드마르 주교가 베트남에서 시도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오드마르 주교는 여러 척의 작은 배들을 건조하여 신자 어부의 경제 및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선교사들의 밀행에도 사용하였던 것이다. 앵베르 주교도 이를 이용해 보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앵베르 주교는 이를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구상으로 보이지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런 계획을 실현하려면 아주 용감하고 유능한 사람이 꼭 필요한데 어부들, 특히 조선의 교우 어부들 가운데 그만한 용기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요동 지역에 연락소를 우선 정해 놓은 다음에 그 구상의 실현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좋을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앵베르 주교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현재 선교사 입국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보다는 조선 국내와 외부 사이의 상시적인 연락망 구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것도 먼 바다로까지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근해의 어선을 이용해서 서신을 주고받자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그와 같이 단순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역시 선교사의 입국로의 개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앵베르 주교의 최종 목표는 해로를 통한 조선 입국로 개척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해로를 통해서 조선 대목구와 마카오의 극동대표부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꾀하였던 것이다.

한편 앵베르 주교가 이러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페레올 신부에게 지시한 사실이 주목된다. 페레올 신부는 이에 대해서 “이 계획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으며, 중국과 조선 사이에 훨씬 더 손쉽고, 훨씬 더 신속하고, 훨씬 저렴하게 전교지와의 연락망을 구축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행될까요? 하느님은 아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중국과 조선의 연락망 구축으로 한정시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앵베르 주교가 그에게 조선의 북쪽으로 가서 변문을 통하는 것보다 더 쉽고, 덜 위험한 연락망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이 역시 조선 입국로와 연결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만 이와 같이 요동 지역에서 육로와 해로의 거점이 함께 언급된다는 점에서, 또한 중국에서 조선의 해안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요동 지역을 다시 거치는, 다시 말해서 육로와 해로의 결합이라는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가 중국에서 해로를 통해 아마도 압록강에 인접한 요동 지역의 해안에 도달한 다음 육로로 조선에 입국하려던 계획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1839년 3월 30일자 서한에서도 앵베르 주교가,

제가 작년에 신부님께 말씀드린 계획에 따라 우리가 달단 지역에 작은 연락소를 가져 중국 어부들과 조선 어부들이 각각 배를 타고 바다에서 안전하게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상호 간 연락은 여전히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신부님께 보내드린 편지에서 그 신학생들을 달단 지역으로 보내는 일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과 가깝고 조선과 교류가 있는 나라로 조선 학생을 보내는 것은 달단(만주) 대목구와 갓 태어난 조선 대목구에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sup>3)</sup>

라고 하여, 달단 지역에 작은 연락소를 두고, 이를 기반으로 해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였던 점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의 북경교구와 산서 대목구에서 일어

3) 1839년 3월 30일자 서한, 위의 책, 465~467쪽.

난 박해의 여파로 당시 달단 지역의 상황 역시 유동적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조선의 신학생을 폐낭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한 자신의 의견을 취소하고 있다. 그만큼 앵베르 주교는 해로를 통한 조선 입국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1839년 앵베르 주교가 순교함으로써 그의 입국로에 대한 고민은 다음의 조선 대목구장에게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것은 제3대 교구장인 페레올 주교에 의해서 해로를 통한 조선 입국로가 개척되었던 것이다. 페레올 주교의 입국로 구상에 대해서는 현재 육로 입국의 가능성을 계속 타진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 마지막 선택으로서 조선과 중국 사이의 황해를 가로지르는 해로 입국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페레올 주교 역시 앵베르 주교의 뒤를 이어 제3대 조선 대목구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해로를 통한 조선 입국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브뤼기에르 주교가 한때 관심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그보다 더욱 해로를 통한 조선 입국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앵베르 주교를 거치면서, 마침내 페레올 주교에 의하여 중국의 강남 지역을 통해서 직접 조선에 들어오는 길까지 열리게 되었다고 하겠다. 즉 앵베르 주교의 계획이 그의 영향을 받은 페레올 주교에게 계승되면서 비로소 실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서해 최대의 험로 안흥량과 굴포운하

문 경 호 ■ 대전과학고등학교

## 1. 머리말

충청 서해안은 三南의 물자가 북상하는 海運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다. 조운이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었던 고려~조선시대에는 지방의 풍부한 물산이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수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안흥량은 서해로 돌출해 있고, 潮水도 사나워서 지나가는 선박들이 顛覆되기 일쑤였다. 이에 고려~조선 정부에서는 안흥량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차례 운하 건설을 시도하였다. 그것이 이른바 굴포운하이다.

굴포운하 건설은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우리 역사에서 독특한 사례일 뿐 아니라 착공 기록과 역사적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 해난 극복을 위한 사람들의 고뇌와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굴포운하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경제사학의 입장에서 운하 건설의 시기별 논의과정을 정리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서산·태안 지역의 조운관련 시설을 찾아 소개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굴포 운하 개착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대안으로 의항과 안면곶을 굴착하였으며, 그것도 여의치 않자 굴포 운하 개착지의 남과 북에 安民倉을 설치하여 육지로 운송하는 이른바 ‘設倉陸輸式’ 운송이 이루어



관장항을 지난 선박들은 다시 태안읍 원북면 소근리의 소근진을 오른쪽으로 끼고 방이도를 거쳐 북으로 올라갔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후기의 경우 이 구간에서도 안흥량이나 관장항 못지 않게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 곳은 대동지지에 “11개 혹은 12개의 작은 섬이 한 줄로 늘어서 가야금의 안죽[琴之雁足]과 같다”고 서술된 구간이다. 「대동여지도」에도 12개의 섬을 일렬로 배열하고 12방이도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도, 방행도, 대방이, 연돌도, 연도, 귀도, 새방이 등의 섬이 한 곳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이 구간이 위험했던 것은 여러 섬이나 암초보다 무시로 생겨나는 안개와 모래턱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sup>2)</sup> 「도해가」에서도 안흥진과 관장항을 무사히 통과한 조운선이 이 구간에 접어들어 “시커먼 안개가 하늘까지 뻗쳐(黑霧漲天)으로 어둡고”, “돌섬과 풀등” 때문에 난파의 위기를 겪었다는 구절이 확인된다.

『高麗史』를 비롯하여 『朝鮮王朝實錄』에 “안흥량 400리 뱃길”이라는 구절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구간도 당시에는 특별한 명칭이 없이 안흥량이라고 불린 것으로 보인다.

### 3. 안흥량을 피해갈 유일한 길 굴포운하

안흥량의 험로를 피해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수로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고려시대부터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 첫 시도는 고려 인종 12년 7월에 있었다.<sup>3)</sup> 인종이 내시 정습명을 보내 안흥정 아래의 험한 곳을 피하기 위해 소대현의 지경에 하도를 개착하도록 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명을 받은 鄭襲明은 인근 고을의 사람들을 수천 명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당시 공사가 진행된 구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굴착한 구간이 10여 리였으며, 남은 구간은 불과 7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조선시대의 굴포 구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두 번째 시도는 공양왕 3년에 재개되었다. 이 시기는 고려가 왜구 때문에 중단되다시피 했던 조운제도를 복구하던 시기였다. 당시의 사료에 따르면 탄포로부터 흥인교까지와 창포로부터 순제성 북쪽에 이르기까지는 배가 닿을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조거를 개설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탄포라는 지명을 가진 곳은 안면도의 고남면 누동리(가경주 마을 동

2) 이는 현재 이 일대에 만리포, 천리포, 신두 해수욕장, 신두 백사장 등 모래사장이 들어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태종 13년 8월 14일 金汝知가 태종과 나눈 대화에는 “(운하개착은) 前朝(고려) 예왕(예종), 속왕(속종) 末年에도 있었는데, 모두 백성들을 동원하여 운하를 파서 통하게 하였으나 그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태종실록』 권26, 13년 8월 14일 경신). 이에 따르면 인종 이전에도 운하 굴착에 관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단순히 논의의 단계였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공역의 발주가 있었는지 그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윤용혁, 『서산-태안지역의 조운관련 유적과 고려 영풍조창』 『백제연구』22,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991, 208쪽).



쪽)<sup>4)</sup>와 안면을 창기리의 황새지 마을(불탄개 동쪽)<sup>5)</sup>이 있다. 『고려사』에 언급된 탄포가 어느 곳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흥인교까지 180리로 표현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창기리 탄포보다는 고남면 누동리의 탄포가 아닐까 싶다. 그렇게 본다면 탄포로부터 흥인교까지의 180리는 천수만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흥인교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도 또한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太宗實錄』에 따르면 이 공사는 태종 13년 정월 29일에 시작되어 다음 달 10일에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5개의 방축을 쌓는 공사가 끝났던 셈이다. 당시에 건설된 운하의 구체적인 규모는 다음과 같다.

〈태종 13년 굴포 조거 공사 개요〉<sup>6)</sup>

구 분	구 모			비 고
	길 이	너 비	높이 또는 수심	
渠	925척(278.24m)	50척(15.04m)	수심 3척(0.9m)	
池	104척(32.03m)	62척(18.65m)	수심 5척(1.5m)	소선 3-4척 수용
北防築	200척(60.16m)	40척(12.03m)	높이 18척(5.41m)	
南內防築	100척(30.08m)	40척(12.03m)	높이 18척(5.41m)	
南防築	470척(141.14m)	40척(12.03m)	높이 18척(5.41m)	소선 7-8척 수용
池	270척(81.22m)	130척(39.10m)	수심 6척(1.80m)	
渠	2290척(688.88m)	130척(39.10m)	—	

남쪽과 북쪽으로 이어진 도랑을 제외하면 제방 공사가 진행된 구간은 총 352m에 지나지 않는다. 남쪽과 북쪽으로 이어진 도랑을 다 포함하더라도 그 길이는 1.3km 정도이다. 이를 톨로 환산하면 약 3리로 고려시대 착공하지 못한 구간이었던 7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당시 제방이 설치된 공사구간은 현재의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의 고성골 마을 북서쪽으로부터 북쪽 창포 해안(진장리 919번지 일대)까지의 거리인 1.3km 중의 일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간의 지형은 점차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다가 판개골 지역에서 다시 완만히 낮

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4(충남편, 하), 2006, 45쪽.

5) 한글학회, 위의 책, 49쪽. 불탄개는 조선시대에 창고가 있었는데, 큰 불이 나서 탔기 때문에 생겨난 지명이라 한다.

6) 조선시대 토목공사에는 주로 영조척이 사용되었다. 그 길이는 약 30.08cm이다. 반면, 주척은 태종 4년 각품과 서인의 분묘 보수를 정할 때 처음 사용된 이후 태종 15년 리정의 측정, 태종 17년 훈련장 교장의 길이 측정, 세종 17년 명의 세공마 측정, 세종 12년 측우기 제조 등에 두루 사용되었다(이종봉, 한국중세 도량형제 연구, 2001, 해안, 119-120쪽). 김의원은 안흥량 굴포구간지형도를 그리면서 양전주척을 사용하여 1척=21.79cm로 환산하였으나(金儀遠, 『安興梁掘浦(運河)開鑿과 技法研究』『국토계획』16,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81, 56쪽) 양전척이 지척에서 주척으로 바뀐 것은 세종 26년의 일이므로 태종 13년의 굴포조거 공사는 주척으로 계산되었을 확률이 적다. 따라서 <표 1>의 ( )의 길이는 주척이 아닌 영조척으로 환산하였다.

아지는 형태이므로 실록에 기록된 것처럼 제방을 쌓지 않으면 배가 다니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이 구간은 기반암이 흑운모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깊게 파고들어갈 경우 굴착이 쉽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제방 또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충청도관찰사 이안우의 상소에 보이는 것처럼 바람이 세고 돌이 험하여 굴포한 구간에 대선이 정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sup>7)</sup>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물가에 창고를 짓고, 平底小船(150석 적재 가능)을 만들어 운송하였으나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더 많았다. 보고를 받은 태종이 대선(500석 적재 가능)이 다니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우희열을 꾸짖은 것을 보면 태종은 현지의 구체적 사정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태종은 궁궐 및 도성 공사의 경험이 많은 知議政府事 朴子青을 다시 순제에 파견하여 대선이 다닐 수 있도록 못을 팔 수 있는지 조사해 오게 하였다. 1413년 8월 1일 명을 받고 떠난 박자청은 8월 10일 현장에서 돌아와 그림을 바치고 역역이 어렵겠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러나 의정부에서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곧이어 의정부의 의견을 반박하는 충청감사 이안우의 상서가 올라오는 등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안우의 글을 토대로 당시 운하 구간의 조운 방식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라도의 조운선이 잠문곶(안면도)에 이르면 호송하는 군인들을 모두 나오게 하여<sup>8)</sup> 평저선에 곡식을 옮겨 싣게 한다. 배가 남쪽 방축에 이르면 다시 150척을 싣는 소선에 옮겨 싣게 하고, 북쪽 방축 밖의 정박한 병선에 인계한다. 그러면 병선의 군사들이 그것을 대선이 정박한 곳으로 운송하여 대선에 옮겨 싣고 한양으로 출발한다. 즉, 고도에 따라 여러 개의 계단식 저수지를 만들고 각각에 배를 배치하여 구간별로 운송하는 릴레이식 운송구조였던 것이다. 이는 이안우의 상소에 잘 나타난 것처럼 조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안팎으로 한정되는 데다가 짧은 구간에서 일곱 차례나 배에 옮겨싣고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노동력이 많이 소모되고 耗損 곡식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국 태종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운하 개착 공사는 실패로 돌아갔다. 태종은 친히 운하 건설 지역을 두 차례나 순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4. 맺음말

조운제도를 처음으로 구상하고 시행한 것은 중국이었지만 그들의 조운은 운하를 따라 운송하는 河運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해안로를 중심으로 조운제도를 운영한 것은 고려에서 처음 시행되어 조선으로 계승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7) 『太宗實錄』 卷25, 13年 3月 12日 辛卯.

8) 당시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조운선 1척당 기군 60~70명씩을 태우게 하였다.

한 조운제도의 운영에 있어 충청 서해안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충청서해안을 지나지 않고서는 호남과 영남의 풍부한 물산이 수도로 올라가기 어려웠으며, 조세 수취와 운송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운선의 운항은 최단거리 또는 도서를 피해 원양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항로, 즉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었다. 따라서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복잡한 서·남해안을 운항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특히, 태안 앞바다 안흥량은 배들의 공동묘지라고 불릴 만큼 수없이 많은 조난사고가 일어났던 곳이다. 이를 피하지 않고는 조운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하여 굴포 개착을 시도한 것은 운하 굴착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굴포운하는 전근대시대의 해로 교통과 조운제도의 운영이라는 역사·문화적 배경에서 생겨난 상징적인 문화재라 할 수 있다.



[그림 2] 고려~조선 시기 운하 굴착 시도에 따른 조운로 동선 변화

## 백제 白江과 白村江

서 정 석 ■ 공주대학교

### I. 머리말

백제사에서 백강의 위치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도 없다. 문제는 이렇게 관심이 커지면 그 위치에 대한 견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위치 비정이 쉽지 않게 된다는 데 있다.

사실 지금까지 백강의 위치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백강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기 보다는 주류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주류성이 백강 근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 만큼 주류성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백강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자연히 주류성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백강의 위치도 연동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료속의 백강의 위치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고자 한다.

## Ⅱ. 관련 사료의 검토

백제사에서 백강은 웅진 천도 이후에 등장한다. 관련된 사료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 ① 좌평 苜加가 가림성에 근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무령왕)이 兵馬를 이끌고 牛頭城에 이르러 扞率 解明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니 백가가 나와서 항복하였다. 왕이 백가의 머리를 참한 다음 白江에 던졌다. (『三國史記』, 「백제본기」 武寧王 元年조)

② 흥수가 말하기를, “당나라 군사는 수가 많고 군대의 기율도 엄하고 분명하며… 白江(혹은 伎伐浦라고도 한다)과 炭岨(혹은 沈岨 이라고도 한다)은 우리나라의 요충이어서 한명의 군사와 한자루의 창으로 막아도 1만명이….

(『三國史記』,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

③ 이에 仁師와 仁願 및 신라와 김법민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궤 및 별장 두상과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미를 이끌고 熊津江에서 白江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周留城으로 갔다. (『三國史記』,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

## Ⅲ. 백강의 위치

대체로 백제사에서는 사료 <A>에서 보듯이 백강이 세 번 정도 사료에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사료 <A>만으로는 좀처럼 그 위치를 가늠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그 위치와 관련한 몇 가지 단서는 보인다.

사료 <A-①>에서 보면 백가는 가림성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러한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의 주모자인 백가의 목을 베어 백강에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사료 <A-①>에 보이는 백강은 가림성 근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지않은가 한다. 반란 주모자의 목을 베어 멀리 떨어진 백강으로 가져다 버렸다고 보다는 목을 베어 근처에 있는 백강에 버림으로써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가림성의 위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7, 「林川郡」 건치연혁조의 기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B. 임천군(林川郡)은 본 백제 가림군(加林郡)인데 신라에서 가림군(嘉林郡)을 고쳤다. 고려 성종 때 임주자사(林州刺史)를 두었다가 현종 때에는 다시 가림현(嘉林縣)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임천군이 곧 백제 가림군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가림성은 곧 이 가림군에 있던 성곽임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의 가림성은 곧 현재의 부여군 임천면 일대임을 알 수 있다. 마침 이곳에는 백제 때 축성했다고 하는 聖興山城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산성은 성돌을 일정한 크기,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하여 축성한 것으로, 성내에서 백제유물이 출토되고 있고, 또 발굴조사한 동문지가 백제성곽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어 백제산성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산성이야말로 『삼국사기』에 苜加가 축성했다고 하는 加林城으로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성흥산성이 곧 백제의 가림성이라고 한다면 백가의 목을 베어 던졌다고 하는 백강은 성흥산성 근처를 흐르는 금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실은 사료 <A-②>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료 <A-②>를 보면 백강은 곧 기벌포임을 알 수 있다. 백강 혹은 기벌포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기벌포에 대해서 『三國遺事』에서는 다른 말로 長巖, 孫梁, 只火浦 라고도 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암은 곧 현재의 충남 서천군 장항읍이다. 그런 점에서 사료 <A-②>에서 말하는 기벌포는 곧 금강 하구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료 <A-①>과 사료 <A-②>에서 말하는 백강은 현재의 금강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이다. 그렇다면 사료 <A-③>의 백강도 금강으로 보아야 할까.

## IV. 주류성과 백강

사료 <A-③>의 내용은 백제 부흥운동기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백제 부흥군의 양대 거점은 임존성과 주류성이었다. 부흥운동이 처음 일어난 곳은 임존성이었지만 점차 그 중심지는 주류성으로 옮겨갔고, 풍왕이 머물렀던 곳도 주류성이었다. 그래서 주류성은 王城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바로 그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백제 부흥군의 중심지를 공격하기 위해 손인사, 유인원, 김법민은 육군을 거니라고 나아가고, 유인궤와 두상, 부여융은 수군과 군량미를 싣고 熊津江에서 白江으로 갔다. 아마도 백강구쯤에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주류성은 백강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사료 <A-③>에서도 백강이 보이지만 이 사료 <A-③>에서는 앞의 두 사료에서와 달리 백강과 더불어 웅진강 이라는 또 다른 강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웅진강과 백강은 별개의 강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료 <A-③>에서 말하는 웅진강은 어떤 강일까. 이 문제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록이 있다.

C. 顯慶 5년에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定方은 城山에서부터 바다를 건너 熊津江口에 도착하였다….

사료<C>에서 보면 현경 5년, 즉 660년에 蘇定方과 당나라 군대는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산동반도의 성산에서 출발하여 熊津江口, 즉 지금의 금강 하구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성충과 흥수가 唐軍이 금강 하구로 들어올 것을 경고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금강을 백제사람들은 <A-①>과 사료 <A-②>에서 알 수 있듯이 백강으로 불렀는데, 같은 금강을 사료 <A-③> 및 사료 <C>에서는 웅진강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료 <A-③>은 『삼국사기』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구당서』의 소정방 열전을 글자 몇 군데만 바꾸고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인데, 그런 점에서 중국에서는 금강을 백강이라 부르지 않고 웅진강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큰 무리가 아니라면 사료 <A-③>에서 唐軍이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갔다’고 했을 때의 백강은 같은 백강 이라고 해도 사료 <A-①>, 사료 <A-②>의 백강과는 다른 강임을 알 수 있다.

사료 <A-③>역시 『삼국사기』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백제 멸망 후에 『구당서』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백강’이라 할지라도 중국 사람들이 어떤 강을 백강으로 인식했느냐가 관건이다. 아울러 웅진강, 곧 금강에서 백강으로 갔다고 했고, 주류성이 함락된 후 南方이 평정되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사료 <A-③>의 백강은 금강 이남의 어떤 강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사료 <A-①> 및 <A-②>의 백강과 사료 <A-③>의 백강은 실은 다른 강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사료 <A-①> 및 <A-②>의 백강이 현재의 금강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반면에 사료 <A-③>의 백강은 그것이 금강 이남의 어떤 강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강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해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간 만큼 주류성의 위치를 찾아보면 사료 <A-③>에서 말하는 백강의 위치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백제는 전국을 5방, 37군, 200성(현)으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의자왕이 항복하고 도성이 함락되었을 때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심지는 일단 5개의 方城이 아니었을까 한다. 方城에는 700인 이상 1,200인 이하의 병력이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산성이 축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음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난 임존성은 백제의 서부에 속해 있었고,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지도한 흑치상지는 방의 장관인 方領을 지낼 수 있는 達率 관등의 소유자였던 것을 감안해 볼 때 西方城의 방령으로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임존성은 곧 백제 西方城 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마찬가지로 주류성이라는 것도 백제의 中方城이 아닐까 한다. 백제의 중방성은 곧 지금의 전북 고부일대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고부 일대 어딘가에 있는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해 나당연합군이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백강은 곧 고부 일대를 흐르는 강으

로 보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러한 추론이 크게 무리가 아니라면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사료 <A-③>에서 말하는 백강은 곧 동진강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백제 백강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다만 백강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류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백강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 위치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백강의 위치가 주류성과 관련이 있는 만큼 주류성의 위치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백강의 위치 또한 연동하여 서로 다른 위치비정이 이루어져 왔다.

백강의 명칭이 보이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다. 무령왕이 백가를 처단할 때,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이 현실화 됐을 때 그에 대한 방비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부흥운동의 중심지인 주류성을 공격하러 가는 과정에서 백강이 등장한다.

그런데 다 같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백강이지만 무령왕이 백가를 처단할 때나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의 백강은 백제쪽 사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주류성을 공격하러 갈 때 등장하는 백강은 중국측 자료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무령왕이 백가를 처단할 때나 나당연합군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할 때의 백강은 백제 사람들이 인식한 백강이고, 주류성을 공격하러 갈 때의 백강은 중국사람들이 인식한 백강이다.

백제 사람들은 현재의 금강을 백강으로 보았다. 그래서 백가를 처단할 때나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대비할 때의 백강은 모두가 현재의 금강이다.

반면에 중국사람들은 현재의 금강을 웅진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주류성을 공격하러 갈 때에 나당연합군이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 말하는 백강은 금강일수가 없다.

주류성이 中方城이라면 그러한 주류성 근처를 흐르던 강 또한 백강이었던 만큼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갔다’고 할 때의 백강은 동진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갔다’고 할 때의 백강은 『일본서기』의 기록대로 백촌강으로 부르고, 그 전투 또한 백촌강전투라고 달리 부르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한다.



# 제주도 해안의 환해장성과 규슈 해안의 石壘의 역사적 고찰

김 보 한 ■ 단국대학교

## I. 머리말

13세기 몽골초원에서 출발한 몽골제국은 동아시아에서 서하, 금, 송, 고려, 일본 등지로 팽창을 시도해 갔다. 1231년부터 몽골의 공격을 받은 고려는 그 다음해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전을 계속하였다. 1259년 고종이 항복을 결정하고 태자 전(후에 원종)을 통해 몽골에 항복의사를 전달하면서 고려의 대몽항전이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1270년 고려 조정에서 개경환도를 결정하자, 그해 6월 삼별초가 진도에 내려가 대몽항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고려 조정은 삼별초가 제주도까지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그 해안에 성을 축조하게 하였다. 이것이 몽골의 고려 침공에 따른 대몽항전 세력이었던 삼별초가 제주도에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 해안에 쌓은 환해장성의 시원이다.<sup>1)</sup>

한편 몽골은 고려가 항복하고 1270년 개경으로 환도하기 이전부터 일본의 복속을 요구하는 사신을 파견하고 있었다. 실제로 1266년 11월부터 사신파견을 시작하여 1273년 4월 삼별초의 제주도 거점이 여몽연합군에 의해 함락될 때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일본 초유(招誘)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1274년 10월 몽골의 1차 침공을 막아낸 가마쿠라 막부는 1276년 3월부터 무사를 동원하여 규슈의 북쪽 연안에 석루(石壘) 공사를 시작하였다. 1281년 몽골의 2차 일본침공을 막아낸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석루는

1) 강창언, 「제주도의 환해장성 연구」 『탐라문화』 11, 1991.

북규슈 연안과 도서지역에 쌓은 해안 방어용 성곽인 것이다.<sup>2)</sup>

현재까지 제주도와 규슈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해안 성곽은 대륙에서 시작된 몽골의 팽창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환해장성과 규슈의 석루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3세기 중엽에 약 반세기 동안 진행된 고려 정부의 강화도와 몽골, 삼별초의 진도정부(제주도)와 몽골, 일본 막부와 몽골 등의 대결 관계를 동아시아사의 큰 틀에서 해양성과 대륙성의 충돌과 대결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일까? 따라서 본고는 몽골이라는 대륙 세력이 외연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해양성을 갖는 두 지역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는 해안 성곽을 통해 동아시아해양사의 관점을 부각시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 Ⅱ. 제주도 해안의 환해장성과 삼별초

강화도에서 대몽항쟁을 주도하던 최씨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1259년 고려 고종이 태자전(후에 원종)을 통해 몽골에 항복의사를 전달하면서, 고려의 대몽항쟁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강화도에서 대몽항쟁을 주도하던 삼별초가 1270년 고려 조정의 개경환도 결정에 반대하며 그해 5월 말 원종의 해산명령에 불복한 채 본연의 임무대로 대몽항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의하고 6월 초에는 대선단을 이끌고 대거 진도로 남하하였다.

한편 고려 조정은 진도에서 정권을 세운 삼별초가 제주도로 세력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수 고여림을 탐라에 보내어 군사 1천을 거느리고 둘레 3백여 리의 고장성(古長城)을 바닷가에 쌓게 하였다.<sup>3)</sup> 이 환해장성의 축조시기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사』, 『耽羅紀年』<sup>4)</sup>, 『濟州道誌』 등을 종합해 보면, 1270년 9월부터 11월까지 쌓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sup>5)</sup> 다시 말해 1270년 11월 삼별초가 제주도를 장악할 때까지 300여리를 약 2개월간에 걸쳐 다급하게 쌓은 해안 성곽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273년 4월 여몽연합군에 의해 제주도가 점령될 때까지 항파두리에 토성을 쌓고 여몽연합군에 대비하던 삼별초가 이들의 제주도 상륙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환해장성의 보수·연장 공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sup>6)</sup> 이후 환해장성은 왜구 침입이 심했던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보수·정비가 이루어졌다. 또 19세기까지 이양선이 제주도 근해에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갔다.

2) 黒田俊雄, 『日本の歴史』8(蒙古襲來), 中公文書, 1974; 南基鶴, 「蒙古襲來と鎌倉幕府の對應」 『蒙古襲來と鎌倉幕府』, 臨川書店, 1997.

3) 『신증동국여지승람』제38권, 전라도, 제주목, 고적조.

4) 金錫翼, 『耽羅紀年』, 1918.

5) 姜昌언, 「제주도의 환해장성 연구」, 110쪽.

6) 현재 환해장성이 양호하게 남아 있는 곳은 제주시의 애월·곤을·별도·삼양·북촌·동북·행원·한동, 서귀포시의 온평·신산 등 10여개소이지만, 이 외에도 필자는 조천·김녕·월정·하도 등지에서 환해장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편 1271년 5월 진도가 여몽연합군의 공격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에 삼별초는 일본과의 연대 투쟁을 호소하기 위해서 첩장을 보냈다.<sup>7)</sup> 이 역사적 사실은 당시 첩장 내용에서 의문점을 정리해서 기록한 ‘고려첩장불심조조(高麗牒狀不審條條)’<sup>8)</sup>를 통해서 유추해 낸 것이다. 이것은 막부가 처음 받은 첩장(1268)과 금번(삼별초) 첩장(1271)의 내용이 서로 달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총 12개 조항으로 정리해 놓은 문서이다. 그런데 ‘고려첩장불심조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막부는 당시 진도의 삼별초가 고려 조정이나 몽골에 대적하는 세력이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다. 어이없게도 막부는 1271년 중반 경 일본에 도착한 삼별초의 대일통첩을 보고도 진도의 삼별초와 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1272년 2월부터 규슈 연안의 경비태세를 강화하는 ‘이국경고번역(異國警固番役)’을 공포하였다.

결국 제주도의 삼별초가 1273년 4월에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1270년 6월부터 1273년 4월까지 진도와 제주도에서 전개된 삼별초의 대몽항전이 가마쿠라막부에게 몽골의 군사적인 위협을 외교력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몽골의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한 고려 내의 정치 상황에도 둔감했던 가마쿠라 막부의 미식견으로 말미암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 Ⅲ. 몽골의 일본 침공과 규슈 해안의 石壘

제주도의 삼별초가 진압된 이후 1274년 1월 몽골은 고려에게 일본 원정에 쓰일 병선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마침내 1274년 10월 3일 여몽연합군 4만명이 합포를 출발하여 바다 건너 일본 침공의 길에 올랐다. 같은 달 20일 여몽연합군이 하카타만에 상륙하여 순식간에 다자이후를 방비하는 미즈키(水城)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날이 어두워지자 여몽연합군은 정박해 놓은 배에 올라탔고, 그날 밤 갑자기 폭풍우가 심해지면서 무려 13,500명의 희생자만을 낸 채 퇴각하고 말았다.<sup>9)</sup>

몽골의 1차 침입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막부는 1275년 12월 초 ‘이국정벌(異國征伐)’ 명령을 내리고 규슈와 추고쿠 지방의 선장과 선원을 차출하여 다음 해(1276) 3월에 하카타(博

7) 李頌, 「여몽연합군의 일본침공과 여일관계」 『日本歴史研究』9, 1999; 石井正敏, 「文永八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三別抄の日本通交史料の紹介-」 『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12, 1978.

8) 「高麗牒狀不審條條」제1조에서는 1268년 첩장에서 몽골의 덕을 찬양, 금번 첩장에서 몽골인(韋纛者)은 앞날의 생각이 부족하다는 것에 의아. 제3조에서 1268년 첩장에서 몽골의 덕, 군신의 예, 금번 첩장에서 오랑캐의 풍속(被髮左衽)은 성현도 싫어하는 바로 다시 진도로 천도하였다는 차이. 제4조는 금번 첩장에서 (삼별초가) 몽골과 싸운다는 것, (고려 조정이) 몽골의 요구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전후 모순. 제5조에서 조난당한 표류민을 일본 송환. 11조에서 보내온 선물이 1268년 첩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항 등을 정리해 놓고 있다.

9) 『高麗史』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1274) 11월 己亥.

多)에 집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sup>10)</sup> 그러나 1276년 3월이 되면 막부의 기대와 달리 무사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이국정벌’은 현실성이 없는 명령이 되고 말았다. 그 대신 막부는 ‘이국정벌’에 참여하지 않는 무사들을 하카타에 모아 石壘(석축)을 쌓는 일에 동원하였다. 1276년 3월부터 북 규슈 전 지역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석루는 몽골의 1차 침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슈 전체 해안가에 병선의 해안 접안을 어렵게 만들고 말이 뛰어넘지 못하는 높이로 쌓은 해안 성곽이었다. 1276년 3월에 시작된 이 석루 공사가 다음 해 1월에 끝났지만, 부분적인 수리라든가 연장공사가 북 규슈 전 지역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1281년 1월 몽골의 세조(=쿠빌라이칸)로부터 2차 일본침공의 명령이 내려졌다.<sup>11)</sup> 대규모의 연합군은 동로군 4만과 강남군 10만으로 편성되었는데, 동로군이 5월 3일 합포를 출발하였고, 강남군은 6월 18일이 되어서야 경원(慶元)과 정해(定海)을 출발, 7월 27일 동로군과 강남군이 규슈 북쪽의 다카시마(鷹島)를 점령한 다음 해안 침공작전을 속의하였다. 그러나 윤7월1일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삼시간에 14만 명 병사와 4천 4백 여척의 병선이 대부분이 폭풍에 휘말려서 병사 대부분이 익사하였고, 포로로 된 2~3만 명마저도 모두 처형되어 돌아가지 못한 자가 10여만 명이였다.<sup>12)</sup> 한편 동로군과 강남군의 두 번째 침입마저도 막아낸 막부는 1281년 8월에 규슈의 무사들에게 두 번째로 ‘이국정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서 무산되고 말았다.

몽골의 일본 침공 의지는 1294년 세조가 죽음으로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러나 1281년 몽골의 2차 일본침입에서 몽골의 상륙을 저지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 막부는 또 언제 있을지 모르는 3차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서 규슈의 북쪽 연안뿐만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섬에서 석루의 부분적인 수리라든가 연장공사를 쉬지 않고 진행시켰다. 이로써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주도의 환해장성에 버금가는 긴 해안 성곽이 북규슈의 해안에도 만들어지기 되었다. 그리고 이 석루 공사는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1333)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석루 축조에 동원되었던 무사들은 재정적으로 곤경에 빠지면서 막부의 동원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후 막부 멸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IV. 맺음말

13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내륙에서 시작된 몽골의 팽창 과정에서 진도의 용장성과 남도석성, 제주도의 환해장성, 규슈의 석루(石壘) 등 해양성의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제주도의 환해장성과 규슈의 석루는 해안가 평지에 길게 쌓은 방어용 성곽으로 몽골의 팽창 전

10) 『中世法制史料集』 1권「追加法」473條, 『東寺百合文書』建治 원년(1275) 12월 8일(『鎌倉遺文』<12170>).

11) 『高麗史』권29 세가29 충렬왕 7년(1281) 정월 戊戌朔.

12) 『高麗史』권29 세가29 충렬왕 7년(1281) 윤8월 庚申.

쟁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해안 성곽들이다. 제주도의 환해장성은 삼별초가 진도에서 제주도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려 개경정부에서 쌓았지만, 삼별초가 제주도를 장악한 다음에는 여몽연합군을 방어하는데 이용했을 것이고, 이후 왜구의 침입과 19세기 서양 세력의 출몰을 대비해서 증개축이 계속되었던 대표적인 해안 성곽이다. 역시 규슈 북쪽 해안의 석루는 몽골의 1차 침공이 끝난 직후에 쌓기 시작하여 몽골의 2차 침공이 끝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개축된 해안 방어용 해안 성곽이다. 따라서 제주도와 규슈 두 섬의 해안성곽은 몽골의 고려와 일본의 침입이라는 해양성과 대륙성의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양성을 대표하는 역사적 흔적들이다.

# 동해안 주상절리 분포 실태와 활용방안

—경북 및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최재영 ■ 경주대학교 교수

## I. 서론

주상절리란 마그마가 화구로부터 흘러나와 급격히 식을 때는 부피가 수축하여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게 되면 굽은 틈이 나타나고 단면의 모양이 4~6각형의 긴 기둥 모양을 이루는 절리를 말한다. 주로 화산지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산암인 현무암에서 주상절리가 많이 나타난다. 신생대 제3기 마이오세(약 2,600만~700만년 전) 때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의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sup>1)</sup>

이들의 주상절리는 대부분 질서정연한 수직의 기둥 모양이지만 동해안 이곳의 주상절리는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거나 수평 방향으로 발달해 있으며, 부채꼴(방사형)로 퍼져나간 것도 있다. 이렇게 형태가 다양한 것은 마그마가 지표면 위로 분출하지 못하고 지각 얇은 곳으로 스며들어간 상태에서 냉각과정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특히 경북 동해안 일원 및 울산 북구 해안을 따라 주상절리군(群)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수평·수직·경사·방사 형태 등 모든 방향의 주상절리가 대규모로 모여 있고, 흔히 볼 수 없는 부채꼴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

또한 한반도 동남부 지역의 신생대 화산활동과 동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부채꼴 모양의 수평형태

1) [네이버 지식백과]주상절리 [columnar joint, 柱狀節理] (두산백과)

의 주상절리는 2012년 9월 25일 천연기념물 제536호로 지정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소유 및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상절리군(群)들은 지질공원 조성과 지질자원에 대한 현장 생태교육의 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지오투어리즘(Geo-tourism)’ 등의 관광상품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동해안 경상북도의 경주·포항 및 울산광역시의 북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주상절리군(群)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Ⅱ. 주상절리란 무엇인가<sup>2)3)</sup>

### 1. 주상절리

주상절리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에 흘러내리면서 식게되는데 이때 식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생겨 형성된 것이다. 용암은 표면부터 식을 때 균열이 육각형 모양으로 형성되고 점점 깊은 곳도 식어가면서 균열은 큰 기둥을 만들어낸다. 용암이 식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 주상절리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된다.

화산암(火山岩) 암맥이나 용암(熔岩), 용결응회암(熔結凝灰岩) 등에서 생긴다. 절리(joint)는 암석의 틈새기나 파단면(破斷面)으로서, 암석의 틈새기나 파단면을 따라가면서 일그러짐(변위)이 없거나 또는 거의 일그러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면(面)에 평행한 일그러짐이 있는 것을 단층(斷層)이라고 한다. 화강암이나 두꺼운 괴상사암(塊狀砂岩) 등과 같은 균질의 암석의 경우에는 일그러짐을 인정할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절리와 구별하기가 어렵다.

절리에는 쪼개지는 방향에 따라서 판상(板狀)절리와 주상절리가 있는데, 주상절리는 단면의 모양이 육각형, 오각형 등 다각형의 장주상(長柱狀: 긴 기둥 모양)을 이루는 절리를 말한다. 화산암 암맥이나 용암, 용결응회암에서 보인다. 우리나라 제주도 해안에는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유명한 정방폭포와 천지연폭포가 이런 지형에 형성된 폭포이다.

2) 위의 자료.

3)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자료, 2015.

## 2. 생성원리

현무암질 용암류와 같은 분출암이나 관입암에 발달하는 기둥모양으로 평행한 절리, 그 횡단면은 다각형을 보여준다. 마그마나 용암이 냉각되는 도중 수축되어 생긴 것이다. 쉽게 말하면 화성암이 냉각되면 뜨거운 유리병을 찬 물속에 넣을 때 수축되고 깨어지는 것처럼 수축되어 조각으로 부서질 수 있다. 부서진 유리조각과 달리 화성암에서의 냉각열극은 규칙적인 형태로 갈라진다.

주상절리는 보통 바람과 비가 풍화시켜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용암이 식으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용암이 식을 때는 수축하여 절리가 발생하는 데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경우 냉각면에서 수직방향으로 갈라져 생긴다.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류가 식을 때는 절리가 규칙적으로 발달하기 쉽다. 냉각시 용암 표면이 수축 중심점들이 생기며 이런 점들을 잇는 선의 중앙에서는 양쪽으로 직각방향의 틈이 벌어진다. 수축 중심점이 고르게 분포하면 여러 방향의 틈들은 서로 만나서 육각형의 패턴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들 틈, 즉 절리는 이상적인 경우에 용암을 수직적인 6각형의 기둥으로 무수히 분리하게 된다. 이러한 절리를 주상절리라 한다. 주상절리는 단면의 모양이 육각형이나 삼각형의 장주상(長柱狀: 긴 기둥모양)을 이루는 절리를 말한다. 화산암 암맥이나 용암, 용결 응회암에서 보인다. 제주도 해안에는 기둥모양의 주상절리가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유명한 정방폭포와 천지연 폭포가 이런 지형에 형성된 폭포이다.

우리나라에서 주상절리가 금강산 총석정, 울릉도, 제주도, 한탄강, 포항 달전리에서 발견되었고, 경주 양남해안 및 울산 강동지역에도 분포하고 있다

## Ⅲ. 동해안 지역의 주상절리 실태<sup>4)5)</sup>

### 1. 경주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일대의 양남 주상절리군은 읍천항과 하서항 사이에 위치하며 구간은 약 1 km이다. 이 곳에 발달하는 주상절리들은 형태와 발달규모에 있어서 희소성과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9월 25일 천연기념물 제 536호로 지정되었다.

주상절리란 다각형의 기둥 형태를 가지는 암석의 절리를 지칭한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4) 경상북도·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신청서, 2015.

5) 연합뉴스, 2016년 2월 3일.



분출되면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지표면이나 공기와 접촉해 급격하게 식기 때문에 수축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절리의 모양은 이론적으로 평면을 채우기에 가장 안정적인 육각형 형태를 이루어야하나 여러 환경 조건에 따라서 육각형 외의 형태들도 분포한다.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해안가에는 수직으로 뻗은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의 주상절리들이 존재한다. 특히 옆으로 누워있으면서 방사형으로 퍼진 형태의 주상절리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이므로 지질학적 가치 외에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신생대말 분출한 뜨거운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만들어지는 다각형 기둥인 주상절리는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발달한다. 하지만 이곳 양남 주상절리는 기울어지거나 수평으로 누워 있거나 부채꼴 등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 찾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부채꼴 주상절리로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sup>6)</sup>



[그림 1] 경주 양남 주상절리



[그림 2] 포항 달전 주상절리

## 2. 포항

포항 연일읍 남구 달전리의 주상절리는 채석장으로 사용되는 도중 발견되었으며 현재 천연기념물 제415호(32.651m<sup>2</sup> 지정구역)로 지정되어 있다. 이 주상절리는 높이가 약 20m이며 연장 길이 약 100m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써 관광지의 주요 지질명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형태만으로도 희소가치를 지닌다.

달전리 주상절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제 3기에 분출한 알칼리 현무암이다. 제 3기 알칼리 현무암은 달전리 주상절리 일대를 제외하고는 포항 지역에서 관찰되지 않으므로 독특하다. 달전리 주상절리는 형태 자체만으로도 지질학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sup>7)</sup>

6) 경북일보, 2014년 03월 18일.

7) 경상북도·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신청서, 2015.

### 3. 영덕

경북 영덕군 사진리 일대에는 약 20억년의 연대차이를 보이는 부정합 노두가 있다. 층상 하부에 해당하는 층은 녹색편암 층으로, 선캄브리아기 원생대의 연대를 가지고 있으며 상부의 층은 오천동층 기저역암(울런산역암층)으로, 중생대 백악기의 연대이다. 국내에서 이 정도로 긴 연대차이를 보이며 명확하게 인지되는 부정합 노두는 매우 드물다.

지층 사이에 두께를 가지지 않은 면으로 존재하면서 장시간에 걸친 큰 지각변동을 알려 주는 것을 부정합이라고 한다. 부정합은 긴 시간적인 간격을 나타내는 구조로서 상위층과 하위층간에 불연속적 관계를 지시한다. 이로 인하여 지질학적인 시간 동안 퇴적작용과 같은 지질작용이 없었음을 지시한다. 부정합은 어떤지역이 침식을 당한 후에 해침을 받아 새로운 지층으로 덮이는 경우에 형성 될 수 있으며, 그 경계가 부정합면의 한 예이다.

부정합 노두는 해안도로를 따라 가는 길에 존재하며, 도로에서 동쪽 해안노두 쪽으로 내려가면 관찰 할 수 있다. 부정합이라는 지질학적 자연유산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다.

부정합의 연대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난 편이며, 이러한 면에서 약 20억년 부정합은 뛰어난 자연유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sup>8)</sup>

### 4. 울진

울진 일대는 약 25 억년 전에 형성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인 영남육괴의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의 절리들을 따라 형성된 덕구계곡, 불영계곡이 있으며 이들 계곡에서는 폭포와 돌개구멍과 같은 다양한 침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러 모양의 기암괴석들을 볼 수 있다.

왕피천에서는 물에 의한 침식과 풍화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모양의 토르와 수 많은 절리가 산지를 따라 분포하고 있어 지질학적, 지형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왕피천은 원시 그대로의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보전 가치를 지니고 있고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므로 생태학적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성류굴의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석회동굴과는 달리 수중통로에 동굴생성물이 있어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굴 내 동굴생성물의 고지진에 의한 파괴 특성들, 최근 진화학적 가치가 높은 동굴 내 패충류의 발견은 성류굴의 지질, 자연유산적 가치를 높여준다.<sup>9)</sup>

8) 영덕군,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자료, 2016.02.24.

9) 경상북도·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신청서, 2015.

## 5. 울산<sup>10)</sup>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길에 위치하며 2003년 4월 24일에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되었다. 울산 화암 주상절리는 단면이 육각형 내지 삼각형으로 된 긴 기둥 모양의 바위가 겹쳐져 있는 특이 지질의 하나이다. 이 곳 화암마을 해변 일대에 있는 주상절리는 신생대 제 3기(약 2,000만 년 전)에 분출한 현무암 용암(Lava)이 냉각하면서 열수축 작용으로 생성된 냉각절리이다.

그 생김새는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세워진 다량의 목재더미 모양을 하고 있는데, 길이는 7~수십m에 이르며, 하나의 주상체 횡단면 긴쪽 대각선의 길이는 50cm정도이다. 이 주상절리는 동해안 주상절리 가운데 용암 주상절리로는 가장 오래되어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다양한 각도로 형성되어 있어 경관적 가치도 크다.

주상체 횡단면이 꽃무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의 이름인 ‘화암(花岩)’은 여기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3] 영덕 부정합 전경



[그림 4] 울진 왕피천



[그림5] 울산 화암주상절리

## IV. 주상절리 활용방안

### 1. 지질교육의 장소

동해안의 경북 및 울산에 걸쳐 나타나는 특이한 지질 대상지역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안 지역과 일부 산지들이 포함된다. 대상지역은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및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변 지역이다. 북부에 속하는 울진군 일대와 영덕군 일부에서는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인 영남육괴에 속하는 소백산육괴의 지질이 우세하다. 영덕군 일부가 포함된 중부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퇴적 분지 내 퇴적암류와 이를 관입한 화강암류, 또는 화산암이 분포한다. 남부인 포항, 경주일대에서는 백악기말 불국사화강암, 신생대 제 3기에 형성된 퇴적암류 및 화강암, 화산암을 포함하는 화성암류가 분포한다. 동해안의 지질

10) 울산 문화관광 <http://tour.ulsan.go.kr/index.ulsan>

은 이러한 다양한 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해안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하여 지질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질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지질공원 조성

경상북도 동해안의 지질은 울진에서부터 경주까지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를 시작으로 중생대의 퇴적암, 관입암체, 신생대 제 3기의 화성암 및 퇴적암류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된 다양한 암종이 분포해 뛰어난 지질다양성을 가지며 울진에서 경주로 내려오면서 지질 연대가 젊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울진군 일대와 영덕군 일부에서는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가 영덕에서는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퇴적분지 내의 퇴적암류와 이를 관입한 화강암류가 주를 이루고, 포항과 경주일대에서는 백악기말 불국사화강암, 신생대 제3기에 형성된 퇴적암류 및 화강암, 화산암을 포함하는 화성암류가 분포한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지질명소는 총 20개소(덕구계곡, 불영계곡, 성류굴, 왕피천, 철암산 화석산지, 고래불해안, 원생대 변성암, 24억년 부정합, 죽도산 육계도, 경정리 백악기 퇴적암, 영덕 해맞이 공원, 내연산 12폭포, 두호동 화석산지, 호미곶 해안단구, 구룡소, 달전리 주상절리, 골굴암, 남산, 문무대왕릉, 양남 주상절리)로 계곡이 4곳, 석회 동굴이 1곳, 화석산지 2곳, 주상절리 2곳, 문화유적지 3곳, 해안 8곳으로 이뤄져 있다.

경상북도와 동해안 4개시·군(울진, 영덕, 포항, 경주)은 동해안이 보유한 뛰어난 자연, 생태, 역사,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3. 관광자원화

동해안의 경북 및 울산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특이한 지질은 각각의 지역에서 분리되어 관리하던 지질요소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동해안지질공원으로 지정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거쳐 이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자연유산을 보유하였다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자부심 고취 및 지역의 국내외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다.

향후 관광자원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동해안 지역으로 유입 증가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고용 확대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 V. 결론

주상절리와 함께 특이한 지질을 대상으로 2015년 현재 6개의 국가지질공원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지질공원을 추진 중에 있다.

경상북도와 동해안 4개시·군(울진, 영덕, 포항, 경주)은 동해안이 보유한 뛰어난 자연, 생태, 역사,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4개시·군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타당성 및 기초학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관광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3년간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해안지질공원을 조성하여 향후 성공적인 지질공원 운영으로 효율적인 자연유산의 보전과 지역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경북 동해안은 내륙에 발달하고 있는 낙동정맥으로 인해 과거부터 동서방향의 교통은 거의 단절된 반면, 남북방향으로 교통이 발달해 과거부터 유사 생활권을 형성해 왔으며, 각각의 지역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울진은 왕피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영덕은 블루로드로 대표되는 해안경관, 포항은 근대 문화와 신생대 화석, 경주는 역사·문화유산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편중이 크고 개성이 강해 서로간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해안지질공원은 각각의 지역에서 분리되어 관리하던 지질요소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고 한다.

최종적으로 동해안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거쳐 이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뛰어난 자연유산을 보유하였다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자부심 고취 및 지역의 국내외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의 동해안 지역으로 유입 증가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질 유산에 대한 관리 및 보존 계획을 향상시켜 지역 전체의 전반적인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하여 동해안의 경북 및 울산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특이한 지질은 학생들에게는 자연생태 및 과학의 산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질공원조성으로 뛰어난 자연유산을 보유하게 되며,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관광자원화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코스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1. 최정찬 외 옮김, 지구환경과학, 시그마프레스, 2012.
2. 경상북도·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신청서, 2015.
3.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자료, 2015.
4. 영덕군, 영덕군 국가지질공원 자료, 2016.02.24.
5. 경북일보, 2014년 03월 18일.
6. 연합뉴스, 2016년 2월 3일.
7. 울산 문화관광 <http://tour.ulsan.go.kr/index.ulsan>
8. [네이버 지식백과]주상절리 [columnar joint, 柱狀節理] (두산백과)

# 문명 간 교류유형 비교연구

— ‘Mediterrasian’ 을 중심으로 —

김 정 하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 I. 연구 패러다임의 발상 전환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지중해가 보인다”. 본 발표가 지향하는 지중해는 과거 19세기 유럽이 유럽과 북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한다는 서구중심주의적인 개념에 근거하지 않는다. ‘새로운 지중해’는 더 이상 ‘고대 그리스의 지중해’, ‘유럽의 지중해문명’과 같은 지리적 관점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역사-문화적 관점’에서의 ‘유라시아 바다’를 전제한다.

유라시아의 지중해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연구방법론과 더불어 이에 근거한 새로운 관점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서구중심주의는 직선적 역사인식으로 정의되며 역사적으로는 기원 후 5세기 성 아우구스티누스(『신국론』)에 근거한 역사철학에 근거한다. 예수의 탄생에서 십자가 처형까지... 그리고 부활 이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실’ 그 날을 역사의 완성이자 현세의 종말로 간주한다. 따라서 역사는 시작과 끝이 엄연히 존재하는 직선적인 흐름을 통해 시공간에 남겨진 삶의 흔적이며 이 과정은 중세 논리학과 신학에 근거해 서론-본론-결론 또는 기-승-전-결의 직선적인 논리에 따른다.

본 발표에서는 음양오행의 역사학적 해석에 근거한 발전(진보)적 순환론의 역사해석(론)을 기반으로 ‘관계균형론’을 제시한다. 관계균형론은 “역사는 지속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그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적 명제에 따른다. 또한 역사는 그 구성이 불균형의 연속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관계균형론은 서구중심주의 또는 이를 비판하는 ‘오리엔탈리즘’ 또는 ‘리오리엔탈리즘’의 역사해석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치우친 시각과 그 해석의 내용들을 보완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 II. 관계균형론의 분석기준

관계균형론에 근거할 때 지중해 문명 간 교류연구의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자급자족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한 판단이 문명의 정체성이 적어도 고대와 중세의 경우, 토지에 근거하는지 또는 유통(流通)과 분배(分配)에 의존하는지를 판단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명의 본질은 관계를 통해 성립, 발전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가 모색된다. 문명 간 관계성은 이러한 여정의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때 정의될 수 있다. 문명의 지향성은 내-외적인 관계에 있어 어떤 접변의 성향을 드러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유럽의 지중해와 동북아의 지중해는 지향성 차원에서 볼 때 유사성과 차별성이 교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 문명 간 교류의 유형에 있어 복수의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중해 문명의 개폐성(開閉性) 고찰. 유라시아 서단의 지중해는 역사적으로 고대의 독자적인 성격의 내해(In-land Sea)에서 중세의 열린 바다(Opened Sea)로, 그리고 르네상스를 지나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는 다시 폐쇄성의 내해(In-land Sea)로 전환되었다. 문명권의 개폐성 성부를 판단하는 요인으로는 해상무역모델이 있는데, 이는 교역과 접변의 패턴이 내부지향적이었는지, 외부지향적이었는지, 아니면 내외적인 관계의 균형이 존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넷째, 관계 중재의 요인. 교역과 접변의 바다에는 항상 복수 또는 다자간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들이 있기 마련이다. 유라시아 서단 지중해 경우, 프리드리히 2세가 기독교-유대교-이슬람의 다자간 융합문명에 근거해 보편적 세속권력을 실현하려고 했던 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동북아 지중해 문명 간 교류연구에 적용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것이 이후의 공동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 III. 시대별 교류 유형

#### 1. 고대 지중해

유라시아 서단의 지중해 경우, 고대의 지중해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바다였다. 이러한 사실은 바다와 그 주변의 소도시들(또는 촌락들) 중심의 연안 및 근거리 무역을 통해 필수품들의 분배와 유통이 지역文明 간 교류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 다시 말해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바다의 경우 무역활동은 주로 자원분배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문명지향성에 있어서는 외부의존적인 바다의 특징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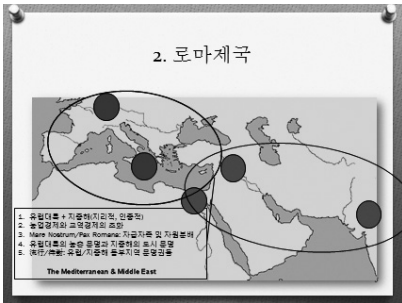


[그림1] 고대 지중해의 교류 유형

#### 2. Mare Nostrum

로마제국 시대에 지중해는 유럽대륙의 농업경제와 지중해의 무역경제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Mare Nostrum이나 Pax Romana는 자급자족 경제와 자원분배의 이상적인 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농촌文明과 도시文明의 조화로도 평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마제국은 유럽대륙과 지중해를 하나로 통일한 데 이어 특히 지중해 동부 지역 너머에 위치한 대규모 문명권들과의 고역을 통해 선진 문물의 유입을 자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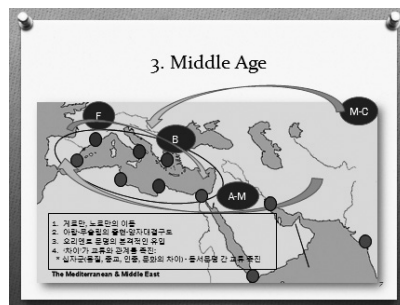
[그림2] 로마 시대의 지중해

### 3. 중세 지중해

중세 지중해는 인종과 종교 그리고 문화의 차원에서 게르만 문명, 노르만 문명, 이슬람 문명, 비잔틴 문명, 유대문명 등이 공존하는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복수문명권을 형성한다. 게다가 지중해는 이러한 지역문명들이 흘러들어 새로운 또는 접변된 문명의 꽃을 피운 바다이기도 하였다.

서구중심주의에 따르면 이 기간에 지중해는 아랍-무슬림과 유럽-기독교권의 양자대결 구도, 즉 차별화된 바다, 예를 들어 이슬람의 출현 이후 지중해를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리스를 종단하는 남북의 두 이질적인 문명권의 바다로 묘사하였다.

그럼에도 지중해는 이러한 차별의 바다가 아니라 차이, 즉 다양성 요인들이 공존하면서 교류와 관계의 순환을 촉진하던 바다였다. 같은 맥락에서 십자군 전쟁은 두 문명권의 대결 구도로 규정될 전쟁이기보다는 동서 문명 간 교류를 본격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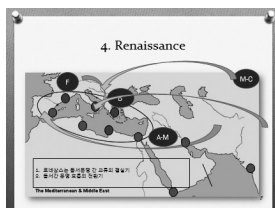
[그림3] 중세 지중해

### 4. 르네상스 기간의 지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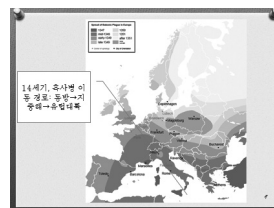
지중해 문명 간 교류의 관점에서 르네상스는 궁극적으로 동서 문명 간 교류의 결실기이며 동시에 동서 간 문명 흐름의 전환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슬람 문명의 지중해 출현은 이러한 문명 정체성 전환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지중해의 경우 중세는 5세기가 아니라 7세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5]에서 보듯이 중세와 르네상스 기간에 지중해 문명은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영향이 있었기에 유럽 근대사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림4] 르네상스 기간의 지중해



[그림5] 유럽-지중해 흑사병의 확산 경로

## IV. 중세 지중해 문명 간 교류권역

### 1. 이베리아 권역

- 다문화 문명의 공존적 교류형태( $A+B=C$ )
- 4-15세기



[그림6] 이베리아 권역

### 2. 이탈리아 반도권역

- 비(非)공존적 교류 형태
- 외부문화의 유입에 의존
- 이탈리아반도의 해상공화국들은 외부의 선진문명 유입에 역할을 하면서 유럽대륙과 동방을 중재



[그림7] 이탈리아 반도권역

### 3. 시칠리아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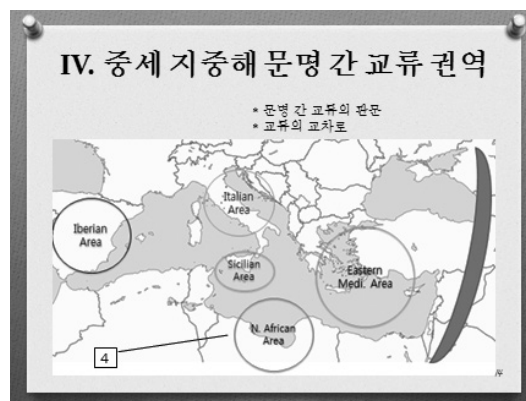
- 대칭적 공존의 교류: 문명의 내적인 요인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양분되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한 채 대칭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문명권
- 지중해의 지정학 요충지로 인해 지속적인 외세의 침입과 지배, 수탈에 시달린 채 자체적인 독자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림8] 시칠리아권역

### 4. 북아프리카권역

- 문명 간 교류의 관문
- 동서 문명 교류의 교차로



[그림9] 북아프리카권역

## 5. 동지중해권역

- 다자 간 교류의 유형
- 교류의 교차로
- 동지중해는 지중해와 유럽대륙의 거의 모든 세력이 관심을 집중하던 지역
-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의 성지순례와 이슬람의 성지순례가 예루살렘에서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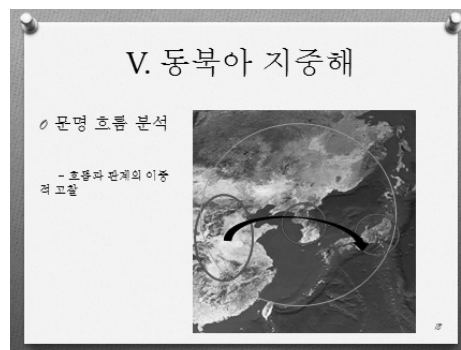


[그림10] 동지중해권역

## V. 동북아 지중해. 문명 간 교류

### 1. 문명권 형성 배경

- 대규모 문명권의 지중해
- 중국문명권 중심의 지중해
- 사실상 한·중·일의 독자적인 문명권의 바다
- 외부문명권의 영향보다는 내부요인들 간의 관계 중심



[그림11] 동북아 지중해

## 2. 문명 흐름 분석

흐름과 관계의 이중적 고찰

관계유형의 시대별 정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VI. 유라시아 지중해 관계 유형 연구를 위한 향후과제

1. 동북아 지중해의 경우 문명 간 교류, 교류모델 정의가 가능한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장보고 해상무역활동, 아랍상인들이나 이탈리아 상인들의 역할은 교류의 중재로 평가할 수 있을까?
3. 동북아 지중해에서 교류와 흐름의 교류관계를 중재하는 요인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림12] 유라시아의 두 지중해

## 환황해권 교류 탐색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해양이라는 또 다른 생활방식에 대한 철학적 검토—

임 용 덕 ■ 제주대 석사과정

### I. 남색의 문화, 해양 문화

우리가 흔히 해양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육지문화와는 사뭇 다르다. 바다 한가운데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과 육지 한가운데의 내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같을 수가 없다. 그들이 마주보고 대하는 자연과 풍토도 다르고,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 대한 인간의 감정과 태도도 다르다. 또 전쟁을 치르는 방식도 다르고, 더욱이 획득한 물건을 나누는 방식도 전혀 다르다. 생산하는 방식과 분배하는 방식이 다르니 통치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육지인의 시각을 근거로 해양문화를 보고 해석하거나, 해양민들을 대하면 적지 않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즉 해양문화와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육지와 농토에 터를 잡고 정주적 성격(stability)을 가진 농경민의 인식과 생활방식으로 해석하면 무리가 뒤따른다. 해양민 혹은 해양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구어낸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몇 가지 전제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

해양문화의 내부구조로부터 보면 섭해성(涉海性)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늘 해양문화를 일컬어 ‘남색문화(Blueness)’라 하는데, 이 ‘남색’이라는 ‘색채’의 속성이 바로 해양문화의 속성이다. 인류가 해양에 의거해 창조한 문화, 즉 섭해성은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특징이다. 여기서 말하는 섭해성이란 해양의 자연적 속성에 대한 인류의 의식과 파악을 포함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류가 해양으로부터 생성시킨 문명의 속성도 포함한다. 해양의 자연적 속성에 대한 인류의 인식과 파악은 인류 해양문명 속성의 기초이자 전제로, 이를 떠나 해양문화는 탄생할 수 없을뿐더러 해양 문화가 될 수도 없다. 해양문명이란 인류와 해양의 인류

와 해양의 상호관계 중 해양에 대한 인류의 인식, 반응, 이용 및 그 결과이다. 이러한 인식, 반응, 이용 및 결과를 떠나면 해양은 단지 해양일 뿐이다. 해양의 자연 속성만 논한다면 마찬가지로 소위 해양 문화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양 문명이라는 것도 탄생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 해양의 자연속성은 우리가 해양문화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해야 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해양의 자연속성 역시도 인류의 감지와 인식과 탐색에 의해 파악된다. 따라서 해양에 대한 인류의 감지와 인식과 탐색 과정 및 그 성과 역시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가 해양 문화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해야 할 내용이다.

## Ⅱ. 운동 메커니즘으로 본 남색의 문화

해양문화의 운동 메커니즘 측면에서 볼 때 대외 복사성(輻射性)과 교류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곧 이질(異質) 문화 간 해양을 뛰어넘는 연동성(聯動性)과 호동성(互動性)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해양문화의 본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해양문화의 자연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또한 해양에 대한 인류의 인식과 이용으로 말미암아, 해양문화란 총체적으로 한 지역에 국한된 한 지역의 문화일 수 없다. 인류는 사통팔달로 열려 있는 해양을 통해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한 지역의 문화를 세계 방방곡곡에 전파했고, 또한 사통팔달 열려 있는 그곳의 문화는 다시 세계 각 지역으로 계승 전파되어 나갔다. 이러한 확대 재전파의 과정은 이역의 토종문화에 각기 다른 영향을 끼쳐 많은 적든 이역의 이질적 문화의 요소를 수용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연동성이다. 동시에 사통팔달의 이역에서 토종문화가 해양문화와 연동하여 ‘잡종(Hybrid)’이 탄생한다. 이 ‘잡종문화’도 전파되어와 이곳이 ‘토종’(혹은 이미 원래 의미의 ‘토종’과는 달라진)에 영향을 끼친다. 이처럼 ‘잡종’ 또는 새로운 ‘잡종’의 탄생을 일컬어 호동성이라 한다.

이러한 연동과 호동의 과정이 바로 이역의 이질적인 문화가 상호보완하고 교류하는 과정이자 해양문화가 변화·발전할 수 있었던 역사적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한줄기 긴 강과 같은 인류역사의 대부분 단계에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대다수 인류에게 있어서, 인류생명의 발원지가 다름 아닌 해양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전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아 거시적 차원에서 인류가 의존해야 할 생존 환경은 주로 해양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해양에 기대어 거주해온 인류는 생활도 대부분 해양에 의존해왔으며, 이동도 대부분 해양에 의거해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든 혹은 총체적으로든 인류문화의 대외 전파와 교류, 특히 이역의 이질적인 문화 간의 대폭적 전파와 교류, 특히 이역의 이질적인 문화 간의 대폭적 전파와 교류는 대부분 해양에 의거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말해, 인류에게 해양이 있었기에 처음에는 작은 배를 고안했다가 나중에는 큰 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처음에는 연근해 지방으로부터 나중에는 점차 원양으로까지 이동해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이역의 이질적인 문화정



신, 물질, 언어행위와 사회제도 등을 포함하는 구조 모델 간의 전파와 교류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해양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해양관념이 더욱 강렬해지고, 해외에 관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해외의 이질적 문화의 흡인력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접’ 체험을 통해 지역간의 교류와 이동의 희망에 대한 실천을 수행하는 것 역시 갈수록 핫이슈가 되어간다. 인류 해양문명의 초기, 중기, 근대와 현·당대를 비교해본다면 모든 상황은 명백해진다.

해양문화의 역사적 형태로부터 개방성과 모험성을 그 특징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위에서 서술한 특징들과도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진정한 해양국가와 민족이라면 문호를 걸어 잠그는 쇄국정책 따위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해양의 시대를 맞이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기필코 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양은 6대주의 육지와 크고 작은 섬들과 연결되어 있고, 인류의 대다수 민족, 국가, 지역은 해양에 면해 있다. 해양은 인류를 향해 남김없이 개방되어 있다. 한 뼘의 해수면조차도 도로와 같고, 한 방울의 바닷물조차도 마치 도로나 철도의 지반과도 같다. 육지의 도로나 철로는 인공으로 부설되었지만 해양의 ‘도로’와 ‘철로’는 자연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런 천연적 개방성이야말로 그 누구도 가로 막거나 끊어 없애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인류는 해양의 개방성을 이용해왔다. 따라서 ‘천연’의 개방성 문화 역사가 탄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발전은 ‘어느 때 어느 곳이 해양을 향해 개방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곳의 경제문화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음’을 결론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해양을 향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설령 전쟁이나 자연재해의 결정적 타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곳의 문명은 쉽사리 쇠퇴하고 낙후했을 것이며 심지어 멸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해양을 향한 개방은 필연적으로 외연확장을 가져오고 아울러 그러한 확장을 수단이자 목적으로 여긴다. 그 확장성은 경제활동 범위의 확장, 생활자료 원천의 확장, 상업무역 시장의 확장, 인문정신 영향력의 확장 및 인류 거주공간 환경의 확장 등을 포함한다.

### Ⅲ. 가치 취향으로 본 남색의 문화

해양문화의 가치 취향이라는 측면에서 해양문화의 상업성과 영리성을 들 수 있다. 해양 문명 사회는 유독 숭상(崇商)이라는 특징을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대륙문명에서 상업의 발전은 어찌하여 이처럼 부진했을까? 봉건사회의 지도층은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경시하거나 억압했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귀농천상(貴農賤商)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토지를 밭그릇으로 간주해 생활의 근거이자 생명의 뿌리로 여겼다. 여기에 바로 토지로 인해 생성된 문화와 해양으로 인해 생성된 문화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농민에게 토지만 있다면 ‘제가 벌어 제가 먹는’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상업이나 무역은

어디까지나 보완책일 뿐이다. 만약 작은 손재주를 가지고 가게를 낼 수 있거나,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에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사고팔 수 있거나, 크고 작은 구멍가게를 열어 잡동사니, 기름, 간장, 식초, 바느질거리라도 교환할 수 있으면 만사형통이다. 농민이 상업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긴 하나, 농민 전체를 놓고 볼 때 상업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상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는 하나 역시 부업의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인들은 영원히 ‘본업에 몰두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양문명에서는 전혀 다르다. 한마디로 해양문화 창조의 주체들에게는 원래부터 경작할 토지가 없었고 나중에는 포기해버렸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경작수단’이란 오직 ‘떠돌아다니는’ 배와 배에 실고 다니는 그물, 그리고 무역과 상업의 현장으로 활용되는 항구밖에 없다. 만약 무역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활자원은 물고기, 게, 새우 등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상업 즉, 이역 간 혹은 대륙 간 ‘박래품(舶來品, 배로 실어온 물건)’의 운송판매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박래품들이 대단한 환영을 받았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한 상황 자체가 선박운송을 통한 무역업 발전과 번영을 더욱 촉진시켰다. 따라서 해양문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업은 결코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었고, 무역은 수치스러운 천한 것이 아니라 광명정대한 것이었다.

해양민들은 자체의 세력들로 정치력을 행사하려는 호족성이나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려는 무정부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해양민들은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또 지역적으로도 한군데에 침착하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살기에 행동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여 중심거점으로 삼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활동하는 거점성을 갖고 있다.

고대는 해양활동을 하고 해양교류를 하는 데 필수적인 항해술과 조선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거기다가 해양환경은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해류·조류·계절풍 같은 자연조건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문화가 만들어지는 틀과 성격이 영향을 받는다. 무한히 넓어 보이는 바다에도 길이 있다. 물론 육지처럼 폭이 좁고 사람이 반드시 그 길에 맞춰서 다닐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길은 있다. 오히려 특별한 경우에는 더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하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갈수 없다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불사해야 할 정도이다.

이렇듯 통로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연에 철저히 의존해야 하는 선사시대나 고대에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기에, 그것도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특정한 지역, 즉 해양거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치세력은 교역의 중개자 역할은 물론 교역의 성격, 교역로, 교역품 등의 관리 통제기능을 한다. 때로는 국가 간의 정치교섭에마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란 해양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육지와 달리 중앙에서의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생활방식, 즉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 자연스럽게 경원시한다. 또한 문제가 생겨 중앙정부가 토벌하려고 할 때면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도망가거

나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된다.

또 이들을 육지로 몰아넣고 토벌하려고 배를 동원해도 물길을 알 수 없으므로 전혀 접근이 안 된다. 오히려 그들에게 공격당하면 쉽게 궤멸된다. 그러니 그들이 중앙정부에 쉽게 복속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그들은 대부분 물길, 즉 해로의 요충지를 무대로 활약하기 때문에 교통세라든가 또는 교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군사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호족이 되는 것이다. 해양세력들이 호족적 성격을 지니고, 무정부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해양문화의 메커니즘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 IV. 철학적 · 심미적 관점에서 본 남색의 문화

해양문화의 철학과 심미적 함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생명의 본연성과 아름다움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인류의 생명은 해양에서 오고, 해양이라는 자연천성의 광대한 장관, 변화무쌍함, 거대에너지, 자유분방함, 무궁한 신비감 등이 인류로 하여금 이 해양을 생명 본능의 대상물이자 힘과 지혜의 상징이자 담지체로 여기게끔 만들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 해양문화와 대륙문화를 비교해본다면 해양문화가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큰 인류생명의 본연성과 장엄성 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견결한 강자(强者) 정신, 파워를 숭상하는 품격, 자유를 숭상하는 천성, 강렬한 자각의식, 강렬한 경쟁적 모험의식과 도전의식, 비극의식, 걱정과 낭만, 장엄한 심리 등은 중용의 도리, 안분지족(安分知足), 금욕, 절도 및 노인의 경험 등을 중시하는 대륙문화와 확연히 구별이 된다.

대륙의 농경문화는 노인을 주인이자 권력자로 여긴다. 젊은이가 노인 앞에서 ‘분에 없는 복을 누리려는’ 생각을 드러내면 노인은 늙은이의 ‘오랜 경험’이라는 ‘경전’ 속에 이에 해당하는 선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일소에 부쳐버린다. 이 인자하고도 자상한 미소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소멸하고 만다. 결국 모험, 유동, 영리, 자유, 경쟁, 낭만, 정욕, 자극, 사유, 희생 등은 총체적으로 말해 해양문명인에게서 나타나는 생명본연의 철학과 심미 체현일 뿐, 대륙 농경문명 중에 이런 단어들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 V. 결어

해양문화를 고찰·연구함에 있어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경시할 경우에 해양의 역사 및 문화를 해석하는 데에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 해양문화라 해서 무엇이건 다 좋다 해서도 안 되고, 또 다 좋다고 할 수도 없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다. 우리는 해양문화의 총체적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 좋은 점을 발산하고 나쁜 점을 제거함으로써 미래의

해양文明 발전을 더욱 견인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곡금량, 김태만 외 2 인 역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산지니, 2008  
윤명철, 『한국 해양사』, 학연문화사, 2014



## 3분과

### 한일 간의 교역과 갈등

조선초기 대마도의 向化倭人 平道全	한문종	전북대학교
선조대 경인통신사의 상반된 보고와 그 대응	김 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선후기 왜관통제와 교간사건의 처리	장순순	전북대학교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전개와 구무(求貿)의 전개	이승민	동국대학교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공목(公木)	김영록	부산대학교
풍계 현정(楓溪賢正)의 『일본표해록』 항로 탐사	궁인창	생활문화아카데미
『해동제국기』의 「琉球國之圖」의 원본에 대하여	이근우	부경대학교
개항 전 일본의 조선연안 정보 입수와 해도 제작 및 활용	한철호	동국대학교
개항기 일본의 조선어업 침략과 부산주재 일본영사의 어민관리	최보영	동국대학교
총독부 관리가 증언한 조선의 수산업	김수희	영남대학교
방계현상과 바닷길	이소라	민족음악연구소
1920년대 지식인이 본 서남해	탁현진	목포대학교





# 조선초기 대마도의 向化倭人 平道全

한 문 종 ■ 전북대학교

## 1. 머리말

조선전기 한일관계에서 가장 특이한 존재 중의 하나가 向化倭人이다. 향화왜인은 일본에서 조선에 투항하였거나 귀화한 왜인을 지칭한다. 조선초기 향화왜인 중에서 平道全은 대마도주의 사신으로 조선에 도항하여 受職倭人이 된 자로 다른 향화왜인에 비해서 매우 이례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향화왜인 평도전에 대한 연구는 조선 초기 조선과 대마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대마도주의 관인이었던 그가 왜 조선에 향화하여 수직왜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평도전이 조선에 향화한 1407년부터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 1434년까지 27년 동안 그의 활동을 대일외교 사절의 참여와 왜구의 토벌, 조일간의 외교교섭과 분쟁의 조정, 조선과 대마도의 통로역할, 기타 문물의 도입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하려고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향화왜인 평도전의 활동이 조선 초기 한일관계 특히 조선과 대마도와의 외교관계 형성과 전개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평도전의 향화 배경과 생애

평도전이 조선에 향화하기 이전의 기록은 전혀 없어서 그의 출생과 가계, 신분, 성장 과정 등에 대해서 알 수 없다. 평도전이 기록상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407년 3월이다. 즉 1407년(태종 7)에 대마도수호 宗貞茂가 조선에 토산물을 바치고 피로인을 돌려보내면서, 대마도인이 무릉도에 옮겨 살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때 평도전은 종정무의 사인으로 조선에 도향하였다. 그 후 동년 7월에 평도전은 員外司宰少監에 제수되어 수직왜인이 되었다. 이로써 보면 평도전의 향화 시기는 종정무의 사인으로 조선에 도향한 1407년 3월부터 관직을 제수받아 수직왜인이 된 동년 7월 이전이라고 생각한다.

평도전이 왜 조선에 향화하여 수직왜인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는 평도전과 종정무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산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평도전은 조선에 향화하기 전에 대마도주 宗貞茂의 휘하의 代官이었으며, 종정무가 평도전을 조선에 보내 侍衛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평도전은 이 시기의 다른 향화왜인과는 달리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수직왜인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종정무가 자신의 관인을 조선에 향화시킨 이유는 九州의 筑前州에서 잃어버린 領地를 보충하고 대마도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대일외교의 현안인 왜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마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조정에서는 대마도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평도전에게 조선의 관직을 제수하여 왜구를 방어하고 대일 외교사절로 활용하려 하였다.

평도전의 생몰년에 대해서는 그의 출신지인 대마도에도 기록이 없어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는 그가 처음으로 조선에 도향한 1407년 3월부터 평안도 양덕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1434년까지 27년간의 기록이 남아있어 그의 생애와 활동을 간략하게 추적할 수 있을 뿐이다.

## 3. 평도전의 대일 교섭 활동

### 1) 대일 사행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토대로 평도전의 대일사행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평도전의 대일사행 일람표

년월	사행명	사행시 관직	목적지	사행 목적 및 성과	출전
1408. 11		호군	대마도	증정무가 陳慰, 말 2필 헌상, 피로인 송환	태종 8년 11월 경신
1409. 04	보병사	호군	대마도	보병	태종 9년 4월 계사
1411. 09		호군	대마도	미두 300석 하사, 화호와 왜구의 금지 요청	태종 11년 9월 기사

<표 1>을 통해서 보면, 평도전이 대일사절로써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태종대인 1408년에서 1411년까지였다. 그는 조선의 대일사절로 대마도에 가서 보병 및 화호, 마두의 사급, 왜구의 금지를 요청하는 등의 외교교섭을 행하였다. 또한 그는 개인적인 일로 두 차례 대마도에 가서 왜구의 동정을 탐지하여 조선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평도전이 조선에 향화한 직후부터 조선의 대일사절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평도전이 대일사절로 활동한 시기는 조선의 왜구대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 왜구의 침입이 크게 감소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왜구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마도 출신인 평도전을 대마도에 보내 왜구의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대마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조선과 일본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왜어에 능통한 조선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왜어에 능통한 평도전을 조선의 외교사절로 임명하여 대마도에 파견하였던 것이다.

## 2) 왜구 토벌에 참전

평도전이 왜구의 방어에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1410년 2월이며, 같은 해 5월에는 무리 10여인을 거느리고 왜구의 토벌에 참전하였다. 또한 대마도정벌 직전인 1419년 5월에 왜적선 50여척이 충청도 비인현 도두음곶에 침입하자 평도전은 충청도 조전병마사가 되어 향화왜인 16명을 거느리고 왜구 토벌에 참여하여 왜적 3급을 참살하고 18인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이처럼 평도전은 왜구의 방어와 토벌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는 등의 활약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평도전이 왜구의 토벌에 진력하지 않은 사실과 왜구 중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왜승을 죽이지 말도록 요청한 사실 그리고 왜구 토벌에서 윤덕홍의 공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와서 자기의 공이라고 자칭한 사실이 밝혀져 평도전과 그의 처자 14명은 평양에 머물도록 하고 나머지 수하들은 함길도 관가에 분치되었다.

### 3) 조선과 일본간의 외교교섭과 분쟁의 조정

조선에서는 평도전을 막부장군과의 외교교섭을 행하는 대일사행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며, 유구국에 사절을 파견할 때 사행로의 안전 여부를 자문받기도 하는 등 그를 일본과 유구와의 외교적인 교섭에 활용하려 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과의 외교교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동을 부린 왜인들을 책망하는 역할도 하였지만, 왜사의 애로사항을 조선측에 전달하여 해결해주는 역할도 하였다.

### 4) 조선과 대마도와의 매개 역할

평도전은 대마도의 요구 사항을 조선측에 전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1407년(태종 7) 대마도주 종정무는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진상하고 피로인을 송환하면서 대마도인의 무릉도 이주를 요청하였다. 이때 평도전은 대마도주의 사자로 도항하여 대마도주의 요청을 조선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1401년 대마도주가 평도전에게 글을 보내 대마도에 대한 조선의 대우가 예전 같지 않으므로 휴가를 청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전호균 이예를 대마도에 보내 도주에게 조미 150석과 콩 150석을 하사하였다. 1416년 7월에도 대마도주 종정무가 평도전에게 글을 보내 왜적선이 조선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쌀을 구청하자 종정무에게 미두 200석을 사급하였다.

이처럼 평도전은 대마도의 요구 사항을 조선 측에 전달하거나 요청함으로써 조선으로부터 미두를 사급 받도록 하는 등 대마도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였다. 또한 1418년에 그는 대마도주 종정무가 풍병이 들어 고생하자 조선에 보내 청심원, 소합원 등의 약재를 보내주도록 요청하였기도 하였다. 1415년 2월에 부사정 禹原之가 휴가를 얻어 대마도에 가서 늙은 어머니를 근친하고 장인의 장사를 지내고 싶어 하자, 평도전은 이러한 사실을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아 주는 등 수직왜인이나 향화왜인의 애로사항을 조선조정에 전달하여 해결해주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평도전의 명의 대마도정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 5) 문물의 전수

조선에서는 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향화왜인으로부터 왜선의 건조기술을 전수받으려고 하였다. 특히 태종은 1413년에 한강에서 평도전이 만든 왜선과 조선의 병선과의 빠르기를 시험해 보았다. 그 결과 평도전이 만든 왜선이 조선의 병선 보다 30~40보 빨랐으며,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몇 백보나 빨랐다고 한다. 이러한 조선의 노력은 후에 조선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맺음말

대마도주 종정무의 관인이었던 평도전이 조선에 향화한 시기는 종정무의 사인으로 도항한 1410년 3월부터 관직을 제수받아 수직왜인이 된 1407년 7월 이전이었다. 특히 평도전은 다른 향화왜인과는 달리 도주인 종정무에 의해서 향화왜인이 된 특이한 사례이다. 종정무가 자신의 관인을 조선에 향화시킨 이유는 九州의 筑前州에서 잃어버린 領地를 보충하고 대마도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대일외교의 현안인 왜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마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조정에서는 대마도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평도전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평도전이 조선에서 왜구의 토벌과 대일사절로써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1407년부터 1419년 대마도정벌 직전까지였다. 그는 조선의 대일사절로 대마도에 가서 보병 및 화호, 마두의 사급, 왜구의 금지를 요청하는 등의 외교교섭을 행하기도 하고 왜구의 동정을 탐지하여 조선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평도전은 조선에 향화하여 왜구의 토벌에 참여하고 대일 외교사절로 활동한 조선의 관인이자 대마도의 요구사항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평도전은 조선과 일본에 양속하면서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이현종, 『朝鮮前期 對日交渉史研究』, 한국연구원, 1964.  
 손승철,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1994.  
 민덕기, 『前近代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 早稻田大學出版部, 1994.  
 하우봉, 『조선전기의 對日關係』 『강좌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한문종, 『조선전기 향화·수직왜인 연구』, 국학자료원, 2001.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학자료원, 2002.  
 한문종, 『조선전기의 對馬島敬差官』 『전북사학』15, 전북사학회, 1992.  
 한문종, 『조선전기 對日 外交政策 研究 -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96.  
 한문종, 『임진왜란 시의 降倭將 金忠善과 『慕夏堂文集』』 『한일관계사연구』24, 2006.  
 한문종, 『조선전기의 한일관계와 대마』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장순순, 『조선시대 대마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한문종, 『조선시대 對日使行과 對馬島』 『한일관계사연구』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한문종, 『조선초기 향화왜인 皮尙宜의 대일 교섭 활동』 『한일관계사연구』51, 한일관계사학회, 2015.  
 荒木和憲, 『中世對馬宗氏と朝鮮』, 山川出版社, 2007.  
 中尾弘毅, 『朝鮮王朝の日本人官吏-平道全』 『中世の對馬』, 佐伯弘次 編, 勉誠出版, 2014.

## 선조대 경인통신사의 상반된 보고와 그 대응

김     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1. 머리말

조선전기의 대일관계에서 통신사의 이름으로 사신이 파견된 것은 세종 10년(1428), 세종 21년(1439), 세종 25년(1443), 그리고 선조 23(1590)의 네 차례였다. 회례사, 보빙사의 이름으로 파견된 것을 포함하고, 사행도중 조난당하거나 대마도에서 되돌아온 것을 제외하면, 조선전기에 모두 12차례 일본에 사신이 파견되었다. 경인통신사는 세종 25년 이후 거의 150년 만에 이루어진 사행이었다.

경인통신사는 선조 23년(1590) 3월에 한양을 출발하여 거의 1년간 사행을 한 뒤, 이듬해 3월에 다시 한양으로 귀환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불과 1~2년 전이었다. 세종 25년~선조 23년의 약 150년 동안 조선과 일본 사이에 발생한 왜란·왜변은 삼포왜란[중종 5년(1510)], 사랑진왜변[중종 39년(1544)], 그리고 을묘왜변[명종 10년(1555)] 등이었다. 양국 간에 사신왕래가 없던 시기에 왜란·왜변이 계속 발생하였다. 왜인들은 변란을 일으키고 이를 수습하는 단계에서 양국 간에 약조가 체결되었다. 삼포왜란과 임신약조[중종 12년(1512)], 사랑진왜변과 정미약조[명종 2년(1547)]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을묘왜변 이후에는 양국간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은 이 시기동안 왜구의 왜변에 부심하면서 대마도를 통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경인통신사의 파견은 조선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논란 끝

에 이루어진 사행의 목적은 일본에 대한 동향 파악과 문물교류였다.<sup>1)</sup> 그러나 조선이 주도권을 쥐고 이 사행을 활용하여 대일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오랜 동안의 국교단절로 인해 무엇보다 당시 일본의 실질적인 변화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경인통신사 사행이후 상반된 보고를 둘러싼 조선 조정의 대응 관련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조실록』 및 『선조수정실록』에 수록된 경인통신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의 요청에 의해 사행이 결정되는 과정과 풍신수길에 밝힌 ‘정명가도(征明假道)’의 내용을 명 조정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조정의 논의과정은 각각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정사와 부사의 상반된 보고에 대해 당시 조정이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는가 하는 관련 자료가 실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사와 부사의 풍신수길의 인물평을 중심으로 한 상반된 보고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주지하듯 이후 이 갈등은 개설서 및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임진왜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일차적인 원인으로 간주되거나 당파의 갈등 및 그 폐해를 강조하는 중요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경인통신사의 상반된 보고를 둘러싼 당시 조선의 대응, 조선의 조정은 이러한 상반된 보고를 받고서도 전혀 대비하지 않았는지 또는 대비했다면 어떻게 대비했는가, 당시 조정의 구체적인 대응방략 자료는 왜 누락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행 결정과정, 상반된 보고, 그리고 조정의 대응

경인통신사를 파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선조를 비롯한 조정은 주도면밀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조 21년(1588) 12월, 일본의 사신 평의지(平議智)와 현소가 와서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7개월 뒤, 우리 측의 요구 조건인 포로 및 반민 쇄환이 이루어지자 통신사의 사신 파견을 허락하였다.<sup>2)</sup>

그런데 『선조수정실록』의 기록과 달리, 『선조실록』에는 선조 22년(1589) 8월에서 11월 까지 사신파견을 비롯한 일본과의 교린대책을 주도면밀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8월 4일, 일본과의 교린대책을 논의하라는 전교가 내려짐

8월 11일, 예조는 이 전교에 의해 정2품 이상의 대신들에게 일본과의 통신(通信) 문제에 대해 수의(收議)하도록 하고 비밀리에 입계하도록 함

9월 9일, 대제학 유성룡을 인견하여 서계 작성과 통신사 파견 문제 논의

9월 21일, 좌의정 이산해(李山海), 우의정 정언신(鄭彦信), 그리고 종2품 이상의 대신을

1) 경인통신사에 관해서는 한일관계사학회 편, 『1590년 통신사행과 귀국보고 재조명』, 경인문화사, 2013 참고.

2) 『선조수정실록』 권22, 선조 21년 12월 1일(기묘); 『선조수정실록』 권23, 선조 22년 7월 1일(병오).

인견하여 각자의 소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이산보를 제외한 모두가 통신사 파견에 찬성함에 따라 이에 따름

11월 18일, 통신사로 상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서장관 허성을 정함<sup>3)</sup>

이와 같이 당시 선조 및 조정은 일본에 사신 파견하는 문제를 놓고 정2품(또는 종2품)이 상의 대신들로 하여금 가부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조정은 명종 10년(1555)의 을묘왜변이후로 일본과의 실질적인 사신왕래가 끊긴 상태였고, 선조 20년(1587) 2월에는 전라도 흥양(興陽)에 왜선 18척이 침략하여 노략질을 하고 우리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었다.<sup>4)</sup> 30년 이상 외교관계 및 사신왕래가 없다가 왜선의 노략질이 있는 뒤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런 일본의 사실파견 요청이었다. 그리고 당시 조정은 일본 국내정세의 변화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사행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통신사 파견을 결정했는데, 경인통신사는 선조 23년(1590) 3월에 한양을 출발하여 거의 1년간 사행을 한 뒤, 이듬해 3월에 다시 한양으로 귀환하였다. 그리고 주지하듯 경인통신사가 선조 24년(1591)에 돌아와 보고한 내용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정사 황윤길은 침략할 것이라고 한 반면, 부사 김성일은 이를 부인하였다.<sup>5)</sup> 그리고 당시 봉당정치의 전개과정에서 황윤길이 서인이고 김성일이 동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부분의 개설서에 이러한 상반된 보고가 당파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술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상반된 보고와는 별도로 당시 조정은 일본이 침략해 올 수 있다는 보고에 대해 당시 조정이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먼저 선조 24년(1591) 3월, 조정은 홍문관 전한 오억령(吳億齡)을 선위사로 삼아 부산으로 보내 현소(玄蘇) 등 통신사를 따라온 일본의 사신을 맞이하게 하였다. 부산에 가서 현소 등 일본사신을 만난 오억령은 내년에 길을 빌려 명을 침범할 것이라고 확인하는 현소의 말을 듣고 즉시 상계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정의 반응은 크게 놀라면서 오히려 오억령을 곧바로 체직시켰다.<sup>6)</sup> 이것이 실록에 수록된 첫 번째 사례이다.

두 번째는 선조 24년 윤3월, 선조는 비변사의 논의에 따라 황윤길과 김성일을 일본의 사신 평조신(平調信). 현소 등에게 보내 사적으로 술과 음식을 가지고 가 위로하면서 일본의 사정을 조용히 묻고 상황을 살피게 하였다. 이때에도 김성일은 현소로부터 중국이 오랫동안 일본의 조공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풍신수길(倭寇)이 이를 분통하게 여겨 병단(兵端)을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다.<sup>7)</sup> 비변사가 특별히 두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인데,

3)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 8월 4일(기묘), 8월 11일(병술), 9월 9일(계축), 9월 21일(을축), 11월 18일(임술).

4) 『선조수정실록』 권21, 선조 20년 2월 1일(경신);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2월 26일(을유).

5)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3월 1일(정유); 『장비록』 권1.

6)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3월 1일(정유).

7)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윤3월 1일(병인).

이러한 사실을 듣고 두 사람이 어떻게 조치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성일의 경우에 일본 사신들의 말이 패악하다고 해서 비변사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두 사례는 경인통신사가 돌아와 전란여부에 대한 상반된 보고가 있는 뒤에 발생한 일이었다. 오억령의 경우는 일본 사신을 통해 전해들은 병화의 가능성을 상계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에서는 곧바로 오억령을 체직하였다. 그리고 상반된 보고를 한 황윤길과 김성일을, ‘비변사의 논의에 따라’, 은밀히 일본의 사신들에게 보내 탐문했을 때도 일본 사신들이 말한 사유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비변사가 중심이 되어 일본의 병란 가능성을 탐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시 조정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엄밀히 단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비변사는 나름대로 일본의 병란에 대비하면서, 다만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여 중외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막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보고이후 당시 조정은 일본침략의 실질적인 가능성 여부를 탐문하였고, 실제로도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 3. 침략에 대비한 실제의 준비

당시 대신들 모두가 참여한 가부논의를 거쳐 사신 파견을 결정했고, 사행이후 경인통신사의 일본 침략 가능성에 대한 상반된 보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선조 및 조정은 아무런 방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대책으로 일관했는가 하는 점이다. 주도면밀하게 사행을 결정해 갔던 측면을 고려하면, 상반된 보고를 둘러싸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실제의 논의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선조 및 조정, 그리고 비변사를 중심으로 상반된 보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논의과정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선조 및 조정은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보고에 따라 당시 아무런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일본의 침략을 당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실록에 수록된 자료가 미미하지만 당시 비변사를 비롯한 조정은 일본 침략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비하고 있었다.

우선 국방과 무예에 뛰어난 인물들을 발탁하였다. 인물 등용에 있어 이 시기에 특히 두드러진 점은 선조 24년(1591) 2월 이순신의 전라좌수사 발탁이었다. 이때 이순신의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칭찬과 천거가 이어졌는데, 이순신은 정읍현감에서 진도군수로 이배되어 부임하기도 전에 가리포첨사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수사로 발탁되었던 것이다.<sup>8)</sup>

이순신은 이에 앞서 선조 21년(1589) 1월, 비변사에서 무인을 ‘불차가용(不次可用)’한

8)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2월 1(무진).



다고 했을 때, 좌의정 이산해(李山海)와 병조판서 정언신(鄭彦信)의 천거 명단에 들어 있었다.<sup>9)</sup> 또한 선조 22년(1589) 7월, 하삼도 병사 및 수사의 선발과 관련된 비변사의 밀계(密啓)에 대한 전교에서 선조는 이순신을 등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었다.<sup>10)</sup> 이로 인해 실제로 이순신이 정읍현감으로 발탁된 것은 선조 22년(1590) 12월이었고, 이어서 선조 23년 8월 만포첨사로 임명하였으나 대간이 갑작스러운 승진을 논핵하면서 개정되기도 하였다.<sup>11)</sup> 물론 전라좌수사의 임용에 대해서도 사간원의 체직 상계가 이어졌으나, 선조 24년(1591) 2월에 선조는 인재부족으로 상규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임용을 강행하였다.<sup>12)</sup> 이순신은 1년 2개월 만에 종6품 현감에서 종4품 군수, 종3품 첨절제사, 그리고 정3품 수사로 7등급의 품계를 뛰어넘어 승진했던 것이다. 이순신의 이와 같은 발탁 승진이 『선조실록』의 날짜로는 경인통신사의 귀국보고 이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인통신사의 귀국직후 유성룡의 천거에 의해 취해진 조치였다.<sup>13)</sup> 경기수사 변언수(邊彦秀) 임명도 마찬가지였다.<sup>14)</sup> 경인통신사의 귀국보고 이후에는 전라감사 겸 도순찰사로 이광(李洸),<sup>15)</sup> 경상감사로 김수(金睟), 충청감사로 윤국형(尹國馨)을 각각 임명하였다.<sup>16)</sup> 이들 모두는 국방에 밝은 인물이었다.

둘째는 성곽수축을 비롯하여 병비 순시, 화포 제조, 발사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호남, 영남의 읍성을 새로 임명된 감사들이 대대적으로 축성하였다. 특히 경상감사 김수는 영천(永川)·청도(淸道)·삼가(三嘉)·대구(大丘)·성주(星州)·부산(釜山)·동래(東萊)·진주(晉州)·안동(安東), 그리고 상주(尙州)의 좌우 병영(左右兵營)에 모두 성곽을 증축하고 참호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축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짐으로써 실제 전란이 일어날 경우 제대로 방비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게 이루어진 날림 공사였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sup>17)</sup> 이밖에 병조와 군기시 등에서는 화포 제조, 발사 훈련 등 유력한 무기를 갖추고 대비하고자 하였다.<sup>18)</sup>

그리고 신립(申砮)과 이일(李鎰)을 각도에 보내 병비를 순시하도록 하였다. 신립은 경기도와 황해도, 이일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각각 파견하였다.<sup>19)</sup>

9) 『선조실록』 권23, 선조 22년 1월 21(기사).

10) 『선조실록』 권 23, 선조 22년 7월 28일(계유).

11) 『선조수정실록』 권23, 선조 22년 12월 1일(갑술); 『선조수정실록』 권23, 선조 23년 8월 1일(경오).

12) 『선조실록』 권25, 선조 24년 2월 16일(계미), 18일(을유).

13) 『연려실기술』 권15,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대가서수’.

14) 『선조실록』 권25, 선조 24년 2월 16일(계미).

15)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3월 1일(정유).

16)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5월 1일(을축).

17)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7월 1일(갑자).

18) 『선조실록』 권25, 선조 24년 2월 6일(계유).

19) 『장비록』 권1.



## 4. 맺음말

이와 같이 경인통신사의 사행 결정부터 이후 임란 직전까지의 자료를 잘 살펴보면 조선은 주도면밀하게 사행을 결정했고, 또한 사행이후 일본 침략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명나라에 알리는 데에도 조정의 논의를 거쳐 통보하였다. 그리고 인물 발탁, 성곽 수축, 군비 순시 등 군사적 역량을 동원하여 실제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조정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료는, 사행 이전의 논의과정 및 사행이후 명나라 통보관련 논의와 달리, 누락되어 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논의 자료의 누락과 관련해 우선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시 조정은 일본의 침략가능성에 대해 무엇보다 민심의 동요를 의식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전한 오억령이 현소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보고하자, “조정의 의논이 크게 놀라 즉시 아뢰어 체직시키고”와 같이 반응하였는데,<sup>20)</sup> 이 자료의 맥락을 살펴보면 당시 조정에서 가장 주력한 것이 민심의 동요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사 김성일도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부인한 이유로 언급한 내용은 황윤길의 말로 인해 경향 각지가 놀랄 것이라는 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조정은 비변사를 중심으로 침략에 대비한 논의를 통해 여러 대책을 수립했고 나름대로 대비하였으나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당하는 피해를 당하였던 것이다.

또 하나는 당시 선조 및 조정은 임란 발발이후 김성일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일본의 침략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초래되었다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이를 테면 전란의 책임을 오직 김성일의 잘못된 보고 탓으로 돌리고 있다.<sup>21)</sup> 따라서 아무래도 전란의 책임회피와 관련해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한 논의과정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임진왜란사의 서두에 등장하는 경인통신사에 대해서는 당시 이들이 일본 정황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하는 보고여부에 마치 조선왕조의 모든 명운이 걸려있는 것처럼 인식해 왔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개설서는 임진왜란사의 서두에 정사와 부사간의 입장 차이를 거론하고, 그 입장 차이는 당파가 달라서이며, 이로 인해 일본의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탓으로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식으로 서술해 왔다.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반인들의 경인통신사와 관련된 통상적인 역사인식 및 이해수준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정상적인 국가의 조정이라고 하면 이럴 정도로 무대책일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병화 징후가 없다는 보고에만 근거하여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당시 조정은 실제로 일본 가능성에 대해 무방비로 일관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어떻게 대비하더라도 전국시대를 거쳐

20)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3월 1일(정유).

21)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4일(계묘); 『선조수정실록』 권35, 선조 34년 2월 1일(경오); 『선조실록』 권134, 선조 34년 2월 16일(을유).

통일을 달성하여 중세국가로서 최고도에 달한 일본 무치(武治)의 군비 수준 및 침략의지를 막아낼 수 없었다. 다만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비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논의자료가 누락된 것은 무엇보다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여 논의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임란이후 전란에 대한 책임회피와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조선후기 왜관 통제와 교간사건의 처리

—1859년 왜관 교간사건을 중심으로—

장 순 순 ■ 전북대학교

## 1. 머리말

본 연구는 1859년 6월 5일 밤 초량왜관 안에서 발생한 交奸事件의 처리과정을 통해서 조선시대 왜관정책의 일 단면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왜관에서 이뤄지는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 사이에 교간<sup>1)</sup> 사실이 발각되면 교간 당사자인 조선인 여성과 이를 주선한 조선인 남성은 사형이라는 극형을 당하였지만, 일본인 남성은 對馬藩으로 소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각은 왜관운영과 관련하여 조일간에 체결된 조약의 실행이 일본측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사실상 조선측의 왜관 통제 효과가 적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對馬藩으로 압송된 범죄 일본인이 일본 국내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없었던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왜관운영과 관련하여 조일간에 체결된 조약이 조일 양국에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 1859년 왜관에서 발생한 조일 양국인간의 교간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安政六年交奸記錄」를 중심으로 교간사건 발생 이후 양국의 범죄자 처리과정과 범죄 일본인이 對馬藩으로 압송된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교간사건 처리를 둘러싼 조일 양국의 입장과 시각에 대

1) 조선측 사료에는 왜관에서 이뤄진 왜관의 일본인과 조선 여성 사이의 성적관계를 潛奸, 交姦, 強奸, 奸通, 通奸, 犯奸, 潛通, 行奸, 交奸, 和奸, 奸淫 등 다양한 이름으로 나온다.

해서도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하나의 사례이기는 하나 조선의 왜관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도로, 조선이 왜관설치 초기부터 가졌던 ‘왜인 통제’라는 목적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음을 밝히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1859년 교간사건과 양국의 대응실태

### 1) 사건의 개요와 조선인 범죄자의 처리

본 사건은 1859년 6월 5일 밤 동래군 사하면 구초량리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조선인 여성 조금홍이 신초량리에 거주하던 金用玉과 이문주를 따라 초량왜관에 잠입하여 1858년(철종9, 安政5) 제1특송사 정관의 하인인 石田藤次郎 등 2명의 일본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 조선인 3인이 다음날인 6일 새벽에 왜관 담장을 넘어 빠져나오다가 東二伏兵將 金學術과 西一伏兵將 李佑善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조금홍은 당시 19세로, 14세에 동래에 위치한 경상좌수영의 노비로 入役하였다가 17세 때 免役된 후에 동래군 南村面 上端里에 살았고, 남편없이 賤昌으로 생활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곤궁한 상황에서 더구나 노모까지 부양해야하는 형편이었다. 그녀는 신초량촌에 살던 김용옥과 李文周와는 이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安政六年交奸記錄』과 『萊府狀錄』을 토대로 이들의 인적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행위	職役	나이	출생지	거주지	전거주지	父	母	祖	外祖	비고
金用玉/チンセハン(남)	주범	왜관 수문직 土兵	48	사하면 신초량리	좌동	좌동 (坂下)	金允貞 (正兵)	金召史 (良女)	金再雲 (正兵)	金一奉	
李文周/ヨグセギ(남)	종범	土兵	24	상동	좌동	좌동 (坂下)	李學允 (軍官)	金召史 (良女)	미상	미상	妹夫 金福哲 (設門直)
趙錦弘(여)	交奸	左水營 退婢	19	사하면 구초량리	남촌면 상단리	사하면 구초량리 (一ツ屋)	미상	李召史 (良女)	미상	미상	14세 좌수영노비 입역/ 17세 면역

왜관에서 금홍과 교간한 일본인 石田藤次郎은 1859년 당시 33세로 對馬藩 府中 大手橋町에 살던 사람으로, 1858년조 제1특송사 정관인 니이덴마의 하인이며, 당시 초량왜관 서

관에서 제1특송사의 요리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기이치로는 1859년 당시 27세 對馬藩 府中 昌元町에 살았으며, 도선주 아비루사마노스케의 하인으로 왜관에 건너와 서관에서 요리를 담당하였다. 이들에 관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왜관내 職役		나이	거주지
石田藤次郎/ 藤次郎	西館 食尺, 西館 萬松院送使 食尺	1858년 제1특송사 정관 仁位 豫馬의 하인	33	對馬藩 府中 大手橋町
喜一郎		1858년 제1특송사 도선주 阿 比留左馬介의 하인	27	對馬藩 府中 昌元町

『萊府狀錄』을 토대로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관 일본인 石田藤次郎은 초량왜관 수문지기 김용옥에게 수차례에 걸쳐 조선여인과 교간을 주선해주면 ‘一家産’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당시 생활이 궁핍했던 김용옥은 도지로에게 6월 5일 밤에 여인을 데리고 왜관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고, 당시 동래군 남촌면 상단리에 살던 조금홍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김용옥과 금홍은 평소에 안면도 있는데다 금홍이 賤娼으로 남편없이 노모를 모시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인하기 쉽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옥과 이문주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금홍은 6월 5일 밤에 그들을 따라 초량왜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세 사람은 그날 밤 초경(저녁 7~9시) 무렵에 초량객사의 北城을 지나 왜관 북쪽 담장 밖에 있는 연향대청 앞 길 쪽에 난 담장을 넘어 왜관에 잠입하였다. 금홍이 김용옥의 손에 이끌려 萬松院送使가 머무는 곳이라는 서관 삼대청의 한 빈방에 들어갔고, 뒤이어 일본인이 따라 방에 들어갔으며, 금홍은 일본인과 교간하고 새벽에 달이 올 무렵 함께 방에서 나왔다. 김용옥과 이문주는 금홍이 방에서 나올 때까지 대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용옥은 도지로에게서 동전 8兩을 받았으며, 김용옥이 3냥, 이문주가 2냥, 금홍이 3냥을 나눠가졌다.

이들 세 사람은 6월 6일 새벽에 왜관 담장을 넘다가 금홍과 이문주가 먼저 북병막의 장졸에게 붙잡혔고, 뒤에 있던 김용옥은 기미를 알아채고 도망갔다. 왜관 동이북병장 金學術과 서일북병장 李佑善은 곧바로 훈도 金繼運과 별차 李宗懋에게 체포사실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훈도와 별차는 手本을 작성하여 6일 午時(오전 11시~오후 1시)에 동래부에 보고하였다. 동래부사 김석은 곧바로 군사를 보내 이문주와 금홍을 붙잡아오게 하고, 금홍과 이문주를 취조하여 공초를 작성하고, 비변사에 올리는 狀啓를 작성하였다. 다음날인 7일에는 도망갔던 김용옥이 동래군 남촌면 상당리에서 체포되어 동래부로 송환되자 김용옥의 문초가 시작되었고, 금홍과 이문주에 대한 문초도 다시 이루어졌다.

이들의 죄상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금홍과 교간한 일본인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었다. 훈도와 별차는 관수에게 교간사건에 관한 동래부사의 傳令을 전하였다. 당시 부사는 ‘범간왜’에 대해 조선인의 처벌과 同律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수는 ‘범간왜’ 도지

로를 잡아가두고, 곧바로 대마번에 묶어 송환한 후 약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어 8일에 이뤄진 세 사람의 문초에서 김용옥이 주모자로 밝혀졌고, 이문주는 김용옥과 함께 금홍과 도지로 등과의 교간을 주선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동래부사는 ‘臚錄’을 검토하는 등 전례를 참고하여 6월 9일 비변사에 다시 장계를 올려, 1738년(영조14)과 1786년(정조10)에 교간 관련자 처벌의 예에 따라 범죄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조정에 상신하였다.

같은 달 20일에 비변사에서는 동래부사의 장계에 대해 주범 김용옥은 법전의 규정에 따라 관문 밖 효시, 종범 이문주는 ‘嚴刑島配’, 금홍은 杖 100대 후 유배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변사의 關文이 7월 1일 申時에 동래부에 도착하였다. 7월 2일 오시에 주범인 김용옥은 초랑왜관 수문 밖에서 효수형에 처해졌다. 7월 3일에는 이문주는 1차 嚴刑 후에 전라도 나주의 智島에 유배되고, 금홍은 杖 100대 후에 3년 徒刑으로 평안도 陽德縣에 유배되었다. 이어 동래부사 김석과 부산첨사 장창환은 파직당하였다. 이들 교간 관련 조선인들의 처벌은 1711년 조일간에 합의한 신묘약조와 『속대전』, 『대전통편』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뤄졌다.

## 2) 일본측(對馬藩)의 범죄자 처리

김용옥 등의 취조 과정에서 금홍과 교간한 재관 일본인은 石田 藤次郎으로 밝혀졌다. 이에 6월 7일 동래부사 김석은 훈도와 별차편에 왜관 관수 다와라베 사에문(倭郡左衛門)에게 傳令을 보내 본 사건을 알렸다. 부사는 도지로를 조선인과 同律(사형)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수는 “正德 신묘년에 정한 약조<sup>2)</sup>”의 규정에 따르면 永遠流配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인과 동률처벌을 거부하고, 도지로를 곧바로 대마번에 묶어 송환한 후 약조에 따라 죄인을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왜관에서 이뤄진 도지로의 취조 내용은 동래부의 진술과 같았다. 다만 동래부에서는 교간범으로 도지로 1명만 지목하였는데, 자체 조사를 통해서 기이치로라는 인물이 교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왜관에서는 동래부에 도지로에 관한 조사 내용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왜관의 태도는 유교윤리를 중시하여 교간사건에 민감한 조선측에 대하여 상대가 인지하지 못한 범죄인을 추가로 드러내는 일은 조일양국의 교섭에서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인들의 진술과 달리 도지로와 기이치로는 조선인들이 먼저 왜관에 잠입하여 자발적으로 교간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월 4일 밤 12시경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도지로가 문 밖을 내다보니 조선인 2명이 앞에 있었다. 그들은 쌀값이 올라 먹고살

2) 신묘약조에 대해서는 信使時定倭人潛奸律, 辛卯約條, 潛奸新定約條, 潛奸律, 交奸約條라고도 칭한다. 이 약조는 『증정교린지』 권4, 「약조」; 『춘관지』 권3, 「立約」; 『변례집요』 권5, 「약조」; 임수간의 『동사일기』; 宗家文書, 『分流紀事大綱』 권32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기 힘든데다 데리고 온 여성은 노모까지 봉양하고 있는 상황에 살아갈 방도가 막막해서 몸을 팔아서라도 노모를 모시고자 한다고 말하고, 교간의 대가로 2貫文의 돈을 요구하였으므로, 도지로는 이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나머지 교간을 했고 기이치로와도 상의하여 관계를 맺게 하였으며, 다음 날인 5일 밤 9시경에 되돌려 보내고자 하였으나 여인이 왜관에 더 머무르게 해줄 것을 청하기에, 여러 차례 설득하여 돌려보내려던 참에 왜관 밖에서 체포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상의 차이는 교간사건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조선인에게 지움으로써 자신들의 죄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왜관에서는 기이치로 또한 교간에 참여하였으므로 도지रो와 함께 처벌을 내렸다. 먼저 두 ‘범간왜’의 상관인 니이덴마와 아비루사마노스케에게 처리를 지시하고 두 범죄인에 대해 금족령을 내리고 가두었다. 같은 달 16일에 니이덴마와 아비루사마노스케는 동래부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관수앞으로 제출하였다. 관수 다와라베사에몬은 곧바로 對馬藩의 도시요리인 江典膳.平田宮內.平田爲之允.杉村大藏.藩建直人에게 죄인들의 처벌을 지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문서에는 사건의 개요 함께 왜관에서 이뤄진 조사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6월 28일 왜관을 출발하는 對馬藩船인 메에마루(明榮丸)에 실려 對馬로 압송되었고, 7월 12일이 되어서야 對馬藩의 후쥬(府中)에 도착하여 감옥에 갇혔다. 교간 범죄인은 메에마루 후나가시라(船頭)의 지휘 아래에 왜관의 구미시타 요코메(組下横目) 1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對馬까지 압송되었으며, 對馬에 도착한 후에는 후나아라타가시라야쿠(船改頭役)의 사야쿠(佐役)를 통하여 우치마와리반쇼(打廻番所)에 인도되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8월 17일에 도시요리 히라타 구나이(平田宮內)는 우치마와리가시라(打廻頭)에게 18일 이들 ‘범간왜’를 구두 심문하고, 왜관에서 보내온 두 통의 진술서와 사실관계를 대조한 후 진술서(口書)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드디어 9월 2일에 우치마와리 대다이가 성원이 되자 다음날인 3일부터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와 취조가 이루어졌다. 취조 내용은 먼저, 교간을 하게 된 이유, 둘째, 조선인들이 어떻게 왜관에 잠입하게 되었는지, 주선한 남자는 어떤 사람이며, 상호간에 아는 관계인지의 여부, 서관에 자주 출입했을 여성의 생년월일과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사람 외에 왜관 내 별도로 관계된 사람이 있는지, 교간의 대가로 조선인 여성에게 지불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신묘약조에 대해서는 信使時定倭人潛奸律, 辛卯約條, 潛奸新定約條, 潛奸律, 交奸約條라고도 칭한다. 이 약조는 『증정교린지』 권4, 「약조」; 『춘관지』 권3, 「立約」; 『변례집요』 권5, 「약조」; 임수간의 『동사일기』; 宗家文書, 『分流紀事大綱』 권32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交奸約條

一. 馬島之人 出往草梁館外 強奸女人者 依律文 論以一罪事

一. 誘引女人和奸者 及強奸未成者 永遠流竄事

一. 女人潛入館中 而不爲執送 因爲奸通者 用次律事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친 우치마와리가시라는 왜관에서 작성해 보내온 진술서(口書)와 ‘범간왜’의 진술에 차이가 없다는 진술서(口書)를 번에 제출하였다. 이어 9월 21일에는 ‘범간왜’의 처벌에 대한 번주의 재가가 도시요리의 이름으로 하달되었다.

먼저 이들의 상관인 니이덴마와 아비루사마노스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가 내려졌다. 그리고 도지로와 기이치로에게는 왜관내 교간으로 조일간의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본래 거주지인 府中(嚴原)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인 대마도의 서쪽 최북단에 있는 佐護郷으로 유배되어 永代奴가 되는 처벌이 내려졌다. 도지로는 佐護郡 漆村의 給人인 佐佐木只介의, 기이치로는 佐護郡 久須村의 給人(향촌 재지무사)인 玖須左近의 영대노가 되는 奴刑에 처해졌다. 영대노란 永生奴, 一生奴라고도 하는데, 범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 武士, 給人(郷士), 社, 役所, 乞食 등에 배속되어 평생 동안 노동력을 제공해야하는 종신노를 말한다.

도시요리는 위의 결정을 우치마와리가시라, 오메츠케(御目付), 마치부교(町奉行) 등에게 알리고, 郡村을 관할하는 고군부교쇼(御郡奉行所)의 다다노스케사콘(只介左近)에게도 전하였다. 더불어 에도의 對馬藩邸(江戸表)에 있는 도시요리에게도 書狀을 보내 알림으로써 사건은 발생한 지 4개월여 만에 종결되었다.

### 3. 교간사건에 대한 조일 양국의 시선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하여 사회기강을 세운 나라로서 특히 남녀간의 윤리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1711년 이전에는 왜관의 일본인이 조선인 여성을 왜관으로 끌어들여 성관계를 한 것이 발각되면 이를 ‘교간’으로 취급하고 대부분의 경우 여성과 중개역인 조선인을 사형에 처하였다. 이렇듯 조선조정이 교간에 대해서 극단적인 엄벌방침을 취한 것은 당시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유교적 윤리관에서 보면 허용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단순히 도덕적 이유만은 아니라 혼혈인의 증가가 가져오는 민족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극히 정치적 조치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더우기 상대인 남성이 ‘왜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위화감이 교간에 대한 조선측 인식의 저변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쨌든 조선은 조선여인과 왜관 일본인 사이에 교간사건이 발각되면 그 당사자는 물론 조일 양국의 연루자 전원을 효시 내지는 유배로 엄격한 처벌을 하여 기강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교간범죄인을 처벌하지 않아 조선측에서는 일본인의 처벌을 요구하며 왜관 開市와 공작미의 撤供撤市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과 對馬藩 사이에 만들어진 규정에 의하면 왜관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양국인들은 모두 자국의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조선은 왜관 관련 조선인 범죄자에 대하여 조선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되, 일본측 범죄자에 대해서는



同律을 적용시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었다. 물론 對馬藩에서도 일본인 범죄자의 처리는 일본 국내법에 준하였고, 조선인 범죄자에게 同律을 적용시켜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간사건만은 17세기 후반까지도 범죄자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83년 계해약조에는 왜관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과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양국간의 합의로 정해져 있으나 교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관내 교간사건에서는 교간 당사자인 조선여성과 중개한 조선인만을 처벌하고, 교간 상대 일본인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조선 국내에서 조선인 사이에 발생한 교간사건에서 여성은 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관 내 일본인과 교간한 여성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서 그것이 강간이든 양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든 1711년 신묘약조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1690년(숙종16) 사건부터 조선은 對馬藩에 교간 상대자에 대해서도 조선 범죄자와 同律처벌, 즉 사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對馬藩의 입장은 달랐다. 일본측은 교간에 대해 조선과 달리 사건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일 교섭에 방해요소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교간 당사자에게 조선도항 중지를 명하는 정도에서 그쳤던 것이다.

이에 조선 조정은 1711년 辛卯通信使에게 교간범에 대한 ‘彼此同律勘罪之意’의 법제화의 교섭을 지시하였다. 통신사는 에도체재 중 對馬藩主 소요시미(宗義方)에게 교간일본인을 조선인과 일률적으로 사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약조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對馬藩은 강경하게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은 對馬藩이 사전에 이 같은 전개를 어느 정도 예상한 면도 있었겠지만, 조일양국의性に 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통신사는 약조 사항에 強姦, 和姦간의 차등을 두어 죄를 정하자는 대마번의 조건을 수용하고서야 약조를 체결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신묘약조에서는 교간행위를 세 종류로 구분하고, 형벌도 그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결국 왜관의 교간 여성은 杖 100대 후에 유배형, 여인을 유인하여 성매매하게 한 주모자는 법적 최고형인 참수형이라는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그것도 일벌백계의 상징으로서 왜관 문밖에서 참수하는 효수형이 규정되었다. 성매매 당사자보다 이를 알선한 주모자가 더 엄한 벌을 받은 것은 왜관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간 문제는 성적·윤리적 범죄행위로서, 당사자나 지역 내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간의 공권력, 외교상의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교간범인들의 처벌에 관하여 동래부에 내린 비변사의 관문에도 교간에 대한 조선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7월 1일 비변사는 주범 김용옥에 대해서 경상좌수사가 軍威를 갖추고 효수형을 집행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사형 당일 中軍이 김용옥을 압송하고, 사형 집행 절차는 전례를 살펴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위를 갖추는 모습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데, 諭書 배종과 斧鉞, 刑名旗, 偃月刀, 貫耳令箭, 淸道旗, 金鼓旗 등을 받드는 사

람은 말을 타며, 羅將 1상과 함께 兵房과 都訓導가 통솔하도록 하고, 斬首漢은 미리 대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교간 범인에 대한 효수형이 단순히 범죄자의 처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관 주변의 조일 양국인에게 형 집행과정을 엄숙히 보여줌으로써 조선 조정이 교간사건을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이러한 세리모니를 통하여 왜관에 인접해 살고 있는 양국인들에게 변방의 금령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이후 사건 발생을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對馬藩, 즉 일본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졌을까? 對馬藩에 압송된 죄인에 대한 조사는 9월 3일에 실시되었다. 먼저 기이치로가 교간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도지로가 쌀값이 비싸서 노모를 봉양할 방도가 없는 여인이 몸을 팔아서라도 노모를 봉양하고자 한다는 사연을 듣고 인정상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함께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으며, 이를 몹시 후회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어 도지로에게 교간이 있기 전부터 여인과는 단골관계였는지, 조선인들이 어떻게 왜관에 잠입할 수 있었는지, 주선했 남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서관에 들어온 여인의 생년월일과 사는 곳까지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도지로는 조선인 남자는 守門 뒤에 살고 있는 진세한(チンセハン)이며, 여성은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간을 요구해 왔으므로 조선여인과 성관계는 인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어 추가로 관련된 패거리가 있는지, 조선 여성에게 대가로 무엇을 주었는지 묻자 두 사람 외에 가담자는 없으며 조선인이 大錢 2관문, 즉 상평통보 20냥을 요구해서 주었을 뿐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우치마와리는 도지로에게는 두 사람이 ‘하인’의 신분으로 어떻게 2관문이라는 큰돈을 소지할 수 있는가 라고 취조하면서 왜관에 禁輸品을 들여와 밀무역을 통해서 돈을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있거나 함께 가담한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하지 않으면 고문을 해서라도 밝혀내고 말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에 도지로는 2관문의 돈은 ‘영선산의 시탄고’를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훔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 마련한 것이 아니며, 자신들 외에 추가로 가담한 사람이 없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도지로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우치마와리는 재차 두 사람에게 잠상 행위의 여부를 물었고, 두 사람은 절대로 잠상을 한 일은 없으며, 별도의 가담자도 없고, 교간은 여인의 상황이 딱한 나머지 인정상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엄한 질책이나 고문이 있더라도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잠상 혐의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對馬藩에서 이뤄진 교간 일본인에 대한 조사 내용이 왜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추궁하기보다 이들이 교간의 대가로 조선인에게 지불하였던 돈의 출처, 그리고 왜관 내 금수품의 거래와 같은 밀무역 혐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조선후기 왜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많고 중하게 처벌된 것은 일본인들이 왜관을 무단으로 이탈한 난출과 밀무역(潛商)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왜관 내 밀무

역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왜채(路浮稅)에 관한 사안은 왜관이 설치 직후부터 양국 간에 주요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다.

어떻든 對馬藩이 교간 범죄인에 대해서 왜관 법령 위반 사실보다 밀무역(潛商)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묘약조 이후에도 왜관 내 교간사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對馬藩이 신묘약조의 준수를 의식하여 교간을 사전에 방지, 통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對馬藩에게 교간 사건은 조선이 교간인으로 지목한 당사자를 색출하여 조일간에 정해진 법령대로 조선에 대한 외교 교섭상의 성의를 다하는 자세로 처리해야할 사안이긴 하였으나, 對馬藩으로서는 번제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밀무역(潛商)이 교간보다 더욱 중요하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조선후기 왜관에서 발생한 교간사건

연번	연도	교간남성 (일본인/ 신분)	교간여성 (조선인/ 신분/거주지)	공모자 (조선인/신분, 거주지)	동기 / 代價	사건의 처리
1	1661/현 종1	不明	古公(良女)	朴善同(東萊)	受賂/誘引	길공과 박선동 왜관 밖 효시(사형) 왜인과 더불어 뒷산에서 飲酒한 私婢 貴眞 · 五莫德 · 土玉 · 立介 · 貴非는 遠地定配
2	1662/현 종3	不明	自隱德(私婢)	無應忠(奴) · 金靑男(奴)	教誘	자은덕 · 무응충 · 김청남은 관문 밖 효시 교간왜는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관수에게 責諭
3	1671/현 종12	不明	不明	왜관 내 下男	不明	不明
4	1675/속 종1	不明	於夫同의 아내	於夫同	强姦	於夫同이 왜인 살해
5	1690/속 종16	井手惣左衛門(四代官倭) · 忠兵衛(四代官倭) · 延食只(二代官倭)	愛令(이명원의 처), 粉伊(이명원의 딸)	· 李命元(水營 使令) · 權祥(私奴)	受銀/ 誘引 애금, 분이: 은 58냥	이명원 옥사 이진수 옥사 애금, 분이 · 권상 임인년(1662년)의 예에 따라 관문 밖 효시 교간 남성 4인 조선도항 금지 把守, 훈도 · 별차, 동래부사 拿問
6	1690/속 종16	利兵衛(禁徒倭) · 判右衛門(禁徒倭)	· 賤月(이명원의 동생)	李進壽(釜山/私奴) 徐富祥(烽軍)	受銀/誘引, 賤月: 은 2 냥 5전	· 천월 · 서부상 임인년(1662년)의 예에 따라 관문 밖 효시
7	1697/속 종23	飯束喜兵衛	玉郎 善貞	金哲石	교간 미수	김철석 도망, 그의 아버지가 옥중에서죽음. 관수에게 責諭
8	1707/속 종33	白水源七	甘玉	宋中萬(部將)		감옥 · 송중만 관문 밖 효시 수직 복병장 처벌
9	1716/속 종42	5인	季月(娼女)	金以石 · 趙守命	유인	계월 ‘考諸律文’ 하여 遠地定配 金以石 · 趙守命은 관문 밖 효시 교간 남성 중 3명 가운데 1인 이미 대마로 돌아감. 2인 신묘약조에 의거하여 대마로 縛送. 2명은 잡지 못하였다고 핑계를 댔.

연번	연도	교간남성 (일본인/ 신분)	교간여성 (조선인/ 신분/거주지)	공모자 (조선인/신분, 거주지)	동기 / 代價	사건의 처리
10	1726/ 영조2	茂吉作·左 衛門	金善陽(娼女)	秋順弘·朴召史	유인 米3두5승 銀 4전	김선양 1716년 季月の 예에 따라 평안 도 정배, 박소사 전라도 정배, 秋順弘 효시 東伏兵將卒 從重決棍懲 捕捉人 論賞 교간 남성 2인 관수에게 永遠流竄 요구
11	1738/ 영조14	利右衛, 門 ·源五 등 3 인	守禮(私婢) 崔愛春(良女)	田才	유인 錢 400文 餘	여성 嚴刑島配, 田才 효시 교간남성 對馬에서 流罪 1726년의 예에 따라 捕捉人 論賞
12	1786/ 정조10	吉藏(物貨商) ·善右衛門 (假傳語官) ·準助(監董 木手)·辰五 郎(引鉅匠) ·下代幸助	徐一月(良女)	高甲山(주범) 李以良·金阿只老末· 田古不伊·劉漢日(중 범)	受賂誘引	서일원은 곤장 100대 후 3년간 유배 李以良·金阿只老末·田古不伊·劉漢日 嚴刑遠配 首犯 高甲山 관문 밖 효시 교간남성 5인 비선편 對馬縛送 把守 등 동래부에서 적발하여 엄히 곤 장으로 다스림 체포하여 보고한 張應梯 1716년(숙종 42)의 예에 따라 포상
13	1859/ 철종10	藤次郎·喜 一郎	趙錦紅(좌수 영의 退婢, 元妓生)	金用玉(수문직/新草梁/ 주범) 李文周(중범)		김용옥 관문 밖 효시 금홍과 이문주 嚴刑島配 교간남성 2인 對馬縛送 후 佐護郷給人 의 永代奴

〈표 1〉은 양흥숙,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9, 241~242쪽 〈표 40〉을 토대로 하여 「邊例集要」 권14, 「雜犯」; 「增正交隣志」 권 4, 「禁條」; 「숙종실록」 숙종1년 5월 3일(경인); 「정조실록」 정조 11년 1월 29일( ); 「倭人作拏謫錄」; 「典客司別謫錄」 丙午 6월 27일; 宗家記錄 「分流紀事大綱」 31, 「交奸一件」(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宗家記錄, 「安政六己未年 七月去年條 一特送使正官人仁位塚磨下人藤次郎同都船主阿比留左馬介下人喜一郎と申者共於和館交奸之一件記錄」(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 所藏)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 조선후기 대일무역과 구무(求貿)의 전개

이 승 민 ■ 동국대학교

### 1. 己酉約條의 체결 이후 조일무역의 재개와 求貿

조선후기 조선과 일본과의 통교관계를 규정한 것은 1609년에 체결된 己酉約條였다. 기유약조는 조선이 대마도에 대한 무역량을 제한하고 외교창구로서의 대마도의 위치를 확실히 하고자 함과 동시에 대마도를 통한 간접통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전통적인 교린관계가 붕괴되기 전까지 조선후기 260여 년간 조일외교 및 무역관계를 설정하는 가장 기본골격으로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13개조로 이루어진 기유약조는 대마도에게 허락된 무역 관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유약조의 체결 과정에는 대마도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었는데, 대마도는 중세 이래로 조선과의 무역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마도는 섬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토질이 척박해서 쌀을 비롯해 섬 내외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물품들을 자급자족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의 대부분을 조선과의 무역으로 확보·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1609년 기유약조가 체결되고 실제로는 1611년 9월 대마도로부터 정식으로 歲遣船이 파견되면서 양국 무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이후의 조일무역은 기본적으로 연례송사 세견선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보통 진상 및 회사·공무역·구청을 국가 대 국가의

1) 손승철, 『조선후기 한일관계사 연구』, 지성의샘, 1994, 145쪽 ; 『조선후기 한일관계사 연구-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2006, 126쪽.

공적인 왕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공무역’, 그리고 무역 상대자가 상인 대상인이라는 점에서 ‘사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進上은 조선 왜관에 정기적으로 도항하는 대마도 연례송사가 肅拜禮를 행한 후 조선 국왕에 대해 물품을 바치는 행위를 말하며, 回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선정부에서 정해진 종류와 양의 물품을 연례송사에게 내려주는 것이다. 公貿易은 연례송사가 도항할 때 가지고 오는 銅鐵・鐵鐵・丹木・黑角・蘇木 등을 조선에서 公木이나 公作米를 주고 사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私貿易은 대마도에서 왜관으로 건너온 상인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조선상인 사이에서 매달 6번씩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장소에서 조선 訓導・別差와 왜관 代官의 감독 하에 무역이 이루어졌으며, 禁制品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제 없이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었다.

求請은 연례송사에게 조선에서 진상에 대한 회사품을 내려줄 때 그와는 별도로 28가지의 定品・定量의 물품을 의례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청을 설명하면서 기존 연구에서는 求請과 求貿를 혼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구청에 대해 서술하면서 대마도 측의 요청에 따라 조선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邊例集要』나 『倭人求請膳錄』 등의 주요 대일 외교・무역 관련 사료 등에서는 구청과 함께 구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당시 사료 등에 기록되어 있는 구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마도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역이 아니라 조선 측에서 의례적으로 지급해주는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求貿는 대마도 측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지는 교역으로서, 의례적인 구청과는 달리 교역시기나 물품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구무로 거래되는 물품 중에는 공・사무역에서 취급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해당 물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인이 없어서 구무를 통해서만 교역되는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무는 대마도 측에서 필요에 따라 특정한 물품을 지목해서 교역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구청과 같이 대체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었다. 대마도로부터 교역 요청이 들어오면 조선에서는 戶曹나 司僕寺 등 국가기관이 개입하거나 왜관이 위치한 경상도 등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마련하게 하거나, 해당물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역으로 이를 처리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또한 구무품에 대한 결제는 대일 공무역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公木이나 公作米 등에서 計減하거나 銀貨 결제의 방식 등으로 별도로 값을 치르게 했기 때문에, 구무는 그 처리유형과 결제방식 등의 측면에서 보면 공・사무역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구무는 전근대 조선과 일본 양국 경제교류의 또 다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무역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2. 구무의 성립과 시기별 전개

구무는 조선후기 대마도와의 일원적인 외교·무역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서 정착된 무역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에 들어 구무가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1603년(선조 36)<sup>2)</sup>과 1609년 3월<sup>3)</sup>이었는데, 이때는 아직 양국 국교 및 무역이 정식으로 재개되기 전이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기유약조가 체결되고 이후 1611년 9월에 도향한 최초의 세견 1선이 또 다시 구무를 요청해왔는데,<sup>4)</sup> 이것은 기유약조 체결 이후 구무가 비로소 정식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구무는 한동안 사례가 보이지 않다가 1630년대 중반부터 다시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대마도에서는 기유약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례송사 외에도 차왜라는 명목으로 필요할 때마다 사자를 파견했다. 차왜는 조선후기 대마도가 연례송사 이외에 조선에 파견한 임시사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임무는 매우 다양했고,<sup>5)</sup> 각기 본연의 임무 외에 대마도주의 명을 받아 조선에 특별히 물품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마도에서는 불시의 구무를 통해 다양한 물품들을 교역해가고 있었는데, 1609년부터 1749년까지 총 140년의 시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sup>6)</sup> 구무는 기유약조 체결기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며 1610~30년대 초반까지는 구무에 관련된 기록이 드문드문 등장하거나 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다 163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시 구무가 정착되고 활발하게 이루어 지다가 18세기 이후에는 요청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즉 17세기 초반에 시작된 대마도의 구무요청은 조일후기 대일무역의 거래체제가 정비된 17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되어 18세기 초반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 요청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1609년 기유약조 체결로 무역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이후 1630년대 중반부터 검대제가 실시되고 사무역의 거래가 확대되어 가면서 조일 양국의 교역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18세기에 들어서면 서서히 쇠퇴해가기 시작한다. 대마도의 구무요청 역시 이러한 시기적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09년부터 163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구무의 사례가 극히 적거나 거의 나타나지

2) 『宣祖實錄』 권163, 宣祖 36년(1603) 6월 14일 己亥.

3) 『邊例集要』 권12, 求貿.

4) 『邊例集要』 권12, 求貿.

5) 차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增正交隣志』 권2, 差倭; 홍성덕, 「17세기 朝·日 外交使行 연구」,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참고.

6) 대일관계 등록류의 편찬은 1731년(영조 7) 『各樣差倭謄錄目錄』이 편찬되면서 일단락되었는데, 이것은 18세기 중반 이후 왜관무역의 쇠퇴와 일본에 대한 관심의 감소 등에 따른 것이었다(한문종, 「朝鮮後期 日本에 관한 著述의 조사 연구-對日關係 謄錄類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6, 국사편찬위원회, 1999, 222쪽). 『倭人求請謄錄』은 1637년(인조 15)부터 1724년(경종 4)까지 기록되어 있고, 『邊例集要』는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이 1841년(헌종 7)까지만 점으로 볼 때 그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생각되며, 권12 「求貿」의 경우 1749년(영조 25)까지 기록되어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17세기에 비해 구무 요청의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이후에는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구무의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倭人求請謄錄』과 『邊例集要』의 기록을 기본으로 1609년부터 1749년까지 140년간을 대상 시기로 한다.



않는다. 그것은 조선에서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 사이의 대부분의 기록물들이 소실되어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만약 구무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 대일외교 및 무역 형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한편 대마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록 기유약조의 체결로 조선과 독점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기는 했지만, 1635년에 국서개작 폭로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마도주와 가신 柳川家 사이에 세력 다툼이 계속되면서 대마도주가 島内の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마도는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연례송사나 무역상인 외에 비정기적인 구무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사건으로 막부의 재신임을 얻는 대마도주는 조선과의 외교·무역에 온 힘을 쏟게 되면서 이후 구무도 활성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63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637년부터 구무 요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요 배경으로 국서개작 폭로사건 이후 안정화된 대마도의 정세를 들 수 있다. 즉 막부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대마도는 독점적으로 對조선 외교와 무역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17세기 중반 이후 중국 내의 불안한 정세와 일본의 무역정책 변화로 인해 대청 무역선의 수가 불안정했다<sup>7)</sup>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일본으로서는 중국보다는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선과의 교역, 특히 국가기관이 개입해 편의를 얻을 수 있는 구무의 방식을 선호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각기 두 차례에 걸친 왜란과 호란을 겪고 난 이후 명·청 교체라는 북방의 혼란과 아직 조선사회 내부에 일본의武威에 대한 위기감이 남아 있어서 국내의 안정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즉 對중국관계의 변화에 따른 북방의 안전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던 조선에게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南邊의 안전이 전제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왜구문제를 포함해 후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南邊의 안전이라는 대일정책의 기초를 세우면서 대마도를 매개로 형성된 일본과의 간접외교체제를 원활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대마도의 구무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구무의 활성화는 兼帶制의 실시 및 別差倭 제도의 정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겸대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오는 사송선에 대한 접대 형식의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조선으로 오는 대마도 세견선의 숫자를 줄여서 이들에 대한 접대에 드는 조선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었다. 세견선의 도항횟수를 줄여 이들에 대한 접대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했던 겸대제의 실시는 양국 외교·무역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조선에 보낼 수 있는 세견선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대마도는 쇼군과 대마도주의 경조사 및 통신사·문위행 등에 관한 외교 관련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약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別差倭를 파견하기 시작했고, 결국 조선으로부터 차왜에

7) 大庭脩, 『江戸時代に於ける中國文化受容の研究』, 同朋舎, 1984, 23쪽.



대한 접대를 規例로 인정받게 되었다.<sup>8)</sup> 연례송사 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차왜를 파견하게 되면서, 차왜에게 본래의 목적 외에 구무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대마도에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공·사무역을 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뛰어난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18세기 이후 구무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淸이 南明과 鄭成功이 장악하고 있던 대만에 대한 대책으로 엄중한 海禁定策을 실시(遷界令)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은 청과 직접 무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684년 정성공이 청나라에 항복하자 해금정책은 해제(展海令)되었다. 이에 따라 1685년 이후 일본에 내항하는 청나라 무역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의 대청무역의 비중이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었다.<sup>9)</sup>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약재나 금수류 등 조선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대조선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임진왜란 이후 戰後 복구사업과 함께 국내 경제와 상업의 발전으로 대일무역도 크게 발달해갔는데, 조일 양국이 교역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것은 대일관계의 交隣的 측면과 함께 양국 정부가 대외교역을 바탕으로 정권안정을 꾀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정책은 특히 조선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고 18세기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줄고 오히려 강력한 통제가 계속되면서 대일무역 역시 축소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특히 구무는 조선 측의 부담과 대마도 측의 편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선에서는 대일 교린과 대마도에 대한 施惠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적으로는 간접외교체제 안에서 대마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구무는 쇠퇴해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3. 구무의 특징

구무품 중에는 다른 무역으로는 교역되지 않고 오로지 구무의 방식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품목들이 있었는데, 금수류·다기류·서적류·인적자원류 등이었다. 서적은 발행부수가 제한되어 있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부수에 제한이 있었으며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역상인도 없었기 때문에 주로 구무를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말과 같

8) 별차왜에 대한 접대는 조선정부에게 “차왜 접대비용이 送使보다 배가 넘어 드디어 무궁한 폐단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세 건선에 대한 접대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과 폐해를 초래하게 되었다(『增正交隣志』 권2, 差倭).

9) 大庭脩, 『江戸時代における中國文化受用の研究』, 同朋舍, 1984, 24쪽.

10)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전개과정에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258쪽.

은 살아있는 금수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말과 매는 통신사·문위행이 일본에 건너갈 때 가져가는 주요 외교의례물품 중 하나였는데, 이 역시 전문상인이 없었기 때문에 구무의 방식을 통해 거래되었다. 다기류는 처음에는 해당 장인을 시켜 대마도에서 요청하는 대로만 들어주었으나, 1635년 倭館窯가 건설된 이후에는 대마도에서 직접 도공을 조선으로 파견해서 필요한 대로 만들어갔다. 그리고 인적자원의 요청도 특이할 만 한데, 전문 기술을 보유한 沙器匠과 같은 匠人과 醫官·畫員 역시 대마도 측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조선에서 파견해주는 형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마도는 보다 다양하고 품질이 좋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사무역에서는 취급하는 상인이 없어서 해당물품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 바로 구무라는 방법을 활용했다. 구무 요청은 기본적으로는 대마도 측의 필요에서 기인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필요에는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 대마도와 대마도주의 保身을 위한 대막부 교섭의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 즉 대마도가 조선에 구무를 통해서 여러 물품들의 교역을 요청한 것은 전적으로 대마도주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구무는 외교적·경제적으로 막부를 대리하면서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대마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대마도는 조선에 요청해 교역한 물품을 참근교대 때 막부에 가져가 쇼군이나 집정 등에게 접대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막부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세울 수 있었고, 쇼군과 집정 등의 요청으로 그들이 구하는 물품을 대리자의 입장에서 다시 조선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대마도는 막부에게 자신이 조선과 교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에게는 조일관계의 대리자임을 내세움과 동시에 교역에서의 실리를 얻기 위해 交隣의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교와 무역 관계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서 이루어진 제3의 교역형태이자 동시에 특수한 형태의 공무역인 구무는 기본적으로는 대마도의 요청과 교류라고 하는 절대적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교역을 통해 끊임없이 조선과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대마도 측에 유리하게 정치·외교적 협상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던 대마도 측의 의도와 필요에서부터 구무라는 교역형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마도의 구무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역시 대마도를 매개로 형성된 기형적인 간접외교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조선은 각기 두 차례에 걸친 倭亂과 胡亂을 경험한 이후 청나라가 건국되면서 중국 대륙의 정세 변화에 촉각을 세웠고, 그로 인한 대청관계의 변화와 북방의 안전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에 두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南邊의 안전이 전제가 되어야만 했다. 비록 왜란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武威를 앞세운 일본이 또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17세기 중반 이후까지 조선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1635년 일본에서 일어난 국서개작 폭로사건을 계기로 막부는 막부 차원에서 외교문서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外交僧을 대마도 이정암에 파견하는 한편, 대마도주에게

대조선 무역 독점권을 부여하면서 외교체제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제 대마도는 조선정부와 일본막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자적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조선정부와 일본막부 사이에 직접적인 외교루트가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을 잇는 유일한 창구는 대마도였다. 조선에서는 전기의 왜구문제를 포함해 후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남변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대일정책 목표를 세우면서, 대마도를 매개로 형성된 일본과의 간접통교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하나로 구무를 허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조선후기 구무는 일본(대마도)에 대한 일종의 교린 비용이자 평화유지비용의 하나로서 기능했던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조선후기 대일공무역과 公木

김영록 ■ 부산대학교 사학과

### 1. 머리말

조선후기 대일무역은 국교가 재개된 17세기 초반 이후 약 250년간 지속된다. 무역은 進上과 回賜의 年例送使무역과 조선조정과 대마도의 공적 거래인 公貿易, 양국 상인의 사적 거래인 私貿易(開市貿易), 潛商들의 불법적 거래인 密貿易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공무역은 통제성이 강한 국가주도의 무역으로 정치, 경제적 조건이 상호보완성을 띠며 전개되었다.

공무역은 조선조정의 주도 하에 수출입물품의 조달·거래·이용이 이루어졌다. 공무역에 이용되는 재원은 지역별 분배를 통해 조세로 마련된 목면과 쌀 등으로 조선농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목면은 국내의 활발한 유통을 바탕으로 공무역 상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수량이 거래되었다. 국가의 재정에 속한 목면은 ‘公家の木綿’이라 하여 ‘公木’이라 부른다. 공목은 주로 대일공무역에 사용하였기에, 일반적으로 ‘대일공무역에서 물품의 값으로 지급하는 목면’을 가리킨다.

공목은 대일교섭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 또한 대일 수입품의 가격을 공목으로 환산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조선후기 공무역의 총 규모는 공목의 거래액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공목의 거래는 전근대 대일무역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공목은 조선 내 물품화폐이자 무역품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공작미와 대일공무역의 성격 및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글은 공목을 대상으로 농업상품의 생산에서 조세 수취, 무역 재원의 활용 등 대일공무역 재원의 공급 측면을 알아본다. 특히 경상도 각 읍에서 東萊府로 하납하는 공목의 공급 과정과 농민으로부터 마련된 재원의 운영을 통해 대일공무역 비용과 그 부담을 고찰해본다. 그리고 17~19세기까지 공무역에서의 공목의 거래·수량·추이 등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역에서 발생하는 공목 거래의 문제를 살펴보고, 목면·쌀·동전 등으로 대일공무역 지급수단이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후기 국가 재정의 운영과 대일공무역의 규모 및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17세기 초 대일공무역 재개와 公木 지급

### 1) 대일공무역 체제의 확립

조선후기 대일공무역은 1608년(선조 41) 정월에 시작되어, 1609년(광해군 1) 己酉約條, 1613년 定額制 실시, 1635년(인조 13)에 兼帶制를 통해 “年例送使”에 의한 무역을 확립한다.<sup>1)</sup> 이러한 일련의 체제 정비는 조선후기 대일공무역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다. 정액제는 거래물품의 수량을 제한하여 시장의 경쟁적 성격을 통제함으로써 국가 주도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다. 겸대제의 실시는 공무역의 수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접대비용과 같은 무역 외적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1년 단위로 공목 지급액을 결제함으로써 무분별한 무역의 확대를 제한할 수 있었다.

공무역 체제의 정비를 바탕으로 대마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銅·鐵·黑角·胡椒·白礬·朱紅·丹木 등이었다.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진상품에 대한 공목 지급액은 130여 同(1同=50正), 공무역품에 대한 공목 지급액은 1,000여 同이었다. 진상품은 丹木·胡椒·白礬·朱紅 등을 중심으로, 공무역 물품은 銅·鐵·黑角·丹木 등 네 가지 물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2) 公木 거래의 문제와 교섭

17세기 초·중엽의 公木 거래에서는 품질과 지급시기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첫째는 공목의 품질 문제이다. 공목은 섬세도를 나타내는 升數(1升=80올)와 길이를 나타내는 尺數가 높을수록 품질이 좋은 것이었다. 그래서 대마도 측에서는 升尺이 높은 공목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升尺이 낮은 것을 지급하려 하였다. 17세기 초 공무역에서 지급되는 公木은 8升 40尺이었다.<sup>2)</sup> 하지만 조선 국내에서 ‘正布’로 규정되어 일반적으로 유통되던 목면은 5승 35척으로 공목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였다. 공목은 보통 조선 국내에서 유통되던

1) 정성일, 앞의 박사학위논문, 64쪽.

2) 『分類紀事大綱』 2집 11권, 「公木之事」(『分類紀事大綱』 II(활자본), 국사편찬위원회, 2007, 104~105쪽); 『公木作米膳錄』(奎12968) 丁丑(1637) 12월 초5일, 壬申(1692) 1월 15일; 中村榮孝, 앞의 책, 328쪽; 김동철, 앞의 논문, 1993, 105쪽.

목면보다 약 2.5배에서 3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민간에서의 생산으로는 그 품질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으며, 경상도의 여러 읍에서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달라서 그 품질과 규격을 통일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결이 굵고 길이가 짧은 공목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품질은 더욱 낮아지고 있었다.

公木の 거래에서 발생한 두 번째 문제는 지급시기의 문제였다. 공목은 경상도 각 지역의 田稅 수취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지급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목면은 기후 및 생산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차이가 컸는데, 17세기 초반에는 가뭄 때문에 경상도 각 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타 관청의 재원을 이용하여 목면을 조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목화의 생산량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공목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7세기 초 公木の 공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양국 간의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다. 공목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후 공작미 무역을 실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3. 17세기 중엽 공무역 재원의 이분화와 公木 확보

#### 1) 公作米 무역의 실시와 公木 지급

1640년대부터 대마도에서는 조선 측에 쌀 무역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그 결과 1651년(효종 2)에 조선은 무역량의 일부인 公木 300同을 쌀로 환산하여 공작미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1660년(현종 원)에 공목 품질의 복구 문제로 공목 100同을 증가시켜 총 400동을 쌀로 지급하는 것을 5년 기한으로 약속했다.

공목 400동은 1疋당 쌀 12斗로 환산하여 공작미 16,000石(1石=15斗)으로 지급되었다. 원래 田稅를 목면으로 납부할 때에는 쌀 5두를 목면 1필로 환산하여 납부하였다. 하지만 공작미의 지급에서는 공목 1필에 쌀 12두로 환산한 값을 농민에게 징수하면서 그 부담이 커졌다.

목면 구분	쌀 환산율(1疋당)
公木 = 細木 (8升 40尺)	12斗
正布 = 常木 (5升 35尺)	5斗

1) 常木 1,000同 = 細木 400同 ≒ 米 16,666石

2) 公木 400同 = 16,000石

3) 常木 400同 = 6,666石

\* 細木 1疋=米 12斗 (『備邊司謄錄』 현종 12년 3월 17일)

\* 常木 2.5同 = 細木 1同 (『承政院日記』 86책, 인조 21년 10월 25일)

공작미 무역의 실시는 公木の 품질 저하와 일본 국내에서의 목면 생산 발달, 대마도의 쌀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조선에서는 당시 풍작으로 인해 쌀의 수출이 더 편리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는데, 升尺이 높은 공목의 확보보다 쌀의 마련이 더 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공목의 품질기준 완화라는 목적이었다. 기존의 공목 품질의 공급에 부담을 느낀 조선은 쌀을 무역하는 조건으로 공목의 품질 기준을 완화시키려 하였다.

공작미 무역의 실시로 대일 무역품에 대한 주요 결제수단이 公木과 公作米, 두 물품으로 이분화되었다. 이러한 공무역의 변화는 조선 측의 공목 조달에 대한 부담 완화와 대마도의 쌀 필요성이 충족되어 나타난 변화였으며, 그동안 공목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무역 마찰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은 5승 35척의 목면을 공급하게 되면서 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종전보다 훨씬 적어졌다.

## 2) 公木の 확보와 공급

公木은 경상도 지방의 田稅로 마련하여 동래부로 下納하였다. 公木 下納邑은 크게 元定邑과 加定邑으로 나뉜다. 元定邑으로 구획된 지역은 『嶺南大同事目』에서는 20읍, 『春官志』에서는 17읍이다. 이 중 17읍은 흔히 경상도의 전세 수납 과정에서 대일외교에 쓰이는 비용으로 하납되는 조세 및 물품이 많아 倭供邑으로 분류된다. 이 읍들은 公木 뿐 아니라 公作米, 倭料米·太 등 대일외교관계에 쓰이는 비용을 하납하였다.

이 원정읍 중에서 실질적으로 公木을 마련해 하납한 읍은 총 13읍이다. 13읍은 공목 원정읍으로 沿江·沿海지역에 분포되어 동래부와 가까웠다. 공목 원정읍은 평균적으로 총 하납액의 약 83% 정도를 납입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7%는 공목 가정읍에서 하납하였다. 공목 가정읍은 전세 산곡작목지대에 속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정읍에서 징수한 수량이 부족할 때만 편성하였다.

각 읍에서 公木을 하납하는 수량은 정해진 규정이 없었으며, 경상감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읍마다 균형 있는 수취를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해마다 각 읍에서 하납하는 공목의 총 수량이 달랐다. 이러한 재정 수취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作米와 作木の 구분을 관리의 임의대로 정하거나, 중간에서 逋欠하는 경우가 많았다.

公木の 운송과정은 중앙 관청을 거치지 않고 동래로 바로 하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식은 경상도의 민들에게는 서울에 상납하는 것보다 비교적 편하게 생각되었다. 조세수납비용은 운반과정에서 거리에 비례하여 나타나므로 상납하는 것보다 바로 동래로 하납하는 편이 비용절감의 효과가 더욱 컸기 때문이다.

하납은 대체로 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총 수량을 1~4회 정도로 나누어 동래부로 납입하였다. 또한 공목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해를 넘겨 납입하기도 했다. 동래로 하납된 공목은 公木庫 또는 釜山倉에 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육로를 이용하면 公木庫에서 보관되고, 공작미와 함께 하납하였을 때는 釜山倉에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 하납된 후에는 訓導·別差의 회계를 거쳐 왜관에 지급되었다.

## 4. 18세기 이후 公木 지급의 추이

18세기 중엽에는 공목을 代錢하여 공무역을 통해 인삼을 거래하기도 했다. 공목 700同 중 400同이 대전되었는데, 이는 作錢으로써 농민들이 공목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공목은 1필당 代納錢 2兩 3錢으로 하납되었는데, 2냥은 인삼 무역에 사용하였으며, 3전은 동래부의 재정에 보태어 사용했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인삼 밀무역으로 인한 인삼 가격의 등귀와 개시무역을 통한 인삼 거래의 쇠퇴로 인삼 무역은 활로를 잃어가고 있었기에 1758년에 공목 400동을 작전한 금액으로 역관과 상인에게 인삼을 被執하게 하여 인삼 200斤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는 開市貿易을 통한 인삼의 거래가 쇠퇴함에 따라 역관 등을 호조의 관리 속으로 끌어들이어 그들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전을 통해 남은 3전은 동래부에 교부하였다. 이것은 ‘三錢條’로 편성되어 監色들의 月俸 등 다양한 경비로 쓰였다. 또한 ‘三錢條’는 倭館의 수리공사의 재원 마련에도 쓰였다.

1806년(순조 6)에 공목의 代錢을 혁파하였다. 인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전을 통한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마도인들 또한 인삼무역에서의 이윤이 남지 않아 전 수량을 公木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공목의 거래 수량은 다시 700同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삼무역으로 발생한 이익과 ‘三錢條’의 명목으로 동래부 재정에 충당되던 금액은 경상도 내의 米穀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경상감영 및 동래부 주관 하에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公木의 하납과 공무역 거래는 1811년(순조 11)에는 「易地聘禮」의 실시, 1825년(순조 25)에는 彦滿送使의 파견 등 그 수량이 조금씩 변했지만 1871년까지는 지속되었다. 하지만 1872년 지급액 중 86%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1873년에도 전년도 미지급액의 일부만 지급되었다. 그리고 1873년의 지급액의 총 수량은 아예 지급되지 않았다. 1872년 8월 일본 천황의 칙지로 세견선이 폐지되면서, 대마도와의 공무역은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74년에도 총 16개 읍에서 공목 648동 4필을 동래부로 하납하고 있었다. 공무역이 중지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하납이 유지되면서 공목은 동래부의 식리, 구휼, 운영자금에 이용되었다.

## 5. 맺음말

공목은 조선후기 대일공무역물품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의 조세로 공급됨으로써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변화가 반영되고 있었다.

17세기 초 대일공무역의 체제가 정비되면서 공목은 약 1,100同 내외에서 지급되었다. 이후 公作米 무역의 실시로 조선 측 지급수단이 목면과 쌀로 이분화되면서, 공목의 품질은 5승 35척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조선 내에서 조세로 수납하여 유통되던 목면과 대외



수출용 목면인 공목은 그 품질 기준이 같아졌다. 그리하여 그동안 잦았던 양국 간의 무역 마찰은 줄어들 수 있었다.

공목은 경상도 각 읍에서 농민의 조세로 마련되었다. 원정읍은 총 13개 읍으로 연간 공목 하납액의 약 80%를 책임졌다. 공목의 수량이 부족할 시에는 경북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각 읍에 분배하여 加定하였다.

18세기 중후반에 걸쳐 공목은 代錢되어 인삼무역에 쓰였다. 이는 개시무역을 통한 인삼의 거래가 쇠퇴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공무역을 통한 인삼의 조달이 일정 기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作錢 후 일부 금액은 ‘三錢條’라는 명목으로 할당하여 왜관의 수리공사 및 동래부의 재정에 사용하였다.

17·18세기에 걸쳐 공목은 쌀과 동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세 가지 수단은 조선 국내에서 화폐수단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일 공무역 상에서 조선 유통화폐의 가치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조선의 화폐 수단이 수출품목으로 그대로 사용된 결과, 대일공무역에서는 조선 측의 경제적 변동이 더욱 직접 반영되고 있었다.

또한 1872년까지의 공목 거래를 통해 사무역이 쇠퇴하는 현상과는 달리 공무역은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시기까지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세기 중엽까지 공무역의 지속과 공목이라는 물품이 변동 없이 거래되는 이유는 공목이 초기의 상품적 성격보다 화폐적 성격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며, 공무역은 국가의 주도로 통제성을 지니면서 갖춰진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 풍계 현정(楓溪賢正)의 『일본표해록』<sup>1)</sup> 항로 탐사

공 인 창 ■ 생활문화아카데미

## 1. 머리말

### 1)나가사키와 하멜과 여수의 관계

‘2016 나가사키 범선축제’가 2016년 4월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어 나는 범선 코리아 나호(선장 정채호, 135톤)를 타고 행사를 다녀왔다. 4월18일 오후 2시에 전남 여수 소호요트경기장에서 출항하여 4월19일 오후 1시에 일본 나가사키 입구에 있는 ‘나가사키 선셋 마리나(Nagasaki Sunset Marina)’에 입항하여 검역과 입국 수속을 하였다.

핸드릭 하멜(Hendrik Hamel)은 1653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선원으로 스페르호크(Sparrow Hawk)호를 타고 대만에서 일본 나가사키로 향해 출항하였으나 대만해협에서 풍랑이 심하여 배가 파손되어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 난파한다.<sup>2)</sup>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압송되어 조선에서 13년 동안 억류되어 생활하다가 지방으로 보내어져 여수에서 돛단배를 구해 호버트 데니슨 등 8명과 함께 1666년 9월에 여수 고소동 앞바다에서 출항하여 일본에 갔다. 하멜은 1668년 7월 고향인 네덜란드에 돌아가 조선에서 체험한 사건과 마을 이름, 거리, 풍속, 언어를 기록하고 『하멜표류기』를 발간한다.

1) 일본표해록, 풍계 현정, 김상현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7.5. 37쪽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선원 36명이 제주도 산방산 앞바다에 상륙하였다. 737쪽

## 2) 대한해협 항해일지

이번 항해에는 선장 1명, 기관장 1명, 항해사 7명, 선주 1명이 승선하였으며, 근무는 3교대 2시간씩 항해를 담당했다. 여수에서 출항할 때 바다의 상태는 아주 평온하고 파고도 높지 않았다. 남해 동부 먼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할 무렵에는 유의파고가 2.0m이상으로 높았고 바람이 풍속 14m/s이상 세차게 불어 배가 많이 흔들렸다. 자정 무렵 대한해협(Korea Strait)을 거쳐 대마도 남쪽 공해상을 통과할 때는 풍량이 더욱 높게 일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범선 항해는 바람을 자연스럽게 타면서 항해를 해야 배가 덜 흔들리고 안전성이 좋은데, 레이다에 의지하여 직선 코스로 항해할 때는 배가 정말 요란스럽게 요동쳤다. 사이카이시(西海市) 마츠시마(松島) 해역은 200년 전에 풍계 현정 선사가 지나갔던 곳이다.

## 2.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에 나타난 나가사키현 표류 항로

### 1) 대흥사 천불전 조성 경위

이번 항해는 풍계 현정 선사가 1821년 편찬한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에 나오는 표류 지역을 직접 답사하기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2013년 8월 5일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에 소재한 대흥사 천불전을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 제1807호로 지정했다. 해남 대흥사는 호국정신과 법희선열의 문화(文化)가 살아 숨 쉬는 도량이다.<sup>3)</sup> 875년(신라 헌강왕1) 도선 국사가 당에서 귀국하여 비보사찰로 5백 개의 사찰을 지을 때 함께 창건하였다고 한다. 1604년(선조37) 서산대사가 대흥사를 삼재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만세토록 파괴됨이 없는 곳이라 하며 자신의 의발(依鉢)을 대둔산에 전할 것을 유언하여, 그 뒤부터 선교 양종의 대사찰로 발전하였다.

서산대사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3.26.~1604.1.23)은 조선중기의 고승이자 승군장으로 1592년 조일전쟁(朝日戰爭, 임진왜란, 1592~1598)이 일어나자 전국에 격문을 돌려 각처의 승려들이 구국(求國)에 앞장서도록 하였다.<sup>4)</sup> 구국의 승장(僧將)으로 큰 전공을 세우고 나라를 구하여 선조로부터 최고의 존칭을 하사받아 산중에서 주석하다가, 1604년 1월 묘향산 원적암(圓寂庵)에서 나이 85세, 법랍 67세로 입적하여 해남 대흥사에 표충사(表忠祠)에 제향되었다.<sup>5)</sup>

1811년(순조11) 2월 야간에 대둔사 사찰 창고를 방문한 완도 가리포 첨사 일행의 횃불에

3) 한국불교문화사전, 불교문화연구원 편, 운주사, 89쪽

4) 한국불교문화사전, 불교문화연구원 편, 운주사, 409쪽

5) 북한사찰연구, 사찰문화연구원 편저, 묘향산 보현사(普賢寺), 245쪽

서 불씨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다. 지장전, 팔해당, 용화전, 적조당, 천불전, 대장전, 약사전, 가허루 등 대흥사 여러 전각이 소실된다.

완호 선사는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중흥 발전시킨 초의 선사의 스승으로, 1813년에 대흥사 사찰의 중건을 맡게 되어 천불전을 함께 조성한다. 선사는 능주 쌍봉사에 계신 풍계 현정(楓溪 賢正)에게 천불전에 모실 천불(千佛)을 의뢰하여 풍계 선사는 경주 남산<sup>6)</sup>자락에 있는 기림사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불전 불상을 조성한다. 현정 스님은 속성이 밀양 박씨로 집안이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집안의 후손이었다.

천불전 불상을 조성한 기림사는 경주 함월산 자락에 있는 절로 신라 때 인도 승려 광유(光有)가 창건하여 임정사(林井寺)라고 불렸다. 150년 후 원효(元曉, 617~686)가 중창하고 머물면서 기림사로 이름을 바꾸고 이 곳에서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를 저술했다.<sup>7)</sup> 기림사는 붓다가 머물렀던 스라바스티(Shravasti)의 기원정사(祈園精舍)에서 유래한다.<sup>8)</sup> 기원정사는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舍衛城) 남쪽 1.6킬로미터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최초 불교사원으로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이라고도 한다. 붓다가 45년간의 수행과 전법기간 동안 24회의 우안거(雨安居)를 지내고 금강경을 설한 장소이다. 당시 7층의 가람이 있을 만큼 웅대한 규모였다.

초의 선사의 상좌인 대강사 범해 각안(梵海 覺岸, 1820~1896)이 쓴 ‘천불조성약기千佛造成略記’(『범해선사문집(梵海禪師文集)』에 의하면, 현정이 천불을 조성할 때 처음에 경산(京山)화원 8명으로 일을 시작하였지만, 마지막 점안을 할 때는 경산 화원 9명, 영남(嶺南)화원 24명, 전라도(全羅道)화원 11명이었다고 적었다.

## 2)대흥사 천불전의 표류 경위

1817년 11월16일 경주 기림사에서 천불을 소달구지를 이용해서 경주 장진포로 향한다.

11월18일 완도 상선에 불상을 싣고 장진포를 출항해 동해(東海) 울산 장생포로 가는데 배가 무거워 5일이 걸렸다.

11월23일 울산 장생포에서 완도 상선에 불상 232위를, 함경도 홍원 상선에 768위의 불상을 나누어 싣고 항해를 하다.

11월24일 두 상선은 다음날 울산 군령포에 무사히 도착한다.

11월25일 두 배는 동래로 항해하다가 심한 바람과 기상변화를 만나 완도상선은 연안을 타고 동래항으로 들어가지만, 홍원호는 3일간 표류를 해 오시마섬(大島, <https://goo.gl/RSgGLP>)에 표착한다.

11월29일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에 속해있는 오시마섬에 표착하여 일본 관리와 문답을

6) 경주 남산 거례의 땅 부처님 땅, 윤경렬, 불지사, 20쪽

7) 한국불교문화사전, 불교문화연구원 편, 운주사, 63쪽

8) 구글 지도 <https://goo.gl/pR1sQZ> (단축주소와 사진)

통해 일본 서해도 축전국 종상군 대도포(日本 西海道 筑前國 宗像郡 大島浦)임을 알고 도움을 청(請)한다. 여기서 5일을 머물고 이동하여 조선관이 있는 나가사키까지 예인하여 출항한다.

12월3일 무나가타군(宗像郡) 스야자키우라(津屋岐浦, <https://goo.gl/DXxssL>) 10일간 체류. 지금의 후쿠쓰(福津市)이다.

12월10일 남도포(藍島浦, 相島 아이노시마우라, <https://goo.gl/8sHR8B>) 당백포(唐白浦)도착. 9일 체류. 90리 항해하다.

11월23일 100리를 가서 아이노시마섬(柏島)에 도착

12월24일 호자도(呼子島, 요부코 唐進市 가베시마(加部島, <https://goo.gl/gtEUsf>)도착

12월28일 100리를 가서 삼울도(三栗島)도착

12월29일 100리를 가서 서도(西島, 니시지마)도착

1818년 1월2일에 450리를 가서 나가사키항에 도착한다. 나가사키에 놀러온 야마토(大和 繪) 화가 우키다 잇케이(浮田一蕙, 1795~1859)는 조선 승려들과 만나 필담을 나누고 1838년에 조선표객도(朝鮮漂客圖)를 남긴다. 불화에서 비롯된 채색화는 자연과 풍속을 선과 색채로 부드럽게 그려내는데 이를 야마토에라고 한다. 재일사학자 이원식 선생이 1996년 일본 교토의 고서점에서 우연히 그림과 시 2수를 발견한다.

4월14일 나가사키를 출항

4월18일 히라도(平戶島, (<https://goo.gl/nBZ9CN>)도착

5월 3일 이키섬 (<https://goo.gl/JNuUK4>) 출발, 480여리를 가서 대마도 도착

6월17일 대마도 남쪽 출항, 복단 도착하여

6월18일 대마도 대풍도 출발

6월19일 웅천(熊川, 진해) 가덕도 천성진(天成鎭, (<https://goo.gl/u4nrGn>)도착, 480리 이동

6월27일 부산진 도착, 동래부 조사 방문, 7일간 조사를 받고

7월 5일 동래를 밤에 출발하여, 7월 6일 동래 왜관 통과, 7월10일 통영 도착

7월13일 통영 출발, 장흥 향일도 도착. 1861년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 장흥지역의 섬 지도에도 확인이 안 됨.

7월14일 해남 앞바다 도착

7월15일 대흥사에 도착하고 8월15일 대흥사 천불전에 천불상을 봉안한다.

### 3)대흥사 천불전 불상의 도착지 추정 장소

풍계현정 선사는 『일본표해록』에 7월14일에 해남 앞바다에 도착했다고 기록했다. 해남 앞바다는 고달도선소(古達島船所)가 있었던 해남군 북평면 남창마을로 추정된다. 남창마을 (<https://goo.gl/Sjccbu>)에서 대흥사까지의 거리는 약 23km이다. 남창은 완도군 군외면과

인접한 바다에 있는 선소<sup>9)</sup>(船所)마을로 해남군과 완도군을 이어주는 중요한 국도 13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 마을의 ‘북평 용줄다리기’는 연산군 때 시작된 500년 전통의 용줄다리기다.

#### 4)대흥사 천불전 불상의 “日” 표시와 다산 정약용의 편지

불상이 일본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산 정약용은 8월11일 완호 선사에게 일본에 갔다 온 768여구의 불상에 “日” 한자를 표시했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보내, 완호 선사는 천불전에 모시기 전에 불상 바닥에 기록을 남긴다.

2002년 6월 9일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다산 탄신 250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정민 교수는 완호 선사와 다산 정약용 간의 주고받은 편지를 논문으로 발표했다.<sup>10)</sup> 다산은 당시에 『대둔사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많은 승려를 제자로 두었다.

#### 5)대흥사 천불전 불상의 문헌 기록

해남 대흥사 천불전 불상에 대한 기록은 사찰의 유명한 화원승(畵員僧)이었던 풍계 현정 스님의 『일본표해록』을 비롯하여 범해 각안(梵海覺岸, 1820~1896)이 작성한 『천불조성악기』에도 나온다. 범해는 은사인 초의 선사와 호의 시오(鎬衣始悟)선사가 7개월에 걸쳐서 보고 들은 일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풍계 현정 선사의 귀국 후에 대마도는 1818년 5월 조선국에 전남 해남 승도 15명과 선원 12명의 표류민<sup>11)</sup>과 구조경위, 송환 경위를 알리는 표차사(漂差使)를 동래부에 파견하고 진기한 토산품을 선물한다. 이것은 경상감사를 통해 조정에 보고되었고 조선국 예조참의 윤정렬(尹鼎烈)이 1818년 7월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 평공에게 답서와 별품을 보낸다. 이로써 양국간의 표류민 외교적 절차가 모두 끝난다.

9) 고지도로 본 경사우수영의 선소 특징과 유적현황, 한샛별, 섬의 시대, 바다의 시대를 열다,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5.8.20., 375쪽

10) 다산 탄신 250년 기념 학술대회, 정민, 2002.6.9. "작년 겨울 석불이 동쪽으로 떠내려가 눈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누군들 노인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람을 받아 배가 와서 뜻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 누군들 노인을 위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동파의 『대아라한찬(大阿羅漢贊)』에 말하기를 “어느 것이 셋이고 어느 것이 일곱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대둔사의 석불 또한 이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훗날 뒤라서 어느 것이 먼저 온 300개의 부처이고, 어느 것이 동쪽으로 떠내려갔던 700개의 부처인 줄 알겠습니까? 반드시 부처의 등애다 모두 작은 전자(篆字)로 ‘일(日)’자를 써서 표시로 삼아 일본으로부터 온 것임을 적어둔 뒤라야 서로 뒤섞이는 탄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은 모름지기 초의(艸衣) 의순(意順)과 함께 의논하십시오.(중략)“.

11) 표민대화의 사료적 가치, 문경호,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15년 제6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176쪽

## 6)쌍계사 16나한 불상의 일본 표류

법성은 1616년에 성주에서 태어나 17세에 가야산 해인사에 출가하였다. 1654년 봄에 경주 천태산에 들어가 쌍계사 나한전에 모실 16나한 불상을 조성하고 바닷길을 통하여 경남 하동 쌍계사로 불상을 이운한다.

5월에 경주에서 바다로 항해하다 뜻하지 않게 동래 해상에서 폭풍을 만나 17일을 표류하여 멀리 동해 울릉도를 지나 북해도까지 표류한다.<sup>12)</sup> 선원 26명과 쌍계사 16나한 불상이 실린 이 배는 2년에 걸쳐 일본 사람들의 친절을 도움 받아 먼 곳까지 갔다가 모두가 살아서 돌아온다. 법성의 표류 이야기를 들은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이 『곡운집(谷雲集), 법성전<sup>13)</sup>』에 수록했다.

## 3. 맺음말-향후 연구과제

2016년 4월 25일 오후 2시 나가시키 시민들의 환송을 받고 출항하여 범선 코리아나호는 4월 26일 오전 10시경에 여수 엑스포신항으로 돌아왔다.

항로는 일본으로 갈 때보다 남쪽인 고토열도(五島列島) 북단인 히라시마섬(平島) 해역으로 정하고 출항했다. 파고는 0.5m~0.8m로 모든 해양기상이 양호했다. 바람이 알맞게 잘 불어주어 돛을 올리고 힘차게 순항했다.

그동안 범선을 타고 동해 울릉도, 독도(獨島), 일본 나가사키, 홍도, 어청도, 격렬비열도, 남해안 등 여러 해역을 항해하였는데 이번 항해에서 바람이 세고 파고가 높은 날 돛은 정말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다.<sup>14)</sup>

돛을 올려 펼치고 바람을 읽어 자연스럽게 순응하면 아무리 거친 바다에서도 배는 안전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일본표해록』에 나오는 흥원호 뱃사공의 올바른 지혜와 전통항해기술 덕분에 표류민과 천불전 불상은 온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다.

풍계 현정 일행을 태운 흥원상선이 일본에서 돌아와 7월5일 동래를 출발해서 해남까지 10일이 걸린 것은 순전히 조류와 돛을 이용한 전통항해 방법이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웅기배<sup>15)</sup>나 조운선<sup>16)</sup>같은 배는 거의 사라지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건조한 배와 해양전시관의 전시 목적으로 만든 몇 척의 작은 범선만 남아있다.

강진 웅기배를 60년 이상 운항했던 신연호(85세) 뱃사공의 항해기술<sup>17)</sup>은 국립해양문화재

12) 쌍계사 16나한과 대흥사 천불, 일본을 표류하다, 법회와 설법 2010.9, 이종수,

13) 곡운집(谷雲集) 법성전, 한국문집총간

14) 요트경기의 전략과 전술 날짜고 슬기롭게 1, 데이비드 델렌바우, 대한요트협회, 2011.4.30., 185쪽

15) 웅기배와 전통항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12.28. 102쪽

16) 고려시대 조운선 (마도1호선) 복원 보고서, 2015.9, 15쪽

17) 전통선박 조선기술3 강진웅기배, 2011.12, 17쪽

연구소에서 하나씩 채록되고 있다. 옹기<sup>18)</sup>는 흙그릇에 드는 것으로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틀어 말하는데, 1970년대 30척씩 있었던 강진 옹기배들은 1975년 플라스틱 그릇의 출현과 낚젓물

광명단 사건으로 된서리를 맞아 점차 쇠퇴한다.

코리아나호의 정학익(76세) 기관장은 동해 바다 및 울릉도와 연근해, 베링해 원양어장 등을 50년 이상 항해하였다. 최영석(84세) 선장은 1960년대부터 부산해양대학교에서 실습선 갑판장과 교관과 미국 배의 용어사전 번역과 교본을 만들고 외국 선박회사에서 오래 기간 근무했다. 원로들의 경험담을 채록하고 남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 불상을 실은 흥원호의 일본 표류와 환대, 송환의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나가사키항 오하토터미널’과 대형 크루즈(cruise)<sup>19)</sup>가 정박하는 ‘나가사키 마쓰가에 국제터미널’앞에 건립해서 과거 한·일간의 있었던 선린우호(善隣友好)의 정신을 적극 알리고자 한다.

지난 ‘2015 나가사키범선축제’에서는 나가사키와 네덜란드 교류 400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2018 나가사키범선축제’에서는 풍계 현정 선사가 편찬한 『일본표해록』의 내용을 옛 지도와 문헌과 나가사키 방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대흥사 불상 일본 표류와 표류민 송환을 기리는 2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자 한다.

18) 뿌리깊은나무, 옹기점, 오소백, 1979.6

19) 크루즈산업의 이해, 이경모, 대왕사, 2004, 34쪽



## 『해동제국기』의 『琉球國之圖』의 원본에 대하여

이 근 우 ■ 부경대학교 사학과

1471년에 신숙주의 명의로 편찬된 『해동제국기』는 15세기를 중심으로 한 한일관계사 연구의 핵심적인 사료 중 하나이다. 『해동제국기』에는 일본 본국 지도를 비롯하여 일기도와 유구국의 지도가 있다. 현재로서 일본 본국 지도의 원형이 될 만한 지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15세기의 일본 지도는 대단히 희귀하고, 『해동제국기』의 일본 지도가 일본 지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정도다. 『해동제국기』의 「琉球國之圖」 역시 유구국 전토를 상세하게 나타낸 최초의 인쇄 지도이다.

그런데 『해동제국기』의 「유구국지도」(A)와 거의 흡사한 지도가 오키나와현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몇 년 전에 밝혀졌다. 아직 우리 학계에서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현재는 유구국이 일본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로서는 큰 관심이 없는 지역 혹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609년 薩摩藩이 유구국을 정벌하여 속지로 편입하기 이전까지 유구국은 조선과 교린관계를 맺고 있던 독립된 왕조 국가였다. 명과도 긴밀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산을 조선과 일본으로 유통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였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보면 오키나와(유구국)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1. 道安이 가져 온 博多、薩摩、琉球相距地圖

이러한 유구국에 관한 지도로서 처음 언급된 것이 1453년(단종 1년) 博多의 상인이자 유구국의 사절을 자처하고 조선을 찾아온 승려 道安이 가지고 온 지도이다. 예조는 단종 1년 5월 11일에 도안에게 연회를 베풀어주면서 도안이 한 말을 적어서 아뢰었다.<sup>1)</sup> 그 중에 ‘博多、薩摩、琉球相距地圖(B)’가 보인다. 이 지도야말로 『해동제국기』 「유구국지도」와 같은 박다 살마 유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지도이다(A, 그림 1 참조). 도안은 博多의 상인이었고, 상선을 타고 유구국까지 교역을 하러 다녔고, 이때 유구국 중산왕이 도안의 배를 태워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조선인을 돌려 보낸 것이다. 도안의 발언 속에 언급된 박다 살마 유구에 대한 정보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 사람 4명이 표류하다가 臥蛇島에 정박하였는데, 그 섬은 琉球島와 薩摩의 사이에 있어서 반은 유구국에 속하고, 반은 살마에 속한다.
2. 유구국왕의 동생이 군사를 거느리고 岐浦島를 정벌하다가 조선인들을 발견하였다.
3. 유구국과 살마가 서로 통호하기 때문에 博多 사람으로 살마를 거쳐서 유구국에 가는데 장애가 없다.
4. 와사도에서 3일 노정으로 加沙里島에 이르렀다.

또한 도안은 「日本琉球兩國地圖」(C)의 모사화 4벌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1벌은 궐내에 들고, 나머지는 의정부, 춘추관, 예조가 보관하였다고 한다.<sup>2)</sup> 이 C지도가 아마도 B지도와 같은 지도일 것이다. 만약 C지도가 일본과 유구를 각각 그린 지도였다면, 전체를 지칭할 때도 각 4벌이라고 하고 이들은 나누어 보관할 때도 각각이라고 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조에서 도안이 유구국의 사정을 B지도를 가지고 설명하였는데, 그 지도는 다시 가져가고 전혀 다른 지도를 4벌이나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海東諸國紀』의 A지도는 도안이 가져와서 예조 등에 보관되어 있었던 B·C지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현립박물관의 「琉球國圖」(D, 그림 2 참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는 가능성이 높은 추정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琉球國圖」(D)가 발견됨으로써 A지도와 D지도가 거의 유사한 지도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D지도는 1609년 유구국이 살마변에 편입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서 단종 대에 도안이 가져온 지도(B)의 또 다른 사본으로 생각된다.<sup>3)</sup>

1) 『朝鮮王朝實錄』 端宗 元年 五月 十一日 宴琉球國 中山王使者道安于禮曹. 禮曹錄道安之言以啓 “一, 去庚午年, 貴國人四名, 漂泊于臥蛇島, 島在琉球, 薩摩之間, 半屬琉球, 半屬薩摩. 故二名則薩摩人得之, 二名則琉球國王弟, 領兵征岐浦島而見之, 貢獻國王, 王置于闕內, 厚加撫恤. (중략) 一, 琉球國與薩摩和好, 故博多人經薩摩往琉球者, 未有阻礙. 近年以來, 不相和睦, 盡行擄掠. 故却從大洋迤邐而行, 甚爲艱苦. 今我等出來時, 商船二艘, 亦被搶擄. 因示博多, 薩摩, 琉球相距地圖.

2) 『朝鮮王朝實錄』 端宗 一年(1453) 七月 四日 己未/禮曹啓: “日本僧道安齋來日本, 琉球兩國地圖. 摸畫四件, 粧褙成簇, 一件入內, 其餘分藏于議政府, 春秋館及本曹.” 從之.

3) 秋岡武次郎, 『日本地圖史』, 河出書房, 1955.

## 2. 沖繩縣立博物館의 琉球國圖<sup>4)</sup>

1980년에 이미 島尻勝太郎이 오키나와 현립박물관의 「유구국도」가 『해동제국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浦添市史(1981)에 일부가 영인되어 수록되었으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2003년에 安里進이 首里城研究會에서 이 지도가 『해동제국기』 「유구국지도」의 원도일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유구국도」는 현립박물관이 1978년에 시내의 모처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채색지도로 지도 왼쪽 위에 “琉球國圖 奉納 天滿宮廣前 元祿九丙子 八月吉辰”, 왼쪽 아래에는 “松壽菴 竹森道悅奉上／熊本伊右衛門入道圓齋七十一歲書焉”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이를 통해서 이 지도가 1696년(元祿 9)에 竹森道悅이 구주 대재부 천만궁에 봉납하였으며, 지도를 그린 사람은 승려인 圓齋라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竹森道悅은 福岡藩 黒田家の 家臣의 한 사람으로 조부는 竹森新右衛門次貞((1550-1621)이고, 아버지는 新右衛門利友(1599-1674)이며 1625년 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19세 때 경도에 가서 의술을 배우는 한편, 藤原惺窩의 아들인 羽林集陰으로부터 經史를 배웠다고 한다. 이후 五島에서도 활동하였고, 福岡으로 돌아와 貝原益軒 및 그 제자 竹田春庵과도 교유가 있었다. 1699년(원록 12)에 죽었다.

「琉球國圖」의 지도가 갖는 특징은 1609년 살마번이 유구국을 침공하기 이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점이다. 흔히 유구사 연구에서는 1609년 이후를 近世琉球, 그 이전부터 12세기 경까지 古琉球라고 하는데, 고유구보다는 혹은 국가가 성립된 것이 중세이므로 중세유구라고 부르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薩摩藩을 통해서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인 유구국은 1696년(원록 9)에 國繪圖로서 유구국도를 작성하였다.

중세유구와 근세유구의 차이점은 첫째, 원래 유구국에 공조를 바치던 奄美諸島가 살마번의 직할지가 되었다는 점, 둘째, 16세기 중엽부터 南蠻貿易이라고 불리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무역이 쇠퇴하였다는 점이다. 중세유구에서는 유구 本島人, 日本人, 江南人이 잡거하는 상태였으며, 남만의 선박도 那覇에 입항하였다. 또한 御物城(見物具足)은 강남 남만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奄美諸島가 더 이상 공조를 바치지 않고 남만무역의 중심이 坊津 長崎로 옮겨가면서 사람, 선박이 붐비고 물품이 넘쳐나던 중세유구는 쇠퇴하였다.

구스쿠라고 불리는 유구국의 성채도 유구국도에 보이는 것처럼 중세유구에는 여러 개가 존재했지만, 근세유구에서는 수리성, 今歸仁구스쿠(17세기까지), 中城 정도였다.

「琉球國圖」(D)와 『해동제국기』의 「琉球國之圖」(A)의 가장 큰 차이는 사찰과 신사에 대한 기록이다. D지도에는 國聖寺 慶禪寺 法音寺 護國寺 波上熊野權現이 기록되어 있다. 파상웅야권현은 현재의 波上宮으로 추정되지만, D지도가 모사되던 1696년에는 이들 사찰은

4) 오키나와 현립박물관 소장 琉球國圖에 대한 조사성과는 深瀬公一·渡辺美季, 沖繩縣立博物館所藏琉球國圖(琉球大學, 2004)에 의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모두 폐사가 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 사찰과 신사에 대해서 「유구국지도」에서는 대부분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琉球內 즉 琉球의 영역은 喜界島, 奄美大島, 沖永良部島, 思柯美, 伊平屋島, 伊是名島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思柯美가 日本과 唐土의 경계. 至大島二十五里라고 하였으므로, 사가미가 엄미대도 주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臥蛇島는 半屬琉球, 半屬薩摩로 되어 있다. 『해동제국기』에서도 分屬日本琉球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토카라 해역이 15세기 중엽의 중세 일본과 유구의 경계임을 알 수 있다.<sup>5)</sup>

波上護國寺가 세워진 것이 1523년 이후인데, 「유구국도」에 이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후반 이전의 상황을 보여준다. 한편 지도에 표시된 長虹堤(石橋)가 건설된 것이 1451~1452년 사이이므로, 「유구국도」의 제작은 1452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도안이 완성된 직후인 1453년에 조선에 가져온 것이다.

「유구국도」는 항로를 붉은색 선으로 나타내었다. 남구주 엄미대도 사이는 大隅半島 東岸에서 種子島 屋久島の 연안을 거쳐 토카라열도를 거쳐 엄미대도에서 이르는 항로와 薩摩半島 西岸에서 口永良部島를 경유하여 토카라열도를 넘어 엄미대도에 이르는 항로, 薩摩半島 西岸에서 토카라열도 서안을 우회하여 남하하여 엄미대도에 이르는 3가지 항로가 있다. 다시 엄미대도로부터 남쪽으로 뻗어나가 德之島를 거쳐 나패에 이른다. 나패에서는 서쪽으로 항로가 표시되어 있어서, 久米島를 거쳐 花島까지 이어져 있다. 서쪽으로 연결되는 항로는 강남(중국), 남만(동남아시아)과 연결된 항로로 판단할 수 있다.

「유구국도」는 당시로서는 지리표시에 있어서도 대단히 자세한 지도이자, 일본과 유구국 사이의 해역의 분할, 항로까지도 기록한 주목한 지도이다.

### 3. 「琉球國之圖」와 「琉球國圖」의 차이

그러나 『해동제국기』의 「琉球國之圖」(A)와 오키나와 현립박물관의 「琉球國圖」(D) 지도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A지도는 上松浦 琉球 薩摩를 기준으로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去上松~里, 去大島~里, 去琉球~里, 去薩摩州~里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琉球國圖』는 博多 琉球 薩摩를 기준으로 기록하였으며, 그 거리도 自博多, 至琉球와 같이 나타내었다. 이는 도안이 조선의 예조에서 보여준 B지도의 명칭과도 잘 부합된다. 그래서 A지도가 왜 博多가 아니라 上松浦로 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道安이 조선에 바친 지도 B를 『해동제국기』 편찬 단계에서 어떻게 왜 수정·개편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5) 村井章介, 「中世国家の境界と琉球・蝦夷」, 『境界の日本史』, 1997.

이미 道安으로부터 입수한 B지도를 조선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목판본으로 제작하여 인쇄하는 단계에서 기술적인 제약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sup>6)</sup>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의견을 덧붙여 보고자 한다.

먼저 왜 기준지점이 博多에서 上松(浦)로 바뀌었을까? 이는 아마도 조선의 입장에서 상업이나 교역의 중심인 博多보다 왜구의 거점 중 한 곳이고 대마도-일기도-상송포로 이어지는 항로의 종점인 상송포를 중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海東諸國紀』의 「日本國西海道九州之圖」에서 구주 북부의 지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博多 志佐 押打 呼子 上松浦 下松浦 佐志 田平 등이다(그림 3, 그림 4 참조). 博多와 비교하면, 押打 呼子 佐志 田平 등은 작은 어촌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곳은 조선 전기의 왜구의 근거지였고, 壱岐島를 분할해서 지배하는 세력들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조선의 관직을 받은 왜인들도 있었다. 博多와의 상업적인 교류보다 왜구 대책에 부심하고 있었던 조선으로는 琉球國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博多의 상인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유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선은 왜구에 붙잡혀 간 백성들의 쇄환이 일차적인 목적이었고, 유구국과의 교류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道安이 가지고 온 B지도(D지도의 원본)는 博多 지역 혹은 博多商人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海東諸國紀』의 「琉球國之圖」(A)은 왜구와 왜구에게 붙잡혀 간 조선인 쇄환이라는 시선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博多를 기준으로 한 B지도를 입수한 다음 왜구의 거점 중 하나인 上松浦를 기준으로 개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참고해야 할 것은 조선의 고위 관인으로서 유일하게 유구국을 다녀온 인물이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해동제국기』의 「日本國對馬島之圖」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李藝이다. 그는 1416년 유구국을 왕환하였다.<sup>7)</sup> 당시 조선의 관인들은 외국에 사절로 파견되면, 반드시 왕환과정과 획득한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중에서는 항로의 방향이나 거리를 상세히 표시한 것들이 적지 않다. 이에의 유구 왕환 보고서에 上松浦를 기점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에서 유구국으로 갈 경우 福岡을 거칠 필요가 없이, 대마도·일기도에서 상송포·오도를 경유하여 가는 편이 자연스럽다.

또한 D지도에서는 日向國 大隅國 薩摩國 등으로 되어 있는 지명이, 「琉球國之圖」(A)에서는 日向州 大隅州 薩摩州로 되어 있다. 또한 D지도에서는 慶禪寺 國聖寺 法音寺 波上熊野權現 護國寺 등의 사찰과 신사 이름이 보이지만, A지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장려하는 조선의 國是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深瀬公一郎 渡邊美季, 「沖繩縣立博物館所藏『琉球國圖』」, 琉球大學, 2004. 167쪽.

7) 『朝鮮王朝實錄』太宗十六年一月二十七日 遣前護軍李藝于琉球國. 上聞本國人爲倭所擄, 轉賣琉球國者甚衆, 命遣藝請刷還. 戶曹判書黃喜啓曰: “琉球國水路阻遠, 且今遣人, 煩費甚多, 莫如不遣.” 上曰: “懷土之情, 本無貴賤之殊. 借使貴戚家有如此被擄者, 豈計劇費?”

## 맺음말

『해동제국기』의 「유구국지도」(A)는 오키나와 현립박물관 소장 「琉球國圖」(D)는 공통적으로 1453년에 道安이 조선에 제출한 「博多・薩摩・琉球相距地圖」(B)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실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두 지도의 비교를 통해서 원본이 된 지도가 1452~1453년 사이에 제작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D지도는 博多를 기점으로 한 데 대하여, A지도는 上松浦를 기점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한 D지도에 기재된 사찰과 신사의 이름을 A지도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琉球國에 속한 해역을 A지도에는 ‘屬琉球’라고 하였으나, D지도에는 ‘琉球內’라고 하였다. D지도가 모사된 1696에는 琉球가 薩摩藩에 소속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일본인의 입장에서 ‘屬’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內’라고 개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유구가 살마번에 ‘屬’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A·D지도는 B지도를 原圖로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변개를 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지도는 A지도와 비교하였을 때 일부 誤字로 보이는 글자도 있다. A·B·D 지도의 상호관련성에서 대해서 이제부터 보다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D지도의 발견으로 『해동제국기』의 사료적인 가치가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D지도가 原圖인 B지도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A지도가 제작된 것은 1471년이고 D지도가 모사된 것은 1696년으로 200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지도를 다시금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 개항 전 일본의 조선연안 정보 입수와 해도 제작 및 활용

한 철 호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 1. 머리말

1875년 일본은 명목상 측량을 앞세워 운요호(雲揚號)사건을 일으켰고, 결국 이를 빌미로 조선정부의 사죄와 개항을 강요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하였다. 일본은 서구 열강들이 월등한 군사력을 토대로 불법으로 측량을 자행했던 사례를 응용해 오히려 측량을 명목으로 군사행동을 강행했던 것이다. 당시 국내의 연안 측량을 영국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일본이 측량을 명분으로 내세워 운요호를 파견한 것 자체가 일종의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일본이 서구 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한 뒤 해안 측량을 중요성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 일본은 조선영해를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항해하기 위해 해안 측량권을 반드시 조약에 삽입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일본은 조선정부의 사죄와 강화부 부근 지점의 개항 이외 조선영해의 자유항행, 즉 해안측량권을 반드시 조약에 삽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제7관과 제9관에서 일본은 조선연안 측량권과 圖志제작권을 확보하고 일본 측량선의 상륙권과 그 보호를 보장받았다. 이들 조항은 군사적인 시위 및 도발, 개항장의 일본거류민 비호와 이를 위한 군함 파견의 필요에서 설정된 것이었다. 해안 측량의 목적은 명목상 선박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상 조



선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적·경제적 발판을 마련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sup>1)</sup> 실제로 이들 조항에 근거해서 개항 후 일본은 조선해안 전역을 상대로 측량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한국에서는 개항 전후 일본이 조선연안을 측량한 실태와 그 성격을 본격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지,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강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조선연안 측량 과정이 일부 다뤄졌을 뿐이다. 그 반면 일본에서는 일본연안 측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조선연안 측량에 관해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sup>2)</sup>

일본의 연구는 일본뿐 아니라 침략의 대상이었던 臺灣・중국・琉球・조선연안에 대한 측량과정과 그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이들 연구는 어디까지나 일본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조선연안의 측량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략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조선연안 측량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강화도조약 이전 일본이 조선연안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상황, 또 조선연안을 측량하고 海圖를 제작・활용한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2. 일본의 조선연안 정보 입수 상황

일본의 해안 측량 전담기구인 수로료<sup>3)</sup>는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이전부터 조선해안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수로료는 측량 기술과 장비의 부족으로 일본 연안도 제대로 측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 연안을 측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수로료는 하야시(林子平)의 「조선국전도」 이외에 조선의 연안을 실측한 지도마저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수로료는 외무성 등 각 관청으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조선 연안의 실상이 직간접적으로 담겨져 있는 영국 등 외국의 수로지와 해도를 확보하는 데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수로료는 조선과 외교교섭을 벌이면서 조선의 상황을 상대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었던 외부성으로부터 조선 정보를 입수하였다. 1872년 8월 하나부사(花房義質) 外務大丞 등은 부산의 왜관을 접수하기 위해 가스가함(春日艦)을 타고 조선으로 파견되었는데, 이에 대비해서 외무성은 프랑스와 미국이 제작한 江華島의 測量圖와 편자 미상의 ‘朝鮮國海岸之圖’을 확보하고 있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당시 프랑스와 미국이 攻擊했던 강화도의

1)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朝鮮總督府中樞院, 423~427, 523쪽; 김경태, 1973, 「병자개항과 불평등조약 관계의 구조」 『이대사원』 11, 19~21쪽; 1994,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비평사, 33~35쪽.

2)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横山伊徳, 2001, 「十九世紀日本近海測量について」 『地圖と繪圖の政治文化史』(黒田日出男 等編), 東京大學出版會; 中嶋逞, 1994, 「明治期刊行海圖の表題の變遷について(1)(海圖番號1~400)」 『水路部技報』 12; 小林茂, 2011, 『外方圖—帝國日本のアジア地圖—』, 中央公論新社; 竹内正浩, 2013, 『地圖で読み解く日本の戦争』, 筑摩書房 등이 있다.

3) 일본 수로부는 1871년 10월 병부성 해군부 수로국, 1872년 4월 해군성 수로국과 11월 해군경 직할 수로료, 1876년 9월 해군 수로국, 1886년 4월 해군 수로부를 거쳐 1886년 6월부터 수로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본고에서는 강화도조약 이전의 다루므로 편의상 이들을 통칭해서 수로료로 적는다.



측량도는 요코하마(橫濱)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군함 모노카시호 등이 소지했던 근대적인 해도로, 외무성이 입수해서 베낀 것이었다.

또한 ‘朝鮮國海岸之圖’는 편자를 알 수 없고 ‘詳細한 図面’이 없는 ‘繪圖’였다. 따라서 수로료는 이를 외무성에서 빌림과 동시에 당시 도쿄부근에 정박하고 있던 러시아군함이 이 회도의 도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외무성에 그 대여를 의뢰하였다. 그 이전에 러시아군함으로부터 ‘조선과 쓰시마(對州)의 細圖’를 차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외무성은 곧바로 가나카와현(神奈川縣)에 전보로 문의했으나 정박 중인 러시아군함이 없었던 탓에 지도를 구할 수 없었다.

결국 수로료는 외무성에서 빌린 ‘朝鮮國海岸之圖’ 혹은 ‘朝鮮國圖’ 2매를 ‘書寫’하였다. 단, 原圖에는 ‘洋字’가 불분명한 장소가 있는 것은 그대로 베꼈다. 곧이어 수로료는 2종의 ‘조선국도’를 각각 4부와 2부씩 ‘書寫’해서 군함에 제공해주었다. 또한 1872년 8월경 수로료는 龍驤艦으로부터 差出한 ‘九州 西海로부터 중국[支那]・朝鮮海에 이르는 航海圖’(혹은 “중국 해안 上海로부터 北部朝鮮海邊에 이르는 航海圖”)와 ‘朝鮮東海岸 및 지일(チイール)島之邊의 航海圖 切繪圖’를 ‘書寫’하였다. 이처럼 수로료는 조선과 쓰시마(對馬)부근의 지도를 외무성이나 군함으로부터 차용해 이를 ‘臨寫’해서 ‘略地圖’를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대체로 ‘寫圖’로써 임시로 공급하였다고 전해진다.

한편 수로료는 영국 등 구미 각국이 제작한 해도와 수로지를 입수해 간접적으로나마 조선에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였다. 1871년 11월 수로료는 비축한 해도가 적어 업무를 추진하기가 매우 곤란했으므로 외국의 圖誌를 구입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 비용을 그 다음 해 예산항목에 포함・요청하였다. 아울러 1872년 2월 영국 『차이나 파일롯』을 한 부도 보유하지 못한 수로료는 각 함대와 海軍兵學校에 차용을 신청했는데, 도쿄마루(東京丸)에 유일하게 한 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872년 3월에도 수로료는 해도를 비축・저장해두기(蓄藏) 위해 해군대보 가쓰 가이슈(勝海舟)에게 요청해서 해군창고를 조사한 결과 수많은 해도를 찾아냈다. 이들은 戊辰의 役 때 구 막부 脫艦이 구비한 네덜란드와 영국의 해도였다. 또 동시에 가쓰가 소장한 미국 해도와 ‘모리-風圖’를 요청해 받았다. 그 외에 요코하마의 외국상인 하루토리(하토리?)로부터 구입하거나 혹은 함대에서 비축한 현품을 차용해서 이를 寫取해 겨우 일본과 중국 해안의 해도를 모았으나 조선관련 해도나 지도는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는 수로료가 해도를 보관한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1872년 9월 수로료는 영국 해도 2427매(가격 164파운드 13실링 10펜스)와 수로지 99권(가격 21파운드 5실링 6펜스)를 영국에 주문할 것을 상신한 끝에 허가를 받았으며, 가와무라(川村純義) 海軍少輔가 유럽을 시찰할 때 영국의 수로지와 해도 등을 주문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영국 수로부(UKHO)가 최고의 측량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광범위한 수로지와 해도를 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1873년 7월에 수로료는 1872년 가스가함이 조선에서 입수했던 「朝鮮全圖」(丙 1)라

는 이름으로 급히 조각·제작하였다. 편자를 알 수 없는 동양 古式의 지도를 편찬한 「조선전도」의 付言에 의하면, 이 지도는 방향이나 경계·위치가 대부분 그릇되고 척도(척척)도 일정하지 않아서 북부의 압록강 두만강 상류의 형태가 편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水蠶가 표시되는 등 조선의 각 지명과 島名이 기재된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정확한 측량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탓에 거의 해도라고 볼 수 없는 단점을 지녔음에도, 「조선전도」는 수로료가 최초로 제작·간행한 조선지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873년 8월에는 함대의 지휘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중국과 조선의 해도를 備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당시 수로료가 비축한 것은 통틀어 10종이었는데 부분을 소유하지 않아 겨우 ‘寫圖’로 그 요구를 충당하였다. 당시 함선에는 定數가 설정되지 않고 요코하마의 외국상인 ‘하루토리-’서점 외에 매점할 곳도 없어 그 보충하기 곤란한 요구가 불규칙한 것이 당국의 가장 고민스런 바였다. 이어 그해 10월 수로료는 외국 서적상인 하루토리-로부터 해도 수백 매를 구입했으며, 제1정묘함으로부터 하코다테(函館)해전의 포획품인 영국과 네덜란드의 해도 77매를 납부받았다.

1873년 11월에 수로료는 그 전해 9월 가와무라 海軍少輔가 유럽을 시찰하고 돌아오면서 구매를 위임한 圖書와 측량기구를 전달받았다. 그 중에 당대 최고의 측량기술과 성과를 축적하고 있었던 영국 수로부 간행의 「支那日本畵圖」(28매), 「세계도」(2매), 「아시아洲」(7매) 등 해도와 『중국수로지(The China Sea Directory)』와 각종 수로지(Pilot) 등은 조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 이어 1874년 1월에는 마쓰무라(松村) 해군중좌가 영국에서 귀국할 때 가와무라가 미처 갖고 오지 못한 잔여분을 갖고 들어와 병학료에 전달함으로써 수로료는 당시 영국 수로부가 출판한 수로지와 해도를 대강이나마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수로료의 영국 수로지와 해도의 구입·확보는 무엇보다 臺灣征伐을 준비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지만, 조선의 정보를 축적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영국 해도에는 조선의 전반적인 위치와 형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을 뿐, 육지와 해안 상황의 정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조선에 관한 상세한 지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는 1874년 7월경 옛 산다번(三田藩)의 士族인 야쓰(野津茂)가 임진왜란 당시 제작된 ‘朝鮮國從圖面’을 헌상했을 때 태정관 정원이 이것을 ‘奇特’하다고 여겨 報獎金을 하사했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지도는 야쓰의 선조가 번조 쿠키 요시타카(九鬼嘉隆)를 따라서 임진왜란에 참전했을 때 입수했던 것이며, 原本은 좀을 먹어 많이 손상되었지만 校正해두었다가 헌상했던 것이다. 이미 250년 이상이 지난 조선지도를 소중히 여길 만큼, 당시 일본에서 조선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헌상 당시 兵庫현령이 함께 제출했던 添書에 의하면, 이 지도는 조선의 팔도를 각각 별도로 圖示한 「八道切繪圖」인데, 거기에 첨부된 「內地里程表」는 당시 잘 알려졌던 것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1874년 5월 臺灣征伐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면서 조선해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져갔다. 이는 그해 7월 수로료가 소장한 중국해도들 중 가와타(河田) 海軍主計監이 臺灣蕃地事務局에 제공한 ‘支那海圖之部’에는 「自朝鮮至上海」가 포함된 사실로

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당시 수로료는 대만정벌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1873년 1월 『臺灣水路誌』를 발간했을 뿐 아니라 대만을 측량하거나 관련 해도를 급히 간행했는데, 그 다음은 조선이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로료의 이러한 수로지 편찬과 해도 간행 작업은 강화도사건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1874년 11~12월경 수로료는 러시아 해도의 번역을 외무성출사 諸岡通義에게 부탁하였는데, 그 후 이를 전례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이는 그 이전에 이미 수로료가 러시아 해도를 입수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때 수로료가 입수했던 러시아 해도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뒤에서 살펴보듯이, 1875년 2월 수로료가 러시아 해도인 「조선동해안도」를 간행했던 사실로 미루어, 그 중에 「조선동해안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 3. 조선연안 측량과 해도 제작 및 활용

1875년 9월 일본은 교착상태에 빠진 조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빌미로 측량을 앞세워 雲揚號사건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雲揚號사건을 도발하기 7개월 전인 1875년 2월에 발간된 해도가 바로 「조선동해안도」(해도번호 제54호)였다. 이는 러시아 해도인 「조선동해안도」의 覆版으로, 당시 러시아어의 역자가 없어 橫濱에 정박한 러시아함 ‘가이다마-쿠’에게 질문한 뒤 이 해석을 얻어 지명 등을 표시한 것이었다. 「조선동해안도」의 注記에도 1854년 뿌차틴(E. V. Putiatin)이 지휘하는 러시아군함 빨라다(Pallada)호와 올리부차호 등이 조선의 동해안을 탐사한 성과를 바탕으로 1857년 「조선동해안도」를 제작했다고 쓰여 있다. 수로료는 「조선동해안도」를 간행한 직후인 1875년 3월 영국 해도의 복판으로 「부산항」(제60호)과 조선의 북부에 있는 러시아의 「大祖伯德灣(Peter the Great bay)」 등 조선관련 해도를 간행하였다.

한편 1875년 5월 일본정부는 운요호와 第2丁卯호를 부산에 파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바로 직전 부산에 파견되었던 외무성 副官 히로쓰(廣津弘信)가 조선국의 내항에 편승해서 쓰시마와 조선 사이의 해로를 측량 등을 명목으로 군함을 파견해 조선과의 외교문제를 타결하자는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일본정부는 정한론자들의 반격을 우려해서 군함 파견을 극리비에 발령하였다고 한다. 5월 25일 부산에 도착한 운요호는 6월 20일 새벽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북상해 함경도 영흥만에 진입했고, 영일만을 거쳐 부산에 기항한 후, 7월 1일에 나가사키로 복귀함으로써 제1차 측량 겸 시위운동을 완료하였다.

第2丁卯는 일본 山陰道와 北陸道を 측량하기 위해 출항하는 도중 시모노세키에서 이 명령을 전달받고 조선으로 차출되었다. 第2丁卯는 즉시 山陰道 등의 측량을 멈추고 일행 7명 중 3명이 급히 도쿄로 돌아왔다. 당시 수로료에는 전용 측량함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 관할 아래 측량 기구를 적재해서 군함을 측량함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운요호가 조선 측량을 명목상 목적으로 삼아 파견되었지만 실제로는 측량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명

분을 살리기 위해 第2丁卯가 차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 第2丁卯의 해군중위 요시다(吉田重親)와 소위보 외 3명은 의 후쿠우라(福浦)・쓰시마의 이즈하라(嚴原)・아스우라(阿須浦)・니시도마리(西泊) 등을 측량하고, 6월에는 조선해협을 건너 조선으로 나아가 12일에 부산에 입항해 운요호와 합류하였다. 운요호와 第2丁卯호는 조선 측을 위협하기 위해 대규모 포격훈련을 자행했지만, 조선 측의 반발로 양국 간의 교섭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운요호는 부산을 출발해 조선의 동해안 영일만과 여흥만을 측량하고 6월 말에 다시 부산으로 왔다가 나가사키로 돌아갔다. 또 第2丁卯는 부산 일대의 상황을 조사하고 그 연안을 측량한 뒤 운요호보다 늦은 7월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후 운요호는 쓰시마 해만 측량 업무에 종사했다가 다시 조선 동남서 해안부터 청국 누장 주변까지 항로를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9월 20일 계획대로 강화도사건을 일으켜 국제 문제를 야기하였다. 11월에 第2丁卯는 조선 파견을 명령받고, 나카무타 쿠라노스케(中牟田倉之助) 서부지휘관의 관할에 속해 가네기(金木) 소위보 외 1명이 乗組를 이뤄 조선의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출항하였다. 측량지방은 수로료로부터 협의할 것이라는 뜻을 전달받았다.

한편 운요호사건이 일어나자 수로료는 조선 관련 해도와 수로지를 제조・공급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비록 이에 관련한 문서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수로료는 엄청난 양의 수로지 寫本과 해도 寫圖를 임시로 만들었다. 예컨대, 1875년 10월에 수로료는 육군성으로부터 넘겨받은 프랑스 해도 한강해도 3매를 급히 등사하였다. 이들 해도는 강화도 東岸부터 제물포 부근에 이르는 「塩河」第一・第二, 그리고 강화도 북안부터 한강 상류에 이르는 「小陵河」 등이었다. 孟春艦은 이들 寫圖 3매를 공급받고 황급히 조선으로 출항하였다. 당시 조선 서해안에 관련해서는 영국 해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粗略한 프랑스 해도가 그나마 유일해서 귀중하게 여겨졌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방면에서 프랑스 해도를 요구했지만, 등사하기가 매우 곤란했다고 전해진다. 또 수로지의 경우, 일찍이 대만번지사무국에서 번역한 영국의 『지나해수로지』 1부와 프랑인이 작성한 조략한 航海記事의 번역본을 訂正해서 寫本으로 만들어 그 급한 수요를 충당하였다. 이는 강화도 사건 이후 1876년 1월 구로다 변리대신이 조선으로 건너가 담판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도지의 간행은 매우 적은 부분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단 유사시나 그 외에 도지를 요구할 때에는 原備의 영국 해도가 있더라도 그 저장품이 없었던 탓에 혹은 그 저장품이 전혀 없는 것은 거꾸로 각 관청이나 함대의 비품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탓에 「寫圖」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수로지의 경우에도 번역・寫字의 수단으로 필요한 부수를 調製해서 간신히 급한 수요에 응하였다. 그렇지만 水路記事는 당시 원서가 기술이 조략할 뿐 아니라 역자도 水路語에 능통하지 않았으며, 해도 역시 그 가치가 거의 수로기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 해도와 수로지 등은 사용자에게는 금과옥조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1875년 11월 프랑스 고용인 가스통 가리는 조선관련 지도와 해도 총 12매를 일본 정부에 ‘헌납’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군함이 제작

한 것이었다. 12월 말 일본 정부는 이를 ‘奇特’한 일로 여겨 당시로서는 고액인 50엔을 보상금을 ‘하사’하였다. 명목상 ‘헌납’이었지만, 실질상 매매였던 셈이다. 이들 지도와 해도의 주요 부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미국 군함 등으로부터 빌려 베꼈거나 육군성으로부터도 빌려 寫圖를 제작한 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조선 해안의 정보를 중시했던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75년 12월말 수로료는 프랑스 해도를 참고로 「塩河」第一(제55호)·第二(제53호)과 「小陵河」(제59호) 등 해도를 간행하였다. 이것이 미국 군함 등에서 입수한 것인지 육군성으로부터 빌린 것인지, 혹은 가스통으로부터 ‘헌납’받은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전과 달리 이들 해도를 등사가 아니라 대량으로 간행했던 것은 분명히 강화도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대규모 군함과 사절단을 파견하려는 계획에 대비한 것이었다. 이어 1876년 1월 수로료는 조선 관련 도지를 제조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 製圖手傳 4명과 編修寫字生 2명을 증원하였다. 그 결과 영국 수로부 간행의 1874년판 『支那海水路誌』의 조선부분을 번역한 『朝鮮水路誌』의 寫本을 만들어 각처에 배부했으며, 그 후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 사본을 공급해주었다. 당시 민간활자업자는 讀賣新聞社와 東京日日新聞社 외에는 규모가 작아서 인쇄할 능력이 없었는데, 두 신문사마저도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수요에 제대로 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로료는 궁여지책으로 寫字本을 만들어 겨우 공급했다고 한다.

또한 1876년 1월 수로료는 조선문제를 취급할 관리용으로 규슈와 조선 근해 해도 5揃을 급히 제출해달라는 해군성의 지시를 받고 그날 즉시 제출했으며, 조선에 파견될 함선들용으로 조선과 일본 간의 항해도와 강화도 해도 10揃을 공급해주었다. 그럼에도 개척사 소할에서 해군 소관으로 바뀌어 조선으로 급히 동원된 玄武・矯龍・函館 등 선박 3척에 해도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수요처가 많아서 응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졌다.

심지어 1876년 1월 第2丁卯는 예정된 일본 本洲 북서안 長門과 能登 간의 측량을 중지했으며, 측량요원은 해도를 간행하는 데 차출될 정도였다. 당시 긴급하게 측량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 있으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측량함을 이용하고 싶다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음에도, 中牟田 서부지휘관이 당시의 사정, 즉 조선문제로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측량사업은 중지되고 측량과 직원은 寫圖사업을 보조하는 데 동원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수로료는 강화도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대규모 군함과 사절단을 파견하려는 계획에 대비해서 해도와 수로지를 간행·공급하는 데 전념하였다.

아울러 수로료는 영국 해도(제2347호)인 「日本附朝鮮圖」가 요코하마商館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3월 50전에 구입하기로 약정했는데, 開拓判官으로부터 조선에 관한 急用으로 곧바로 상관에서 轉買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고 이에 응해주었다. 또한 수로료는 조선사건에 관련된 해도 구입비를 별도로 지출해달라고 요청해서 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1876년 2월 강화도에서 조일 양국 간에 담판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조선에 관련된 해도

를 매우 급히 요구하는 상황은 지속되었다. 따라서 2월부터 4월까지 수로료는 측량과와 제도과의 직원을 합병해서 해도를 등사하는 데 종사토록 한 결과 약 370매를 만들었다. 당시 수로료가 조선동해안을 제외하고 소유한 조선해도는 간행도·寫圖·영국 해도 등이 있었다. 간행도는 1875년 12월 프랑스 해도의 覆版인 「塩河」第一・第二과 「小陵河」이고, 사도는 「삼림도부근」·「강화도부근」·「헤르난도島錨地」·「물치도묘지」와 영국인 제임스(I. M. James?)가 내놓은 「塩河及小陵河假圖」이며, 영국 해도는 「부산항」·「해밀턴항」·「조선남부총도」과 미국이 略測한 「평양급대동강」 등이었다. 이들 해도 중 영국 해도인 「부산항」과 「해밀턴항」 이외의 것은 ‘매우 粗略한 약측도’였다. 또 수로료는 영국 해도의 原圖가 몇 매에 불과했기 때문에 모두 寫圖로 공급하였다.

한편 1876년 2월 第2丁卯는 조선에 파견되어 있던 서부지휘관 소관의 측량함에서 상비함대로 편입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후 조일수호조규의 체결과 개항에 수반되는 조선연안의 측량에는 측량경험이 얇은 상비함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수로료 역시 측량함의 부족으로 일본 국내연안을 제대로 측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그럼에도 군사행동은 곧 측량에서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수로료는 조선해안을 직간접으로 측량하고 많은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로료는 1876년에 「부산항」을 비롯해 조선관련 해도를 간행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 『水路雜誌』에 게재함으로써 조선보다 더 조선연안에 대해 정확한 해도를 제작·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곧 조선을 침략하고 나아가 강탈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 개항기 일본의 조선어업 침략과 부산주재 일본영사의 어민관리

최 보 영 ■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sup>1)</sup>

## 1. 머리말

바다 자원의 가치는 국가의 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국가의 크기에 비해 무한한 길이의 하천 끝에서 펼쳐지는 한반도 연안은 水産의 寶庫다. 조선정부가 한반도 연안 내 수산자원의 무한함과 이를 대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에 대한 보호와 육성이 절실하다고 파악한 때는 국운이 완전히 기울어 버린 융희 2년(1908)이었다.<sup>2)</sup> 일본도 1876년 조선에 「조일수호조규」를 강요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의 바다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되자 조선에서 일본이 갖던 배타적이고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다. 일본은 이듬해 「朝日通商章程」(1883)을 체결하면서 그 속에 지리적·기술적 이점을 살려 일본인에게 조선연안 내에서 어업을 허가하는 조항을 삽입시켰다.<sup>3)</sup> 이로써 ‘密漁’ 형태로 조선연안을 약탈해 오던 일본어민들은 합법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선의 바다로 침략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1889년 조선과 통어장정을 체결해 통상장정에서 마련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통어지침을 마

1)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2) 『韓國水産誌』序文. 『한국수산지』의 탄생 배경이 된 한국정부의 연안어업조사사업도 통감부의 시정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한국 농상공부의 수산국 직원과 이사청 및 수산조합 소속 기술원의 협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3)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으로도 불리는 이 조약의 일본어 명칭은 「朝鮮國ニ於テ日本人民貿易ノ規則」이다. 이하 통상장정이라 약칭함.

련하여 본격적으로 조선연안을 장악해 갔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힘입어 급기야 1908년 10월 일본은 한국정부를 압박해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조선연안에 대한 일본인의 어업권을 인정케 하였다. 또 11월에는 「어업법」을 공포해 조선의 모든 연안에 대한 어업권 부여권한을 일본이 장악하였다.<sup>4)</sup> 이는 곧 ‘한일 어업합병서’로서 1910년 한국이 일제에 병탄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바다는 일본에 강제 병탄된 것이다.<sup>5)</sup> 즉 한국병탄 이전에 이뤄진 어업병탄은 일본정부, 주한일본영사 그리고 일본어민이라는 세 주체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무한한 경제력의 산실인 조선 바다의 장악은 일본에게 조선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해 주었고, 바다의 강탈은 조선에게 독립의 기회를 빼앗은 셈이 되었다. 이러한 해양자원과 해양주권의 중요성 때문에 일찍이 박구병을 선두로 한 많은 연구자들이 조선연안 어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들 연구는 조선연안의 어종, 어업활동, 어업권에서 시작해 어업을 통한 한일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발전해 나갔다.<sup>6)</sup> 이와함께 일본의 조선침략 방식의 하나로 어민진출과 어업침탈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발표되면서 일본의 침략에 맞선 조선정부와 어민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축적되었다.<sup>7)</sup> 특히 일본의 어업침탈의 배경과 근거가 되었던 어업 관련 조약들을 분석한 연구가 눈에 띈다.<sup>8)</sup> 이처럼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일본의 조선어업 침탈과정과 의미는 어느정도 구명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어민의 진출과 조업 그리고 이들의 보호와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주재 일본영사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언급할 뿐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 연해에서 행해지는 일본어민의 어업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하는 역할은 어업행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한일본영사가 맡았다. 일본어민의 어업과 관련된 영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1889년에 체결된 통어장정이다. 12개 조항으로 이뤄진 통어장정 중에서 1조, 6조, 11조가 이에 해당한다. 조선 개항장에 파견된 일본영사는 경상도는 부산영사, 강원도와 함경도는 원산영사, 전라도는 목포영사가 각각 관할해야 하고 이들 영사에 의해 조선의 모든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이 관리되는 것이다.

조선연안 중에서 부산은 일본과 거리가 가까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류 일본인 수도 가장 많으면서도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좋은 어장을 갖고 있었으므로 일본어민의 진출 1순위였다. 이에 따라 조선연안으로 조업을 하러 진출하는 일본인을 관리하는 업무가 부산주재

4) 「漁業法」, 1908년 11월, 統監府告示 제187호.

5) 장수호, 「조선왕조말기 일본인에 허용한 입어와 어업합병」, 『수산연구』 21, 2004, 72쪽.

6) 박구병, 「한국청어어업사」, 『부산수대논문집』 17, 1976 ; 「한국명태어업사」, 『부산수대논문집』 20, 1978 ; 「한국정어리어업사」, 『부산수대논문집』 21, 1978 ; 「한반도연해포경사」, 태화출판사, 1989 ; 「어업권제도와 연안어장소유이용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부산수대논문집』 30, 1983 ; 「한일근대어업관계연구」, 『부산수대논문집』 2, 1966.

7) 한우근, 「개항후 일본어민의 침투(1860~1894)」, 『동양학』 1, 1971 ; 김옥경, 「개항후 어업에 관한 일연구」, 『대한제국연구』 5, 1986 ; 이영학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침투와 조선어민의 대응」, 『역사와현실』 18, 2001 ; 송희선, 「일본의 어업수탈과정에 대한 고찰—한반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석사논문, 2004 ; 한임선, 「개항이후 일본의 조선해 通漁논리와 어업침탈—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경대석사논문, 2009.

8) 장수호, 「조선왕조말기 일본인에 허용한 입어와 어업합병」, 『수산연구』 21, 2004.



일본영사에게 맡겨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때 부산영사는 이들 어민에 대한 관련업무를 정부의 훈령에 의해 수동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이 점을 활용해 어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부산영사는 「漁船碇泊取締規則」을 마련하는 등 몰려오는 일본어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였다. 당시 영사의 일련의 활동은 일본어민의 조선침투에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본의 어업침략의 배경이 되었던 조일어업관련 조약들을 분석하고 일본어민의 조선진출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부산영사의 활동과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 2. 조일간 어업관계 조약과 조선어업 침략

1876년 「朝日貿易規則」에서 무항세를 인정하고 관세에 대한 명시를 받지 않은 조선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金弘集과 趙秉鎬를 수신사로 잇달아 파견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지 않은채 파견되어 일본과 협상테이블에 앉아보지 못하고 귀국했지만 일본 내 활동과정에서 이들은 청국 외교관으로부터 관세자주권 개념과 당시 일본정부가 서양과 치외법권과 관세에 관해 조약개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는 성과가 있었다.

조선의 조약개정 요구에 소극적이던 일본은 임오군란 후 조선이 청국과 맺은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조문 내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바꿔 새로운 통상장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1883년 5월 다케조에[竹添進一郎]를 조선에 파견해 당시 외아문협판 뮐렌도르프와 협상케 하였다. 관세자주권 획득을 목표로 협상에 임했던 조선정부는 임오군란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로 결국 자주적 통상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朝日通商章程」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1883년 7월 25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처음으로 어업에 관한 관계가 규정된 것이다. 제41조에서 “일본국 어선은 조선국 전라, 경상, 강원, 함경의 4도 해변, 조선국 어선은 일본국 히젠[肥前], 쓰구젠[筑前], 이와미[石見], 나가도[長門](조선 해안에 면한 곳), 이즈모[出雲], 쓰시마[對馬] 해변에 왕래하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허가한다”고 약정하였다.<sup>9)</sup>

그런데 수신사행과 조사시찰단원의 활동을 통해 근대적인 조약을 이해한 조병호가 작성한 조약초안에는 양국의 어업에 관한 조항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는 1883년 뮐렌도르프가 작성한 초안에도 없는 것이었다.<sup>10)</sup> 일본이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제3조 영향이 크다. 조일수호조규는 양국의 어민왕래는 규정하지 않고 다만 난파선의 구호와 해안측량권만을 삽입해 두었던 반면 조청장정은 제3조에 난파선 구호뿐만 아니라 조

9) 최덕수 편,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147쪽.

10) 조병호와 뮐렌도르프의 초안 원문은 최덕수 편, 위의 책(2010), 156~168쪽 참조.

선 서해안의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의 통어권을 청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

전근대부터 왜구문제는 양국의 외교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정부는 왜관을 설치해 이를 근절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처는 왜구의 난동을 억제할 뿐 연안어업까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았다. 일본어민의 조선연안에 대한 밀어는 계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일본밀어선에 대한 조선정부의 통제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스스로가 통어조약을 조선정부에 요청할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조청장정에 의한 통어규정은 일본에게 신경이 쓰일 만했다. 비록 조청장정은 한반도 서해 북부지역에 한해 통어를 허용한 것이지만 당시 청의 조선에 대한 간섭정도로 보아 통어구역을 점차 확대할지도 모를 일이었고 조일간 통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연안이 청국의 손에 합법적으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따라 일본은 통상장정 내에 통어조항을 삽입해 일본에서 가까운 지역이면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는 전라, 경상, 강원, 함경까지 통어권에 넣은 것이다. 조청장정과 통상장정 모두 상호주의에 입각해 양국 어민은 상대국이 지정한 해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당시 조선의 어업수준과 능력을 비추어 봤을 때 이들 조항은 일방적인 어업권의 강탈로 보아야 타당하다.<sup>11)</sup>

일본은 조선연안 어업권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888년에는 「조일통상장정」의 4도 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인천 및 경기연안에 대한 어업권을 획득했고<sup>12)</sup> 이듬해인 1889년에는 정식으로 양국의 어업에 관한 문제만을 다룬 「朝日通漁章程」을 체결해 조선연안 내 어업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 장정은 조선정부에게 소정의 어업면허세를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조선연안에서 잡은 어류의 매매가 가능해진 것을 물론이고 일본어민의 행패나 횡포를 조선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조처는 설정조차 되지 못한 일방적인 장정이었다.

조선이 얻은 어업면허세는 승무원 10명 이상에 10원, 5명에서 9명 이하는 5원, 4명 이하는 3원이고 면허는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1890년에 715척에 면허를 부여하기 시작해 점차 늘었고 1900년 2,131척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배는 한 해 평균 1,500척 정도였다. 이들이 면허를 얻기 위해 이들이 조선정부에 지출한 세금은 매해 2,200원에서 4,100원 정도인데 반면 이들이 해마다 얻은 수익은 대략 150만원 이상이었다.<sup>13)</sup> 즉 일본어민이 얻은 수익에서 조선정부에 낸 세금은 0.01% 수준으로 미미했다. 그런데 이는 면허를 받은 어선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불법적인 밀어선을 감안하면 이들이 조선에 면허세로 납부한 세금비율은 거의 없는 수준인 것이다. 예컨대 『韓海通漁指針』에 따르면 1890년 어업 면허를 받은 일본어선 수는 700척 정도지만 당시 조선연안으로 진

11) 이영학, 위의 논문, 1995, 157쪽.

12) 한우근, 위의 논문, 1971, 265~269쪽.

13) 각종 수치는 이영학의 논문(1995)에서 인용한 『通商彙纂』의 자료를 재정리함.

출한 어선 수는 2천 척에 달했다는 점이다.<sup>14)</sup> 이처럼 일본어민은 면허를 발급받는 절차를 무시하고 면허세 납부도 거부하면서 밀어를 자행한 것이다. 조선정부는 일본의 불법조업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수단도 능력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결국 통상장정과 통어장정 체결로 일본어민은 조약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폭발적인 조선진출이 이뤄진 셈이다. 일본어선의 조선연안 진출은 양국민의 어획경쟁을 통해 양국의 어구와 어법이 개량화되고 발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에 비해 무분별한 남획과 이로 인한 어류의 멸종, 양국민의 어업분쟁 그리고 조선의 영세한 어민의 몰락 뿐만 아니라<sup>15)</sup> 엄연히 지켜져야 할 해양주권에 심각한 침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양주권의 침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조선정부의 일면에서 이미 병탄의 기운이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다.

### 3. 「漁船碇泊取締規則」의 제정과 어민관리

1883년 조선과 일본이 정식으로 양국 연안 일부를 개방함으로써 육지의 생산품 뿐만 아니라 해양 자원마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각축장으로 변모하였다. 이 당시는 부산과 원산에 이어 인천이 개항되면서 조선재류 일본인 거류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담당할 영사도 파견되었다. 이들 영사는 관할구역 인근에서 조업하는 일본어선과 어민을 보호할 의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조일장정에서는 인천과 경기연안은 개방하지 않고 있었고 원산부근연안은 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본어선이 많이 진출하지 않았으므로<sup>16)</sup> 인천영사와 원산영사는 이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부산과 남해 전지역은 상당수의 일본어민이 조업했기 때문에 부산영사는 이들 어민에 대한 보호와 관리 그리고 통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했다.<sup>17)</sup> 조일통상장정 체결 당시 부산에는 총영사로 마에다[前田憲吉]와 사무대리 미야모토[宮本巖] 등이 파견되어 있었다.<sup>18)</sup> 미야모토는 마에다 총영사가 잠시 일본으로 귀국해 있던 시기인 1883년 12월 18일에 外務大輔 요시다[吉田清成]에게 부산 인근에서 활동하는 어선을 통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부산항 정박 어선에 대한 단속규칙 제정 촉구 건」에서 통상장정 제41조에 따라 조선 4도 연안에서 일본인 어선이 왕

14)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제6장 通漁の狀勢, 1903(이영학, 위의 논문, 1995, 169쪽에서 재인용).

15) 한임선, 위의 논문, 2009, 65쪽.

16) 장수호, 「조선왕조말기 일본인에 허용한 입어와 어업합병」, 『수산연구』 21, 2004, 62쪽.

17)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제6권, 고려서림, 1989, 500쪽, “在韓國帝國領事館管轄區域 一, 明治20年 11월 21일附 伊藤外務大臣發信 在韓近藤代理公使宛送 제9836호”

18)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제6권, 고려서림, 1989, 486쪽, 角山榮 編著, 『日本領事報告の研究』, 同文館, 1986, 489쪽. 마에다는 초대 원산영사이자 부산관리관에 역임한 인물로 부산에 익숙했으며 원산이 개항할 당시 원산총영사로 파견되었다가 이 시기 재차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다. 미야모토 역시 부산이 영사관으로 개칭된 후인 1882년 사무대리로 부산에 파견되었던 인물이다.

래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해관에 대한 절차만 있을 뿐 영사관에 신고하거나 수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밝혀두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부산은 일본인 어민이 조업하는 주요 지역으로 많은 어선이 모여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통제의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의 규칙을 두어야 한다고 제기하면서 초안으로 「當港碇泊漁船取締規則」을 덧붙였다. 4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이 규칙은 제1조에 부산영사관 관할 어선에 대한 규정, 제2조에 제1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부산거류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규정, 제3조와 제4조에 위에 해당하는 자는 거류지의 법칙을 준수할 것과 위반시 처벌할 것을 규정해 두었다.<sup>19)</sup>

이에 대해 요시다는 제2조와 3조는 불필요하고 제4조는 사법성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세 개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1조만을 제정한 「釜山港出入漁船取締心得」을 하달했다. 이로써 조일장정 제41조에 따라 조선국에서 물고기를 잡기하기 위해 부산항에 오는 배와 제30조에 따라 배의 수송품을 구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입항하는 배는 부산영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부산영사는 경상도와 전라도 인근 연안에서 조업하는 일본인 어민과 어선의 확인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통제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위경죄목을 비롯해 여러 규칙들은 시간이 지나고 거류인구가 많아지면서 점차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를 인식한 부산영사 무로다[室田義文]는 1887년 10월 위경죄목·가옥건축 규칙과 더불어 어선취체규칙의 개정을 본국정부에 요청하였다. 그 결과 어선취체규칙은 「어선정박취체규칙」으로 구체화 되었다. 모두 7개조로 이뤄진 이 규칙은 제1조에서 부산항에 정박하고자 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일정한 양식을 작성해 영사관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임시정박증의 신청과 발급, 부산항에서 새 어선을 만들때의 서식 등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부산영사는 조선연안 내 조업어민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 본국에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였고 일본정부는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한 영사의 의견에 적극 동조해 영사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한편 부산영사는 거류지 내 일본인의 정황뿐만 아니라 조선연안에서 활동하는 일본어민에 대해서도 파악해 일본정부에 보고하였다.<sup>20)</sup> 이들 보고는 자국민 어업상황뿐만 아니라 청국어선의 조업활동, 자국민 어획고와 큰 이익을 얻은 어민에 대해 승조원의 신상과 선단수·어구 및 어업방식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이뤄져 있다. 특히 일본어민의 증가는 조일 양국민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조심스레 마련하였다.

부산영사의 보고는 일본정부가 대조선연안어업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다. 예컨대 원래 일본은 조일장정이 규정한 조업가능 지역의 4도에 제주도와 울릉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했다. 그런데 조선정부는 특히 제주도는 농토가 없어 제주도민이 생계를 이어갈 방도는 어업 뿐인데 일본어민의 제주연해 진출로 인해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이로

19) 「在朝鮮國釜山港日本漁船取締規則制定一件」(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B11091813500);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近代史資料集成 5, 韓日漁業關係』, 국사편찬위원회, 2002년, 1~2쪽.

20) 「朝鮮國慶尚全羅兩道ニ於ケル我往漁者ノ情狀報告」(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 B11091820300);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近代史資料集成 5, 韓日漁業關係』, 국사편찬위원회, 2002년, 7~32쪽.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할 것을 제의했다.<sup>21)</sup> 조선정부의 이러한 요청은 부산영사의 보고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일본외무경 이노우에[井上馨]는 제주도도 일본인들의 출어가능구역으로 인식하면서도 조선정부의 요청에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것을 결정하였다.<sup>22)</sup>

이에따라 1884년 9월 26일, 마에다는 達 제16호를 내려 “조선국 경상, 전라, 강원, 함경 4도는 조일장정 제41조에 의해 어민의 조업이 가능하지만 이 중 제주도는 조선정부에서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당분간 제주도에 한해 조업하지 말 것”을 유달하였다.<sup>23)</sup> 외무경의 결정을 해당 부산거류 어민에게 알리는 이 유달 내용에서 마에다 영사 또한 이노우에와 마찬가지로 제주를 어업가능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맺음말

바다가 가진 절대적 가치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던 조선 정부는 차츰차츰 세력을 키워 조선의 바다를 잠식해 들어오는 일본의 해상세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밀어적 형태로 이뤄진 일본어민의 조선연안 어업은 1882년 조선과 청 사이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영향으로 1883년 조일통상장정으로 합법화 되었다. 이후 일본은 자국 어민을 보호하고 조선내 연안어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일통어장정을 체결하였다.

일본과 조선의 외교적 차원에서 이뤄진 양국간 어업약조는 실제 하부단위에서 시행되기에는 추상적이었다. 이에 조선에 파견된 영사는 현지의 사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자국 어민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활동하였다. 우선 당시 유일하게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였던 부산영사는 자국민 어선의 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1883년 「부산항출입어선취체심득」을 마련하였고 이후 늘어난 어선과 어민 관리를 위해 1887년 「어선정박취체규칙」을 제정하였다.

둘째는 영사관할 구역 내의 어민동태에 대해 본국정부에 비교적 상세히 보고하였고 일본 정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거나 거류일본인과 어민들에게 하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조일수호조규 이후 조선 내 자원의 침탈을 해상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선연안에 많은 일본어민의 출어를 장려하였다. 아울러 현지에 파견한 영사들은 단순히 본국정부의 하달을 통해서 움직였던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21) 『統署日記』 제3책 고종 21년 6월 15일조

22) 『日本外交文書』 제17권, #134,

23) 『釜山府史原稿』 제6권, 「漁業區域の制限布達」, 238쪽.

## 총독부 관리가 증언한 조선의 수산업

김 수 희 ■ 영남대학교

식민지 수산업 관련 증언은 1936년 조선 총어획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한 정어리어업과 정어리제조업에 관련된 내용이다. 조선 정어리 어획량은 1937년 약 139만톤으로 일본 다음으로 세계 2위에 달하는 최고 어업으로 급성장하였는데 이 발전 배경에는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었다.

이러한 총독부의 개발 정책에 대해 박구병을 대표로 하는 한국연구자들은 ‘수탈을 위한 개발’이라고 지적한다. 조선인어민은 어선과 어구, 어업자금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인에 비하면 매우 열악하였는데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1931년 어민 전업자 1인당 어획량을 비교하면 조선인은 222엔, 일본인은 4,620엔, 1척당 어획량은 조선인 739엔, 일본인 3,083엔이었다. 일본인 중에 영세한 어민도 존재했지만 전체적인 어업상황에서 보면 일본인은 정어나 고등어, 명태 등 자본이 많이 드는 대형 동력선 어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어업권제도에서도 일본인은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대상이 되었고, 조선인은 김양식이나 무동력선 연안어업에 종사하였다. 김양식업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여 겨울철 농한기에 조선인 부업으로 크게 각광받았다. 대부분의 조선인어민은 연안어업과 원시적인 捕貝漁業에 종사할 뿐 왕성한 수산업 발전은 일본인에 의한 어업이었다.

1940년을 전후하여 정어리어업은 사라졌고 일본의 배후 시장으로 개발된 조선의 김양식업은 해방후 조선어민들에게 식민지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해방후 일본 농림성은 자국 생산자 보호를 위해 조선산 김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밀무역 형태로 조선산 김은 유통되었다. 이후 일본과의 무역이 재개되자 일본은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수요철이 끝난 4월 이후에 방출하였다. 식민지기 엄격한 검사제 유지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었던 조선산 김은 해방후 일본시장에서는 불량품인 저가의 김으로 알려졌다. 일제시대 한국의 수산업은

일본 시장으로의 확대에 발전하였지만 해방후 시장을 상실하였고 금융적 지원도 없어 조선산 김은 판로를 잃었다. 총독부 관리 호즈미는 한국 수산업 발전은 총독부가 시행해온 수산 교육제도의 정착, 수산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철저한 검사제도뿐이라고 언급하였지만 일본으로의 수출 활로가 막힘으로써 수산업의 빈곤화는 더욱 가중되었다.

# 방게 현상과 바닷길

이 소 라 ■ 민족음악연구소

## 1. 시작말

방게라는 작으마한 동물이 있다. 주로 무논에서 사나 본데, 쌀방게와 똥방게로 나뉜다. 발은 모두 10개씩 달렸다. 왕발이 6개, 작은 발이 4개다. 쌀방게는 뽕그스럼하고 날개에 줄무늬가 있으며 식용할 수 있으나, 똥방게는 시커멓고 줄무늬가 없으며, 먹지않는다.

일노래 중에 ‘방게’라 하면, 먼저 전라북도 지역의 논매기소리가 떠오른다. 그런데 당진 지역을 취재해 보니, 모심을 때 방게소리를 부르는 마을이 적지않았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모심는 지대를 조사해 보면 벼씨를 직파할 때도 노래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모심는소리 한 종류의 문화영역이 논매기소리에 비해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것은 모를 공동으로 심는 작업형태가 두레 논매기를 할 때에 비해 훨씬 교통이 편한 시대의 산물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당진시 지역의 방게소리 류는 전북지역으로부터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관련하여, 그간 필자의 농요연구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인접 학문의 관련된 연구 성과를 듣고자 한다.



## 2. 당진시 지역 방계의 문화영역

당진시의 모심는 소리인 방계 류의 받음구 예는 “에헤 ~야, 흥어 ~ 에이히야, 히야, 에 ~오, 바에~흥게 ‘논다’(또는 ‘노더니 방아)’”이다. 동류가 예산군 고덕면 상장1리와 삽교읍 창정리, 서산시의 음암면과 운산면에 분포한다.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김신곤(1927년생.남.토민) 창 의 모심는소리 받음구 예는 “어기야 자자, 에헤 - 에헤이야 방계 흥게가 논다”이다. ‘어기야 자자’로 말문을 여는 것은 평택방면의 논매기소리인 안팎계를 연상시킨다.

당진시의 순성면 봉소리 차종기(1924년생.남.토민)등 창 의 방아타령, 석문면 통정1리 홍현섭(1938년생.남.토민)창 방아타령, 고대면 대촌1리 이정열(1919년생.남.토민) 창, 정미면 봉성리 이은만(1912년 면천면 문봉리 출생.남.27세까지 살고 봉성리 이주.22세부터 농사일 함) 창 의 ‘바에 흥게 논다’. 신평면 거산리 한영동(1920년 거산리 출생.남.30년정도 살다가 신평면 남산리 이주) 창 의 ‘흥게논다’(나열형 모심기도 가창함). 신평면 한정리 한주동(1906년 신평면 부수리 출생.남.한정리로 오랫동안 장가옴) 창 의 방아 류. 송악면 영천리 김영수(1938년생.남.토민)창 의 방아, 송악면 봉교리 이은권(1934년생.남.토민)등 창 (“에헤야, 이야 에헤에,에헤요, 방헤 흥게 놀던 방아”), 합덕읍 석우리 김동원(1912년생.남.토민)등 창 이 당진시 방계류 모심는 소리의 예이다.

예산군에서는 고덕면 상장1리 권두영(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출생.남.27세에 상장1리 이주) 창 (“에헤오, 아에 - 헤야 에헤야 에헤야, 아에 - , 흥게가 논다”를 복창)과 삽교읍 창정리 유영관(1933년생.남.토민)등의 창 (“에헤 헤요, 아헤 헤이 이야 이양 에헤야, 에헤요, 아헤 흥게 논다”) 모심는 방계 류의 예이다.

서산시에서는 음암면 탑곡리 최진옥(1916년생.남.토민)등의 창인 방아타령 과 운산면 소중1리 정달현(1927년 운산면 수당리출생.남.4세에 운산면 갈산리 입촌. 1960년경 갈산리에서 소중리 이주) 창 방아타령이 모심는 방계 류로 보인다.

예산군과 서산시의 이들 지역은 당진시의 인접지역들이라 당진시로부터 전파된 소리로 보인다.

## 3. 논맬 때의 방계 류 지역

### 3.1 전북

전북의 대표적인 논맬소리의 하나인 방계류는 그 문화영역(cultural area)이 비교적 넓

은 가운데서도 순창군을 비롯하여 임실군, 진안군 쪽이 보다 우세하며, 이웃 곡성군으로 가서는 다양하게 발달된 양상을 띠운다.

순창군내의 서북부 방면인 구림면, 쌍치면과 복흥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순창군에서는 다양한 방계 류 내지 관련된 유형이 수집된다.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학동마을 세가지 유형의 방계소리가 공존하는 고로 이들의 선율형에 근거하여 순창군의 유형을 살펴보면, 순창군에서는 중방계가 많고 느린방계도 발견된다. <순창 75><sup>1)</sup>는 느린방계, 그 이외의 것은 중방계에 소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순창군의 경우, 중방계가 느린방계 못지않게 느릿느릿 가창될 수 있다. 순창군의 중방계 류에는 열싸방계.입면형 중방계.연계(두목지기)형이 있다. 중방계 중에서도 <순창 25, 29의B, 31, 80>은 열싸방계로 묶인다. 팔덕면 월곡리 사람들이 ‘두목지기’라고 <순창 44>를 이름한 것은 속소리를 써서 처음부터 꺾어나가는 특색을 일컬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팔덕면 청계리 것<순창 55>과 비슷하여 ‘연계’ 형으로 분류해 본다. 연계형과 비슷하지만 ‘에헤야-’로 시작하는 것을 입면형 중방계로 나눈다면 <순창 45, 63, 81> 등이 이에 포함된다. <순창 7>은 입면형 중방계에 보다 가까우며, 메김선율은 4분의3박 9마디인데 비하여, 받음선율은 4분의3박 24마디로 훨씬 길다. 속소리 창법을 쓰며, 솔라도레미의 솔선법(S1.v1,2,5.t4)에 속한다. <순창 89의3>은 <순창 7>과 관련된 중방계인데 보다 간략히 가창된 것으로 여겨진다. <순창 7>의 받음구 예는 “에헤 헤야하 하 하하, 어허어, 어허히루 어허히루, 바양해 헤에야, 어허 허 허어허 허어허, 에헤로우호, 노올세 헤”이다.

고창군에서는 서부 방면인 무장면<고창 5>과 동부 방면인 신림면 무림리<고창 22>에 분포한다. 받음구가 ‘에리시구나’로 시작하는 <고창 22>보다 ‘에헤-,헤-야’로 시작하는 <고창 5>가 더 일반형이다. <고창 5>는 부안군의 아과시 및 전남 곡성군의 느린 방계소리에 해당한다. 무장면 옥산리에는 <고창 5>보다 조금 잦은 방계소리<6>가 공존한다. 역시 받음구의 시작은 ‘에헤 헤야’이다. <고창 5,22>의 메김구는 4음보 이상이지만 잦은방계소리<6>는 절반으로 짧다. 솔선법에 기음종지를 선호한다. <고창 22>에서 기음의 끝을 조금 올려 맺었다.

군산시에서는 대야면에만 분포한다.

익산시에서는 삼기면 오룡리와 용안면에 변격 방계 류가 분포한다. 이웃 임실군엔 덕치면 회문리<임실 7>와 관촌면 병암리<임실 8①>, 임실읍(진안군 마령면 출신)<임실 9①>, 성수면 오봉리<임실 10①>, 청웅면 구고리<임실 11①>, 신덕면 수천리<임실 12①>, 신평면 호암리<임실 13①>에 분포한다. 이웃 장수군엔 임실군과 남원시에 경계하는 서남부 장수군인 산서면 신창리<장수 1>에만 분포한다.

1) 본절의 악보 레는 [전북지방 논매기소리 총서](이소라,장동호,변정민 공저. 공주대학교, 민족음악연구소.2016출판 예정)게재의 내용이다.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고창군 : 무장면 옥산리(에헤야로 시작/중방게 공존),  
 신림면 무림리(변격; '에리시구나' 로 시작)  
 군산시 : 대야면의 죽산리(에헤야)와 보덕리(에헤야)  
 김제시, 무주군 : 분포하지 않는다.  
 남원시 : 평야부에 분포하며, '에헤야' 로 시작하고 '방게' 라는 어휘없이 '흥게노자' 로 맞는다. 주생면 제천리 서만마을, 송동면 송기리, 대산면 금성리 감성마을, 이백면 과립리와 보절면 신평리 하신마을에 분포한다.  
 정읍시 : 정우면 장소리(변격; 아리시구나...흥게), 산외면 정량리(받음구가 '에에야' 로 시작하고 있으나 '방게' 나 '흥게' 의 어휘가 없다)  
 부안군 : 부안읍 웅중리(느린 방게; 어리시구나로 시작하는 변격 흥게/ 잦은 흥게)  
 부안읍 내요리(마흥게), 보안면 남포리, 주산면 동정리  
 순창군 : 금과면 매우리(방애놀세), 금과면 수양리(에헤이,에헤어허로,노세),  
 유등면 건곡리(얼싸 방게), 적성면 지북리(얼싸 방게/방해흥게노세), 팔덕면 월곡리,  
 팔덕면 청계리(연게), 풍산면 반월, 동계면 구미리,인계면 갑동리(헤헬로 방애)  
 완주군 : 구이면 원기리, 비봉면 소룡리, 상관면 의암리, 용진면 용흥리  
 익산시 : 삼기면 오룡리(변격; 흥아 엉허로다), 용안면 덕용리(변격; 에헤야, 에루구나)  
 임실군 : 관촌면 병암리,덕치면 회문리, 성수면 오봉리, 신덕면 수천리,  
 신평면 호암리 두류마을, 청웅면 구고리 양기마을,삼계면 두월리(연게)  
 장수군 : 산서면 신창리.  
 정읍시 : 정우면 장소리(변격; 아리시구나...흥게), 산외면 정량리(변격; 허었네,구나)  
 진안군 : 백운면 덕현리(흥헤/방게), 마령면 평지리(방게/응게),  
 성수면 도통리(바에흥게/흥게방게)

## 3.2 충남

논맬 때의 방게류가 수집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sup>2)</sup>

당진시 : 모심을 때의 소리를 논맬 때도 응용한 정미면 덕마리 구자열 창(<당진 23③> '흥게놀더니 방아')이 있다.

홍성군 : 장곡면의 광성리<홍성 69>와 옥계리<홍성 70>, 결성면 성남리<홍성 78>.

아산시 : 평택시에 인접한 둔포면 시포리의 안팡게 류<아산 1③>.

천안시 : 병천면 봉학리<천안 7>, 풍세면 풍서4리<천안 20>

## 3.3 전남

순창군과 이웃한 전남 곡성군으로 가면 느린방게,중방게,잦은방게로 세분하여 발달되고,

2) 본절의 악보 레는 [경남지방 논매기소리 총서]상권,하권(이소라,장동호,변정민 공저. 공주대학교, 민족음악연구소.2015.)게 재의 내용이다.

곡성군과 경계한 담양군으로 가면 마흐흥게 형과 같은 변이형이 출현한다.

함평군 월야면 방애로세(<함평 60><sup>3)</sup>; 에헤야-하하아-헛, 에헤헤-헤이, 에-, 에이,오호 오-훗, 바양해-어엇,어,어로-,세“),

장성군; 서삼면(방애로다), 잉게타령(<장성 66>후렴; 예야, 예 - 에이야, 아예 아예, 잉게로다)<sup>4)</sup>

영광군; 묘량면의 방애로다

고흥군; 도덕면과 풍양면, 도양읍 쪽에서 모질 때 부르는 진방애타령(뭇방애타령)의 받음구 예는 “에헤야 - , 에 -이야, 방애 - 형게 논다”)<sup>5)</sup>은 전북의 방게소리와 유관해 보인다.

### 3.4 경기도의 안팡게 류

경기도 ‘방게흥게가 논다’의 받음구 예는 “어기야자자-허-, 에헤이-에 에헤이야, 방게, 흥게가 노온다-하”이다. 안성군.용인군.평택시와 같은 남부경기도에서 주로 수집되며, 화성군 정남면에서도 찾아진다. 남부경기도 현장에서는 이를 ‘안팡게소리’라고도 이름한다. 방게소리는 전북의 대표적인 논맴소리 중의 하나이며, 순창군.임실군.진안군 방면이 그 문화 중심을 이룬다. 순창군 방게소리의 받음구 예가 “에헤야 이-아, 허-어허이, 어허이 방해, 흐으응게 노세”임에 비하면 안팡게는 시작부분의 ‘어기야자자’와 끝맺음의 ‘논다’가 경기도적인 색채를 띠운다고 할 수 있다.

남부 경기도 안팡게(방게흥게가 논다)의 녹음지역은 다음과 같다.<sup>6)</sup>

안성(7마을); 고삼면의 신창리(호동)과 삼은리 출신 김기복 창, 공도면(웅교리),

대덕면의 진현리(용현)와 무어산리(모산리?) 유호영 창, 양성면(동항리),  
원곡면(성은리).

용인(2마을); 남사면의 완장리출신 박유선 창, 이동면(덕성리 선창).

평택(6여마을); 오성면(숙성2리), 서탄면(금암2리 안말), (평성읍),

포승면의 흥원2리·흥원1리, 현덕면의 인광1리와 현덕면의 황규영 창.

화성(3마을); 우정읍의 이화1리(\*변격; 받음구 예는 “나니나, 나니나, 니가 나니로구나  
나니나 방게가 논다”로, 경기민요인 니나노 방아타령과 방게논다로부터 영  
향을 받은 흔적), 정남면의 괴량4리·계향2리.

과천(1마을); (문원동).

3) 이소라, [함평의 민요]함평군.2002.51쪽.

4) 이소라, [장성의 민요]장성문화원,2003.

5) 이소라, [한국의 농요]제2집.현암사.1986.236쪽.

6) 이소라,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제4집.경기도문화원,2006.243쪽.

## 4. 전파 방법

의령군 동부지역을 문화중심으로 하는 <궁굴레>라는 논매기소리가 있다. 궁굴레의 문화 영역은 좁은 편이며 인접 창녕군 이방면이나 대합면에 전파된 정도인데 중간 전파가 없이 아산시와 천안시 일부지역에 분포를 보이는 것은 자연적 전파가 아니고 이주 등에 의한 전파라고 보여진다.

전북지방의 대표적인 논매기소리 중의 하나인 방계류가 당진시에서 모심는소리로 발견되는 것은 어떠한 연유일까?

평택시 부근 안팎계 류의 논매기소리 분포는 육로 또는 바닷길을 통한 사람의 이주와 정착에 의한 변형과 재 전파 현상으로 보인다.

당진시의 주된 논매기소리는 얼카덩어리 류와 아기다듬소리(넘차류, 비넘차류)이다.

본디 얼카덩어리류는 당진시를 포함한 서부 충남지역이 문화 중심이며, 중심지로부터 전파되는 과정에서 변형되어 청양, 공주, 아산 방면으로 전파되었다. 결합형 ‘얼카덩어리 잘 넘어간다’는 당진시 서부의 대호지면 조금리 . 마중리에 분포하며, 당진시 외에는 청양군, 공주시, 아산시 방면에 분포하는 파생형이다. 공주시에서 ‘얼카덩어리 잘 넘어간다 류’는 공주시의 북서부의 사곡면 운암2리에 분포한다. 사곡면 운암2리는 공주와 아산을 잇는 39번 국도 근처에 위치한다.

아기다듬소리(넘차 류 또는 비 넘차 류)는 홍성 결성농요의 건쟁이소리에 해당한다. 받음 구에 ‘넘차’라는 어휘가 나오느냐에 따라 양자가 구분된다. 당진시에는 고대면 대촌1리·성산3리, 대호지면 마중리·조금리·사성리, 면천면 성하1리, 신평면 신흥리, 석문면 통정1리, 송악면 반촌리·기지시리·영천리·봉교리, 순성면 봉소리, 정미면 덕마리, 합덕읍 석우리에 분포한다.

방계 류가 전해졌을 무렵엔 이미 얼카덩어리 류로 논매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진 지역에 정착하게 된 어느 선소리꾼이, 그가 전북의 고향에서 애용하던 방계 류를 모심으면서 응용하여 부르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당진시 대호지면은 정미면과 함께 1957년에 서산군으로부터 편입되었다. 대호지면의 모심는소리는 남부 경기도와의 교류로 보이는 하나류인 점도 흥미롭다.

## 5. 맺음말

당진시는 2/3가 바다에 접해있으면서, 북으로는 경기도의 인천시, 평택시, 화성시와, 남동으로는 충청남도의 서산시, 예산군, 아산시와 접하면서 해발고도 400m미만의 잔구성 구

릉지대를 형성하는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해안에는 연안 퇴적물에 의해 갯벌이 넓게 분포 되어 있어 큰 간척지를 만들고 있다. 간만의 차이가 극심하여 간조 시에는 4km 이상까지 갯벌이 나타난다. 당진시 지역은 간척공사를 1940년대부터 실시하여 논 또는 염전으로 이용했다.

당진시의 주된 논매기소리는 열카덩어리 류, 아기다듬소리(넘차 류, 비 넘차 류)이다. 특히 열카덩어리 류는 충남의 대표적인 논매기소리들로 당진시는 그 문화중심지역에 속한다.

전북의 대표적인 논매기소리 중의 하나인 방게 류가 당진시 지역에서 유용되고 있음은 전북 출신의 가창자가 바닷길 등을 통해 당진시 지역에 정착하여 살면서 논맬 때의 소리는 이미 있는 고로 모심는 소리로 유용한 것이 그 시작이라 보여진다.



[그림] 당진시 논매기소리 녹음지역

# 1920년대 지식인이 본 서남해

— 『동아일보』 「도서순례」 하의도 방면 기사를 중심으로

탁 현 진 ■ 한국지방사학과

## 1. 머리말

1928년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이었다. 목포 山亭里포구에서 압해도로 향하는 목선은 목포에다 채소를 팔고 돌아가는 여인네들로 초만원이었다. 이 배에 낯선 사내 하나가 올라탔다. 그는 자신을 기자라고 하였고, 앞으로 며칠 동안 근방 섬들을 둘러볼 예정이라 하였다. 아낙네들은 허기진 배를 생쌀로 채우기도 하면서도 옆사람이 얼마나 팔았는지를 궁금해 했다. 어떤 아이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혼절하기도 했다. 아무튼 그 사이 배는 목포를 떠나 압해도로 향하였다. 압해도로 향하는 낯선 청년, 그는 동아일보 기자 任鳳淳이었다.

동아일보에서는 1928년 일곱 개 도서 방면에 기사를 보내 그 일대의 섬을 취재하여 소개하는 「도서순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임봉순은 이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선발되었으며, 하의도 방면의 도서를 소개하게 되었다. 그의 견문은 1928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이렇듯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목격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서 1920년대 도서지역의 실상을 보여주고, 더불어 근대학문을 배운 지식인들이 도서지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그러나 「도서순례」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2012년에 들어 3편의 연구논문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민속학의 입장에서<sup>1)</sup>, 혹은 근

1) 박종오, 2012, 「『동아일보』 <島嶼巡禮>를 통해서 본 1920년대 도서 민속에 대한 인식」, 『도서문화』 제39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대관광의 입장에서<sup>2)</sup>, 혹은 식민지기 정치사상적인 입장에서였다.<sup>3)</sup> 위 연구들을 통해 동아일보가 「도서순례」를 기획한 것은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섬을 새로운 근대적 민족 공간으로 확립하려고 했다. 이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 세편의 연구논문들은 1920년대 도서지역으로 포괄하여 설명함으로써 각각의 도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고려하지 않은 면이 많다. 이러한 시각에서 2015년 백령도 방면의 순례만을 조사한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sup>4)</sup> 백령도편 만을 연구하여 그 지역의 특징을 여실히 잘 드러냈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상당부분을 「도서순례」 전체 내용에 대한 소개, 필자에 대한 소개, 민속과 설화에 대한 소개로 글을 채우고 있어 백령도 방면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보이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들을 인식하면서 이 글에서는 임봉순 기자의 시선에서 서남해 도서지역을 바라보고자 한다. 특히나 민속에 대해 근대지식인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리고 서남해 도서지역의 사회적 역동성과 농민운동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지식인들이 섬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 2. 도서순례의 시작

동아일보는 1926년 7월부터 1928년 5월까지 총 510회에 걸쳐 〈巡廻探訪〉을 연재하여 조선의 모든 지방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했다. 그리고 〈순회탐방〉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28년 6월 22일부터 〈島嶼巡禮〉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고군산열도, 거문도, 진도, 하의도, 백령도, 울릉도 등 일곱 방면에 각각 기사를 보내 그 일대의 섬들을 취재, 소개하는 연재 기사를 실었다.

기사 게재일	방문도서	회수	취재기자
1928.06.22.~07.02	고군산열도 방면	10회	宋鼎項
1928.07.03.~07.15	거제도 방면	10회	金科白
1928.07.17.~07.24	거문도 방면	7회	李益相
1928.07.26.~08.12	진도 및 완도 방면	16회	崔容煥
1928.08.13.~08.18	하의도 방면	6회	任鳳淳
1928.08.19.~08.31	백령도 방면	13회	金東進
1928.09.02.~09.12	울릉도 방면	11회	李吉用

2) 노기욱, 박창규, 2012, 「1920년대 島嶼巡禮」,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5권 2호, 역사문화학회

3) 이기훈, 2012, 「일제 강점기 섬과 섬사람들에 대한 인식」,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5권 1호, 역사문화학회

4) 유창호, 2015, 「어느 근대인의 서해5도 '巡禮' : 1928년 《동아일보》〈도서순례〉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3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하의도 방면은 총 6회가 연재되었으며, 담당기자는 임봉순이었다. 임봉순은 1897년 경기도 양주군 출신으로 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3·1운동 후 독립운동의 꿈을 품고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1920년 渡日하여 1921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과에 입학하였으나 1922년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서울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1923년 고려공산당 청년동맹, 신흥청년동맹,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 고려공산동맹, 사회주의자동맹, 1927년 조선사회단체 중앙협의회 등의 사회주의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1927년부터는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다.<sup>5)</sup>

【표 2】와 【표 3】은 임봉순이 도서순례를 떠났던 탐방 루트와 주제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임봉순은 목포를 중심으로 하여 압해도, 고하도, 암태도, 자은도, 장산도, 상태도, 하의도, 지도, 임자도를 둘러보았으며, 그 곳에서 보고 취재한 내용은 크게 역사, 민속, 교육, 사회경제 부분으로 나뉘볼 수 있다.

역사	압해 丁氏의 유래 일본인의 총에 자획이 사라진 고하도 이충무공기념비 장산도 역마목축장 하의도의 고려장 석함 세곡선의 정박지 고목도 중국 사신이 묵던 재원도
민속	천재지변을 알리는 용섬의 원형굴 기미년에 세 번 울렀다는 송악산과 못자리를 쓰면 가뭄이 든다는 명당지 암태도의 쌀바위 비금도에서 건너온 용이 산다는 자은도의 龍沼 서씨 성을 갖은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구먹섬 조기잡이 어부들이 한식날 불을 놓는 불섬 상태도 서리 앞산의 당고사
교육	암태도의 농민야학과 문맹타파운동 농민운동과 문맹타파운동의 전위대 암태사립학교 자은도의 청년회, 소작회, 농민야학
사회경제	암태소작쟁의의 영향 비금도 강달어 어장 홍우록의 문서위조로 발생한 하의도의 토지분규 지도의 아사동맹 조선 최대의 민어어장 임자도의 태리 파시 서남왕 태리의 정근택

5)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 3. 서남해에 대한 시선 1, 깨우치는 섬

그의 「도서순례」 탐방기를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강조와 서남해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 감탄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압해도에 도착하자마자 私立新庄學校 선생이던 金相泰를 찾아갔으며, 고하도의 서당, 자은도의 야학, 지도의 지도공립학교 등 각 도서를 탐방할 때마다 학교를 빼놓지 않고 언급하였다.

특히나 암태사립학교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근대교육의 성공사례로 크게 추켜세우고 있다. 암태사립학교는 ‘유지 몇 분의 발기’로 설립되었다. 이후 1923년경 암태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 이 학교는 ‘삼백여명의 자제를 보통 정도로 증등 정도까지 길러내어’ 각 방면에서 활동케 했으며, 이들 졸업생들은 농민운동의 ‘전위분자가 되었으며 문맹타파운동에도 선봉’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암태보통학교 졸업생들은 1923년~1924년 계속된 암태소작쟁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임봉순은 암태보통학교에서 행해진 근대교육이 암태소작쟁의와 소작쟁의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면서 ‘중국혁명에 황포군관학교’가 있다면 ‘암태도의 오늘에는’ 암태보통학교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육의 위대한 힘이며!’라고 마무리하였다.

근대 민족의 형성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었다. 서남해 도서지역 주민들은 교육이 섬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였다. 유지들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보통학교 설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임자도의 사례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임봉순이 이 지역을 찾았을 당시 지도, 안좌도, 자은도, 암태도, 임자도, 비금도, 자은도에 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 당시 무안군의 11개 도서지역 중 학교가 설립된 곳은 총 8곳이었다.

임봉순은 암태도를 추켜세웠지만 비단 암태보통학교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암태소작쟁의 이후 일어난 도초소작쟁의, 자은소작쟁의, 지도소작쟁의에서도 학교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교는 도서지역을 근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섬 주민들을 근대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 4. 서남해야 대한 시선 2, 투쟁하는 섬

임봉순에게 1920년대 일제에 항거했던 대표적인 사건인 암태도 소작쟁의는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암태도소작쟁의는 문재철과 일제 지주의 폭압에 일어난 소작쟁의운동이었으며, 시간을 거듭하면서 항일운동을 번져나갔다. 목포 상경투쟁과 아사투쟁으로 어어지는 기나긴 항쟁의 결과, 마침내 문재철과 일제의 항복을 받아내고 소작료 4할을 이루어냈으며, 여타 다른 도서지역 소작쟁의에 불씨를 당겼다.

당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임봉순도 이 사건을 신문을 통해 접했으며, 1924년 7월 14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당에서 암태소작쟁의 동정연설회에서 金炳璫과 함께 “死에濱한 岩泰小作人を 求하라”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sup>6)</sup> 그에게 암태도소작쟁의는 조선독립,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민중들이 일어섰던 하나의 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을 것이다. 1925년 무목청년연맹이 결성될 당시에는 조선청년동맹의 대표로 결성식을 방문하여 격려 연설을 하였었다.<sup>7)</sup> 당시 무목청년동맹에 가입한 단체들은 자은청년회, 암태청년회, 비금청년회, 도초청년회, 목포무산자청년회, 지도청년수양회, 해제청년회, 임자청년회 등이었다. 임봉순은 이들 청년회와의 만남을 통해 서남해 도서지역의 역동성을 보았을 것이고, 3년 후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서 민족의 전형으로 확대시켰을 것이다.

【표5】 1920년대 서남해 도서지역의 소작쟁의

	시기	지속기간
암태도	1923년 8월	1923. 08 ~ 1924. 10
지도	1924년 11월	1924. 11 ~ 1925. 05
도초도	1925년 9월	1925. 09 ~ 1926. 02
자은도	1925년 11월	1925. 11 ~ 1926. 01
매화도	1927년 8월	1927. 08 ~ 1927. 12

【표 5】는 1920년대 전개되었던 서남해 도서지역의 소작쟁의를 정리한 것이다. 농민들은 언제나 격렬히 투쟁했지만, 지주와 일제와의 유착관계, 일본인 지주와 조선인 지주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암태도와 같이 성공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여타 다른 도서지역처럼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서남해 도서지역의 소작쟁의는 전국적인 이슈를 형성하였고, ‘투쟁했던 농민’들은 서남해 도서지역을 벗어나 전조선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들 섬은 이제 민족의 섬, 이상향으로 섬으로 확산되었다.

## 5.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상향의 섬으로

이제 더 이상 섬은 변방이고 최외곽이 아니었다. 조선 전민족의 중심이고 이상향이였다.

압해도로 가는 배 안에서 아낙네들이 하나의 참외를 서로 나누어 먹는 장면을 보면서 ‘이 배 가운데는 생존을 경쟁치 않고’라고 하면서 ‘상호부조의 미덕’이 가득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섬사람들은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이 농사도 같이 짓고, 장사도 같이 한다’고 하면서

6) 동아일보, 1924.07.13., 「岩泰小作爭議 同情演說會」

7) 시대일보, 1925.01.13., 「務木青年同盟 同盟團結이 完成」

‘남녀간의 차별이 없는 별천지’라고 하였다. 물론 현실이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임봉순이 생각하는 이상향은 이러했으며, 그리고 그 이상향을 서남해 도서지역에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단 상부상조의 미덕, 남녀평등이 이상향의 조건은 아니었다. 암태도를 경제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섬의 호수는 일천삼백여호요, 인구는 약 칠천이라는데 토지가 비옥하여 농산물이 비교적 풍부한데다가 부업으로 어업까지 겸하고“ 있으며 소작쟁의 성공의 영향으로 ‘소작료는 전부 사할’이며, 대금 이자 또한 최고가 2할 5푼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더불어 토지가 ‘전부 도민의 것으로 외지 사람 더욱이나 일본인의 소유는 寸土’도 없음으로 일반도민의 생활은 안정하고 풍족하다고 하였다. 그가 서남해를 이상향으로 꼽은 것은 소작료 4할, 2할 5푼으로 낮은 대부 이자, 그리고 일본인 토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소작료 4할이라는 소작 여건과 일본인 토지가 없다는 민족적 여건이 그에게 이상향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그에게 암태도는 말 그대로 ‘리상향’이었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다른 도서에서도 확인된다. 장산도가 ‘암태도와 같이 외인의 소유 토지는 조금도 없고 지질이 비옥하여 도민의 생활이 비교적 풍부’하다고 하였으며, 지도에서는 소작료가 3할로 결정되어 ‘도민의 생활이 비교적 풍부’하며 ‘일본인의 소유 토지는 일한 가량’이라고 설명하였다. 비단 농업만이 아니었다. 임자도 태리파시를 설명하면서 조선인 어업자가 증가하고 일본인 어업자가 감소하는 이유로 ‘조선사람들은 해산물에 대한 관념이 박약하다가 근년에 와서는 큰 利가 그 곳에 있는 것을 깨달음이요, 일본 사람의 수효가 줄어들어 세력이 조선사람에게 밀리는 까닭’이라고 하면서 어업에서 경제적 풍요와 일본인 세력의 쇠퇴를 융성한 조선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임봉순의 말처럼 서남해 도서지역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상향의 섬은 아니었다. 소작료는 조금 낮아졌지만 삶은 힘들었고, 조선인 대지주가 강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토지 집적이 못 이루어진 것이지, 조선인 대지주가 언제나 농민편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 시절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임봉순은 서남해 도서지역에서 조선의 희망을 보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 4분과

### 도서 연안지역의 사회사

삼국시대 고분 출토 상어와 고고환경	김재홍	국민대학교
가야와 왜의 주형토기 및 고대 선박 고찰	이효웅	이사부기념사업회
지형학적 관점에서 본 도서지역 선사시대 주거지 입지변화	박지훈	공주대학교
고려시대 어민의 생활과 어량소	이정신	한남대학교
고려~조선시대 하천 제방에 대하여	차순철	동국문화연구원
토정이지함의 섬과 바다에 대한 공간인식	장용기	목포 MBC
조선후기 ‘해도진인설’ 의 의미	박상현	부산대학교
재일 제주인 '제주도 수산업개척 선각자' 박기만과 해녀들의 이주와 정착	김동전	제주대학교
근세 동아시아 魚譜의 역사	김문기	부경대학교
18~19세기 西海 島嶼住民의 거주 양태	임학성	인하대학교
일본인 염업기술자들이 전하는 식민지기 조선의 염업	류창호	인하대박물관
천일염전 개발과정 분석을 통한 섬의 인문환경 연구	최성환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충남 당진군 삼화2리의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성격	이창섭	부산대학교





# 삼국시대 고분 출토 상어와 고고환경

김 재 홍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 1. 기록 상의 상어

사전적 의미의 상어는 상어목에 속하는 어류의 총칭이다. 우리나라의 옛 문헌에 따르면, 상어는 한자어로 사어(沙魚, 鯊魚), 사(鯊, 魴)를 사용하였고 교어(蛟魚)도 불렀다. 이와 별도로 작어(鰐魚)·복어(鰻魚)·치어(溜魚)·정액(挺額)·하백(河伯)·건아(健兒) 등의 다른 이름도 존재하였다. 현재는 상어가 표준어이고, 방언으로는 사애·사어·상에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연근해에는 팽이상어·칠성상어·수염상어·고래상어·강남상어·악상어·환도상어·두툽상어·까치상어·흉상어·귀상어·돔발상어·툽상어·전자리상어 등 13과 36종이 알려져 있다. 상어는 그 크기가 다양하여 고래상어와 같이 20m가 넘는 것이 있고, 두툽상어와 같이 15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주로 남해(제주도 포함)에 서식하고 있다.

상어고기는 언제부터 우리 조상의 제사상에 오르고 밥상에 자리를 차지하였을까. 돔배기에 대한 오랜 기록은 잘 보이지 않으나 상어에 대한 기록은 고문헌에 잘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시대의 것이다.

충청남도 태안군의 바다 속에서는 고려시대의 선박이 가라앉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곳은 고려시대에 전라도의 물산을 개경으로 실어 나르는 선박이 드나들던 곳으로 많은 배가 왕래했던 곳이다. 현재 보고서가 간행된 선박은 태안선, 마도 1~3호선으로 명명하였다. 이 배에는 많은 물자와 더불어 짐의 꼬리표인 목간(木簡)과 죽간(竹簡)이 발견되었다. 꼬리표에는 짐의 수취인과 발송인, 짐의 종류, 수량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태안 마도 1,2호선의 꼬리표에서는 젓갈(醃), 말장(末醬), 고등어해(古道醃), 게젓갈(蟹醃), 어해(魚醃), 누룩(麴) 등의 음식이 적혀 있었다. 젓갈은 신라 통일기의 유적인 월지(月池)의 목간에서도 보이는 용어로서, 조사(助史), 해(醃) 등으로 표기되었다. 이것이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고려인의 밥상에 올랐던 것이다. 마도 2호선에서는 참기름(眞)과 꿀(精蜜)이 기록된 목간과 청자매병이 함께 발견될 정도로 참기름과 꿀은 귀중한 음식으로 대접받았다. 마도 3호선에서도 음식과 관련된 목간이 발견되었는데, 보리(麥), 겉보리(皮麥), 전복(生鮑), 전복젓갈(生鮑), 말린홍합(乾蜆), 홍합젓갈(蜆醃), 상어(沙魚), 물고기기름(魚油), 꿩(雉), 개고기나 돼지고기포(彡脯) 등이 있다. 이들 음식물 대부분은 향아리나 대나무상자에 담긴 상태로 운송되었다. 이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사어(沙魚)가 적힌 죽간이다.

·右三番別抄都領侍郎宅上  
·沙魚盛箱子一 (태안 馬島 3호선)



[그림1] 태안 마도 3호선 죽간의 사어(沙魚)

이것은 > < 모양의 홈을 가진 죽간으로 길이 13.3cm, 넓이 1.5cm, 두께 0.35cm이다. 이러한 형태의 목간은 대부분 물건을 싣 짐꾸러미에 붙은 꼬리표의 기능을 하였다. 이것을 문장 구조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면은 “右三番別抄(소속관청) + 都領侍郎(관직) + 宅上(수신)”이고, 후면은 “沙魚(물품) + 盛(행위) + 箱子(용기) + 一(수량)”로 볼 수 있다. 수취인은 우삼번별초에 소속된 도령으로 시랑의 관직을 가진 자였다.택상은 수신처로 보낸다(올린다)는 의미이다. 보내는 물품은 상어로서 저장이나 운반을 고려하여 말린 상태이거나 염장을 하여 운송하였을 것이다. 상자는 대나무 상자일 가능성이 크다. 대나무상자 하나에 상어고기만 담아 운송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나무상자가 마도 3호선에서 실제로 발견되었다.



## 2. 고고 환경 속의 상어

고분에서 출토된 상어는 살코기로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뼈가 남아 있다. 상어는 척추, 미골, 가시, 이빨 등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척추와 이빨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연번	출토지	척추	가시	이빨	상어종류
1	경주 황남대총 남분 봉토	척추 3			까치상어류
2	경주 교동 274번지 유적	척추 1			흉상어과
3	경주 교동 94-3번지유적 3호 적석목곽묘	척추 다수			
4	경주 노동동12번지유적				상어
5	경산 조영 1A-2호				유개고배 속에서 상어뼈
6	경산 조영 1A-11호 주곽				연질발 속에서 상어뼈
7	경산 조영 CII-1호 부곽	척추 다수			3마리개체분
8	경산 조영 EI-1호 부곽	척추 다수			피장자 발치에서 상어뼈 5열로 출토
9	경산 조영 EIII-2호 부곽	척추 다수			대형 상어로 추정
10	경산 조영 EIII-3호 부곽	척추 다수			
11	경산시 대동 57-1번지 '昌平' 자형 암광목곽묘	척추		이빨	순장자 주변
12	대구 불로동 을호	척추 5			
13	대구 불로동 91-4호부곽				상어
14	대구 불로동 93호 부곽				상어
15	구미 황상동 1호	척추			상어
16	의성 탑리고분	척추			상어
17	김해 대성동 2호			이빨 3	화살촉
18	김해 대성동 68호			이빨 3	화살촉

상어가 출토된 고분의 소재지는 경주, 경산, 대구, 구미, 의성, 김해 등지이다. 이를 지역 별로 구분하며, 경북 남부지역, 경북 북부지역, 경남 남부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경북 내륙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동해안에서 비교적 떨어진 지역에 있는 내륙에서 상어가 다수 출토되었다는 것은 산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상어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척추와 이빨이다. 상어의 종류는 악상어, 흉상어 등으로 다양하다.

이중에서 가장 자료가 잘 정리된 유적이 경산 임당동고분군이다. 경산 조영 EIII-2호분은 경산시립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상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부곽

에서 집중적으로 상어가 출토되었다. 5호 인골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오른쪽 아래 팔뚝 주변부와 발치에서 상어, 방어, 넙치, 복어, 잉어 등의 뼈가 다수 출토되었다. 상어뼈는 척추골이 팔뚝 주위에서 28점, 발치에서 3점이 출토되었다. 상어뼈는 오른쪽 아래 팔뚝 주변부에서 다양한 크기의 척추골(8~22mm)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어가 한 마리 이상으로 보고 있다. 발치에서 발견되는 상어 척추골의 크기는 모두 지름 8mm로 작은 편이다. 부곽의 남벽과 4호 인골 사이에 위치하는 76번 호의 내부에서는 상어, 방어, 복어, 잉어의 뼈가 다량 출토되었다. 동일한 위치의 77번 호에서도 상어, 방어의 뼈가 확인되었다.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경산시 대동 57-1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ㅊ'자형 대형 주부곽식 암광목곽묘에서도 순장자가 위치한 주변에서 상어의 척추뼈 및 이빨이 확인되었다.



[그림2] 임당고분군 조영 EⅢ-2호 부곽의 상어뼈

고분에서 출토되는 어류는 2가지 방식으로 묻혔다. 하나는 고배 등에 넣어 부장하는 방식으로 칠곡 황상동 1호분, 고령 지산동 34호분, 44호분, 45호분, 대구 불로동 91호분, 황남대총 남분 등이다. 다른 하나는 묘실 바닥에 그대로 놓는 방식으로 대구 불로동 을호 등이다. 그러나 그냥 바닥에 놓았다기 보다는 대나무상자나 판자 등에 올려서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 태안 마도 3호선에서는 대나무상자에 상어를 담아 운송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경산 조영 EⅢ-2호 부곽에서 출토된 호에서는 여러 종류의 어류가 출토되었으므로 어류를 구분하여 넣지는 않았다. 어류의 부위 역시 두개골부터 척추골, 미골까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쳐내거나 손질한 상태의 어류를 넣지 않고 있다. 잔존 어골로 보아 대형 어류인 상어와 방어를 각각 1~2마리 통째로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해안에서 경산까지 생선을 그대로 운반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소금으로 간을 하거나 말려서 묻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배의 경우, 한 종류의 어류를 올리거나(칠곡 황상동 1호분, 고령 지산동 44호분, 45호분, 대구 불로동 91호분) 특정 부위만을 올리는(고령 지산동 34호분)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여패류의 이동경로는 2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울산, 포항, 영덕 등의 동해

안에서 생산된 것이 경주-영천 등을 통해 경산으로 유입된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김해, 창원, 부산 등의 남해안에서 생산된 것이 낙동강을 따라 대구를 통해 유입된 경우이다. 그 중에서 울산·포항·영덕-경주-영천을 거치는 경로가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패류는 산 채로 유통되었다기 보다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패류는 단경호나 직구호, 장경호 등에 담아서 운송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태안 마도 3호선에서 상어 등의 어류가 대나무상자에 넣어 운송되는 것으로 보아 나무상자나 대나무상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해안에서 포획한 상어 등의 물고기를 경산 등의 내륙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어류를 일정기간 보존하는 저장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어류의원거리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요인은 소금의 생산과 유통이었다. 소금을 어패류를 장기간 저장하면서 내륙지역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어패류의 장거리 유통은 어업의 전문화와 그에 따른 교역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해 주었다. 이 경우에 토기는 식품을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장기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고층에서 해양어류와 조개가 발견된 것은 해안지역과 내륙지역간의 활발한 교역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경주의 신라 중앙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경주의 신라 6부를 중심으로 해안가의 집단과 내륙의 집단이 교류를 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경산시립박물관·한빛문화재연구원, 2011 『압독국의 왕 ‘干’, 영원 불멸을 꿈꾸다』,  
2011 경산시립박물관 특별기획전 경산 조영EⅢ-2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 『태안 마도 3호선 발굴조사 보고서』.

## 가야와 왜의 주형토기 및 고대선박 고찰

이 효 응 ■ 이사부기념사업회 코스모스

### 1. 왜(倭)의 선박

가야와 왜의 교류는 삼국시대 초부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교류한 것은 가야철이 수 출되는 4-5세기라고 본다. 그러므로 왜의 선박 발달과정도 비슷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한반도와 왜의 자연환경은 조금 다르다. 왜는 섬나라이고 태풍 등의 기상변이 많은 나라이나 지중해와 같은 세토내해(세토나이카이)를 가지고 있어 선박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태풍,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로 선박의 해난사고도 많다.

삼국시대의 선박과 왜의 선박을 주형토기로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비슷한 점은 그림과 같이 독목주선((獨木舟船)인 일체성형선에서 이체성형선(二體成形船)<sup>1)</sup>으로 발달한 다음 삼체성형선(三體成形船)으로 발달하였다.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제기로 사용되었는데 왜에서는 제기(祭器) 및 제단(祭壇)으로 사용하고 바다에 띄웠다.

1) 김정배, 『한국고대사입문2』 4-5세기경 가야와 왜의 선박제작 능력과 항해술의 복원, 232-239



[도-1] 마스사카 다카라쓰카 1호고분 선형토기(2015 오사카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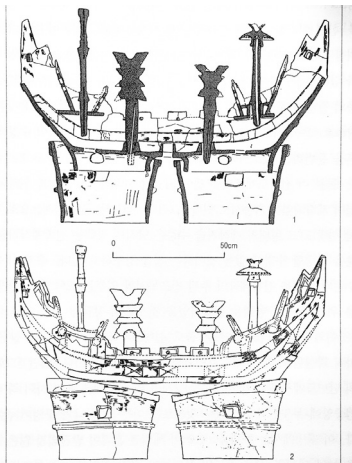
<도-1>의 마스사카 다카라쓰카 1호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는 항해용 선박이 아니라 본다. 용도는 시체를 싣는 장송의례 보다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주는 제례용 선박이라고 본다.

크기로 보아 제단의 역할을 하였고, 밑의 받침은 육상에서 관리가 쉬우며 받침에 난 양쪽의 구멍으로 물속에서 공기가 빠질 수 있게 하여 부력과 복원력으로 안전성이 유지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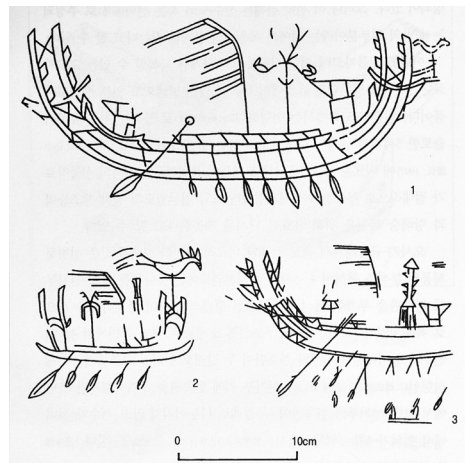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선박으로 <도-3>히가시도노스카 고분 출토 타원통형토기에 그려진 선형회화(2000년)에 나오는 일반 선박의 가운데 부분을 압축하여 제작하였다.

<도-2>마스사카 다카라쓰카 1호 고분 선형토기의 양쪽 2개의 대는 깃발, 도리 등의 꽃이로 보이고, 가운데 2개는 이동식 횃불 꽃이로 보여 야간 의식에도 사용하였다.

<도-2>마스사카 다카라쓰카 1호 고분의 선형토기는 대형으로 축적으로 보아 길이와 높이가 각각 135x88cm정도로 제단으로 사용되었고 제례의식 후에는 바다에 띄웠다.



[도-2] 마스사카 다카라쓰카 1호고분 선형토기 그림(2001년)



[도-3] 히가시도노스카 고분 출토 타원통형토기에 그려진 선형회화

2) 김정배, 『한국고대사입문2』 4-5세기경 가야와 왜의 선박제작 능력과 항해술의 복원, 237

3) 김정배, 『한국고대사입문2』 4-5세기경 가야와 왜의 선박제작 능력과 항해술의 복원, 236

<도-3>일본 덴리시 히가시도노쓰카 고분의 타원통형토기의 선형그림을 보면 막대에 깃발, 솟대, 용모형, 연 등을 매달았다. 야간항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앞뒤에 화덕(횃불대)으로 보이는 받침과 재를 치우는 문이 있다. 그리고 선수와 선미는 끝을 올려서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대칭형으로 보인다. 아마 이것은 해난사고로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항구나 연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간 의식행사를 하는 제례 선박의 그림 같다.<sup>2</sup>

그림이 정확하게 묘사되지는 못하였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배의 폭보다는 길이가 길며 모양이 약간 다르다. 둘째, 배에는 여러 가지 깃발을 달았다. 셋째, 배의 노가 좌우 각각 7, 4, 7개씩이며 키가 있다. 넷째, 그림3에서 보듯이 노는 쌍노(1인2노)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그림1과 그림3의 큰 배는 화덕(횃불대)이 있다.

그림3에서 보듯이 쌍노(1인2노)의 각도를 보아 이 선박은 이렬방식이 아닌 일렬방식의 일체성형구조선이나 이체성형구조선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대부분의 해양학자들이 노의 수와 사람의 수를 같이 계산하여 선박의 크기를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 선박의 승조원은 그림1과 그림3은 중형선으로 키잡이1명, 노잡이 7명, 기타2명 계 8-10명, 그림2는 소형선으로 키잡이1명, 노잡이 4명, 기타 1명 계5-6명 정도이다.



[도-4] 다카마와리 2호 고분 선형토기



[도-5] 1989년 오사카-부산을 향해한 나미야호

필자는 4-5세기에 만들어진 <도-4>의 오사카 나카하라 다카마와리 2호분의 이체성형선(二體成形船)의 주형토기를 복원하여 1989년 오사카와 부산항을 향해한 나미야호(길이12m, 폭1.9m, 높이 3m, 무게 4톤, 이렬방식의 외노, 노꾼 8명)는 오류라고 본다.

이 선박의 특징은 이체성형구조선으로 선박의 구조와 돛줄의 수로 보아 소형선이며, 돛줄이 좌우에 각 4개씩 있어 노꾼은 4명이 쌍노를 사용하였으며, 용도는 화려하고 대칭형 모양으로 보아 의식용의 제례 선박으로 가운데 부분을 압축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다카마와리 2호 고분 선형토기는 <도-3>의 2번 그림과 유사한 이체성형선으로 일렬방식의 쌍노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왜에는 섬나라라 많은 선박들이 제작되어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이들의 영혼을 달래 주는 신앙의식이 우리나라

라 보다 강하고 많아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대 범선 유물들이 발굴되지 않아 고대선박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도-6> 우리나라 대구박물관의 가야 선형토기와 다카마와리 2호 고분 선형토기가 거의 일치한다. 이 선형토기는 실제 선박의 가운데 부분을 압축하여 제기로 만들었는데, 어느 나라부터 먼저 이런 의식이 시작되었는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가야의 수많은 무덤들을 보아 순장과 부장품 풍습이 왜로 전해졌다고 본다.



[도-6] 대구박물관 선형토기와 다카마와리 선형 토기의 이체성형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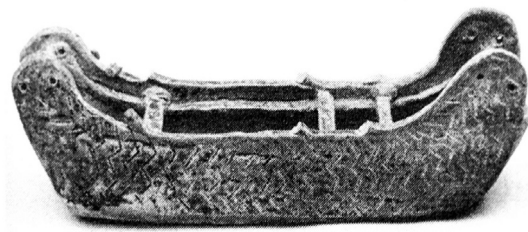
## 2. 김해 봉황동 발굴 선박



[도-7] 김해 봉황동 119-1 유적지에서 발굴된 선박과 노

이 배의 연대는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영남문화재연구원) 결과 A.D3-4세기로 추정하며, 배는 녹나무로 만들었으며 선박의 부재의 길이는 390cm 폭은 60cm 두께는 2-3cm정도이다. 노는 120cm 정도로 상수리나무로 만들었으며, 닻은 구멍 뚫린 현무암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왜의 배라고 추정한다.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도 5세기 이전에 <도-7>의 호암미술관의 주형토기와 같이 판자를 이용한 평저형 선박도 보이니 유물은 발굴되지 않고 있다. 이 선박도 판자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아 톱과 같은 연모의 발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김해박물관이나 고령박물관의 많은 철 기구 중에서 톱의 유물을 찾을 수 없었다.





[도-7] 호암미술관의 주형토기

### 3. 뗏음말

우리나라 고대 선박의 발달은 왜의 선박과 비슷하게 발달하였다. 금관가야는 일찍부터 철을 다룰 줄 알고 철과 철 기구들을 수출하면서 주변국들 보다 무기와 선박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가야는 아쉽게도 6개의 부족으로 나뉘어 나라가 크지 못하여 이웃 나라인 신라와 백제의 침범을 자주 받아 6세기에는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가야철이 왜에 전하여 지면서 왜와는 자연스럽게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주변국의 침범을 받아 고향을 떠나는 유민들은 왜로 많이 흘러갔다.

왜는 한반도에서 문물들을 받아들였으나, 왜가 강성해지면서 한반도의 물자와 백성들을 노획하여 갔다. 특히, 대마도는 식량이 부족한 관계로 수시로 한반도의 전 해안을 누비며 침범하였다. 이런 가운데 왜는 선박의 발달이 한반도 국가들 보다 빨랐고 앞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왜병이나 왜구들은 신라 및 가야를 수시로 침범하여 식량과 백성들을 노획하여 갔다. 신라에서는 왜구의 본거지를 공략하고자 하였으나 선박 제작 및 수전에 약하여 포기한 적이 두 차례나 있었다.

왜는 섬나라이므로 선박은 필수적인 운송수단이어서 우리 보다 앞 설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 보다 산림이 많고 기후가 좋아 삼나무 등의 선박 재료를 구하기 쉽다. 또한 시모노세키에서부터 오사카에 이르는 세토 내해는 지중해와 같은 역할을 하여 선박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태풍,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로 선박의 해난사고가 많아 제례용 선박도 등장하였다.

주형토기에서 보여 지는 선박은 제례용 선박이라 일반 선박과는 차이가 있지만 3-5세기의 주형토기들에서 고대선박의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이후로 갈수록 주형 토기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 순장 제도가 없어지면서부터 부장품도 줄었을 것이다.

고대선박의 대부분은 원목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는데, 김해 봉황동 119-1 유적지에서 발굴된 선박은 판자로 만들었으며 선박의 부재(측판)를 연결하는 구멍으로 보아 나무못 등의 고도화된 선박 제작 기술을 엿 볼 수 있다. 이 선박은 왜의 선박이라고 추정하는데 당시 톱



을 사용하여 판자를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선박을 제작하였으므로 선박의 선형, 크기, 제작방법(공법), 도구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지형학적 관점에서 본 도서지역 선사시대 주거지의 입지 변화

—인천 영종도를 대상으로 —

박 지 훈 ■ 공주대학교 교수

## I. 서론

### 1. 연구목적

발표자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대부분 구릉상에 분포한다는 점에 머물지 않고, 구릉사면 미지형 분석을 통하여 주거지가 입지하는 지표면의 미지형과 주거지 수와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한반도 중서부 도서지역인 영종도 전체를 대상으로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최적 입지환경을 밝히고자 한다.

조사지역에 발견된 원삼국시대 전체 주거지 수가 3개 유적의 18기에 불과하고 특히 중산동유적 3구역 8-3지점에 9기가 집중되어 있어 영종도 전체의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지형입지 환경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지형입지 환경에 대한 논의는 향후 관련 자료가 더 축적되면,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배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도서지역에서 막연히 주거지가 입지하는 지표면이 구릉의 평탄면 또는 해안단구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미지형 스케일로 도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 지형 환경을 밝힌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변천하면서 시대별 주거지가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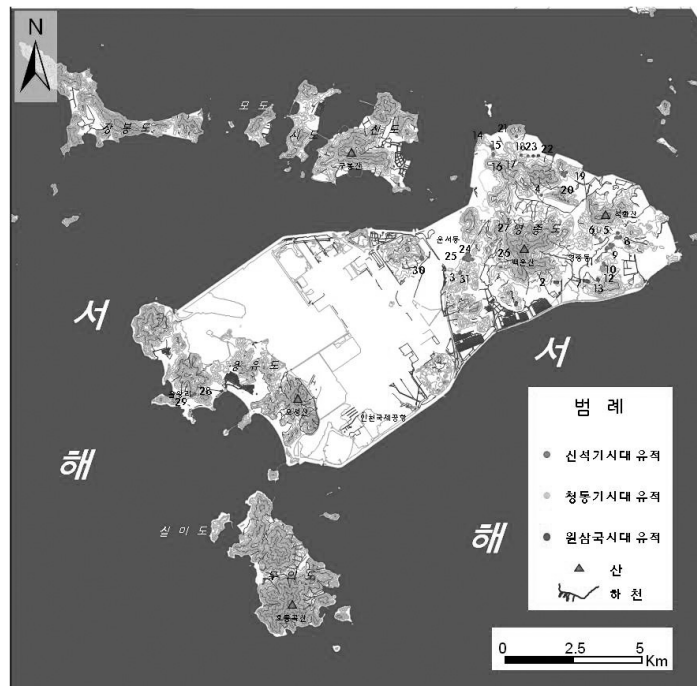
하는 미지형의 변화 여부를 최초로 정량적이고 실증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천 영종도는 전술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고고학적 조사가 실시된 대표적인 도서지역이다.

## 2. 연구지역 개관

지형도분석과 야외조사 결과, 영종도 지역의 저지에 발달한 해안충적평야는 과거 최종빙기 저해수면에 대응하여 형성된 침식곡이 홀로세 이후 매적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간석지로서 최근 간척화된 것으로 밝혀졌다(박지훈, 2010a·2010b). 그리고 5,000분 1 지형도를 기준으로 수계망을 분석한 결과, 연구지역에서는 3차 이상의 하천이 분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IS분석을 이용하여 조사지역의 표고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지역에서 표고 0-10m 구간이 65.9%로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서 표고 10-20m 구간이 10.5%로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표고 구간은 모두 10%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GIS분석을 이용하여 조사지역의 경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지역에서 경사도 0-1°(평탄지Ⅰ)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45%로서 가장 넓으며, 그 뒤를 이어서 1-5°(평탄지Ⅱ)가 차지하는 면적이 26.5%로서 넓다. 그 외 경사도 구간은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3]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에 보관되어 있는 가이텐

1 : 윤남동 유적 A지구, 2 : 윤남동 유적 B지구, 3 : 젓개마을 유적 가 지구, 4 : 영종도 유적 II지점, 5 : 영종도 유적Ⅶ지점, 6 : 영

중도 유적Ⅵ지점, 7 : 중산동 유적 8-3지점, 8 : 중산동 유적 21지점, 9 : 중산동 유적 23지점, 10 : 중산동 유적 2-1지점, 11 : 중산동 유적 2-2지점, 12 : 중산동 유적 3지점, 13 : 중산동 유적 7지점, 14 : 운북동 유적 추가1지점, 15 : 운북동 유적 2-1지점, 16 : 운북동 유적 2-2지점, 17 : 운북동 유적 4-1지점, 18 : 운북동 유적 5-3지점, 19 : 운북동 유적6지점, 20 : 운북동 유적 추가 6지점, 21 : 운북동 유적 추가3-3지점, 22 : 운북동 유적 추가 5지점, 23 : 운북동 유적 5-2지점, 24 : 운서동유적 1지점, 25 : 운서동 유적 2지점, 26 : 운서동Ⅲ유적, 27 : 운서동Ⅱ유적, 28 : 을왕리 유적A지구, 29 : 을왕리 유적B지구, 30 : 삼목도Ⅲ 유적, 31 : 는들 유적, \* 유적보고서는 참고문헌에 수록되어 있음.

### 3. 연구방법

인천 영종도에 있어서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최적 입지환경을 밝히기 위한 연구방법과 같다.

① 해당 주거지가 입지하는 구릉의 미지형 분석, 실내에서 주거지가 입지한 지표면의 항공사진 판독, 상세 지형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주거지가 입지하는 지표면의 미지형 파악.

② 田村(1996)의 미지형 분류(그림 4)에 기초하여 주거지가 입지하는 구릉사면을 대상으로 凸型 傾斜變換線인 遷急線(convex break of slope)과 凹型 傾斜變換線인 遷緩線(Concave break of slope)을 확인.

③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시대별 주거지와 주거지가 입지하는 미지형 단위와의 상호 대응 관계 분석.

## Ⅱ. 분석결과

### 1. 시대별·유적별 주거지 현황

지금까지 영종도에서 행해진 발굴 및 시굴조사(예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에 의해 신석기와 청동기 주거지는 각각 8개소 유적에서 153기, 3개소 유적에서 47기가 발견되었다.

### 2. 미지형 분석으로 본 주거지 입지 환경

여기에서는 현재까지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주거지들 중에서 정량분석이 가능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각각 145기와 47기를 대상으로 구릉의 미지형 분석(田村, 1996)에 기초하여 개별 주거지들의 미지형 입지환경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중산동유적의 21지점의 3기, 중산동유적의 23지점의 5기의 유구는 그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먼저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경우, 주거지는 상부곡벽사면(64기, 44.1%), 하부곡벽사면(33기, 22.7%), 정부평탄면(26기, 17.9%), 정부사면(20기, 13.8%) 등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그리고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경우, 주거지는 정부사면(39기, 83%), 상부곡벽사면(6기, 12.8%) 등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Ⅲ. 고찰

지형학적 관점에서 조사지역에 있어서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최적 입지환경을 밝히기 위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주거지들 중에서 정량분석이 가능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각각 145기와 47기를 대상으로 개별 주거지들의 미지형 입지환경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주거지의 입지를 파악하기 위해 2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첫번째 방법은 주거지가 구릉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구릉을 4개의 구역 즉, 정상부면, 상부면, 하부면, 곡저면으로 세분하여 주거지의 입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미지형적 관점에서 구릉을 정부평탄면, 정부사면, 상부곡벽사면, 하부곡벽사면, 곡저면으로 세분하여 주거지의 지형입지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정부평탄면과 정부사면을 합쳐서 정상부면, 그리고 상부면과 하부면은 각각 상부곡벽사면, 하부곡벽사면으로 부르기로 한다.

먼저 첫번째 방법에 의하여 구릉을 정상부면, 상부면, 하부면, 곡저면으로 구분한 후, 주거지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석기시대에는 145기의 주거지가 곡저면을 제외하고 정상부면-하부면에 걸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띠며, 특히 상부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64기(44.1%)의 주거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하여 청동기시대에는 전체 47기의 주거지 중에서 정상부면에서 가장 많은 39기(83%)가 분포하며, 그 뒤를 이어서 상부곡벽사면에서 6기의 주거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번째 방법에 의하여 구릉을 정부평탄면, 정부사면, 상부곡벽사면, 하부곡벽사면, 곡저면으로 구분한 후, 주거지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거지가 가장 밀집하는 미지형은 신석기시대에는 상부곡벽사면(64기, 44.1%)>하부곡벽사면(33기, 22.7%)>정부평탄면(27기, 18.6%) 정부사면(20기, 13.8%) 순으로, 청동기시대에는 정부사면(39기, 83%)>상부곡벽사면(6기, 12.8%) 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곡저면에는 전술한 두 시대 모두 주거지가 거의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면미지형학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곡저면은 홀로세 이후 水流나 토석류의 침식·퇴적에 의해 형성되므로(田村, 1996) 당시 거주민들 입장에서 주거지 조성시 조사지역의 다른 미지형, 예를 들어 상부곡벽사면과 정부사면 등에 비해 선호도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조사지역에 국한하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신석기인들은 특정 미지형에 집중하여 생활하지 않고 구릉 전체(단 곡저면 제외)에 산포하여 고르게 생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석기인들이 가장 선호하여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집했던 최적의 미지형은 정상부 직하에 위치하고 있는 상부면(상부곡벽사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구릉의 정상부면(정부평탄면, 정부사면), 하부면(하부곡벽사면) 순으로 그들의 주거지를 조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조사지역의 신

석기인들은 그들의 주거 공간으로 구릉의 하부사면(하부곡벽사면)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하여 청동기인들은 신석기인들과는 달리 상부곡벽사면을 중심으로 하여 구릉 전체(단 곡저면 제외)에 고르게 산포하여 생활하지 않고 대부분의 청동기인들이 특정 미지형인 정부사면(83%)을 선호했으며, 그 뒤를 이어서 일부 청동기인들만이 상부곡벽사면(13%)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청동기시대에는 전술한 정부사면과 상부곡벽사면 이외에는 거의 주거지를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조사지역에 있어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시대 변천에 따라 당시 거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의 최적 미지형 환경도 상부곡벽사면에서 정부사면으로 바뀌었으며 그 주거지 위치도 상대적으로 약간 상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박지훈·이애진(2013)은 인천 영종도 운서동유적에 있어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최적 입지환경을 밝히는 과정에서 총 68기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미지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시 신석기인들은 주거지 입지 선정시 구릉내의 상부곡벽사면(52기, 76.5%)을 가장 선호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지훈 그룹은 수년 전부터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사면 미지형 단위와의 대응관계에 주목하여 주거지 입지의 최적 미지형 환경을 밝히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다(박지훈·박종철, 2011a·2011b; 박지훈·오규진, 2010 등). 그 결과, 충남 아산과 천안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의 최적 미지형 환경은 구릉의 정부평탄면과 정부사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동기인들은 주거 조성시 ① 경사도가 작은 미지형, ② 퇴적작용 보다 침식작용이 우세하고 특히 침식 진행 속도가 늦어 지형변화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미지형, ③ 표고가 높은 미지형을 선호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정부사면(39기, 83%)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점은 비록 박지훈·박종철(2011a·2011b)과 박지훈·오규진(2010)의 연구들이 충남 내륙지역에서 행해진 연구일지라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상부곡벽사면(64기, 44.1%)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점도 박지훈·이애진(2013)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자료가 더 축적되면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 IV. 결 론

한반도 중서부 도서인 인천 영종도에 있어서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최적 입지환경을 지형학적 관점에서 밝히기 위하여 지금까지 조사지역에서 발견되었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각각 145기와 47기를 대상으로 개별 주거지들의 미지형 환경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가장 많이 밀집하는 구릉의 미지형은 각각 상

부곡벽사면(64기, 44.1%)과 정부사면(39기, 83%)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주거지 조성시 당시 거주민들이 가장 선호하여 주거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집했던 최적의 미지형은 신석기시대 경우, 상부곡벽사면이며 청동기시대 경우, 정부사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조사지역에서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시대 변천에 따라 당시 거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지 입지의 최적 미지형 환경은 상부곡벽사면에서 정부사면으로 바뀌었으며 주거지가 입지하는 구릉의 미지형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약간 상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반도 중서부의 특정 도서를 대상으로 그 곳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의 최적 미지형환경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결과는 향후 도서지역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고려시대 어민의 생활과 어량소

이 정 신 ■ 한남대학교

## 1. 머리말

수산물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양식이었다. 더구나 수산물 중 해조류는 움직임이 적고 바닷가 해안 가까이에 상존하고 있는 까닭에 쉽게 채취가 가능하여 김해의 조개무지와 같은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삼국시대, 신라에 이어 고려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농업이 주생산이었지만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에서는 어업도 무척 활발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신선도가 중시되는 물고기나 조개 등의 해산물은 미역이나 소금과는 달리 보관이 용이하지 않다. 촉박한 시일이 요구되는 해산물이 어떤 형태로 생산, 운반되었으며 또한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인 어량소를 살펴봄으로서 고려시대 어민의 존재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高麗時代의 漁業實態와 收取構造

고려시대 어업의 실태는 『高麗圖經』에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해변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은 굴 같은 조개류이며, 고기를 잡을 때는 강에서는 주로 낚시나 작살로 잡은 데 비해, 바다에서는 배를 타고 투망 하거나 발을 막아 어량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는 어획 도구나 배의 크기가 작아 연안 지대에서만 고기를 잡을 뿐이어서 어획량이 미비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오늘날 같이 오염이 없던 시절이므로 어느 정도 잡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그



러나 일기 예보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최악의 경우에는 목숨을 빼앗기는 참담한 지경이 번번하였다. 또한 어획량 수취 여부는 그때그때의 고기떼의 움직임이나 자연 조건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으므로 그들이 안정적인 풍족함을 누리지는 못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어량을 설치하여 고기를 잡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확하였을 것이다. 고기잡이가 성행함에 따라 고려시대의 주민들은 육류보다 생선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1) 고려 풍속에 양과 돼지가 있지만 왕공이나 귀인이 아니면 먹지 못하며, 가난한 백성들은 해산물을 많이 먹는다. 미꾸라지, 전복, 조개, 진주 조개, 왕새우, 文蛤, 붉은게, 굴, 거북이 다리로부터 海藻, 다시마에 이르기까지 귀천을 막론하고 즐기지만 냄새가 비리고 맛이 짜므로 오래 먹을 것은 못 된다.<sup>1)</sup>

고려시대는 양과 돼지 등 육류 식품이 해산물에 비해 훨씬 귀한 식품이었으며 생선종류는 일반 백성들도 쉽게 접할 수 있던 식품이었다. 그러나 생선이나 해조류는 쉽게 부패하는 산물이었으므로 특히 여름에는 선도를 유지하며 운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된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취하는 방법이 말리는 것[脯]과 소금에 절이는 것[醃]이었다. 따라서 바닷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말리거나 절인 해산물을 섭취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국왕을 위시한 왕실이나 고위 관리에게는 얼음을 넣어 보관하거나 운송하였다.

2) 밤중에 술깨어 찬 얼음 깨무니 / 온갖 맛있는 음식 여기에 당하라

이런 맛 한평생 나흔자만 즐기는가 했더니 / 늙은 중이 나 먼저 일찍이도 알았구나.<sup>2)</sup>

3) 모든 사람들에게 얼음을 저장하는 것을 허락하였다.<sup>3)</sup>

우리 나라에서 얼음을 사용한 유래는 이미 부여 때부터 나타난다. 신라시대에도 얼음 위에 식품을 얹어 두어 부패를 방지했다고 하며, 氷庫典이라는 관아를 설치하여 採氷과 藏氷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이로 보아 경주의 석빙고는 주로 어패류의 선도 유지에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것은 왕실 등 특수 귀족층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을 것이지만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는 좀더 보편화되었다.

위의 기록에서 승려들이 얼음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고려시대 사원 경제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큰 사찰은 그들 소유의 석빙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왕실이나 일부 귀족들도 개별적인 얼음 저장소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충렬왕대에 모

1) 『高麗圖經』23, 雜俗

2) 『東國李相國前集』, 14, 古律詩, 嘲醉僧夜起嚼氷(술취한 중이 밤에 일어나 얼음 깨무는 것을 조롱하다)

3) 『高麗史』31, 忠烈王 23年 6月 癸未

든 사람들에게 얼음저장을 허용했다는 기록에서 이것이 일반 농민까지 허용했으리라 생각되지는 않지만 얼음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어량소의 수취구조이다.

4) 制하여 이제부터는 여러 州縣에서 생선포는 공물로 바치지 말게 하였다.<sup>4)</sup>

5) 사신을 元나라에 보내어 海菜와 乾脯 等の 물자를 皇太后에게 바쳤다.<sup>5)</sup>

光宗대에 이르러서 고려 정부는 각 지방의 세공을 정하였다. 여기에는 물론 소의 세공 액수도 정해졌으리라 추정된다. 고려가 각 所에서 거두어 들인 歲貢額을 주현과 별도로 수취하였는지 아니면 州縣의 貢賦에 같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그러나 어량소의 경우는 빠른 수송으로 인한 해산물의 신선도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 소의 공물이 군현 등 지방 특산물과 함께 일괄적으로 수취했다 하더라도 어량소는 어떤 형태든 중앙의 통제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慶尙道地理志』慶州道 慶州府의 土產貢物 중 해산물은 魚膠(부레풀), 乾蛤(마른 백합), 大口魚(대구), 全鮑(마른 전복), 沙魚(상어)가 보이는데 이로서 고려 시대의 공물도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이것으로 판단하건데 고려 시대 각 군현에서 거두어들이는 공물에서 해산물은 주로 가공 식품이 대다수인데 이는 오랜 기간동안 보관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어량의 설치현황이다.

6) 上黨府院君 韓明澮가 아뢰기를, <各道の 魚箭을 국가가 빈민에게 지급하였으나 힘이 미약하여 스스로 설치하지 못하니 인근의 豪民이 이를 설치하여 이익을 나눕니다>고 하였다.<sup>6)</sup>

7) 대체로 魚箭이라는 것은 功役이 매우 많이 들어 빈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豪强者가 권세가에 청탁하여 그 이익을 독점한다.<sup>7)</sup>

조선시대 사료이긴 하지만 어량 설치가 일개인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인원이 소요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어업의 규모가 커서 빈민은 물자와 노동력의 부족으로 魚箭어업 경영이 불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 전기의 어업 경영 형태로 판단하건데 고려 때 어량소를 설치했다는 사실은 고려의 어업 경영 규모도 한두 사람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가 아니었으므로 所라는 집단을 두고 국가가 이에 관여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어량 수가 가장 많은 도는 충청도이며 (136개) 이어 황해도

4) 『高麗史』8, 世家 文宗 21年 2月 庚午

5) 『高麗史』32, 世家 忠宣王 2年 12月 甲寅

6) 『成宗實錄』, 189, 成宗 17年 3月 乙亥

7) 『中宗實錄』, 8, 中宗 4年 5月 壬寅

(127개), 전라도(50개), 경기도(34개) 경상도(7개) 함길도(2개)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수도 개경에 가까운 지역에 더 많은 어량소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국가나 왕실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어량소를 설치했다고 보여진다.

고려 왕조에서 司宰寺는 해산물을, 司膳署는 왕실에 음식을 조달하는 일을 담당했던 기관이었다. 이같이 특수한 공물을 국가는 중앙의 각 관청에 이관하여 그 곳으로 바로 납부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민들은 건어물뿐만 아니라 싱싱한 생선이 매일 필요한 司膳署에는 매일 바쳐야 했으리라 보여진다.

### 3. 魚梁의 소유형태

그런데 고려 왕조가 금, 은, 철, 비단처럼 많은 해산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전국 곳곳에 어량소를 설치한 까닭은 어량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편의에 따라 하사하기도 하였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회수하기도 하였다.

8) 궁인 김씨가 아들을 낳으니 왕은 이름을 欽이라고 하고 아울러 延慶院과 金銀器, 匹段, 田莊, 奴婢, 鹽盆, 魚梁을 하사하였다.<sup>8)</sup>

9) 禮曹參議 李先齊가 上書하기를…… 고려 때에는 鹽盆의 자리수[坐數]와 魚梁網所 藿田의 結卜이 모두 周官六翼에 실려 있고 왕자가 開福한 날에는 반드시 염분이나 어량을 주었으며, 그 寺社에도 혹 藿田을 주기도 하였습니다.<sup>9)</sup>

국가가 이들에게 하사한 것은 그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였다. 따라서 고려 전기까지는 정부는 대체로 토지뿐 아니라 그외 특수 물자도 수조권만 양도의 대상이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수조권도 권력 기관이나 권력자가 지니고 있으면서 수탈을 자행한다면 어민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고려 후기로 가면서 권세가의 어량 탈취와 발맞추어 점차 소유권으로 변질되어 간 것 같다.

10) 元나라가 任惟幹과 回回阿室迷里를 보내어 耽羅에 가서 진주를 채집하게 했다.<sup>10)</sup>

11) 원나라 황제에게 특별히 선물할 해산물인 새우, 조개 등에 대하여 도진승 신현이 해마다 내려오는 전례로 정한 액수외에 함부로 수량을 늘여 종전 수량과 함께 공물 목록에 기

8) 『高麗史』, 4, 世家 顯宗 7年 5月 乙巳

9) 『世宗實錄』, 117, 世宗 29年 9月 壬子

10) 『高麗史』 28, 忠烈王 2年 閏2月 丁酉

입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크게 해를 끼쳤다.<sup>11)</sup>

고려는 귀족사회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문종대부터 지방관의 수탈이 문제시되고 있다. 당시에는 주로 지방관과 토호들이 생선, 소금, 나무에 이르기까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국왕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자 담당 관청에서는 백성과 아전들이 영접하기 괴롭다는 구실로 사신 행차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구조적 부조리가 중앙정부 내에까지 침투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이와 같은 비리 중 어량이 눈에 띄게 수탈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몽고 간섭기에 들어서였는데, 몽고가 고려에 과도한 공물을 요구한 상황과 결부되어 더욱 어민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 즉 원이 사신을 보내어 탐라에서 진주를 구하는 등 민폐가 거듭되었는데 이를 틈타 충숙왕대의 신현은 자신이 치부하기 위해 원의 공물이라 하여 더 많은 해산물을 거두고 있다. 이로 보아 바닷가 어민들이 지배층의 수탈로 크게 피해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 4. 어민의 생활

고려시대 어민의 생활은 농민에 비해 특별히 궁핍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더욱이 금, 은, 이나 비단에 비해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수탈하는 수량은 한정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 바늘남시 하나가 쟁기와 호미 대신하니 / 그대 집 풍년은 오직 고기잡이에 있네. 천이랑 농사에도 먹고살기 어려운데 / 바닷가집 살림살이 언제나 묵은 양식 남았다고<sup>12)</sup>

2) (蔚州는) 원래 땅이 기름지고 또 물고기와 소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백성 중에 그 자리에서 부자가 된 자가 여러 집이 있었다. 이로 인해 軍國의 비용이 여기서 많게는 수천금에 이르렀고 해산물을 바치는 것 또한 적지 않았다.<sup>13)</sup>

3) 이따금씩 갈대꽃 사이에 두고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 들려오고 탁주를 물고기와 새우로 바꾼다.<sup>14)</sup>

고려시대는 농경이 생계 유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어 어업이 그 부수적 위치로 전락하였지만 바다를 통한 이익도 만만치 않았다. 1)은 이규보가 어촌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흥

11) 『高麗史』 84, 志 38, 刑法1 職制 忠肅王 5年 5月

12) 『東國李相國集』 14, 古律詩 漁父四首 <一隻針鉤當未鋤 豐年但卜海饒魚 農耕千畝猶艱食 沙戶尋常有宿儲>

13) 『新增東國輿地勝覽』 22, 蔚山郡 古蹟 古邑城 <素號沃饒 且利魚鹽 故民之坐致富者比屋皆然 因而軍國之需 多至累千海錯之貢 亦不爲少矣>

14) 『益齋亂藁』 10, 漁村落照 <時間笑語隔蘆花 白酒換魚蝦>

년에 농민들이 굶주릴 때에도 어민은 여유분의 양식이 남아 있음을 노래했다. 위의 낚시로 서 생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은 낚시로 대표되는 고기잡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올주는 어업을 통해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興海郡, 泰安郡도 마찬가지였다.<sup>15)</sup> 그러나 어업은 농업과는 달리 수확량을 예측할 수가 없어, 조세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국가에서는 중농정책에 더욱 주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은 일부 어량소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 일정액의 어량세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이 처분하여 생계를 이어 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업이 발달하여 교역을 통한 이익이 증대됨에 따라 권세가들은 토지겸병에 발맞추어 어량에도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 특히 몽고의 침입으로 농민들의 해도로의 이주가 더욱 장려되었다. 이에 피난을 갔던 농민들이 경작지가 부족하게 되자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들은 어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방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업의 발달이 촉진되었고 어업을 통한 이윤이 확보되자 권세가들은 어량이나 어선의 확보를 통해 어업에도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후기 자료이기는 하지만 조선 성종 17년(1486) 3월 上黨府院君 韓明澮의 啓에는 <각 도 魚箭을 국가가 빈민에게 주었으나 힘이 미약하여 스스로 설치하지 못하니 인근의 호민이 이를 설치하여 이익을 나눈다>고 하였다. 어전은 어량을 말하는 것이다.<sup>16)</sup> 이는 고려 전기의 영세한 가족 경영에서 대규모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같은 경영 형태는 고려 후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권세가들은 많은 자금과 노동력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어량이 필요로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어업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고려 후기의 어민은 농민들이 권세가의 토지겸병으로 토지 겸병으로 유리되거나 농장의 전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량이나 배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한 어량이나 배의 소유주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어량소가 권세가의 소유영역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고 어민들은 이제 권세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 5. 맺음말

수산물은 농경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우리 인류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양식이었다. 그러나 농경이 시작되면서 농업의 부수적인 위치로 전락하였으나, 어업은 여전히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고려왕조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라는 특수 공물을 납부하는 지역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는 어량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바다나 강이 있는 전 지역에 소를 설치했던 것은 아니고 대체로 개경에 가까우면서도

15) 『新增東國輿地勝覽』, 19.22, 興海郡, 泰安郡 참조.

16) 박구병, 1994, 「수산업」 『한국사』24, 국사편찬위원회.

漁梁 또는 魚梁이라는 명칭은 조선 成宗 때부터 漁箭 또는 魚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어량이 풍부한 일부 지역을 선정해서 소를 설치하였다. 일부 개경에서 거리가 먼 어량소나 소에 편입되지 않은 어민들은 米나 布로 바꾸어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어민들은 일정한 조세만 바치면 자유롭게 잡은 어획물을 매매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가서 어업이 발달함에 따라 토지 겸병과 마찬가지로 권세가들은 어량의 설치를 통한 사유화와 배의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 어량소도 권세가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어량을 해체시킨 또 하나의 사건은 왜구의 지속적인 침입이었다. 왜구의 침입으로 해안 지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지역으로 변모하면서 고기잡이, 소금 등으로 바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육지로 이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해산물의 조달은 물론 조운조차 불가능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도 지배층의 어량 확보를 국가가 저지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많은 자본과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가가 아니면 어량 운영을 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해산물은 生鮮干을 두어 충당시켰다. 그리하여 어량소는 이 같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 고려~조선시대 하천제방에 대하여

차 순 철 ■ 동국문화재연구원\*

### I. 머리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배산임수(背山臨水)>라 하여, 찬바람을 막아주는 산을 등지고 앞쪽에는 마실 물이 가까이 있는 곳을 첫 번째 조건으로 들고 있다. 물은 식수와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못을 만들고 수로를 정비해서 생활의 편의를 돌보아 왔다. 특히 논농사를 생업으로 하던 고대에 있어서 치수기술의 중요성은 국가적 관심사였다. 이렇듯 물을 관리하는 것은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빈민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1)</sup> 각 지역의 생활거점이 되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도심 중앙 또는 옆으로 흐르는 하천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대에는 하천변을 공원으로 개발하였지만 고대에는 이 지역은 저습지로 존재하였고, 생활공간이나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방(堤防, levee)이 만들어졌다.

제방의 축조는 강가나 호수 주변 그리고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과 사람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방은 어느 경우이든 물의 자연적(순리적) 유통을 막기 위한 인공 시설물로 저수(貯水)와 방수(防水)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

\* 동국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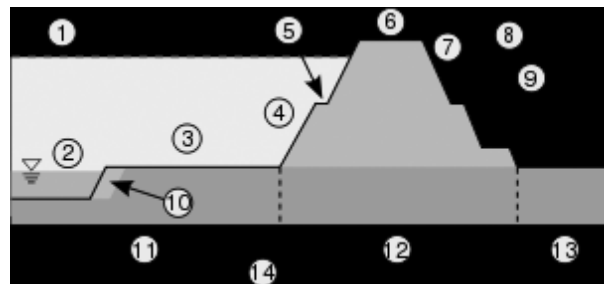
1) 조선시대 영조 36년(1760)에 이루어진 청계천 준설사업은 서울의 홍수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 결국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당시 백성의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하천의 범람을 막고 도시환경 중 위생을 고려한 국가사업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신병주, 2013, 『영조의 청계천 준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터 제방을 축조하였는데, 기록에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면 『삼국사기』에 신라 법흥왕 18년(531년) “유사에게 명하여 제방을 보수하였다(命有司修理堤防).”는 내용과 신라 헌덕왕 2년(810) “왕이 친히 신궁에 제사하고 담당관리를 보내어 국내의 제방을 보수하였다(王親祀神宮發使修葺國內堤防).”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330년에 축조된 벽골제(碧骨堤)는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벼농사를 위한 저수지로 당시 수리기술을 알려주는 자료이다.<sup>2)</sup> 한편 이러한 저수지의 축조와 함께 도심 주변을 지나는 하천변에도 제방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제방은 문헌기록이나 고지도에 그 흔적을 보여주지만, 하천변에 이루어진 퇴적작용과 유로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금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드물지만,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방유구는 당시 토목기술의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새롭게 그 가치를 재평가 받아야할 유적으로 생각되므로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Ⅱ. 제방의 기능과 용도

제방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하천이나 바닷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천 변이나 해안가에 접한 부분에 흙을 쌓아올린 인공구조물이다. 제방의 종류는 역할과 목적에 따라 본제, 부제, 놀둑, 운중제, 횡제, 도류제, 가름둑, 월류제, 역류제 등으로 분류한다. 제방에서 바라볼 때 하천쪽은 제방 바깥쪽, 그 반대쪽은 제방 안쪽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안팎이 바뀐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만, 집이 있는 토지를 제방으로 둘러서 보호하는 점을 반영한다.



[그림 1] 하천 제방의 단면도

(<https://ja.wikipedia.org/wiki/%E5%A0%A4%E9%98%B2>)

- 1.계획고수위(HWL) 2.저수위 3.고수위(하천부지) 4.지표면 5.바깥터
- 6.제방 둔덕 상부 7.범면(경사면) 8.안터 9.벼랑길 10.저수위 호안
- 11.제방 바깥지역 12.제방부지 13.제방 안쪽지역 14.하천지역

2) 김제 벽골제유적은 전북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했는데, 조선시대 초기에 축조된 벽골제 수문인 중심거(中心渠)의 형태와 축조방법을 조사한 결과 수문 형태가 중국 상하이 우송강(吳松江) 하구에 있는 지단원 원대수갑(志丹苑元代水閘) 유적과 매우 유사하고, 흙을 쌓아올리는 성토기법이 일본 사야마이케(狹山池)와 동일한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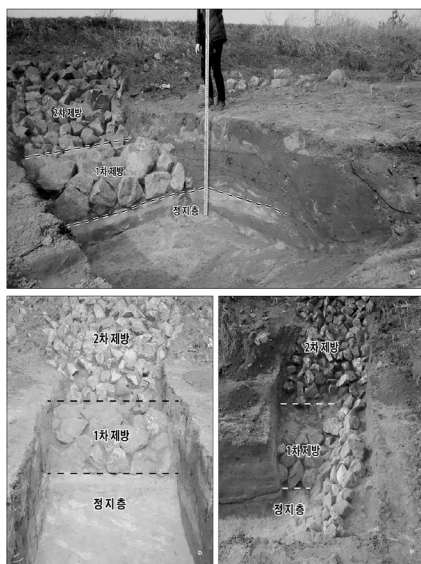
제방은 평탄한 모습의 정상부를 가지며 이 면을 제방 둔덕 상부라 부른다. 이 폭은 계획 고수 유량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3m 이상이다. 이러한 폭은 제방으로 들어오는 침투수에 대하여 안전한 제방 단면 폭을 확보할 뿐 아니라 비상 시 하천순찰 또는 홍수 시 수해방지 활동과 하천 관리용 도로 등으로 사용하므로 목적에 맞는 적절한 너비가 필요하다. 해안가의 경우에는 해일로부터 항만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 높이는 계획고조위<sup>3)</sup>를 고려하여 높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파도에 의한 침식이나 충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구력을 필요로 한다.

### Ⅲ. 제방 조사 사례

현재까지 하천 주변에서 확인된 제방유적들은 고려~조선시대에 해당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저수지의 경우에는 삼국~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지만 전체 모습이 확인된 경우는 드물다.

#### 1. 상주 병성천 북안 제방<sup>4)</sup>

경상북도 상주시 흥각동 200-4번지를 포함한 주변 병성천 일대에 위치한 조선시대 제방이다. 조사결과 병성천의 북안에 축조된 제방은 최소 2차례 이상의 축조단계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제방의 단면형태와 사용된 석재의 가공 상태 등에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도 1] 상주 병성천 북안 조선시대 제방(①3트렌치 측면, ②3트렌치 정면, ③2트렌치 정면)

3) 異常潮位때를 상정한 바다 수위

4) 동국문화재연구원, 2016, 『상주 병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상주읍성 성벽돌 발견지 문화재 발굴(표본)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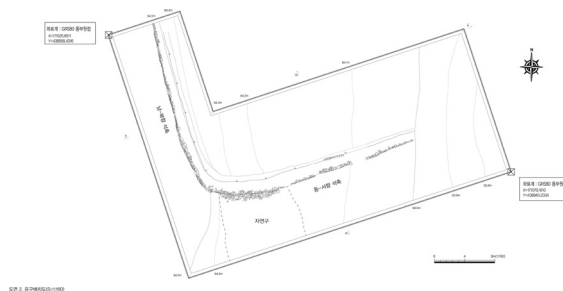
최초의 제방 축조흔적은 둔치의 지표면으로부터 1.3m정도 아래에서 확인된다. 자연퇴적층인 모래층을 정지하여 길이 80~100cm 내외의 대형 석재를 이용하여 외곽을 구획한 후, 안쪽에는 40~50cm 정도의 석재들을 채우면서 약 35°정도의 기울기로 1m 정도 쌓아올렸다.

1차 제방의 뒤쪽으로 약 2m 가량 물려 2차 제방이 축조되었다. 약 40cm 내외의 석재들을 45° 정도의 기울기로 2m 정도 쌓아올렸으며, 다시 뒤로 1.5m 정도 물려서 역시 45° 정도의 기울기로 1.5m 정도 쌓아올렸다.

제방의 석축열은 표본조사 결과 50m의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제방은 병성천을 따라서 길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안동 수하동 제방<sup>5)</sup>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729-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유구의 규모는 동-서향 길이 28m, 남-북향 길이 23m이다. 표본조사 당시 확인된 동-서향 유구의 서쪽 끝부분에서 조사 직전까지 사용되고 있던 농로의 방향과 평행한 남-북향의 석축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이 석축은 동-서향 석축에서 북쪽으로 완만하게 꺾여 'L'자형으로 연결되었다.



[도 2] 안동 수하동유적 조선시대 제방

동-서향 구간은 전체길이 약 28m 정도이고, 해발고도가 높은 서쪽 발 지역 일대에서 강으로 이어지는 동쪽 방향으로 축조되었다. 석축은 남쪽으로 면을 맞추어 1~3단 가량 확인되는데, 남-북향 구간과 연결된 서쪽부분은 3단으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갈수록 2단 정도 남아 있으며 동쪽 끝부분에는 1단의 석열과 일부 토축흔적만 확인되었다.

남-북향 구간은 조사구역 내에서 23m 정도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구역의 경계로부터 북쪽으로 약 10m 가량 떨어져 설치한 동-서향 탐색 트렌치에서도 일부 석재가 확인되어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농로를 따라 석축유구가 연결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남-북향 구간은 동-서향 구간과는 달리 서쪽은 석축을 하고, 동쪽은 토축을 한 것이 특징이다. 서쪽은 할석을 이용하여 바깥 면을 맞추어 4~6단 정도 수직에 가깝게 쌓아올렸으며, 그 반대쪽

5) 동국문화재연구원, 2015, 『안동 수하동 나루터 유적-안동 무주무(덕대지구) 침수지구 개선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은 완만한 경사로 사질토를 쌓은 후, 약간의 점성을 지닌 실트가 혼합된 사질토를 이용하여 피복하였다.

### 3. 양산 물금 황산언<sup>6)</sup>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중산리 일원에 위치한다. 조사한 구간에서 확인된 토석혼축제언은 낙동강변에 축조된 ‘황산언(黃山堰)’으로 추정되었다. 전체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문화연구원과 동서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한 구간에서 모두 확인된 점으로 볼 때, 전체 길이는 약 2,800m 이상으로 추정된다.



[도 3] 양산 물금 고려시대 황산언

황산언의 구조는 석심골격부와 토축언체부로 구분된다. 독의 기초부인 석심은 최대 너비 290cm, 내벽 높이 180cm, 외벽 높이 170cm가 잔존한 모습이다. 석축부는 축조 방법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되며, 토축부는 석심부의 양쪽에 쌓았는데, 정지부분을 포함해서 약 170cm 정도의 높이로 잔존한다. 외벽부에도 약 60cm 정도 높이로 잔존하는데, 초축 당시부터 기저부에 점토를 깔고 다시 그 위에 석축부를 쌓으면서 양쪽에 사질점토를 넓게 깔고 다져서 만들었다.

### 4. 대구시 칠곡읍 읍내동 491유적<sup>7)</sup>

대구시 칠곡읍 읍내동 491유적은 고려~조선시대 칠곡읍의 읍치가 위치했던 곳으로, 발굴조사 결과 대형 건물지, 수혈주거지, 석축 등이 확인되었다. 제방으로 추정되는 석축유구는 유적의 동쪽인 Ⅲ구역의 동쪽으로 치우쳐 북쪽에서 남쪽방향으로 길게 조성되어 있는데, 서쪽으로 10m 정도 떨어져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석축이 같은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

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2, 『양산 물금 황산언』

7) 대동문화재연구원, 2009, 『대구 읍내동 491유적Ⅱ-대구 읍내동 491번지 일원 공동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제Ⅲ구역-본문)

다.

석축유구의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25°-W)향으로 총 연장거리 115m, 직선거리 113m 정도가 남아있다. 이 석축은 하천을 가로지르는 제방의 외부로 돌출된 시설로 사방으로 벽면을 맞춘 점으로 볼 때,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한 시설이기보다는 하천을 도강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설물은 그 형태로 볼 때, 배를 대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 5. 경주 나산리 조선시대 제방유적<sup>8)</sup>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에 위치한 조선시대 제방으로 조사구역 내에서 석축과 석군이 확인되었다. 석축은 나산천의 범람으로 퇴적된 자갈층 상부에 축조되어 남-북 방향으로 길게 축조되었다. 석축은 규모 40~60cm 내외의 할석을 서쪽으로 면을 맞추어 길이 34m로 배치시키고, 뒤쪽인 동편은 10~20cm 크기의 할석과 천석으로 뒷채움하여 보강한 형태이다. 석축은 하천의 범람을 막아 근대지도(1914년 측량)상에 확인되는 소로의 유실을 방지하거나 남동쪽에 위치하는 마을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으로 추정된다.



[도 4] 경주 나산리 조선시대 제방

## IV. 맺음말

고대에는 논농사를 위한 저수지 건설을 통한 치수작업이 중요한 토목건설사업이었다. 이렇게 채득된 기술은 이후 강가나 해안가에 제방을 쌓고 물의 침입을 막고, 새로운 토지를 간척하는데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강가에 제방을 쌓고 농경지와 생활공간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서 현대 제방이 위치한 하부에서 당시에 만든 석축이 확인된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이들 석축의 축조상태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다이아몬드형 석축 쌓기와 달리 할석을 이용하여 뒤쪽으로 들어쌓기를 한 모습이 주로 확인되고 있다. 일정한 경사면을 유지하면서 육축부를 튼튼하게 만든 점은 강물의 흐름에 따른 압력

8) 성림문화재연구원, 2011, 『경주 나산리 조선시대 제방유적』

을 견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제방유구는 대부분 현 하천 주변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토사에 매몰되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고지도와 지형도 분석을 통해서 제방유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면, 고려~조선시대 토목기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토정 이지함의 섬과 바다에 대한 공간인식

장 용 기 ■ 목포mbc 편성제작부 부국장

## 1. 머리말

토정 이지함(1517~1578)선생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토정비결의 저자이고 패랭이와 삼베옷, 짚신을 신고 다니는 양반답지 않은 양반의 기인행각을 연상한다. 뭔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조선시대 신비스런 인물로 각인되고 있는 게 토정 이지함선생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실 인식이다. 토정이 조선전기 유교 성리학적 관점의 정치사회 지배 이념에 직접 간접적으로 도전하고 백성의 가난구제에 초점을 두고 시대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현실개혁론자였다 라고 하면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분들이 많다. 토정 이지함의 섬과 바다에 대한 공간인식을 주제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왕조 말기까지 해금정책과 함께 섬과 바다를 천시해왔던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였다. 심지어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면서 해금정책을 해제하고 일부 개방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조선은 명나라 전통을 이어야 한다는 사대의 대의명분아래 해금정책을 줄곧 유지해 왔다. 조선 지배층의 해금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돼야할 연구 과제이기도 하다. 단순히 사대라는 명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피지배층인 백성을 농업과 농토에 묶어둠으로써 사회 신분의 고정성과 폐쇄성 등을 통해 봉건질서를 유지하는 장점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 유교 성리학 사상이 당시 말업이라고 천시했던 상업과 광업, 수산업

등은 유통과 섬,포구,바다 등을 통해 물자와 정보, 사상이 교류되고 비교되는 개방공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봉건 왕조들은 개국 초기에 상대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상업과 해상무역을 속박하고 금지하였던 것이다.

토정 이지함은 충남 보령에서 고려말 정도전, 정몽주등의 제자를 길러낸 대유학자 목은 이색의 6대 손으로 태어난 양반 출신이다. 토정은 조선전기 중종 12년에 태어나 인조 명종 대를 거쳐 선조11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토정의 생애 전후인 16세기 시대적 사회적 상황은 각종 사화와 당쟁이 심했으며 조선 개국초와 달리 당시 지배층의 토지점병이 확대되고 토지세금과 군역, 요역이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강제됨으로써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던 시기였다.

이지함은 자신이 살았던 시기를 나라의 존망이 달린 위기사태로 진단하고 지배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본업인 농업으로는 백성들의 가난구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래서 농업을 본업으로 하되 수산업과 광업등 이른바 말업으로 어려움에 빠진 본업인 농업을 보충하는 절충안을 상소문을 통해 제시했다. 바다와 섬에 눈을 돌려 바다 섬의 강점을 살려 백성의 가난 구제를 하자는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토정의 획기적인 주장은 조선전기에서 후기까지 심지어 개혁론자로 일컬어지는 대유학자 이이에서 정약용에 이르도록 개혁성향을 지닌 성리학자들의 건의나 상소 등에서 찾아볼 수 없다. 토정 사후 200년이 지난 북학파에서 일부 학자들이 제기했을 뿐이다.

토정은 실용주의와 실천을 앞세운 경제사상가이자 사회복지 실천가이기도 했다. 특히 재야의 기인 토정과 제도권 관료 모범생 율곡과의 독특한 친분 관계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토정 이지함은 조선 성리학의 거목인 율곡 이이(1536~1584)보다 20여년 앞서 태어났고 비록 추구하는 학문의 길과 삶의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는 두 사람의 생각과 교류관계는 비교적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토정 이지함이 생애 마지막 해인 1578년 아산 현감때 질병으로 숨지자 율곡 이이가 큰 별이 졌다며 슬퍼했으며 6년 뒤에 이조판서였던 율곡이 죽자 선조가 통곡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이는 토정선생 술회기에서 “내가 일찍부터 ..속마음 내비치고 조금의 장벽도 없었다. (토정)선생은 나에게 인망(人望)을 요구했고 나는 선생에게 천방(天放)을 조금 거둘 것을 요청했다. 서로를 살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늦은 공업(功業)을 얻기를 빌었다..” (이이의 석담일기)

이같은 이이의 기록을 통해 기인으로 불렸던 토정 이지함의 정신세계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토정 이지함은 50대 중반을 넘어 유일로 관료로 천거돼 두 차례 지낸 현감 시절 백성들의 가난과 고통 실상과 이를 해소하는 위한 대책을 담은 상소문을 올렸다. 상소문 중에 이

번 주제발표와 관련돼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농공상의 엄격한 신분제, 직업제 사회에서 농사로는 (농본)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우니 말업(어염업, 광업)으로 보강하자는 내용이다.

이른바 바다와 섬의 강점을 활용해 백성의 어려움을 타개하자는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해금정책을 유지하면서 바다와 섬을 천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왔으나 토정은 구체적으로 전라도 만경현 앞의 양초도를 어업수산지지로, 황해도 풍천현 앞의 섬인 초도정을 소금생산기지로 만들어 그 곳에서 생산된 물고기와 소금을 곡식으로 바꿔 백성을 구제하고 국가재정에 보태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토정 이지함은 야인시절 한 섬에 주민들과 박을 심어 그 박 수만개를 팔아 곡식으로 바꿔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일화도 전해지는 등 자원으로서의 바다와 섬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것이다.

이번 주제발표에서는 양반가문에서 태어난 토정 이지함이 조선의 금기였던 바다와 섬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리고 토정의 이러한 바다와 섬에 대한 공간인식이 현대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 2. 바다와 육지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하자

### 1) 이지함의 생애

토정 이지함이 왜 조선시대 지배층이 금기시했던 바다와 섬을 중시하게 됐는지와 바다의 섬을 백성의 가난을 구제할 창고로 여기게 됐는지 먼저 생애사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토정은 태어난 곳이 충남 보령으로 바닷가와 접한 곳이고 상업 포구의 중심지인 한강 마포에 토정을 지은 것을 보면 어렸을 적부터 바다와 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보고 듣고 자랐을 것이다. 또 토정은 비록 양반 가문으로 태어났지만 삶은 순탄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종조할아버지 이파가 연산군 시절 폐비윤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조판서를 지냈다는 이유로 아버지 이치는 스무 살도 안된 나이에 진도로 유배되고 중종반정 이후 벼슬길에 나갔으나 지함이 14살 때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광산김씨도 2년 뒤 숨을 거뒀다. 형 지번 밑에서 공부를 했으며 지번도 몇 년 뒤 벼슬도 나가기 전에 유배생활을 했다.

지함은 10대때 부모를 여의고 형 아래서 공부하며 겪은 평지풍파를 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과 입장을 세웠으리라 생각된다. 보통 세상을 보는 입장과 관점은 10대 청소년 시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지함이 스무살 전후에 결혼한 처가 장인은 모산 수 이정랑으로 태종 이방원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줬던 2대 정종의 증손이다. 10여년 뒤인 1549년 토정 32세 때 장인이 충청도 이흥윤 역모사건으로 몰려 처형당하면서 지함도 연좌제에 걸려 벼슬살이 진출이 좌절되고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기인의 행각을 벌인 게 아닐까 추정된다. 앞서 1년전 1548년 을사사화를 비판하는 시정기 작성사실이 밀고되면서 처형된 예문관 검열관인 친구 안명세의 죽음도 벼슬살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일었을 것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충남 금산전투에서 순국한 충청도 대표 의병장이자 토정 이 지함의 제자인 중봉 조현(1544~1592)이 토정사후에 벼슬을 내려달라는 상소문에 따르면,

“...그가(토정 이지함) 거짓으로 미친 체하며 스스로의 몸을 숨긴 것은 화를 피하였다가 조정이 밝아질 때 시용되고자 함이오, 전적으로 세상에서 은둔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중봉의 상소에 나옴)

-출처 토정 유사 (한국의 민속종교사상, 삼성출판사 p.345)

## 2) 왜 섬과 바다인가

지함의 셋째아들 산룡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한 것을 보면 지함은 장인 역모사건이 일어나자 이에앞서 고향 보령에 내려온 가족을 데리고 섬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인다. 고향인 충남 보령 앞바다에는 안면도를 비롯해 삽시도, 원산도, 장고도, 덕적도 등이 있고 서천에서 가까운 부안과 김제 앞바다에도 선유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때부터 지함은 섬과 바다에 깊은 인연을 맺었으며 나중 수선(바다의 신선)이라는 호도 쓰며 배를 이용해 전국 곳곳을 다녔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함이 정확히 몇 년동안 잠행 생활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다, 그러나 조카 이산해가 쓴 ‘이지함 묘갈명’에서 5년동안 소식이 없었다고 한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함은 섬사람의 거친 삶의 현장을 체험하며 전국의 어부들로부터 바다와 섬에 관한 지식과 항해술과 조류의 흐름 등 지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섬사람들의 생활과 어업등 수산업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을 것이다.

.. 한조각 작은배를 타고 배의 네 귀퉁이에 커다란 바가지를 달아가지고 세 번이나 제주에 들어갔으나 풍량의 우환은 없었다고 한다. 손수 장사를 하며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빈손으로 생업을 경영해 수년간에 곡식 수만석을 쌓았다가 빈민들에게 나눠주고는 소매를 털고 가버렸다.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섬에) 박을 심어 박이 수만개 열렸다. 그것을 쪼개 바가지를 만들어서 곡식 몇 천석과 바꾸었다. 곡식을 경강의 마포에 옮겨다가 강촌사람들을 모아서 흙을 쌓아 토실을

만들었다..” (어떤 사람의 기사에 나옴)

-출처 토정유사 (한국의 민속종교사상,삼성출판사 p.339)

토정 이지함의 섬과 바다에 대한 인식은 신분관으로도 이어진다. 조선시대의 신분은 사농공상으로 사실상 어업이나 뱃일은 위 네 신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천인들이 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은 백사 이항복과 나중 인조의 장인인 된 유천 한준겸이 사마초시에 합격하고 회시 준비를 하면서 이지함이 기거하던 마포 토정에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면서 강의도 받고 나눈 대화이다. 이항복이 문기를 학식이 뛰어난 숨은 인재를 본 일이 있습니까 하자 토정은 많은 인재를 알고 있다면서도 그 가운데서 최고급의 인물 두 사람과 그다음 인물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답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그 한 사람은 항상 바다 위에 있으면서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충청도 해상에서 만났는데 10여년 뒤 전라도 바닷가에서 만났다..뱃짐도 적당히 싣고 운임도 욕심을 부려 받지 않았고..일찌기 먼바다에 고기잡이를 가는데 청하여 같이 갔다.그가 키를 잡고 노를 젓는 것은 다른 어부들이 따를 수가 없었고..딸이 고기값을 시장 가격의 배를 받아 반값을 되돌려주게 했다...성명을 물었으나 말하지 않았다..”

(백사 이상국(항복)이 기록한 바에 나옴)

출처 토정유사 (한국의 민속종교사상,삼성출판사 p.341)

두 번째 인물은 예순 가까운 늙은 나이에 책 읽기를 좋아하며 사제의 도리를 다하는 서사무, 세 번째 인물은 서얼 출신의 서기로 가난하고 신분이 미천하나 학문을 좋아해 지함이 재물을 내어 공부를 시켜 나중 훈천의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훗날 서인세력의 중심이 된 이항복이 자신의 문집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 때 토정의 답변이 상당히 인상 깊었던 듯하다. 토정은 당시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어부와 뱃사람을 최고급의 인물로 꼽은 것인데 이들에게 진정한 관료가 되면 신분을 가리지 말고 백성들의 실생활에 들어가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실용을 배우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 3) 상소를 통해서 본 섬과 바다의 인식

평생 재야생활을 한 토정 이지함의 직접 저술은 많지 않다. 말년에 지방관료에 천거돼 말은 두 개의 상소문과 대인설과 ,피지음설 욕심을 적게하는 과욕설등 간단한 설 세 편, 그리고 운장 송익필의 시를 차운한 시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차운한 시 두 편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조 1573년 토정 이지함은 조정대신들의 유일이라는 천거제도에 따라 57살 나이에 종6품 벼슬을 받고 포천현감에 부임하게 된다. 6품 이하는 임금이 주는 교지가 아니라 이조판서의 직인이 찍힌 사령장을 받았다. 토정은 비록 하급 지방관료지만 현의 상황과 백성을 구제할 방책을 임금에게 상소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 듯 하다. 포천현의 폐해를 진술해 올린 상소문은 이지함의 사상이 고스란이 담긴 글로 평가 받고 있다. 상소문에서 포천현의 실상을 죽음을 앞둔 병든 거지아이라고 표현하고 곡식이 부족한 가난의 원인을 백성의 게으름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구제 방법을 상책과 중책, 하책으로 구분해 지배층의 책임과 도덕성 회복 등 도덕의 창고를 여는 것은 임금이 풀어야할 상책, 적재적소 인물 등용 등 인재의 창고를 여는 것은 임금과 중앙관료가 해결해야 할 중책으로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다. 다만 포천 현감인 자신이 할 일은 하책인 바다와 육지의 창고를 열어 가난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사업 대안을 제시한다. 즉 가난은 정부의 식량 창고를 열어 구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본업으로 여기는 농업에 의존하는 시각을 벗어나 섬과 바다의 무궁한 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광업 상업등 말업으로 보충하는등 산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본말상보(本末相補)론이다.

“..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라도 만경(萬頃)현에 양초주(洋草洲)라는 곳이 있는데 공(公)에도 사(私)에도 소속된 곳이 없습니다. 만약 이곳을 잠깐 포천에 소속시킨다면 물고기를 잡아서 곡식을 바꾸면 수년 안에 수천 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소금은 황해도 풍천부(豐川府)에 초도정(椒島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에도 사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곳을 우선 포천에 소속시킨다면 소금을 구어서 곡식을 바꾸면 수년 안에 또한 수 천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포천현의 창고에 저장해 두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 쓰고 관비(官費)를 쓰게 해 원곡(元穀)의 회계에서 영구히 한 섬도 감하지 않는다면 미속(米粟)이 점점 감축될 염려가 없어져 영세(永世)에 항상 풍족한 즐거움이 있겠습니다. 더구나 조처를 잘하면 수만(數萬)의 자본을 이루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포천이 다른 날 국가의 대보장(大保障:일이 잘되도록 크게 보호하거나 뒷받침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포천이 이미 회복돼 소생한 뒤에는 양초주와 초도정은 또 피해를 열읍(列邑)에 옮겨주어 포천에서 한 것과 같이 한다면 널리 베풀어 여러 사람을 건지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출처 토정집 리포천시상소(전게서 p.334)

만경현 양초주에서 황해도 초도정까지 구체적인 사업 장소까지 열거하는 것은 토정 이지함이 얼마만큼 바다와 섬의 장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백성의 가난구제와 국부를 위해 현장을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생각해 왔다는 반증이다. 상소문에서는 관할주의 폐단도 지적하고 있다.

“..모든 산물은 다만 그 고을에서 취하며 쓰고 다른 고을에 있는 것은 항상 금지하여 취용(取用)하지 못하게 하니 이 또한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타도(他道)나 타관(他官)일 지라도 임금의 땅 아닌 곳이 없는데, 포천에는 바다가 없으니 해물을 다른 고을의 경계 안에서 채취하

는 것이 어찌 불가하다고 합니까...”

출처 토정집 리포천시상소(전계서 p.333)

구체적인 사업 실천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고기 잡고 소금 굽는데 부역(赴役)할 사람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자를 모집해 ,백성과 더불어 이(利)를 나눈다면 국가에서는 한 섬의 곡식도 소비하지 않고 한사람 인부의 힘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만인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고을도 백년의 계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습니까..”

출처 토정집 리포천시상소(전계서 p.335)

토정 이지함은 실학의 대표 사상가로 알려진 다산 정약용 보다 150년 앞선 인물로 정약용이 주어진 법과 제도 안에서 실용주의 개혁을 주장한 반면 토정은

국부를 증진하고 백성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관할 주위에 얽매인 규제를 풀어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이른바 실용적 개혁 개조론을 폈다.

또 농업(본업)에만 의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백성의 삶을 바다와 상공업(말업)를 통해 농업을 보완하고 부를 높여야 하고 필요하면 류쿠(오키나와)와 해상교역을 해야 한다는 조선의 해금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가정책 개조론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치유가 힘든 국가적 시혜보다는 지역과 개인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는 자립형 또는 생산적 사회경제복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 3. 결론과 현대사회에 주는 시사점

토정 이지함은 조선시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진 인물로 해석된다. 토정이 본 구조적 문제는 양민을 농토에 묶어 세금징수가 쉬운 지난친 농업 의존 정책과 사농공상의 폐쇄적 수직적 사회로 보고 있다. 양반으로서 패랭이를 쓰고 삼베옷을 입고 짚신을 신고 다닌 천민 행위와 천하게 여겨졌던 바다 섬사람과 서얼을 최고급 인물로 치켜 세웠던 행위 등은 당시 폐쇄적인 신분사회에 대한 무언의 도전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 사농공상의 고정적이고 수직적인 계층사회에 수산업과 광업 상업을 강조하는 것도 당시 유교 성리학의 지배이념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본을 농업과 사농에 두고 말업으로 보충하자는 상보론과 기인의 행각들이 첨예한 대립이나 음모론을 피해갈 수 있었지 않나 싶다. 어쨌든 토정의 1차 목표는 백성의 빈곤구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개방성과 역동성으로 상징되는 바다와 섬 상업 광업 수공업 등 당시 지배층의 생각과 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현대사회도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신분과 부의 세습론, 사회 양극화론, 대기업의 독점화, 저출산, 고령화등 관점에 따라서는 조선시대와 유사한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차이가 있다면 조선시대는 수직적 신분적 폐쇄성과 지나친 농업의존정책이 문제였다면 현대는 산업화 도시화정책에서 빚어진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토정 이지함이라면 지금 현대사회에 어떤 해안을 줄 것인가. 답은 산업화 도시화 정책의 대전환일 것이다. 농어촌 특히 한반도 육지 영토의 5배에 달하는 섬과 바다 연근해 공간을 어떻게 생산적 자립형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500년전의 토정 이지함은 다시 답하고 있다. (끝)

## 조선 후기 ‘해도진인설’의 의미

박 상 현 ■ 부산대학교 사학과

### 머리말

17세기 말 이후부터 유행했던 ‘해도진인설(海島眞人說)’은 해도(海島)에서 진인(眞人)이 출현하여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도참이다. 진인을 구원자로 상정하고 그 진인이 서·남해를 중심으로 한 해도에서 출륙한다는 점은 기존에 찾아볼 수 없던 독특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언비어의 소재가 되거나 변란모의 과정에서 동조자 포섭 혹은 선동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이후 신종교의 포교 과정에도 활용되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해도진인설’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예언서인 『정감록(鄭鑑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해도진인설’에 대한 연구는 『정감록』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같은 경향은 ‘해도진인설’이 현전하는 『정감록』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해도진인설’은 단지 『정감록』의 일부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감록』은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침착을 거듭한 예언서로서 그 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않고 있다.

‘해도진인설’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이 본래부터 『정감록』의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비롯하여 병존하다가 수용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도진인설’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 유포 과정을 살펴보면 본래부터 『정감록』의 내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비롯한 도참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해도진인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 ‘해도진인설’의 유행 배경

### 1) 구원자 출현에 대한 기대

도참은 민들의 바람을 수용하고 표현하는 사상이었다. 민들의 바람은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으로, 구원자의 출현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이때 구원자는 종교적 차원에서 신성(神性)이 강조된 이전의 구원자와 달리 신성과 인성(人性)을 겸비한 구원자였다. 이들은 먼 미래에 나타날 구원자가 아닌 현존하는 구원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구원자와 관련한 도참은 그 사실여부를 떠나서 민심을 얻기에 충분했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부에 위협을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유행하던 생불출현설(生佛出現說)과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 이망정흥설(李亡鄭興說)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성을 띠던 이들 도참은 17세기 말에 이르면 이들은 점차 서로 결합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먼저 생불출현설과 진인출현설의 결합은 1691년 무격에 의해 주도된 생불출현설 사건에서 확인된다. 이 사건에서 치병과 기복의 대상이었던 생불은 장차 나라를 얻을 인물로 나타나는데, 미륵의 현신(現身)인 생불이 민들의 의식 속에서 조선 왕조를 대신할 인물로 변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진인출현설과 이망정흥설의 결합은 진인이 정(鄭)씨 성을 가진 인물로 구체화되면서 이루어졌다. 17세기 초부터 진인은 다양한 성씨의 인물로 칭해졌으며, 정(鄭)씨는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다 17세기 중반 이후 진인출현설이 민들 사이에 더욱 확산되면서 진인은 점차 정(鄭)씨로 귀결되고 있었다. 두 도참의 결합은 진인과 정(鄭)씨가 변란에 이용되는 분위기 속에서 가능하였다.

### 2) 민의 해도 유입과 정부의 통제 결여

17세기 말까지 구원자의 출현은 대부분 별세계(別世界)나 육지의 어딘가에서 이루어졌으나, 18세기에 이르면 해도가 이를 대신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민의 해도 유입과 함께 그 실상에 대해 정부의 통제가 결여된 17~18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양란 이후 민의 해도 유입은 정부의 쇠환 정책과 도해(渡海)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으며, 17~18세기에 이르러 급속도로 증가한다. 서·남해의 자연환경 조건이 민들을 해도로 유도하기도 했지만, 보다 큰 요인은 전란과 대기근이라는 사회적인 상황에 있었다. 민들은 전란을 피해 토지로 부터 유리되었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유망하였다. 이들은 내륙 산간으로 들어가기도 했으나, 다수가 내륙 연안을 전전하다가 해도에 안착하였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반복된 자연재해, 기근, 전염병은 민들의 전국적 규모의 이동을 불러일으켰다. 계속된 기근 속에 국가의 재난대책이 한계를 드러내자 기민들은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대량의 유민이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다수의 유민이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

나기 위해 해도로 유입되었다.

서·남해 해도에 민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경제적 가치가 커지자 정부의 관심 또한 고조되어 갔다. 정부의 관심은 설진(設鎭)·설읍(設邑) 논의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정조 7년(1783)에 이르기까지 찬반양론으로 대립하며 그 필요성과 한계만 거론한 채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지속된 설진·설읍 논의는 오히려 서·남해의 해도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드러내었다.

결국 민의 해도 유입과 정부의 통제 결여 상태는 해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들의 이용가치를 높여주었다. 즉 해도는 민의 유입과 그에 따른 개발로 특정 세력이 발현하거나 의거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정부의 통제 결여는 그 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그것을 사실화시키는 데에 일조하였다.

## 2. 주요 사건으로 본 ‘해도진인설’

‘해도진인설’은 1694년, 서인 주도의 한국도모 사건 때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사건의 주요 자들은 다수의 동조자와 자금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해도진인설’의 유포였다. 당시 유포된 ‘해도진인설’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한구(韓構)가 강만태(康晩泰)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그 내용은 ‘해도에 정성진인(鄭姓眞人)이 있으며, 진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동조자와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구는 동조자와 재물을 확보하는 목적이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강만태에게 해도의 정성진인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이는 한국 계획 가운데 특정 사안을 ‘해도진인설’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해도진인설’은 정치적 동향과 관련하여 집권층의 정권 다툼 과정에서 처음으로 표면화 되었다. 그러나 1694년 한국도모 사건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발각되면서 ‘해도진인설’ 문제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일단락되고 만다.

이후 ‘해도진인설’은 1748년 ‘청주·문의 과서 사건’에서 다시 나타난다. 몰락 양반인 이지서(李之曙)는 청주와 문의에서 ‘해도진인설’을 유포하며 민심을 동요시켰다. 그 내용은 ‘무신란(戊申亂)의 가담자인 황진기(黃鎭紀)가 정성진인을 모시고 울릉도(鬱陵島) 월변(越邊)의 해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1748년에 유포된 ‘해도진인설’은 유포의 주체와 목적에서 1694년의 유포된 ‘해도진인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용에 사회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1694년의 경우 ‘해도진인설’은 한국 계획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었기에 굳이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 1748년의 경우는 민심의 동요를 통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데 목적이 있었기에 그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곧 ‘해도진인설’이 유포자와 그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몰락 양반인 이지서는 ‘해도진인설’의 유포를 통해 정부에 대한 불



만을 표출하였으나 어디까지나 몰락 양반 개인의 불만 표출일 뿐 이와 관련한 일반 민들의 동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민들이 점차 지배층 주도의 변란에 가담하면서 ‘해도진인설’과 같은 각종 도참을 유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은 1782년 ‘거사모의(擧事謀議)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81년, 홍국영(洪國榮) 일파가 축출되고 그 측근이었던 송덕상(宋德相)은 유배를 당하게 된다. 이를 빌미로 문인방(文仁邦)을 비롯하여 송덕상과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어온 인물들은 서울 공격을 계획한다. 이 계획은 결국 동모자인 박서집(朴瑞集)의 고변에 의해 발각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일반 민들이 가담하고 있었다. 사건의 주도자인 문인방은 동조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정감록』을 활용하였다. 『정감록』은 1739년부터 사료에 나타나고 있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상당히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정감록』에는 ‘해도진인설’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문인방은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정감록』을 믿는 자들을 끌어들었다.

문인방이 내세운 해도의 명칭은 소운릉(小雲陵)이며 사건 전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문인방에 따르면 소운릉은 거사를 위한 비밀 거점으로서 거사 시 식량의 조달처이자 전장(戰場)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소운릉의 위치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리 표현되었다. 아울러 양양을 기점으로 하는 구체적인 공격로가 정해졌음을 고려한다면, 문인방의 소운릉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동조자들을 포섭하는 수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해도에 대한 불투명성은 ‘해도진인설’을 거사 단계에 적용할 때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즉 문인방은 동조자들에게 거사 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할 소운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소운릉은 『정감록』에 나오는 해도도 아니었다. 결국 소운릉의 불투명성은 동조자들에게 거사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보이는 특징은 진인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경래(李京來)를 도원수(都元帥)로 삼고 거사 성공 후에는 송덕상을 대선생(大先生)으로 추존한다는 상세한 거사 계획이 있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문인방은 굳이 진인을 끌어들이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 까닭에 문인방은 거사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해도진인설’의 외형은 취하되, 진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거사 계획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성공 여부를 떠나 주목할 점은 변란의 일선에 다양한 민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해도진인설’이나 『정감록』과 같은 도참이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도진인설’은 목적에 따라 그 실체에 상응하는 설득력이 필요한 도참이었다. 즉 이것이 유언비어의 유포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실체와 상관없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목적이 거사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실체를 갖추지 못할 때 설득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 3. 『정감록』으로의 수용

현재까지 ‘해도진인설’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주로 『정감록』에서 발로된 설이라는 전제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는 현전하는 『정감록』 속에 ‘해도진인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감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저자와 출현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둘째, 정확한 원본 없이 수많은 이본만 전해지고 있으며 셋째, 거듭된 전사(轉寫)로 인해 언제 어떠한 내용이 첨삭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해도진인설’이 『정감록』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감록』에서 발로된 도참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해도진인설’은 『정감록』에서 발로되었기보다는 구원자와 관련한 도참에 당대의 사회적 상황이 접목되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1691년 생불출현설 사건을 살펴보면, 주모자들은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한양이 장차 망하고 전읍(奠邑)이 일어날 것’이며, ‘7세 때 사라졌던 정필석이라는 생불이 수양산 의상암에서 내려와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에 의하면 개별적으로 퍼졌던 생불출현설이 이망정흥설 및 사라진 아기장수 설화와 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대화 내용에서 특정 비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1691년 생불출현설은 여러 도참의 자연스런 결합에 의한 것이지 특정 비기를 바탕으로 거론된 것이 아니었다.

이때 생불출현설은 ‘해도진인설’과 구조나 내용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 생불은 진인처럼 정(鄭)씨 성의 비범함 인물이며, 수양산에서 내려와 나라를 얻는다고 한다. ‘해도진인설’과 비교하여 진인 대신 생불이, 머물고 있는 곳이 해도 대신 수양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해도진인설’ 역시 특정 비기를 토대로 한 도참이라기보다 도참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해도진인설’에는 당시 해도의 실상이 추가적으로 접목되었던 것이다.

‘해도진인설’이 『정감록』에서 발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1694년 환국도모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한구는 강만태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해도진인설’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감록』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만약 ‘해도진인설’이 『정감록』의 내용이었다면 ‘해도진인설’보다는 『정감록』을 거론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해도진인설’은 『정감록』과 병존하는 가운데 점차 『정감록』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748년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주모자인 이지서는 ‘해도진인설’을 유포하여 인심을 동요시키려고 하였다. 이때 이지서가 이용한 비기는 『정감록』이 아닌 『도선비기(道洗秘記)』였다. 이지서는 국문 과정에서 『도선비기』의 ‘사왜비왜설(似倭非倭說)’, ‘용두사미(龍頭蛇尾)’ 등과 같은 비기지설(秘記之說)을 스스로 지어냈으며, ‘울릉도방도설(鬱陵島旁島說)’과 ‘금산봉계설(金山鳳溪說)’ 역시 스스로 지어낸 것이라고 실토하였다. 한편, ‘황진기생존설(黃鎭紀生存說)’은 상주(尙州) 읍내의 조근(趙勤)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지서는 기존의 『도선비기』에 가탁하여 ‘해도진인설’을 마치 『도선비기』의 내용인 것처럼 조작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지서가 유포한 ‘해도진인설’이 『정감록』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1748년까지도 ‘해도진인설’이 『정감록』에 수용되지 않은 채 병존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해도진인설’이 『정감록』에 수용된 모습은 1785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사(地師)인 문양해(文洋海)는 지리산 기슭에 위치한 하동을 중심으로 동조자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체제 저항을 기도한다. 문양해를 비롯한 주모자들은 『정감록』뿐만 아니라 도교 또한 주요 논리로 삼았는데, 이때 『정감록』의 이명(異名)으로 보이는 『정감록비기(鄭鑑錄秘記)』 속에는 ‘해도진인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양해는 동조자들에게 ‘임자년(壬子年)에 도적이 나타나고 그 후에 삼분(三分)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그 삼분의 성씨는 정(鄭)·유(劉)·김(金)가인데 필경 정가(鄭哥)가 하나로 통일시킬 것이며 남해의 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해도에서 정성진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전형적인 ‘해도진인설’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감록』과 병존하던 ‘해도진인설’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감록』으로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 맺음말

17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는 다양한 도참이 퍼져 있었으며, ‘해도진인설’은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진인을 구원자로 상정하고 그 진인이 해도에서 출륙한다는 점에서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던 독특한 형태의 도참이었다.

‘해도진인설’은 구원자 출현에 대한 민들의 기대와 해도에 대한 정부의 통제 결여라는 조건이 맞물리면서 비롯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은 당대의 사회 분위기나 상황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도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도참을 통해 그 시대상을 엿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18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해도진인설’은 유포자가 처한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해도가 특정 인물이나 해도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인과 해도는 점차 상징화되었다.

하지만 해도의 진인은 끝내 출륙하지 않았다. 진인이 출륙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좌절을 의미하기보다는, 여전히 해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음을 뜻한다. 그 결과 해도에서 진인이 출륙한다는 ‘해도진인설’에 대한 믿음은 지속될 수 있었다.

17세기 말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해도진인설’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정감록』의 일부 내용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해도진인설’은 『정감록』에서 발로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현전하는 『정감록』에 ‘해도진인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에 보이는 도참의 동향과 일련의 ‘해도진인설’ 사건은 오히려 『정감록』이 ‘해도진인설’을 수용했음을 방증한다.

# 재일 제주인 ‘제주도 수산업개척 선각자’ 박기만과 해녀들의 이주와 정착<sup>1)</sup>

김 동 전 ■ 제주대 사학과

## I. 머리말

조국을 떠나 망향의 설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흔히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명명한다. 이들은 근대 국민국가체제에서 민족 경계의 산물로 비국민으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아 온 타자화의 대상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은 대다수의 디아스포라를 형성하였다. 일본 오사카 이쿠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주인의 일본 진출과 재일제주인사회의 형성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디아스포라는 강한 민족적 소속감을 가지며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일 수 밖에 없다. 재일제주인들이 정착과정에서 당한 차별적 대우는 이루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차별과 피해의식 못지않게 재일제주인들은 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 바로 이점이 최근 디아스포라 연구에 긍정적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재일제주인 사회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로컬리티 관점에서 디아스포라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sup>2)</sup>

본 발표에서는 박기만과 그를 따라 일본 보소반도(房総半島)에 정착한 제주 해녀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의 정착 배경과 千葉縣 安房郡 와다마치(和田町)의 長興院에 조성된 재

1) 이 글은 제19회 한국일본근대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千葉縣 安房郡 長興院의 濟州出身 墓」라는 주제로 발표(2009. 6. 13)되었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2) 이상봉, 「디아스포라와 로컬리티 연구」, 『한일민족문제연구』제18호, 한일민족문제학회, 2010. 6..

일제주인 20여 기의 묘가 그들의 삶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다.

## Ⅱ. 長興院 재일제주인 墓의 실태

와다마치 長興院에는 일본인 묘와 함께 재일제주인 묘 20여 기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보소반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물질 경험을 했던 잠수이거나 잠수들을 인솔했던 사람들로 그 중심에는 ‘박기만’의 묘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재일제주인 묘의 실태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일본 보소반도



長興院의 墓 全景



박기만의 묘

〈표 1〉 장흥원 소재 재일제주인 묘의 실태

연번	비명(은 필자)	출신지	거주지	생	사망	건립일	건립자 및 명단	비고
1	朴基滿之墓	북군 한경면 판포리	千葉縣 安房郡 和田町	1904년 3월 17일생	1971년 12월 8일	1974년 4월 5일	주 안흥(孫 성부), 의도, 태웅(손 철휘), 건치(손 세종), 명흥, 건식(손 장인), 민홍	제주도수산업개척선각자
2	密陽朴家(高月娥)	한경면 今勝里	和田町	1907년	1989년 9월	1989년 11월	장남 의도, 차남 건치(자녀 세종, 미제, 미화), 삼남 건식(자녀 장인, 수사, 장사), 장녀 수자(자녀 경지, 건지, 현지, 경자)	朴義道 (1992. 5. 24. 51세) 高月娥 (1989. 9. 19. 82세) <sup>3)</sup>
3	秦家之墓(秦昌日) <sup>4)</sup>	북군 한경면 판포리	安房郡 和田町 仁我浦		1966년 2월(향년66)	1977년 4월 5일	처 高春生 아들 秦秀男	
4	水原白家之墓	남군 대정면 신도리				1985년 6월 5일	장남 白仁賢 차남 白仁芳 장손 白淳	淑(부인?) 1980년 11월 6일 66세
5	豊基秦家之墓(秦恒文)				1972년 1월 18일(68세)	1977년 4월 5일	泰宗, 俊喜, 承喜	康戌生 1985년 8월 11일(77세) 부인?
6	耽羅高家之墓(高寬立)	북군 한림읍 월령리 385번지	横浜(빈)市 中區 石川町			1990년 10월 27일	처 文春烈 장남 高茂松 차남 高茂正 장녀 고수자	
7	豊基秦家之墓(秦琪立)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2749	埼(?)玉縣 三郷市 新和	1918년 5월 18일	1989년 12월 17일	1990년 3월 25일	처 申成善 장남 秦政浩 장녀 秦永子 차녀秦良美	
8	光山金家之墓(金平修)	제주도 북군 한경면 판포리			1973년 3월 26일	1989년 6월 5일		

3) 淑夫人 탐라고씨 고월아는 탐라왕 말노32세손. 父 高樑浩 선생, 母 梁明月 여사의 장녀. 1907년 6월 20일 제주도 한림면 금릉리에서 출생. 1939년 3월 夫 朴基滿과 함께 같이 일본 和田浦에 왔다. 1989년 9월 19일 타계, 향년 82세. 施主 장남 義道; 차남 健治, 차남 자 世宗, 차남녀 美幸, 차남녀 美和; 三男 健植 삼남자 將人, 삼남녀 修史, 삼남녀 蔽史; 장녀 秀子, 장녀자 敬志, 健志, 賢志, 장녀녀 敬子

4) 1919년 도일, 大阪市 稻荷町에서 하숙집 경영하면서 도일동포를 취직시키면서 생활. 1922년 ~1930년 대판시 生野町 小西 硝子 工場에서 人事取締役으로 근무. 그후 西成(?)區에서 운반업 경영하다가 태평양전쟁이 발생하면서 安房郡 和田町 仁我浦으로 疎開되어 大原合同營業所에서 근무 중에 終戰 肝臟(간장) 煩 - 간장병으로 장기간 요양 중에 藥石(약과 침, 병의 치료)이 효과가 없어서 永眠하였다. 풍기인 입도 18대.

연번	비명()은 필자	출신지	거주지	생	사망	건립일	건립자 및 명단	비고
9	全州李家之墓(李永華)	제주 북군 한경면 두모리			1969년 4월 16일	1973년 4월 5일	장남 勇一 차남 勇林 삼남 勇龜 사남 勇基 장손 敏秀	부인 高永淳, 1992년 4월 28일
10	遼山后人李順白之始墓 <sup>5)</sup>	제주 남군 안덕면 사계리			1958년 음력 2월 18일(43세) 사망	1977년 11월 12일	李武雄	부인 진인옥 1995년 2월 9일 74세 사망
11	光山金家之墓(金尙中)			1910년 8월 1일	1982년 12월 1일(72세)			부인 진주 강씨 卯春 1915년 1월 14일 생, 1976년 2월 18일 사망 (62세)
12	牙山朴氏家之墓(朴昌演)				1992년 12월 24일(76세)	1997년 4월 길일	朴信江 朴成哲 李敏子 朴仁吉	李時仁 1984년 11월 20일(68세)
13	淸州韓家先祖代代之各墓靈							
14	延州玄氏珍協之墓	제주도 북군 한경면 두모리			1984년 2월 7일(60세)	1987년 5월 10일	장녀 井上良美 사위 井上昭治 여손 由理 남손 健太朗	玄禎嫻 9녀 현진협
15	隆興泰榮信士 妙順淸賢信女					1992년 4월 길일	秦(없음)	조부 秦聖淡 조모 朴基生 82세
16	軍威吳氏丙生	제주도 남군 대정면 상모리	동경	1916년 7월 22일	1991년 7월 5일 75세	1992. 10. 10	李昌奎, 金0子, 李昌奎(同名), 崔香愛, 李玉子, 愛子, 銀子	

5) 이순백 18세에 일본 도일, 대판도착하여 수년 後에 配(혹은 後配) 秦仁玉 제주북군 한경면 판포리 대동아전쟁 당시에 千葉縣 陳開安房郡 和田町 4남 4녀 장남 武雄, 이남 和雄, 삼남 東植, 사남 敏雄; 시주 配 진인옥, 장녀 秋子, 이녀 敏子, 삼녀 和子, 사녀 君子

연번	비명()은 필자	출신지	거주지	생	사망	건립일	건립자 및 명단	비고
17	晉州秦家(秦季禮)	제주 남군 안덕면 상창리 491번지			1987년 9월 74세	1990. 5. 길일	처 장남 昌淑 이남 明淑 녀 玉順	
17	軍威吳家之墓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동경도 江戸川區 篠崎町 3-17-14			1990. 5. 20	시주 吳益鐘 장남 吳永德 이남 吳哲德	
19	全州李家之墓(李勇林)	제주 북군 한경면 두모리	동경도 葛飾區 奥戸 5-20-4		1993. 10. 29 48세	1994. 5. 7	처 金靜子 장남 李仁博	
20	金海金家之墓(金太允)	제주 한림읍 금릉리		1950. 음 3월 29일	2001. 1. 20, 79세	평성 8년 9월 길일	처 金潤玉(王), 子 益珍, 孫 和弘, 孝行, 子婦 梁秋子, 女 光代	
21	光山金氏家之墓(金昇鐸)	제주 남군 대정읍 신도리(본적 전남 무안군 - 老面 月岩里)			1966년 12월 27일	1973년 7월	장남 金英植, 孫 金優哲; 차남 金龍男, 孫 金淑美, 장녀 金峰月; 차녀 金麗月	
22	南陽洪家之墓(洪萬年)	제주 북군 한림면 협재리 2019	橫濱(빈)市 中區 大和町 2-33		1993. 10. 10, 63세	1994. 9. 길일	李在旭	처 李在旭 (2000. 6. 20, 64세)
23	新井家之墓							李貞珩 <sup>6)</sup>
24	高田家之墓	제주 북군 한림면 웅포리					金花仙 高田 富男 高田 順子 高田 由希 高田 眞希	金花仙 (2007, 90세)

## 출신지 : 24명 중 16명 출신지 확인 가능

면(읍)명	한경면		한림읍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	계
리명	판포리	두모리	월령리	금릉리	협재리	웅포리	신도리	상모리	사계리	상창리	호근동	11
인원	3	3	1	1	1	1	2	1	1	1	1	16

6) 2003년 6월 16일, 87세. 1915~2003 해녀(海潛 子供 愛生).



## 본관별 : 총 24명 중 22명 확인

본관	풍기 진씨	광산 김씨	밀양 박씨	제주 고씨	전주 이씨	군위 오씨	수원 백씨	요산 이씨	아산 박씨	청주 한씨	연주 현씨	진주 진씨	김해 김씨	남양 홍씨	계
인원	3	3	2	2	2	2	1	1	1	1	1	1	1	1	22

□ 출생년대 : 재일제주인 1세 19명 중 → 1904~1909 5명, 1910~1919 11명, 1920년대 2명, 1930년대 1명, 나머지는 2세 묘로 추정

## □ 주요 인물

- 1) 박기만 : 1904년생, 와다우라에서 제주도 출신 수산업 개척의 선각자, 판포리 등에서 해녀들을 모집하여 일본으로 건너감.
- 2) 고월아 : 해녀, 1907년생, 박기만의 부인, 부 高樑浩, 母 梁明月
- 3) 박기생 : 해녀, 1910년생, 박기만의 여동생으로 추정, 남편 진성담 → 이를 계기로 풍기진씨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 아닐까?
- 4) 진인옥 : 박기생의 딸, 바기만 조카, 해녀, 판포, 1921년생, 남편 이순백(사계리)
- 5) 강무생 : 해녀, 1908년생, 남편 진항문
- 6) 강묘생 : 해녀, 1915년생, 강무생과 형제인듯?, 남편 김상중,
- 7) 신성선 : 해녀, 1910년대 말 20년대초 출생, 남편 진기립
- 8) 이시인 : 해녀, 1916년생, 남편 박창연
- 9) 김화선 : 해녀, 1917년생, 남편 옹포(고씨)
- 9) 이정형 : 해녀, 1915년생, 박기만의 넷째 부인
- 10) 이영화 : 박기만의 처남, 박기만의 처 이기생의 동생
- 11) 고영순 : 이영화의 부인
- 12) 문춘열 : 5번 고관립의 처, 박기만의 처 이기생이 본 남편 문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 Ⅲ. 박기만의 와다우라 정착과 해녀의 물질

박기만은 아버지 박인형과 어머니 김병화의 장남으로 한경면 판포리 2003번지에서 1904년 3월 17일(묘지명)에 출생하였다.<sup>7)</sup> 어린 시절을 어렵게 지낸 박기만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15세인 1918년이였다. 당시 제주는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로 제주청년들은 노동시장을 찾아 오사카로 서서히 진출하던 시기였다. 한경면 금등리에 거주하는 고영주(84세) 씨는 박기만을 키가 약 180cm에 체구가 큰 호남형의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다고 전해진다. 제주도 해녀들이 일본에 건너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1903년 김녕리 출신 김병선(金丙先)이 몇 명의 해녀를 데리고 도쿄(東

7) 그의 제적부에는 1902년 9월 10일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京) 미야케지마(三宅島)에 진출하면서지만,<sup>8)</sup> 박기만이 처음부터 해녀를 모집하여 보소반도로 진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여타의 제주 청년들처럼 오사카 노동시장을 처음 찾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배를 다루는 솜씨에 능숙했던 그는 일본 어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매우 열악한 노동현장보다는 어장을 통한 수입이 훨씬 이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제주로 돌아와 판포리, 두모리 등의 해녀들을 모집하여 1920년대부터 보소반도 와다우라 등지에서 우라우케(浦受ヶ, 바다밭 매매업자)를 업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우라우케는 매년 고기 잡을 시기가 되면 입찰에 따라 바다밭을 산다. 그러나 아무나 우라우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일정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처음 박기만은 일본인 우라우케에게 잠수들을 알선하는 인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후에 자신이 직접 바다밭을 사게 되었다. 박기만이 낚선 보소반도에서 바다밭 매매업자로서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무엇이였을까? 개인적인 성실함과 적극적이며 호탕한 외부지향적 성격, 배를 잘 다루는 기술, 그리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인적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박기만은 개인 혹은 조합이나 마을이 소유하고 있던 바다 밭을 여러 가지 통로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자가 거의 없는 미역 바다밭은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살 수 있었지만, 전복 바다밭은 지역 관리자의 이름을 빌어 입찰에 참가하였다. 따라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당연히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바다밭을 구입한 박씨는 우라우케로서 자신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인솔자의 일을 시켰다. 한경면 판포리가 고향인 박기만은 판포리를 중심으로 두모리, 금등리 등 뿐만 아니라, 한림읍, 대정읍, 안덕면 지역 출신 잠수들까지 모집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위 박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친·인척의 혈연과 지연에 바탕을 둔 소위 ‘웬당조직’이 깊게 개입되어 있었다. 제주에서 잠수들을 불러드려서 자신이 입찰한 바다 밭에서 물질을 하도록 하였고, 잠수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였기 때문에 잠수들은 박씨를 ‘오야카타(親方, 우두머리, 책임자)라고 불렀다.<sup>9)</sup> 물론 그 과정에서 사례금을 놓고 지역 관리자와의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기만이 일본 현지에서 소송에 연루되어서 몇 년간 제주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다는 구술 내용에서도 확인된다.<sup>10)</sup>

제주에서 모집된 제주의 잠수들과 인솔자들은 키미가요마루(君代丸)을 타고 오사카에 도착한 후에 우치보(内房)선 전철을 타고 보소반도에 도착한 후에 전복밭, 우뭇가사리밭, 미역밭 등 각자 알맞은 바다밭으로 배치되었다. 그중에 최고는 전복이 풍부한 전복밭으로 물질을 가장 잘 하는 ‘상잠수’들이 배치되었다. 그 과정에는 철저하게 일본 현지 조합의 요구를

8) 마스다이치지(栴田一二), 『濟州島海女の 地誌學的研究』, 1934년.

9) 김영.양징자 저/정광중.좌혜경 역,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각, 2004.

10) 고영주(84세) 구술(2010. 10. 5).

반영하여 우라우케가 결정한다. 제주출신 인솔자들도 각자가 담당하는 바다밭으로 잠수들을 나누어 데리고 간다. 인솔자들은 고용주와 잠수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 주거나 계산을 해주며 잠수들이 벌어들인 것에서 1% 남짓의 일정한 이윤을 취했다. 제주출신 해녀들 가운데는 1년은 기간으로 일정기간 물질을 하다가 제주도로 돌아오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그러나 현재 묘가 조성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지에 정착하여 생활한 사람들이다.

특히, 박기만은 보소 지방의 가나야(金谷), 반다(坂田), 가츠야마(勝山), 스노사키(洲崎), 이토(伊戸) 등지 뿐만 아니라, 가츠우라(勝浦), 나메가와(行川), 가모가와(鴨川), 후토미(太海), 지쿠라(千倉) 등 일본인이 운영하는 바다밭에도 잠수를 소개하여 잠수와 인솔자들을 보냈다.<sup>11)</sup>

보소반도에서 제주 잠수들의 생활과 물질은 제주의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였다. 의식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생활은 제주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이, 한 방에서 자고, 모두가 둘러 앉아 손가락으로 큰그릇과 냄비 안에 든 밥과 음식물들을 같이 떠서 먹었다. 특별한 반찬이 있을 수 없었다. 잠수들이 물질을 준비하는 탈의실은 일본 해녀들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물질하고 나와서 불을 쬐는 ‘불턱’이 곳곳에 마련되기도 하였다. 일본 현지에서 제주의 테왁을 구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주 잠수들은 현지에서 나무로 만든 테왁, 소위 ‘탐포’라 부르는 일본식 테왁을 사용하였으나 일본 해녀들의 사용 방식과는 달리 제주 테왁 사용법처럼 잠수들이 물질하고 나와서 테왁에 의존하여 호흡하기 쉬운 넓고 평평한 면을 위쪽으로 하여 이용하였다. ‘빗창’과 같은 잠수 도구도 일본 바다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일본 도구를 받아드리기가 쉽지 않았다.

태평양전쟁기가 되면서 감태 수요가 급증하자, 보소반도의 제주 잠수들도 감태 채취에 참여하였다. 원래 감태는 다시마목 미역과의 여러 해살이 해초류로 알긴산 요오드·칼륨을 만드는 주요 원료가 되었다. 제주도 및 일본 본토 중부의 태평양 연안에 많이 자생하고 있던 감태는 식용으로 쓰이지 않고, 썩혀서 농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염화칼륨 및 화약품 수입이 어려워진 일본은 이 감태에서 추출한 요오드와 칼륨을 화약의 원료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당시 제주 성산포 등지에서도 요오드 공장 등이 설치되어 감태에서 화약 원료를 채취한 것을 감안해 보면, 제주지역에서도 잠수들이 감태 채취에 많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보소반도 와다우라에 정착한 박기만과 제주 잠수들은 현지 주민들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였다. 따라서 잠수들의 성적 네트워크도 자유스럽지 못하였고, 제주 출신 잠수들 가운데는 박기만을 따르는 자가 많았다. 박기만의 제적부에는 부인이 고월아(高月娥)와 이정

11) 김영양장자 저/정광중·좌혜경 역,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각, 2004.

행(李貞珩)으로 되어 있다. 박기만과 고월아 사이에 7남 5녀, 이정형과의 사이에 1남으로 모두 8남 5녀로 13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 ①박○제(1929, 판포 2003번지)
- ②박○심(1932, 판포 2003)
- ③박계○(1938, 판포 2003)
- ④박○도(1941, 和田町 仁我浦 117번지)
- ⑤박기○(1936, 한림 1406번지)
- ⑥박의○(1939, 한림 1406)
- ⑦박안○(1940, 한림 1406)
- ⑧박○자(1942, 한림 1406)
- ⑨박○웅(1944, 한림 1406)
- ⑩박○치(1946, 한림 1406)
- ⑪박명○(1948, 한림 1406)
- ⑫박○식(1949, 한림 1406)
- ⑬박민○(1953, 한림 1406) : 母 이정형

그러나 구술자료에 의하면, 박기만의 부인은 모두 3명 혹은 4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부인 차씨(차기생?, 판포리, 오사카 사망), 둘째부인 이기생(두모리), 셋째부인 고월아(금등리), 넷째부인 이정형(금릉리)이다. ①과 ③은 차씨, ②와 ④는 이기생, ⑤~⑫는 고월아, ⑬은 이정형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라는 것이다. ①박○제는 일본에서 물질을 하다가 판포리에 거주하는 박기만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하여 1949년경에 귀국하여 1950년에 두모리 高○柱와 혼인하여 박기만의 어머니가 사망하기까지 보호하였다. 지금도 판포리에는 박기만의 가까운 친인척이 없어서 박기만 부모의 별초를 박기만 사위인 高○柱가 하고 있다고 한다.

#### IV. 맺음말 : 사회문화적 의미

박기만의 고향인 판포리에서 박기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금등리에 거주하는 그의 사위만이 그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와다우라에서 물질하던 박기만의 큰딸 박○재가 박기만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하여 판포리로 돌아와서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7번의 진기립만이 두모리 마을회관 비석에 장학성금 기탁자 명단에 27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박기만의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권당들이 조직적으로 보소반도로 바다밭 매매업자, 잠수 인솔자, 잠수로서의 물질을 위해 일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으나, 끝내 그

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현지에 묻히는 신세가 되었다. 박기만 부모의 묘소도 84세의 노인인 박기만의 사위가 돌보는 처지이다. 아마 사위가 돌아가시면 묘소 관리도 힘들지도 모른다.

이제 박기만을 중심으로 한 혈연, 지연공동체의 상징은 일본 보소반도 와다우라의 장흥원 묘역이다. 제주에서 사라져 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은 민족적 차별을 받으며 삶을 영위해 온 타국에 존재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 묘역에서는 이국에서 삶을 영위해가면서 형성된 복잡한 가족관계가 일정하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2010년 9월 23일 『한겨레신문』의 ‘1920년대 이주해 잠수기술 전수, 와다우라 지역경제에 자취 남겨’란 기사 내용은 잃어버린 이들의 삶을 재조명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박기만과 제주 잠수들이 정착하기 이전 그곳에는 일본해녀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박기만이 처음 그곳에 잠수기술을 전수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주출신 박기만과 잠수들이 보소반도로 진출하면서 보소반도 수산물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박기만과 제주 잠수들이 보소반도로 이주하면서 잠수 어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지역주민과 제주 잠수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박기만의 묘비에 ‘濟州道水産業 開拓先覺者’라 새겨진 바와 같이, 현지 지역주민들도 같은 생각일까? 아니면 박기만의 삶을 단순히 부각시키기 위한 후손들의 의지의 반영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기만의 묘비와 그 주변의 많은 제주 출신 묘비는 디아스포라를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 근세 동아시아 魚譜의 역사\*

김 문 기 ■ 부경대학교

### I. 머리말

이 글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해양어류박물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동아시아 3국의 魚譜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추적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우리학계에서는 조선시대에 출현한 어보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자산어보』에 대해서는 그 분류의 독창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에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어보들을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비교하려는 연구는 없었다. 중국에는 어떤 어보가 있는가? 일본의 어보는 우리보다 앞섰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한·중·일 3국의 어보를 정리하여 살펴보는 첫 시도가 될 것이다.

\* 이 글은 2016년 동양사학회 춘계연구발표회에 발표했던 것으로 『역사와 경계』 99집에 실릴 예정인 「근세 동아시아의 魚譜와 어류지식의 형성」을 요약한 것이다.

1) 이와 관련하여 다음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 김문기, 「동아시아 해양어류지식의 역사: 어보 출현 이전을 중심으로」; 김문기, 「청어·대구·명태: 소빙기와 한류성어류의 박물학」(『대구사학』 115, 2014).

## Ⅱ. 어류지식의 전통과 어보의 출현

### 1) 어류지식의 계통

어보가 출현하기까지 동아시아에서 해양어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동아시아에서 어류지식의 전통은 대체로 다섯 갈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多識’으로 표현되는 『詩經』의 감성적인 교감, ② ‘異魚’로 상징되는 『山海經』의 괴이함의 탐구, ③ 『禹貢』의 ‘海錯’에서 비롯된 지리서의 체험적인 지식, ④ 『通志』 등 類書類의 종합적인 지식, ⑤ 『神農本草經』을 잇는 本草書들의 실용적인 효용이 그것이다. 이들 다섯 갈래 외에도 하나 더 주목할 것이 ‘물고기 그림’이다. 일본의 어보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근세에 접어들면 이전의 다섯 갈래 전통 외에 ‘그림’이 물고기 지식을 표현하는 중요한 정보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 2) 최초의 어보들

동아시아에서 물고기에 대한 전문서, 곧 ‘물고기 족보(魚譜)’는 16세기에야 출현했다. 萬曆 24년(1596)에 편찬된 屠本峻의 『閩中海錯疏』는 중국 최초의 ‘수산생물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동아시아 최초의 ‘魚譜’임을 의미한다. 『민중해착소』는 전체 3권 및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上·中은 鱗部로 167종, 卷下는 介部로 90종, 「附錄」에는 해분(海粉)과 제비집(燕窩) 2종을 덧붙였다. 특히 친연관계에 따라 대분류 아래에 소분류를 채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상어(鯨) 항목에서 그 아래에 虎鯨·鋸鯨·狗鯨 등 12종의 상어류를 넣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는 金鑣의 『牛海異魚譜』(1803)이다. 『우해이어보』는 어류 53항목, 갑각류 8항목, 패류 11항목 등 총 72항목을 수록했다. 근연종까지 포함하면 어류 82종, 갑각류 8종, 패류 14종으로 총 104종이다. 『우해이어보』가 완성되었던 것은 1803년으로, 『민중해착소』로부터 207년 후였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할까? 일본 최초의 어보는 간다 겐센(神田玄泉)의 『日東魚譜』이다. 간다 겐센이 『일동어보』를 처음으로 저술했던 것은 1719년이었다. 전체분류는 河鱗魚, 河無鱗魚, 河蟲, 海鱗魚, 海無鱗魚, 海蟲, 貝羸蛤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각 항목마다 수생생물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점이다. 『일동어보』는 일본 최초의 魚類圖鑑이기도 한 것이다.

〈표1〉 동아시아 3국 최초의 어보

국 가	중 국	일 본	한 국
서 명	閩中海錯疏	日東魚譜	牛海異魚譜
저 자	屠本峻 15731620	神田玄泉 16701746	金鑣 17661822

국 가	중 국	일 본	한 국
편찬시기	1596	1719(1731, 1736, 1741)	1803
구성내용	全3卷·附錄. 卷上·卷中 : 鱗部(169종), 卷下: 介部(90종), 附錄: 海粉·燕窩(非閩土産)	魚類圖鑑. 3차례 개정. 1719년: 7권, 344종(어류 222, 개류 122). 1731년: 4권, 312종(어류 184, 개류 128). 1736년: 5권, 302종(어류 166, 개류 136). 1741년: 5권, 338종(어류 215, 개류 123)	1冊. 총 104종(어류 82종, 갑각류 8종, 패류 14종)
비 고	동아시아 최초의 어보	『민중해착소』 123년 후	『민중해착소』 207년 후 『일동어보』 84년 후

이상에서 동아시아 3국의 최초의 어보들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수생동물에 대한 개별적인 전문서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수생동물지’라고 할 수 있는 어보는 16세기말에 등장했다. 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 일본, 조선의 순서였다. 일본의 『일동어보』는 『민중해착소』가 편찬되고 123년 뒤에 출현했다. 조선의 『우해이어보』는 『민중해착소』로부터는 207년, 『일동어보』로부터는 84년 뒤에 나왔다. 일본 최초의 어보인 『일동어보』가 ‘그림’과 ‘설명’이 함께 하는 ‘圖譜’에서 출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Ⅲ. 각국의 어보와 구성내용

#### 1) 조선의 어보

『우해이어보』로부터 11년 뒤에 정약전의 『자산어보』가 완성되었다. 전체 3권 중에서 권1은 鱗類, 권2는 無鱗類·介類, 권3은 雜類이다. 이 중에서 잡류는 海蟲, 海禽, 海獸, 海草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산어보』는 해양생물 백과전서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서유구가 『蘭湖漁牧志』를 저술했던 것은 1820년경으로 추정된다. 『난호어목지』는 강어 55종, 해어 78종, 「論海魚未驗」 9종, 「論華產未見」 11종, 「論東產未詳」 1종으로 전체 145종의 어류를 싣고 있다. 『난호어목지』에서는 크게 강어와 해어로 양분되었던 반면에, 『佃漁志』에서는 강어와 해어 안에 ‘鱗類, 無鱗類, 介類’로 세분했다. 흥미롭게도 어보를 저술했던 김려, 정약전, 서유구는 모두 정계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어보를 저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2〉 조선시대의 어보

서 명	저 자		편찬 시기	대상지역	비 고
	성 명	생 애			
牛海 異魚譜	金 鑣	17661822	1803	진해 (경상도 남해)	『薄庭遺稿』 卷8. 1冊. 총 104종(어류 82종, 갑각류 8종, 패류 14종)



서명	저자		편찬 시기	대상지역	비고
	성명	생애			
茲山魚譜	丁若銓	17581816	1814	흑산도 (전라도 서남해)	全3卷. 권1 鱗類, 권2 無鱗類·介類, 권3 雜類: 海蟲·海禽·海獸·海草. 총 55항목, 226종(인류: 20항목 72종, 무린류: 19항목 43종, 개류: 12항목 66종, 잡류: 4항목 45종)
蘭湖漁牧志	徐有渠	17641845	1820	난호 (임진강주변 및 전 해역)	1冊. 魚名考. 총 154종(江魚 55종, 海魚 78종, 論海魚未驗 9종, 論華產未見 11종, 論東產未詳 1종)
佃漁志	"	"	1827	"	『林園經濟志』 第7志(卷37~40). 『佃漁志』 卷第4 魚名考. 총 157종. ①江魚: 인류 29종, 무린류 14종, 개류 9종, ②海魚: 인류 34종, 무린류 30종, 개류 13종, ③雜纂: 辨樂浪七魚 7종, 論海魚未驗 9종, 論華產未見 11종, 論東產未詳 1종

- 朝鮮總督府, 『韓國水産誌』 1~4(19081911)  
○ 内田恵太郎, 『韓國魚類誌』(1939) 민물고기 80종, 채색 그림 및 260여 장 사진  
○ 鄭文基, 『韓國魚譜』(1954), 『韓國動物圖鑑(魚類編)』(1961), 『韓國魚圖譜』(1977)

## 2) 중국의 어보

屠本峻의 『민중해착소』 이후에 胡世安은 『異魚圖贊補』(1618)와 『異魚圖贊箋』(1630)을 저술했다. 명대 楊慎의 『異魚圖贊』(1544)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李調元이 광동의 해양어류전문서인 『然犀志』를 저술한 것은 1779년이였다. 산둥 栖霞 출신인 郝懿行은 1807년에 산둥의 어류에 대한 『記海錯』을 저술했다. 청말인 1886년에는 복건출신이 郭栢蒼이 『海錯百一錄』을 편찬했다. 명청시대에는 이들 해양어류전문서 외에도 대표적인 관상용 물고기인 ‘금붕어’에 대한 전문서도 여러 편 나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명청시대의 어보들 중에서 가장 이채로운 것은 聶璜의 『海錯圖』이다. 『해착도』가 주목되는 이유는 이것이 ‘圖譜’이기 때문이다. 섭항의 『해착도』가 없었다면, 간다 겐센의 『일동어보』가 동아시아 최초의 ‘魚類圖譜’가 되었을 것이다.

### 〈표3〉 명청시대의 어보

서명	저자		편찬 시기	대상 지역	비고
	성명	생애			
異魚圖贊	楊 慎	14881559	1544	-	四川 新都縣. 全4卷. 魚圖 1~3권(異魚 87종), 海錯 4권(海物 35종). 총 122종
閩中海錯疏	屠本峻	1573~1620	1596	복건	浙江 鄞縣. 全3卷·附錄. 卷上·卷中: 鱗部(169종), 卷下: 介部(90종), 附錄: 海粉·燕窩(非閩土產)

서명	저자		편찬 시기	대상 지역	비 고
	성명	생애			
※硃砂魚譜	張德謙	-	1596		중국 최초의 체계적인 금붕어 專書. 1冊. 上篇 敘容質, 下篇 敘愛養. 총 20條.
異魚圖贊補 [閨集]	胡世安	1593-1663	1618	-	四川 井研縣. 全3卷·閨集. 『異魚圖贊』보안. 卷上·卷中: 魚類 154종. 卷下: 海錯類 38종. 閨集: 魚類 30여 종.
異魚圖贊箋	〃	〃	1630	-	全4卷. 1~3권 鱗類(87종), 4권 介類(35종).
海錯圖	聶 璜	청초	1698	중 국 연해	浙江 錢塘. 全4冊(1~3책 故宮博物院所藏, 4책 臺北故宮博物院所藏). 魚類·介類·海禽·海獸·海菜·海草 등의 海錯 총 155畫(1冊: 35畫, 73종, 2冊: 37畫, 79종, 3冊: 39畫, 89종, 4冊: 44畫, 127종).
※朱魚譜	蔣在雝	-	1699		금붕어. 1冊. 57종 소개. 감별, 사육법 등의 방법 설명
然犀志	李調元	1734-1803	1779	광둥	四川 羅江縣. 全2卷. 魚介類 94종
記海錯	郝懿行	1757-1825	1807	산둥	山東 栖霞縣. 全1卷. 魚類·介類·海藻 등 49종
※金魚圖譜	句曲山農	-	1848	-	금붕어. 1冊. 附薛氏舊譜. 54종 圖
異魚圖	趙之謙	1829-1884	1861	절강	浙江 紹興縣. 문어, 해삼, 돌고래 등 15종 圖說.
海錯百一錄	郭栢蒼	1815-1890	1886	북경	福建 侯官縣. 全5卷. 권1 記漁·記魚, 권2 記魚, 권3 記介·記殼石, 권4 記蟲·記鹽·記海菜, 권5 附記海鳥, 附記海獸, 附記海草. 어류 177종, 개류 16종, 패류 107종, 記蟲 32종, 소금 5종, 海菜 22종, 海鳥 41종, 海獸 5종, 海草 20종

○ 沐紹良 編譯, 『魚類圖譜』(1936) 中學生自然研究叢書(商務印書館)

### 3) 일본의 어보

일본에서 어류전문서인 어보가 출현했던 것은 18세기 전반이었다. 간다 겐센의 『日東魚譜』가 그 시작이었다. 동아시아 3국의 어보를 비교했을 때, 18세기 후반을 거쳐, 19세기 전반이 되면 일본의 어보들은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중국과 조선의 어보들을 압도했다. 도미·넙치·개복치·복어·상어 등 단일어종에 대한 전문어보가 출현한 것은 물론이고, 『皇和魚譜』를 비롯한 민물고기 전문어보도 여럿 저술되었다. 1827년에 저술된 구로다 스이잔(畔田翠山)의 『水族志』는 무려 740여 종의 어류와 海蟲을 싣고 있다. 일본 어보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그림’이다. 일본 어보들은 ‘글(譜)’보다는 ‘그림(圖)’이 정보전달에서 핵심이었다. 『衆鱗圖』, 『栗氏魚譜』, 『梅園魚譜』, 『水族四帖』, 『日本動物誌』 魚類編 등에 묘사된 생동감 있는 그림은 어류박물학에서의 성취를 잘 보여준다.

〈표4〉 일본의 대표 어보

저 자		서 명	편찬시기	비 고
성 명	생 애			
神田玄泉	? 1746	日東魚譜	1719	일본 최초의 魚類圖鑑. 4차례 개정(1719, 1731, 1736, 1741). 1719년: 7권, 344종(어류 222, 개류 122).
服部範忠	-	菜魚圖讚	1738	4卷. 蔬菜 149종 食用魚 149종
安達喜之	-	*金魚養玩草	1748	奚疑齋 增補. 1책. 일본 최초의 금붕어 專書.
		*金魚秘訣錄	1751	5항 1圖.
後藤黎春	1696~1771	隨觀寫眞(魚部)	1757	1757년 서문. 『隨觀寫眞』 총20卷 중 권9~13 魚部(288종), 권 14 介部(68종)
松平頼恭	1711~1771	衆鱗手鑑	1762 献上	1762년 쇼군에게 헌상. 魚介類圖鑑. 461종.
		衆鱗圖	-	魚介類圖鑑. 총4帖. 652종(海魚 405, 河魚 86, 새우 58, 게 52, 오징어·해파리 등 52). 三木文柳(1716~99) 畫.
石壽觀秀國	1711~1796	海の幸	1762	1778년 간행. 石壽觀秀國 編, 膝間龍水 画. 2卷. 河魚 포함한 魚介 109圖(125종)
建部綾足	1719~1774	海錯圖	1775	1冊. 해산어류 25종. 그림 조잡
平澤旭山	1733~1791	波臣小譜	1784	1冊. 어류 78종. 漢文. 無圖
		魚名錄	1789	1冊. 魚介類 64종. 漢文. 無圖
小野蘭山	1729~1810	魚彙	-	小野蘭山: 『本草綱目啓蒙』, 『花彙』
		魚譜	-	1861 刊本. 1冊. 어개류, 해초 80종
木村蒹葭堂	1736~1802	蒹葭堂魚譜	-	1冊. 自筆稿本. 해어 15종.
		珍魚圖	-	1冊. 魚介類 32종. 그림만 있음
歡魚亭	-	*金魚名類考	1796	1매. 金魚 渡來史(1502년 도래).
原南陽	1753~1820	查魚志	1802	1冊. 常陸國 磯浜에서 포획된 개복치(查魚, 萬方) 해부하고 저술. 해부도.
北尾政美	1764~1824	魚貝譜	1802	곤 鍬形蒹葭. 1冊. 어류 37종, 패류 10, 기타 13품.
小林義兄	1743~1821	*湖魚考	1806	2卷. 琵琶湖 수생동물지의 효시. 어패류, 갑각류 등 58항 100여 종. 無圖
饒田西疇	1772~1833	海魚考	1807	9卷. 魚介類 135항, 식품 30종. 형태, 약효, 조리 등 상세히 설명. 無圖
岩崎灌園	1786~1842	養浩館魚鳥圖	1807	1冊. 80圖 중에 도미(鯛) 해부도
曾占春	1786~1834	占春齋魚品	1809	3卷. 158항(권1 有鱗魚 80, 권2 無鱗魚 52, 권3 異魚類 26). 어개류 총 350여 종. 魚名 고증. 無圖

저 자		서 명	편찬시기	비 고
성 명	생 애			
渡邊奎輔	17811832	*淡海魚譜	1813	1冊. 琵琶湖 어개류 111종. 龍骨 그림.
小原良貴	17461825	魚譜	1814	上下 2冊. 挿圖 대략 120장.
		南海魚譜	"	1冊. 南海의 水族 549종 설명(淡水屬 42종, 同種異屬 71종, 海水屬 161종, 동종이속 272종)
藤居重啓	-	*湖中産物圖證	1815	일명 『湖魚圖說』. 6책. 1~5책: 琵琶湖, 魚介類 104종, 6책: 余吳湖 어개류 13종
栗本丹洲	17561834	王余魚圖彙	1820	1帖. 넙치 전문 그림(46개).
		鮭魚志	1824	1帖. 준치 전문 기록. 無圖
		翻車考	1825	1冊. 개복치 전문 圖譜. 그림(9개)
		*皇和魚譜	1838	遺作. 1838년 刊行. 全2卷. 민물고기 圖說. 上卷 河魚 51종, 下卷 河海通在魚 13종. 琵琶湖 어류 망라.
		栗氏魚譜	-	여러 寫本 현존. 大阪杏雨書屋에 보존된 두루마리 22권이 원본으로 추정
		魚譜 ①	-	2帖. 1첩 魚圖 80개, 2첩 52개.
		魚譜 ②	-	1帖. 가오리 등 魚圖 48개
		異魚圖纂	-	奥倉辰行 畫. 1帖. 異魚圖 15개.
		異魚圖纂・勢海百鱗	-	奥倉辰行 畫. 『異魚圖纂』, 『勢海百鱗』 合本 1冊. 異魚 14종
水谷豊文	17791833	水谷家舊藏魚譜	-	水谷豊文의 家系 소장
畔田翠山	17921859	水族志	1827	1884년 간행(堀田龍之助 校, 田中芳南 閱). 10권. 有鱗, 無鱗, 海産, 淡水産, 海蟲 등 740종 서술
		紫藤園魚圖 ①	-	杏雨書屋[貴173本]. 해어 42종, 하어 42종
		紫藤園魚圖 ②	-	杏雨書屋[貴174本]. 해어 198종
		紫藤園鯊圖	-	상어 16종
賀屋恭安	17791842	河豚談	1830	1冊. 복어에 대한 유일한 전문서. 無圖
武井周作	-	魚鑑	1831	2卷. 魚介類 135종. 無圖
飯沼欲齋	17831865	南勢魚譜	1835	伊藤文庫所藏 『錦窠魚譜』의 12冊. 어류 110종
		南海魚譜	-	4冊. 1책 35종, 2책 25종, 4책 32종. 3책 전해지지 않음.
毛利梅園	17981851	梅園魚品圖正	1835	2帖 145종. 서문: 1835년. 실제: 1832~36년.
		梅園魚譜	"	1帖 87종. 실제: 1832~49년.
		魚圖	-	1帖. 복어, 아귀 등 11종 魚圖
高木春山	? 1852	春山魚譜	-	10卷. 46종. 無圖
		本草圖說 水産編	-	30卷. 어류 451종. 第1回水産博覽會(1883) 출품.

저 자		서 명	편찬시기	비 고
성 명	생 애			
吉田高憲	18051859	雀巢庵魚譜	-	1冊. 어류 110종. 彩色圖(墨畫)
青苔園	-	海川諸魚掌中市鑑	1837	高嶋春松 畫. 上·中·下 3권. 1849년 『魚貝能毒品物圖考』로 간행. 어개류 200여 종. 略圖 첨부.
Franz von Siebold	17961866	『日本動物誌』魚類編	1842-50	『日本動物誌』(Fauna Japonica) 川原慶賀(17861860) 畫. 全16冊. 어류 330종
奥倉辰行	? 1859	水族寫眞(鯛部)	1855	1冊. 도미(鯛) 90종 圖譜部. 1855년 외에도 1856년, 1857년 刊本 존재.
		水族寫眞說	1857	『水族寫眞(鯛部)』의 說部(주석서). 도미 90종의 이름·어기·모양·맛 해설
		水族四帖	-	春夏秋冬의 4帖. 어류 683점. 채색도
		魚仙水族寫眞	-	어류그림 722圖. 『隨觀寫眞』, 『栗氏魚譜』, 『大和本草』 등에서 轉寫 대략 40%
		本草魚類正譌全圖	-	1冊. 本草綱目 24종의 어류 辨證
岩崎鷗雨	1804-1865	*湖魚譜	1858	1冊. 琵琶湖 어개류 31종 해설. 無圖
森立之		半魚譜	1859	1冊. 圖說. 服部雪齋 畫. 食物本草의인 해설. 어류 81종(河魚 27, 海魚 54)
栗原信充	17941870	鮫譜	-	栗原柳庵 手稿本. 상어 30圖
?		尼崎圖上	-	1冊. 攝津國 尼崎의 어개류 83종
?		難波魚譜	-	2冊. 어류 63종(계 1종 포함)
?		浴藏魚譜	-	1冊. 해산어류 84종
関根雲停	18041877	魚譜	-	『博物館魚譜』(和887)에 수록. 어류 243점
伊藤謙	-	日本魚譜	1879	1879년 草稿. 1940년 伊藤篤太郎 간행.
白野夏雲	1827-1900	寛海魚譜	1883	鹿兒島勸業課, 第1回水産博覽會(1883) 출품. 어류 344점 채색도.
松森胤保	18251892	兩雨博物圖譜(魚類)	1885	『兩雨博物圖譜』(1883~1892). 4冊(海魚部 3책, 河魚部 1책). 243圖(160종)
藤川三溪	18171889	水産圖解	1889	上下卷. 上卷 238종(하어 81, 해어 157), 下卷: 210종(海獸 18, 介貝 168, 海草 24). 明治시대의 수산생물도감
伊藤圭介	18031901	錦窠魚譜	-	全51冊. 32책: 國會圖書館所藏, 나머지 19책 伊藤文庫所藏.
田中芳男	18381916	博物館魚譜	-	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된 『博物館圖譜』 중에 『魚譜』 부문. 関根雲停, 服部雪齋 등 博物畫家の 작품 모아놓음.

- 大滝圭之介 等, 『日本魚類圖說』(1909)
- 倉場富三郎, 『日本西部及び南部魚類圖譜』(1920's)
- 伊藤熊太郎, 『日本魚介圖譜』(19291930)
- 田中茂穂, 『日本産魚類圖說』(19111930)

## IV. 맺음말

2014년은 『자산어보』가 나온 지 2백 주년 되었던 해였다. 이를 기념하여 그 한 해 전인 2013년에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자산어보와 21세기』를 출간했다. 거기에서 『자산어보』의 의의를 “아시아 최초의 수산생물 전문서”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는 『자산어보』 이전에 다양한 “수산생물 전문단행본”인 ‘어보’가 존재했음을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조선의 수산생물 전문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많이 늦었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은 우리학계의 관심이 중국과 일본의 어류박물학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산어보』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해양생물을 망라했다거나, 새로운 어류분류체계를 만들었다거나,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구분하는 방식을 창안했다거나, 어보에 수록된 어종의 분량이 다른 어보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등의 평가는 동아시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재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사실은 비교사적인 관점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역사학에서 인식의 폭을 보다 넓힐 필요성을 보여준다.

근세 동아시아 3국은 모두 어류박물학이 발전했다. 어류에 대한 전문서인 어보는 16세기 후반 중국에서 먼저 출현했지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에서 확연한 발전을 보였다. 3국의 어보들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차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격차’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류지식에서 이러한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또한 일본의 이러한 성취들은 근대 수산학의 탄생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은 ‘박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글에서 소개한 동아시아 3국의 어보들에 대한 비교 및 그 박물학적인 의미는 후속논문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 18~19세기 西海 島嶼住民의 거주 양태

—白翎島 거주 金海 金氏 일가의 古文書 자료 분석 사례—

임 학 성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1. 머리말

이 연구는 18세기 전반기에 황해도 내륙에서 백령도로 이주한 김해 김씨 일가의 약 130여 년 간의 생활 모습을 고문서 및 호적 자료를 분석하여 고찰한 것이다. 김해 김씨 일가는 백령도로 이주해 온 이후 자신들의 섬 생활을 관련된 58건의 고문서 자료를 남겼다. 도서 지역에 거주한 어느 한 일가에서 60건에 가까운 고문서 자료가 보존되어 학계에 소개되는 것은 드문 일이라 하겠다. 덕분에 우리는 조선 후기 도서 주민의 생활 모습 一例를 복원하게 되었다.

## 2. 연구 대상 지역 및 분석 자료

### 1) 백령도

白翎島는 광복 이후 ‘38선’이라는 분단선이 그려지면서 황해도 長湍郡의 관할에서 벗어나 경기도에 신설된 甕津郡으로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백령도는 인천의 絶島가 되었지만 역사지리적으로는 황해도 서남부에 위치한 근해 島嶼였다.

〈표 1〉 백령도의 연혁

삼국시대	· 고구려의 영역에 속함. 鵝島라 불림.
통일신라 시대	· 경덕왕 16년(757): 瀑池郡(지금의 海州)의 관할에 속함. · 진성왕대: 骨大島라 불림.
고려시대	· 현종 1년(1010): 白翎으로 개명. · 현종 9년(1018): 鎭을 설치하고 鎭將을 둠. · 문종 5년(1051): 화재로 백령진의 城廊 28칸 및 民家 78戶 소실. · 정종 9년(1043): 화재로 백령진의 城門 200여 칸과 倉庫 50칸 및 民廬 3백 여所 소실. · 고종 7년(1220): 백령진장 李世華가 鄉校 건립. · 공민왕 6년(1357): 長湍縣의 일부로 편입. · 공양왕 2년(1390): 백령진 폐지. 文化縣의 直村으로 편입.
조선시대	· 세종 10년(1428): 백령도에 임시로 鎭 설치(곧 폐지). · 세종 13년(1431): 牧場 설치. · 광해군 1년(1609): 백령도에 鎭 복설. 새로 入島한 백성에게 개간을 허용. · 숙종 31년(1705): 목장의 말을 大靑島로 옮김. · 숙종 39년(1713): 대청도로 옮긴 말을 다시 백령도로 옮김. 백령진 僉使가 감목관을 겸함. · 영조 7년(1731): 말을 다시 대청도로 옮기고 목장의 농토개간을 허용.
근·현대	· 고종 31년(1894): 백령진 폐지. 島長 중심의 행정체제로 바뀜. · 1910년: 백령면을 설치. · 1913년: 島長제도 폐지. 面里制 실시. · 1945년: 백령도를 경기도 甕津郡에 편제. · 1995년: 백령도를 포함한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통합.

## 2) 고문서 자료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는 인천광역시 甕津郡 白翎面 鎭村里의 김응군氏 家에 소장된 조선시대 古文書 총 57건이다. 이를 종류별로 소개하면(<표 2> 참조) 戶籍類가 50건, 任命狀類가 5건, 明文類가 2건 등이다. 다시 이를 세분하여 보면 호적류는 准戶口 44건과 戶口單子 6건이며, 임명장류는 敎旨 2건, 差帖 3건이다. 그리고 명문류 2건은 모두 田畝賣買文記이다.

도서 지역의 주민이 고문서 자료를 보존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호적 업무와 관련한 문서를 해당 도서에서 직접 수급 및 발급하였던 때문이었다고 본다. 백령도에는 호구 조사 및 징세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水軍鎭(僉使 獨鎭)이 설치되어 있었던 때문이다.



〈표 2〉 백령면 진촌리 김응군 氏 소장 古文書 자료 현황

종류시기	戶籍類			任命狀類			明文類	계
	准戶口	戶口單子	소계	教旨	差帖	소계	田畝賣買文記	
18세기 후반	4	—	4	—	—	—	—	4
19세기 전반	19	—	19	—	1	1	1	21
19세기 후반	21	6	27	2	2	4	1	32
계	44	6	50	2	3	5	2	57

한편, 김응군 씨 소장 고문서 자료 외에 이들 일가의 준호구 자료 1건을 추가로 확인되었다. 1753년(英祖 29) 백령도(鎭)의 新村面에 거주한 金斗己의 준호구이다.<sup>1)</sup> 김응군 씨 소장 호적류 고문서 자료에서 확인되는 인물들은 모두 金斗己의 자손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두기 일가의 고문서 중 호적류(准戶口와 戶口單子)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 후기 도서 지역에 거주한 어느 한 일가의 생활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이에 앞서 이들 51건의 호적 고문서를 정리·소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조선 후기 백령도 거주 金斗起 일가의 戶籍 자료 현황

No.	거주지	연도	戶首	戶首 職役	비고
1	白翎鎭 新村面	1753(英祖 29)	金斗己(50세)	騎兵	—
2	白翎鎭 鎭內面	1786(正祖 10)	金致一(43세)	追捕武士	斗起(己)의 子
3	白翎鎭 鎭內面	1792(正祖 16)	金致一(49세)	閑良	—
4	白翎鎭 鎭內面	1795(正祖 19)	金致一(52세)	閑良	하단부 파손
5	白翎鎭 鎭內面	1798(正祖 22)	金致日(55세)	閑良	致一이 改名
6	白翎鎭 鎭內面	1801(純祖 1)	金致日(58세)	閑良	—
7	白翎鎭 村面	1801(純祖 1)	金亨男(28세)	別抄	致元의 子, 致日의 姪子
8	白翎鎭 鎭內面	1804(純祖 4)	金明潭(18세)	貢生	致日의 子

1) 이 자료는 吳柏陳이 편저한 『白翎島』(샘터사, 1979)에 書報로 수록되어 있다.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乾隆十八年八月日白翎鎭 考癸酉式年戶口成籍帳內新村面第二十四統第五戶騎兵金斗己年伍拾甲申生本金海 父學生宗業 祖書院生成洽 曾祖成均進士戒信 外祖通政大夫崔致□本慶州 妻劉召史年伍拾甲申生本長淵 父斗承 祖九□曾祖水軍鎔金 外祖通政大夫李白□本公州 率女年貳拾壹癸丑生 次子業俊年拾伍己未生 次子業文年拾[壹]癸亥生 次子業武年捌丙寅生 庚午戶口相準”.

№	거주지	연도	戶首	戶首 職役	비고
9	白翎鎭 村面	1804(純祖 4)	金丕男(31세)	別抄	—
10	白翎鎭 鎭內面	1807(純祖 7)	金明潭(21세)	幼學	—
11	白翎鎭 鎭內面	1810(純祖 10)	金兌振(24세)	幼學	明潭이 改名
12	白翎鎭 鎭內面	1813(純祖 13)	金振兌(27세)	鎭撫	兌振이 改名
13	白翎鎭 鎭面	1816(純祖 16)	金振兌(30세)	鎭撫	—
14	白翎鎭 鎭內面	1819(純祖 19)	金振兌(33세)	鎭撫	—
15	白翎鎭 新村面	1822(純祖 22)	金成達(49세)	別抄	丕男이 改名
16	白翎鎭 鎭內面	1825(純祖 25)	金振兌(39세)	鎭撫	—
17	白翎鎭 鎭內面	1828(純祖 28)	金鎭兌(42세)	幼學	하단부 파손
18	白翎鎭 鎭內面	1831(純祖 31)	金鎭兌(45세)	幼學	—
19	白翎鎭 新村面	1834(純祖 34)	金辰兌(48세)	幼學	—
20	白翎鎭 新村面	1837(憲宗 3)	金鎭兌(51세)	幼學	—
21	白翎鎭 鎭內面	1841(憲宗 7)	金正泉(27세)	追捕武士	明玄의 子 成達의 姪子
22	白翎鎭 邑面	1843(憲宗 9)	金正祿(30세)	追捕武士	—
23	白翎鎭 內面	1846(憲宗 12)	金正祿(33세)	別抄	—
24	白翎鎭 鎭內面	1849(憲宗 15)	金正祿(36세)	別抄	—
25	白翎鎭	1852(哲宗 3)	金正祿(39세)	別抄	—
26	白翎鎭	1852(哲宗 3)	金完孫(19세)	追捕軍	正祿의 子
27	白翎鎭	1855(哲宗 6)	金振兌(69세)	幼學	—
28	白翎鎭	1855(哲宗 6)	金正祿(42세)	別抄	—
29	白翎鎭	1855(哲宗 6)	金得賢(41세)	無役	成達의 子
30	白翎鎭	1858(哲宗 9)	金正祿(45세)	閑良	—
31	白翎鎭	1858(哲宗 9)	金得玄(55세)	無役	—
32	白翎鎭	1858(哲宗 9)	金完孫(25세)	追捕軍	—
33	白翎鎭	1861(哲宗 12)	金正祿(55세)	閑良	—
34	白翎鎭	1864(高宗 1)	金正祿(58세)	閑良	—
35	白翎鎭	1867(高宗 4)	金正祿(59세)	閑良	—
36	白翎鎭	1867(高宗 4)	金得賢(65세)	無役	四祖 및 妻 기재 混淆
37	白翎鎭	1870(高宗 7)	金正祿(62세)	閑良	—
38	—	1873(高宗 10)	金正祿(65세)	閑良	〈호구단자〉
39	白翎鎭 內面	1873(高宗 10)	金正祿(65세)	閑良	—
40	—	1876(高宗 13)	金完成(49세)	閑良	〈호구단자〉 正祿의 子
41	白翎鎭	1876(高宗 13)	金完成(49세)	閑良	—
42	—	1876(高宗 13)	金完孫(46세)	無役	〈호구단자〉
43	白翎鎭	1876(高宗 13)	金完孫(46세)	無役	—

№	거주지	연도	戶首	戶首 職役	비고
44	白翎鎭	1879(高宗 16)	金完成(52세)	閑良	—
45	—	1879(高宗 16)	金完孫(49세)	無役	〈호구단자〉
46	—	1882(高宗 19)	金完成(53세)	閑良	〈호구단자〉
47	白翎鎭	1882(高宗 19)	金完成(53세)	閑良	—
48	白翎鎭	1885(高宗 22)	金完成(58세)	閑良	—
49	—	1888(高宗 25)	金完成(60세)	閑良	〈호구단자〉
50	—	1888(高宗 25)	金完成(60세)	閑良	—
51	—	1891(高宗 28)	金完成(63세)	閑良	—

비고) ① '№' 란의 2번 이후부터 無色은 金致一系의 호적을, 塗色은 金致元系의 호적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임.

② '비고' 란에 〈호구단자〉로 표시하지 않은 자료는 모두 준호구임.

김두기 일가의 호적 자료는 김두기의 두 아들인 金致一系와 金致元系의 것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김치일 계의 자료가 17건이며 김치원 계의 자료는 33건이다(<표 3> 참조).

### 3. 김해 김씨 일가의 島嶼 거주 양태

○ 백령도 김해 김씨 일가는 先祖가 18세기 전반기에 황해도 내륙 고을인 長湍에서 백령도로 入島한 이후 가문이 번창하여 현재까지 백령도 내 최대 일가를 이루고 있다. 先祖가 백령도로 入島한 이유는 조선 후기 海賊의 출몰이 잦아지면서 조선 정부가 백령도에 수군진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거 입도시켜 海防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때문이었다. 여하튼 입도 이후 백령도에 정착하여 가세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주요 배경에는 일부 족원이 대대로 水軍鎭과 향촌 사회에서 주요 직무를 맡았던 때문이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백령도 入島祖의 신분은 평민층이었으나 이후 그 후손들 중 일부는 19세기 중엽 이후 양반 및 중인층으로 신분을 상승시켰던 반면, 일부는 19세기 말까지도 평민층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김해 김씨 일가는 전반적으로 도서 지역 내에서는 최고 지배층 가운데 하나로 신분을 상승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수군진의 요직을 대대로 이어 나아갔던 것이 일가의 신분 상승에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 조선시대의 대다수 호적 자료에는 嬰幼兒 자녀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반하여, 이들 일가의 호적 자료에는 영유아, 특히 女兒까지도 충실하게 호적에 기재하고 있었다. 이는 수군진이 설치된 다른 섬 지역의 호적 자료에서도 잘 확인되지 않는 특징이었다. 이로써 백령도 김해 김씨 일가의 어린 자·녀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각별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일부 남아 있는 매매 관련 고문서 자료를 통해 김해 김씨 일가가 경제력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김해 김씨 일가는 수군진의 요직을 수행하

면서 세금 징수 및 특산물 供出 과정에 적잖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렇듯 권력과 정보력, 노력이 누적되어 결국 김해 김씨 김두기 일가는 현재 백령도의 최대 가문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

결국, 18세기 전반 서해 도서 지역인 백령도로 입도한 김해 김씨 김두기 일가는 자신들이 선택한 ‘섬 생활’을 영위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백령도라는 특정 지역 사회에서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크게 家勢를 신장시켰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가세 신장의 결정적 배경은 水軍鎭에서 이들 일가가 대대로 주요 직무를 맡아왔던 데에 있다고 보았다.

# 일본인 염업기술자들이 전하는 식민지기 조선의 염업

— 우방협회(友邦協會) 녹음기록을 중심으로 —

류 창 호 ■ 인하대학교 박물관

## 1. 천일염에 대한 변명

2015년 여름, 뜻하지 않은 천일염 유해성 논란이 일어났다. 최근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얼굴을 알린 맛칼럼리스트 황교익이 천일염에 대한 유해성 내지 안정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세간에 큰 논란이 이루어진 것이다. 황교익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는 물론,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급속히 확산시켜 놓았고, 이에 대해 대한염업조합과 천일염연구센터 등은 그의 주장이 “단편적이고 비전문적 정보”로 만들어진 논리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천일염의 무해성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표명하였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과학적 증거나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실정이다.

황교익이 주장하는 문제제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천일염은 깨끗하지 못한 서해안 바닷물을 이용해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둘째, 천일염이 자랑하는 미네랄 함유는 비과학적 또는 거짓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천일염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잔재로 현재는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배척받는 생산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황교익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소위 장판염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배출이라든지 염전 주변의 농약 살포 등 천일염에 대한 위생 문제는 이미 이전부터 계속하여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들이고, 정부의 염전개량 사업 지원과 철저한 관리, 감독만으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이다. 두 번째, 천일염의 미네랄

함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역시 학계의 면밀한 조사와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그 과장성 여부는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 번째의 문제, 즉 천일염이 일제 잔재이므로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편으로 매우 과격한 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필자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제기였다. 황교익은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천일염 제조방식이 일본 기술자에게서 만들어졌지만 일본에는 없더라고요. …(중략)… 대만과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대만,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대만에 가서 그 제조방법을 보고 그대로 이식을 한 것이죠. …(중략)…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서도 충분히 천일염을 만들 수 있는 갯벌지역이 있었는데 안 했던 이유가 자연을 망치기 때문에 안 했지 않았을까? 우리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청정갯벌을 망치는 방법이거든요.<sup>1)</sup>

일본이 자국 땅에서 천일염전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자연환경 보호에 있었고, 따라서 그것을 조선과 대만 등 식민지에 건설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천일염을 생산하지 않은 일본도 해안을 매립하는 방식의 대규모 유제염전을 조성하였다. 오히려 필자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일염을 모두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아울러 우리의 천일염이 일본인이 이식한 문화, 즉 일제의 잔재로 평가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일염전을 설계, 건설하고 운영한 일본인이 기억하는 천일염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또 이들은 왜 우리나라에 천일염전을 건설한 것일까? 이 글에서는 식민지기 조선으로 들어와 그들의 반평생을 우리 천일염전에 바친 일본인 염업기술자들의 증언으로 살펴보겠다.

## 2. 일본인 염업기술자들이 전하는 조선염업의 회고담

일본 가쿠슈인(學習院) 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는 사단법인 중앙일한협회(中央日韓協會)가 기탁한 총 418권의 녹음테이프가 소장되어 있다. 이 녹음테이프는 중앙일한협회 부회장인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郎, 전 조선총독부 殖産局長)가 1952년 우방협회(友邦協會)를 별도로 설립하고, 자료집 편찬을 위하여 500회 이상 총독부 관계자들에 대한 청취조사를 한 것이다.<sup>2)</sup> 호즈미 사망 이후, 자료 보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1983년 가쿠슈인대학에

1) 2015년 7월 24일, 노컷뉴스, CBS시사자키, “천일염은 정말 좋은 소금일까?”  
(<http://www.nocutnews.co.kr/news/4448618>)

2) 우방협회 자료에 대해서는 辻 弘範의 「韓國近代史 關係史料의 蒐集・編纂現況과 展望—友邦文庫 朝鮮總督府 關係史料를 중심으로」(『史學研究』70, 한국사학회, 2003)와 「朝鮮總督府關係史料の整理と調査—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での事例—」(『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5)를 참조.

기탁되었다. 이후 2000년부터 동양문화연구소가 이 녹음자료를 디지털 음성으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활자로 옮기는 자료 보존 작업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료 중 매년 3~4건을 골라 “미공개자료 조선총독부관계자 녹음기록”이라는 제목 아래 해설과 주석을 첨부하여 자신들의 학술지인 『동양문화연구』에 공개하고 있다.

2011년 동양문화연구소는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전매제도—염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녹음기록 3건을 공개하였다.<sup>3)</sup> 당시 청취 현장에 참석하였던 미야타 세스코(宮田節子)가 기억에 근거하여 발언자를 확정하는 등, 자료의 감수를 맡았고, 조선염업사 전공자인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가 자세한 해설과 주석을 달았다. 3건의 녹음기록 일시와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녹음기록의 일시와 제목은 오픈릴(open reel) 테이프에 붙여져 있는 그대로이다.

<표 1>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전매제도 녹음자료

번호	일시	강 사	제 목	녹음시간
8077(T138)	1963.05.23.	菊山嘉男	조선총독부의 전매제도—특히 인삼정책을 중심으로	103분
8225(T268)	1967.04.20.	羽島久雄, 石川武吉	조선에서의 천일염전 축조에 대하여	130분
8014(T381)	1970.11.24.	石川武吉, 柳田万吉	조선에서의 천일염전 축조와 일본에서의 염 수급 정책	127분

먼저 녹음에 참여한 강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키쿠야마 요시오(菊山嘉男)는 1913년 동경제대 법과를 졸업한 후 총독부 사무관으로 조선에 부임하였고, 평안북도 내무부장 등을 거쳐,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전매국장을 지냈다. 즉 연초, 소금, 인삼, 아편 등 조선에서의 전매 물품 전반을 관리, 감독한 총책임자였던 것이다. 비록 전매국장으로 일한 시기가 2년 밖에 안 되고, 구술 내용도 주로 인삼정책에 치중하고 있는 등 한계가 있으나, 전매제도 속의 염업을 총독부 전체의 정책 방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

키쿠야마가 염업정책 입안자였다면, 그 외의 하시마 히사오(羽島久雄), 야나기다 만키치(柳田万吉), 이시카와 다케요시(石川武吉)는 천일염전 현장에서 직접 활동한 염업기술자들이다. 하시마는 1911년 전매국의 임시고원으로 들어와 1914년 광량만(廣梁灣)출장소의 기수(技手)가 되었고, 1931년 주안(朱安)출장소의 군자(君子)파출소장이 되었다. 야나기다는 1920년 광량만출장소의 기수로 들어와 남시(南市), 귀성(貴城), 덕동(德洞), 해남(海南)의 각 출장소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황해도 연안군 해남염전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패전을 맞이하여 3개월 반 이상 억류되며 소금 도난과 임금 미지급 건 등으로 고충을 겪은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시카와는 일본에서 약(藥)학교를 졸업하고 1922

3) 宮田節子 監修, 「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關係者 錄音記錄(12)-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專賣制度-鹽業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13,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2011. 3.

년 주안출장소 고원(雇員)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1928년 남동파출소의 현장감독이 되었고, 1929년 전매본국 분석실에서 근무하다가, 1932년 광량만출장소로 이동하여 1935년 귀성 염전을 조성하였다. 1939년 덕동파출소장, 1941년 남동파출소장, 1942년 군자파출소장을 잇달아 지냈고, 1944년 퇴직한 후, 목포의 남선회화학공업(南鮮化學工業) 공업용 염전 축조에 관여하다가 전국이 악화되자 일본으로 돌아갔다.<sup>4)</sup>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 염업조합중앙회에서 근무하였고, 1945년 일본 지바현 후나바시(船橋)에 5정보의 천일염 시험염전 조성에 착수하다가 패전으로 그만두게 된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이들 총독부 관료, 염업기술자들이 회고하는 식민지기 조선의 염업은 자신들이 이루어낸—그러나 결국 미완성으로 그치고만—천일염업의 성과이다. 우방협회의 녹음자료와 이시카와의 조선염업 자료를 바탕으로 1983년에 간행한 우방시리즈『조선의 염업』에는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 그대로 한국의 산업화에 일조했다고 하는 소위 ‘식민지근대화론’의 시각이 여과 없이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은 편자인 이시바시 마사타케(石橋雅威)의 서문에 그대로 나타난다.

引揚 후, 이미 40년 가까이 흐른 오늘, 半島 각지에서 지금도 부지런히 塩 생산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완수하고 있고, 저 천일염전이 그들 땅의 민생안정을 위해 활용되어지고 있는, 그 雄姿한 마음을 일으키는 때, 돌이켜 보건대 오늘날의 熱에너지 시대, 태양열을 극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직접의 塩 관계자는 물론, 그 스태프의 사람들이 심혈을 쏟아 넣은 부단의 노력, 精進의 기념물로 건재하는 것이어서, 비길 데 없는 만족감과 자랑스러운 자부심, 기쁨을 맛보고, 달래주는 것이 있습니다.<sup>5)</sup>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시바시는 자신들이 조선에서 이룬 근대염업의 업적에 대해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지금(1980년대 초)도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천일염전을 자신들의 노력과 정진의 기념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록 조선에서 소금의 완전 자급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해방 전까지 총 7,087정보의 천일염전을 조성하고, 30만 톤 이상의 천일염을 생산한 총독부 전매국의 업적을 식민지 경영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 안에서 자신들의 위대한 성과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石川】저는요, 염업조합중앙회입니다. 염업조합중앙회에 있는 동안이었는데요, 제 팸플릿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内地의 염업자들은, 참으로 그 천일염을 까닭 없이 싫어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 역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익이 있으니깐요. 그러

4) 이시카와 타케요시는 일본으로 귀환할 때, 『朝鮮鹽業史料』, 『朝鮮總督府 專賣局, 製鹽官署關係史料』, 『朝鮮總督府 專賣局, 天日鹽田에 관한 자료』 등 방대한 양의 조선염업 자료들을 가지고 돌아갔다. 이들 자료들은 현재 3개의 파일로 분류되어 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 이시카와 자료로 보존되어 있다.

5) 石橋雅威 編, 『朝鮮の鹽業』, 財團法人友邦協會, 1983, 3쪽.



한 것을 떠들면 곤란하다고. 여기에 있는 사이에는 안 된다고. 이 자료를 만들어 본 바입니다.<sup>6)</sup>

전술하였듯이 이시카와는 패전 직전 일본 내지에 천일염전을 축조하려했을 정도로 천일염에 대한 성공을 확신하고 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일본은 내지(內地)의 염업자[전염 생산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표면적인 입장만 내세워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천일염전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다우다습(多雨多濕)한 기후와 모래땅만 있는 사빈(沙濱)의 해안선이라는 자연조건만을 강조하며 거의 미신처럼 일본에서 천일염전이 불가능하다는 속설이 굳어져버렸다고 한탄한다. 그리고 식민지기 조선에 청국염(淸國鹽)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천일염전을 조성하였듯이, 패전 후 현재(60~70년대)도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100만 톤이 넘는 수입염을 규제하고 일본에 천일염전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도 천일염전이 조성되고 외국염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1906년 통감부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은 값싼 청국염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이 천일염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광범위한 염업조사를 마친 후 대장성(大藏省)의 직임기사(勅任技師)인 오쿠젠조(奥建藏)에게 천일염의 가능성을 자문받았다. 하시마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羽島】大藏省에 그 당시 勅任技師인 오쿠젠조(奥建藏)라는 분이 계셔서, 그 분과의 여러 차례 의논의 결과, 臺灣에서 천일염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부르지 않겠냐고 하여, 山田直次郎과 三木毛吉郎이라는 두 사람을 한국의 僱聘官吏로 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일염전의 適地는 어디로 할 까하는 것으로, 適地를 탐색한 바가, 부산의 鳴湖島란 곳이었습니다. 이 명호도에 適地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여기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한국정부 측에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그곳은 너무 거리가 京城과 멀어 연락상 불편하다고 하여,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희망이 있었네요. 거기서 이번에는 훨씬 북상하여, 목포로부터 훨씬 위에 있는 곳인, 한강의 옆인 朱安이라는 괜찮은 곳이 있었으므로, 이야기 해 본 바가, 여기는 매우 가깝기도 하고 양호하다고도 하여, 그곳에 대만식 천일염전의 염전면적 1정보를 시험염전으로 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明治40년(1907)이네요.<sup>7)</sup>

즉, 오쿠젠조(奥建藏)의 추천으로 초빙된 기사는 대만에서 천일염전 경험이 있는 야마다 나오지로(山田直次郎)와 미키 케요시로(三木毛吉郎)였다. 따라서 최초의 천일염전으로 조성된 주안염전은 대만식의 급상식(汲上式) 염전이다. 그러나 주안염전보다 조금 늦게 조성된 대동강 하구의 광량만염전은 이와 달리 중국 산동식의 영향을 받은 유하식(流下式) 염전으로 조성되었다. 이는 조선의 천일염전이 한 가지의 방식만으로 균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시카와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6) 宮田節子 監修, 위의 글, 473쪽.

7) 같은 글, 448쪽.

【石川】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주안염전에서 광량만염전으로 가서 처음 천일염전의 어려움 이랄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주안염전과 광량만염전이 어떻게 제염의 기술이 다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놀라웠습니다. 광량만에 소화7년(1932)에 가서, 3년 간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제가 주안염전시대, 견습하던 시대에서 배웠던 것과, 광량만에서 3년 간 배웠던 것은, 실제로 현격한 차이의 제염기술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것은 또 반드시 천일제염의 기술로 하여 후세에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 때 생각하였습니다.<sup>8)</sup>

당시 이시카와가 파악한 광량만염전의 선진 기술은 흔히 간수로 알려진 ‘고즙(苦汁)’을 이용하여 소금을 결정(結晶)하고, 게와 갯지렁이 등 해충을 석탄질소 등을 이용하여 구제(驅除)하며, 자기(磁器) 파편을 이용하여 염판을 개량하는 방법 등이었다. 이러한 기술상의 차이를 통해 광량만은 주안보다 정보 당 두 배 가량의 생산량을 올리고 있었다.

【石川】 그 때는 말예요 주안염전이 최고 5만 근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 때 광량만은 뭐 10만 근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배입니다. 그 원인은 무얼까 하니, 鹽의 鹹水를 만드는 법이 주안염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향상되어 있던 것이예요. 주안염전의 鹽은 말이에요 걸보기에는 많이 얻어진 것 같아요. 무게가 없는 거예요, 가벼운 鹽이 얻어진 겁니다. 가벼운 鹽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鹹水의 조작을 모르는 겁니다. 鹹水를 어떻게 하여 結晶시키는가 하는 근본의 기술을 모르는 겁니다. 주안의 염전에서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 때 염전 축조의 쪽은 번성하고 있었지만, 염전의 製鹽이라는 쪽은 숨씨가 없었어요. 그 때는 그 君子鹽田의 축조나 새로운 염전을 차츰차츰 만들고 있던 시대로, 所長도 누구도 그 쪽에 염전 축조에 머리를 기울이고 있었을 뿐, 제염기술 쪽은 머리를 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때 마침 안정되었던 때에, 스다(菅田) 소장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와서, 여러 시험을 하여, 鹹水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으로, 採鹹母液과 새로운 鹹水를 조합하면 몇 도의 鹹水가 일등 鹽의 단단하고 무거운 鹽이 얻어지는가 하는 연구가 그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sup>9)</sup>

이러한 지역별 제염 기술의 차이는 그 기술이 지역의 염업기술자 사이에서만 도제식으로 전승되어 타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시카와는 파악하였다. 따라서 관동대 지진의 영향으로 1925년 조선사업공채가 중지됨에 따라 제3기 염전건설이 잠시 중단된 이후로는 새로운 천일염전 축조보다 제염기술을 좀 더 선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대가 되면 이들 일본인 염업기술자들이 스스로 자부하듯이 동양 최고 수준의 염전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천일염전의 조성 and 제염법의 개량이 근본적으로 조선염업의 발전이 아니라 일본염업의 발전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시카와는 뜻하지 않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조선의 염업은 실상 일본의 염업을 위한 거대한 실험장이었다는 것이다.

8) 같은 글, 455쪽.

9) 같은 글, 492쪽.

【石川】專賣하였던 이유라는 것은 내지의 염업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국적으로 그 당시의 農商務省이 계획하고 있었던 일본의 염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외국염의 수입을 防壓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커다란 하나의 기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옛날에, 그것을 조선에서 실험하였고, 그래서 조선에 염전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씌어있는 것이죠. 조선의 염전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조선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전매제도를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읽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일본의 國策은 장래 수입염을 어떻게 하여 防壓하는가였고, 그것에는 우선 조선에서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으로 조선에 커다란 國帑을 소비하여 조선에 실험시킨 것을 태연하게 잊었던 것입니다.<sup>10)</sup>

### 3. 식민지기 근대염업의 본질

태양열과 바람, 그리고 해수(海水)에 의해 소금을 생산하는 천일염 방식이 동아시아로 전파된 시기는 17세기경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방식이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유입되어, 몇 차례의 기술 혁신을 거친 후,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중국연안지역에서 비약적인 생산 증가를 이루게 되었다. 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기(雨期)가 길고, 일조량이 많지 않은 조선과 일본에서는 19세기 말까지 천일염전 방식이 아닌 재래의 전오염(煎熬鹽)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산둥(山東) 지역 등에서 과잉 생산된 중국 천일염이 조선으로 대량 유입되자, 위기감을 느낀 대한제국 정부와 일제 통감부가 서해 연안에 천일염전을 조성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천일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생산방식은 중국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은 아니었다. 처음 인천의 주안과 평안남도 광량만에 세워진 천일염전은 대만식의 천일염전이었고, 그것도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속에서 점차 우리나라에 적합한 염전 양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 후반에는 일본 민간 제염업자들이 전오법과 천일법 양식을 혼합한 ‘천일함수전오법(天日鹹水煎熬法)’이란 개량제염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전시체제로 들어가는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급증하는 공업염(工業鹽) 수요에 맞추어 일본 대자본의 투자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천일염의 역사는 비록 짧은 시기이지만, 한·중·일 삼국의 다양한 방식이 융합된 독특한 제염법이다. 그리고 일제가 기획하고 만들어낸 염전이기는 하지만,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염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일염전과 제염법이 해방 후 한국으로 온전히 전해진 것은 아니다. 일본의 염업이 식민지 안에서의 천일염전 실험으로 전오염→천일염→기계염(정제염)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겪었다면, 한국의 염업은 천일염에서 기계염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단절을 겪었다. 해방 후 소래 등지에 남아있던 기계제염 설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천일제염에 안주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일본의 기술을 수입하여 이온교환막법에 의한 정제염 생

10) 같은 글, 505~506쪽.

산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과 달리 산업화 이후에도 비교적 오랫동안 천일염을 지속시켜 21세기 글로벌시대의 명품 소금으로 재탄생시켰다. 해방 후에도 계속된 변화와 개량에 의해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알맞게 변형된 한국식 천일염전을 완성시킨 것이다. 이러한 천일염이 단순히 일제 잔재로 치부되어 용도폐기 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 천일염전 개발과정 분석을 통한 섬의 인문환경 연구

최 성 환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본고는 연구자가 발표한 두 편의 천일염전 개발관련 논문(비금도 천일염전 개발과정과 사회적 확산, 『도서문화』40; 천일염전 개발과정을 통해 본 섬사람들의 이주 현상과 공동체적 특징, 『서강인문논총』41)의 연구 성과와 천일염전 개발과정 분석을 통해 섬의 인문환경을 연구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다.

## 1. 섬 문화 연구 주제 : 천일염전

염전은 섬사람들의 중요한 생활 기반이자 경제활동의 근간 중 하나이다. 섬사람들의 생활상에서 염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염전과 섬 문화를 연관시킨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그동안 염전에 대한 주요연구는 전통적인 생산방식인 화염과 관련된 민속분야의 연구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제염 정책과 유통, 일제에 의한 천일염전 개발과 관련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염전에 대한 문제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를 관통하여 섬사람들의 생활상 변천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연구대상이며, 섬 문화에 대한 연구시기를 현대까지 확대할 수 있는 유용한 주제이기도 하다.

광물로 취급되던 천일염이 2008년부터 식품으로 공인되기 시작했다. 이후 천일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지만, 대부분 식품으로서 품질과 영양부분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았다. 인문학적 시각으로 섬 문화를 살피고 있는 본 연구자는 ‘천일염전’이야말로 오늘날 섬사람들이 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생활기반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천일염전이 섬 지역에 개발되고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살피는 것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신안군에는 천일염전 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 2. 섬사람들의 소금 생산 내력

섬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소금생산지로 활용되어 왔고, 섬사람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 섬은 자연환경이나 어업의 발달 등 인문환경 면에서 소금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장점을 지녔다.

섬 지역 소금 생산의 내력은 그 연원이 매우 오래 되었다. 조선시대의 경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태종실록』 1408년 2월 3일 기사에 “암태도 鹽干 金羅進과 葛金이 침입해 온 왜적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흔히 空島 상황으로 알려진 조선 전기에도 일부 섬 지역에서는 소금을 생산하며 섬사람들이 우리 국토를 지키고 있었다.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이 섬사람들의 중요한 뿌리였음을 보여준다.

이후 조선중기 기록으로 1637년 國亂을 피해 智島에서 피난생활을 했던 나주 출신의 학자 金璇(1568~1642)의 시문에서 섬 염전과 관련된 내용이 확인 된다. 그의 문집 『市西遺稿』에는 지도 시절에 지은 글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 중 「他來鹽村」에는 “고기 잡고 소금 일구는 나그네 되고 싶네”라는 표현이 있으며, 「論風俗」에는 “백성의 풍속은 경작에 힘쓰고, 고기 잡고 소금 만드는 것이 여가의 일이다.”는 표현이 있다. 섬사람들의 생활상과 소금생산이 매우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 초까지도 지속되었다. 1901년부터 1907년까지 智島에서 유배생활을 한 김윤식의 일기에 “섬사람들이 소금을 구운 후 돈으로 바꿔 세금을 낸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마을 인근의 소금가마를 구경했다는 등의 내용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또한 1896년 초대 지도군수로 부임한 오형묵의 경우는 자신의 정무일기인 『지도군총쇄록』에 智島의 화염 생산 방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소금 생산의 전통은 20세기 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소금생산량에서 전라남도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대 전국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이 산출되고 있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흔히 ‘羅州鹽’이라 불렸으며, 우리나라 소금의 으뜸으로 인정받아 왔다. 나주염이 최고의 생산량과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 신안군에 속한 섬들 때문이었다.

## 3. 일제강점기 천일염전 정책과 섬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소금생산 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는 섬 지역의 염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화염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07년 인천 주안에 최초로 천일염전이 조성되면서부터였다. 이후 천일염전은 경기만 일대, 진남포 부근, 광양만 등에 주로 개발되었

다. 화염의 경우 염전조성이 용이한 곳에 밀집된 반면 천일염의 경우는 서울과 평양 등 소비로의 수송이 편리한 곳에 집중되었다. 이는 식민지적 생산관계가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는 천일염염법을 도입하여 소금생산을 독점하고 세입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식민지 조선을 원료 생산기지로 구축하고 하였다.(유승훈, 2005). 그 과정에서 해상운송 및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에 먼저 천일염생산지로 개발되었다.

소금생산의 전통적인 중심지가 옮겨지고, 조선총독부의 관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섬사람들의 화염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화염의 몰락은 섬사람들의 생활고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는데, 1926년 1월 24일자 시대일보에는 매우 시사성 있는 기사가 실려 있다. 1920년대 중반 도서지역에서 일어나는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사실은 “제염이 관영화 되면서 섬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전남도평의회 이근창의 주장이 실려 있다.

표면상 소작쟁의는 악덕지주와 농민의 대결구조이지만, 그 내면에는 섬 주민들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던 화염의 몰락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섬사람들의 생활상과 소금생산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조선총독부에서 천일염전을 개발하고 관영화하면서 소금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섬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광복 후 비금도 천일염전 최초 개발

일제강점기 경기이북 지역에 천일염전이 집중 개발되면서 한때 섬 지역의 소금생산은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광복 이후 다시 비금도를 시작으로 섬 천일염전 시대가 열리면서 소금생산지로서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비금도 강달어 파시와 새우잡이 배의 성행은 비금도에서 천일염전이 개발되고 발달하게 된 중요한 인문환경이 되었다. 비금도는 자연환경적으로 일조량이 높고, 특히 강수량이 인근 지역보다 적어서 천일염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상당수의 비금도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평안남도 천일염전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광복이후 비금도가 천일염전 개발의 중심지로 발달하는데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었다.

1946년에 민간차원 최초로 천일염전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는 손봉훈의 개척정신과 지도력, 박삼만의 현장 활동, 뜻을 함께하는 비금도 주민들의 노력이 융합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박삼만은 손봉훈의 조카였다. 손봉훈은 가장 신뢰하는 박삼만을 앞세워 천일염전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했다. 기존에는 박삼만이 최초 천일염전 개발자라고 알려져 왔다. 두 사람을 놓고 누가 더 공로자인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다만 박삼만의 현장 활동 모습에 대한 대중들의 기억은 “최초 천일염전 개발기술자”였다는 인식으로 연결되어 온 반면, 전체적인 맥락상 실질적인 중심인물이었던 손봉훈은 그 역할과 공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 손봉훈이 ‘1호염전’ 개발과 함께 조직하여 운영한 ‘기술원조합’은 천일염전의 보급

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이후 비금도는 각종 개발조합 활동과 제염기술원양성소를 통해 천일염전 사회적 확산의 중심 공간이 되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다양한 개발조합을 만들어서 천일염전을 개척해 나갔다. 비금도 사례는 정부의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고, 비금도에 제염기술원양성소가 설치되었다. 당시 정부는 부족한 소금생산량을 늘리고,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피난민들을 남한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대규모 천일염전을 개발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금도가 천일염전 개발 기술을 보급하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 5. 천일염전 개발과 섬의 지형 변화

광복이후 남쪽의 천일염전은 1946년 비금도 수림리에서 개발에 성공한 이후 인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매우 역동적으로 천일염전 조성이 붐을 이루었다. 천일염전의 개발이 섬 문화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섬의 지형을 변화시킨 것이다. 천일염전 조성을 위해서는 간척을 통해 방조제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섬의 지형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분적인 해안선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섬이 염전 조성으로 인해 하나로 이어져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섬이 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신안군의 증도, 신의도를 들 수 있다.

먼저 증도의 경우는 태평염전이 개발되면서 전증도와 후증도로 구분되어 있던 두 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태평염전은 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1931번지 일대에 조성된 염전으로 1953년부터 염전조성이 시작되었다. 신안군 섬 가운데 대표적인 소금생산지로 알려진 신의도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이었다. 신의도는 인접한 하의면에서 편제되었던 곳으로 원래는 크게 상태도와 하태도로 구분되어 있었다. 광복이후 지속적인 간척사업을 통해 하나의 섬으로 연결되었는데, 한국전쟁 전후시기 천일염전을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요인이었다. 중간 중간에 조성된 염전들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고, 급기야 상태도와 하태도 두 큰 덩어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지형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 6. 섬사람들의 이주 현상과 공동체의 문제

천일염전의 개발은 섬의 인문환경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섬사람들의 이주 현상과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첫째, 천일염전 개발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이주와 외부인의 유입이 활발했다는 점이다. 천일염전 개발은 섬사람들의 집단 이주와 외부인이 섬에 유입되는 매개체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전통방식인 화염의 쇠퇴로 섬사람들이 외부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에는 섬 지역에 천일염전이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계기가 되었다. 섬사람들이 지닌 경제활동의 역동성과 인문환경에서 나타나는 ‘소통과 교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천일염전 개발과정을 통해 섬사람들의 공동체적인 면모가 확인된다. 대규모 천일염전의 개발은 마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비금 대동염전과 증도 태평염전은 천일염전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좋은 대조를 이루는 사례가 되었다. 대동염전은 같은 섬에 살고 있던 여러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대규모 천일염전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 사례이다. 태평염전은 한국전쟁 후 발생한 피난민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된 대규모 염전이라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섬 마을 사람들과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외부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사례이다. 또한 천일염전 개발 자체가 개인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섬사람들은 개발 조합을 만들어 공동체적인 대응을 하였다는 점과 개인의 영리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공적 자산(도초도 공적 염전 개발)으로 활용된 사례를 통해서도 공동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충남 당진군 삼화2의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

이 창 섭 ■ 부산대학교

## 1. 삼화2리의 지역적 특성

“충청남도 당진시의 최북서부에 위치하며 남양면, 아산면에 접한” 石門面은 1914년 일제의 府郡面 통폐합 정책에 의해 신설된 행정구역이다. 조선시대 당진현 중 外孟面·內孟面·島洞面 그리고 高山面 일부를 석문면으로 통폐합했던 것이다.<sup>1)</sup> 이때 고산면의 油峙里 일부와 외맹면의 삼화리가 석문면에 흡수되고 삼화1리, 2리, 3리의 行政里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외맹면에 속했던 삼화2리는 마을 안에 外倉이 존재했으므로 외창마을로 불리기도 한다.<sup>2)</sup>

일제 때 삼화2리 주민 절대 다수는 당시 당진의 최대 지주 중 한 명이던 印根植의 소작인으로 살아오다가<sup>3)</sup>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자영농으로 전환하였다.<sup>4)</sup> 하지만 영세한 분배 농지 및 이승만 정권의 임시토지수득세, PL480호 양곡원조 그에 따른 저곡가정책 등은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았다.<sup>5)</sup> 따라서 삼화2리 주민들은 논 35.9ha, 밭 53.6ha의 농경지에 호당

1) 石門面誌編纂委員會, 『石門面誌』, 2015, 50~51쪽 참조.

2) 위의 책, 428쪽 참조.

3) 이인화, 「『常綠樹』를 심는 새마을 牧師」, 世代社編, 『흙과 땀과 훈장』, 1974.8, 29쪽.

4) 인근식의 두 아들인 인명환과 인익환은 농지개혁이 실시되기 전부터 몇 년치 소작료를 미리 내는 방식으로 소작인에게 토지를 나눠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전방매는 삼화2리 주민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후에도 인씨 형제에 대한 마을 인심이 대체적으로 후했다고 한다(위의 책, 345쪽 참조).

5) 장상환, 「오늘의 현실에서 다시 본 한국의 농업정책」, 『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2006, 25~28쪽 참조.

0.9ha를 기반삼아 영세한 삶을 1973년까지 꾸려가고 있었다.<sup>6)</sup>

삼화2리는 당시 주민의 80% 이상이 기독교 신자였던 교촌마을이었다.<sup>7)</sup> 삼화교회는 1905년 당진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지금은 마을의 전 주민이 감리교인이라고 한다.<sup>8)</sup> 1905년 이후 교세를 확충하여 기반을 마련하던 삼화교회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면서 다소간의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진지역은 식민지 시기에도 기독교가 확산되는 추세여서 삼화2리 또한 교인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삼화교회가 삼화2리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삼화2리 내 기독교 공동체가 일시적으로 해체되기도 했지만 서울 수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곧바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교세가 그 지역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sup>9)</sup>

## 2. 새마을운동 이전 상황

1972년 말까지 삼화2리는 농촌새마을운동의 시공간에서 배제되었던 곳이었다. ‘새마을 가꾸기사업’은 물론이고 그것에 기반을 둔 72년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억 역시 삼화2리에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더욱이 삼화2리는 해방 후의 자생적 농촌운동이 도도하게 각인된 마을도 아니었다. 삼화2리는 해방 이후 4H운동이 실시되기도 했으나 이를 추동케 할 행정조직체계의 미비와 문맹퇴치운동과 같은 문화운동에만 치중된 채 청년만을 위한 조직이라는 인상만을 지니고 있었다.<sup>10)</sup> 이는 마을 장년층의 참여를 저해시킨 원인이 되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고 말았으니 결과적으로 삼화2리 농촌새마을운동의 시원으로 높이 기릴만한 前史는 존재하지 않은 셈이다. 삼화2리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잔존케 할 만한 자발적 마을운동의 역사적 행적은 소략한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결속된 삼화2리 마을청년들의 조직적 힘은 삼화2리 농촌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즉 4H운동에서 규합된 청년조직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마을지도부의 행동대원으로 자임하면서 사업의 원칙성을 굳건하게 관철시켜 나갔던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잠재되어 있던 삼화2리의 환경적 특수성, 이를테면 기독교 마을이라는 조건에 따라 교회목사를 새마을지도자로 선출했던 것은 마을개발의 개시와 맞물리면서 압축적인 성과로 귀결되는 동력으로 기능하였다.<sup>11)</sup>

6) 석문면 삼화2리, 「1973새마을사업 마무리 수검표(석문면 삼화2리)」.

7) 이인화, 위의 책, 29쪽.

8) 石門面誌編纂委員會, 위의 책, 428쪽 참조.

9) 삼화교회 창립 90년사 편찬위원, 『삼화교회 90년사』, 1995, 57~66쪽 참조.

10) 호명득, 2015년 2월 15일 구술.

11) 한대근, 「이상촌을 향한 꿈의 실현」, 새마을지도자연수원 편, 『새마을운동』 제5호, 1976, 57~58 쪽 참조.

### 3. 삼화2리 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성격

#### 1)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

먼저 삼화2리의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농정과 결부되면서 현실화될 수 있었다는데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196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향후 농촌새마을운동의 주요 사업으로 부각될 지붕개량과 농로개설사업은 정부조직의 결여와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유명무실화 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sup>12)</sup> 하지만 그 시점부로 내무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이 차츰 완비되더니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마을총회까지 관통되는 새마을조직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 경험의 축적은 73년도 농촌새마을운동으로 연결되었으며 그로 인해 73년도 사업은 기초·자조·자립 마을이라는 분류법에 근거하여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인적 파악은 물론이고 담당공무원의 이중적 배치가 마련되었다.<sup>13)</sup> 요컨대 하향식 관료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새마을운동의 제도적 형태가 구체적으로 완비된 조건 하에서 삼화2리의 새마을사업이 결정된 탓에 내적 요인과 순조롭게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72년 12월 20일은 삼화2리 새마을운동의 첫 삽을 뜬 날이었다. 이미 마을개발위원회는 새마을규약을 마련하고 부지회사 동의서를 마을주민들에게 배포하여 날인을 받는 등 사전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sup>14)</sup> 하지만 이와 같은 사항들은 소수의 마을 지도부 중심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것이어서 마을민의 일반 의향을 온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했다.<sup>15)</sup> 향후 도래할 마을 주민간의 불협화음을 내재했던 것이다. 농로개설로 시작된 마을개발의 첫 날에는 개발위원회와 면직원의 주도 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얼얼불은 땅을 삽과 곡괭이로만 쪼아내고 흙과 돌을 운반기구도 없이 손수 옮겨야 했다.<sup>16)</sup> 이러한 작업 방식은 73년도 새마을운동 동안 일반화된 것이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출역률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도로에 편입될 토지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마을지도부와 마을 일각의 주민간의 대립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이는 갈등 예방 차원에서 마을목사를 새마을지도자로 선출하였지만 그것이 발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음을 암시한다. 지붕개량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동작업에 따른 인적 손실은 물론이고 슬레이트 비용과 기타 자재 및 인부 고용 등에 따른 각 호당 경제적 부담 또한 만만찮았다.<sup>17)</sup> 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가지붕이 예비군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벗겨지기도 하였다.<sup>18)</sup> 요컨대 73년도 우수마을 선정과 새마을지도자 훈

12) 『毎日經濟新聞』 1971.5.5.

13) 경상남도, 「1972새마을지도자명부(경상남도)」.

14) 석문면 삼화2리, 「마을總會議錄 三花二里(1972.10.17)」, 『잡서류철』.

15) 한대근, 위의 책, 60쪽 참조.

16) 김성남, 2015년 2월 15일 구술; 석문면 삼화2리, 『추진기록부(A)』, 1972.12.20.

17) 김성남, 2015년 2월 15일 구술.

18) 이수창, 2016년 2월 15일 구술.

장 수여는 이와 같은 산고의 산물이었으니 환경개선사업의 비약적이고 높은 성취는 마을주민의 강도 높은 노동력 징발과 그에 따른 이견과 충돌 그리고 마을주민의 경제적 출혈 등을 딛고 선 것이었다.

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치유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성을 보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그 이듬해 봄부터 삼화2리는 소득증대사업에 착수하였다.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굴양식사업이 낙착되었으며 사업자금으로 대통령하사금과 용자금이 충당되었다.<sup>19)</sup> 작업방식은 새마을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조가 기반이 된 공동생산이었다. 하지만 환경개선사업과 다를 바 없이 일선 공무원의 관리와 지도가 우선되었으니 경제동향보고와 대통령 하사금이 상징하는 것처럼 최고지도자의 관심이 쏠린 이 소득사업이 마을 주민의 자발성으로만 시행되기는 만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굴 양식 사업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굴 채취에 미숙했을 뿐만 아니라 손이 많이 가고 시일도 오래 걸려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간척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었다.<sup>20)</sup> 이 때문인지 삼화2리 주민 다수는 굴양식을 새마을운동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으며 그들 삶에 각인된 새마을운동의 기억이란 도로 만들기와 지붕개량 같은 것들이었다.<sup>21)</sup>

## 2) 농민의 대응과 마을개발의 성격

사업절차 전반의 민주적 합의가 결여되고 지도부의 강권이 사업추진의 주된 기제로 자리매김<sup>22)</sup>했으며 이를 상쇄시킬 것으로 여겼던 소득사업의 지지부진은 마을 주민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마을 주민의 저항 양태는 부역 회피와 같은 소극적 저항부터 소유지 침해에 대응하는 적극적 저항까지 다양하였다.<sup>23)</sup> 이에 마을지도부는 강제력을 굳건히 하면서 사업의 원칙성을 고수하거나 이데올로기 전략을 활용하거나 새마을사업 참여도가 월등한 주민에게만 소득사업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일종의 경제적 유인책 등으로 응전하였다.<sup>24)</sup> 하지만 마을채무가 발생하고 소득사업이 부진을 거듭하게 되면서 마을개발에 대한 마을 일각의 능동적 협조마저 점차 약화되어갔다. 삼화교회를 정점으로 한 동원력의 상실이 점차 현실화되었다.

이처럼 삼화2리가 농촌새마을운동으로 마을의 면모가 크게 일신되어 한때 최고지도자가 주목하기도 했던 곳이었지만 개발에 따른 실체적이고 내실 있는 이익이 마을 주민 개개인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삼화2리의 ‘개발’은 마을주민의 사회·경제적 출혈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수탈’과 불가분의 관계였다. 농촌의 개발이 군사정권의 정치적 파트너로 부상한 독점기업의 이윤 창출에만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군부+재벌지배

19) 석문면, 『74 경제 동향보고 사업계획』, 『특별지원사업 관리대장(석문면 삼화2리)』.

20) 호명득, 2015년 2월 15일 구술; 한대근, 2015년 2월 15일 구술.

21) 김성남, 2015년 2월 15일 구술.

22) 한대근, 2015년 2월 15일 구술.

23) 석문면 삼화2리, 『추진기록부(A)』, 1972.12.21. 1972.12.23. 1973.1.31. 1973.2.13. 1973.2.16.

24) 한대근, 앞의 책, 61~62쪽 참조; 이인화, 앞의 책, 41쪽 참조.

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만들었던 점에서 ‘누구를 위한’ 개발이었는지 숙고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농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산업종은 등한시하고 시멘트·페인트 등에 기반을 둔 소비분야에만 치중했던 농촌새마을운동은 결과적으로 도시의 소비업자나 무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획득한 정권에게만 그 이익을 몰아준 것이기에 농민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수탈적 측면이 다분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자본주의의 모순을 봉합하는 동시에 재벌과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고히 하여 중화학공업으로 재빠르게 옮겨 탈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신정권은 삼화2리 새마을사업을 통해 마련된 근대적 상징물을 매개로 농업 생산과 유통 과정을 마을주민에게 홍보·교육하는 동시에 반공교육·국정홍보와 같은 대민 통제전략도 시행하였다. 1976년 지도부 기록이 보여주듯이 반상회가 삼화2리 새마을운동의 주요 지침으로 부각되자 삼화2리의 농촌새마을운동은 상호 감시체제를 기반 한 안보 체제 구축으로까지 확대되어 갔다. 요컨대 국가는 농촌새마을운동을 매개로 마을을 보다 강력하게 포획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로인해 삼화2리는 국가와 자본의 통제에 더욱 포섭되어 간 반면 마을이 지녔던 자율성은 심대하게 침해당하는 형국이 되었던 것이다.

##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

### 공동조직 위원장

강봉룡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장)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최미순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장호수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 상임위원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곽유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기중 (당진시청)
조이현, 김형서 (세한대학교)
송두범 (충남연구원)
오석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학술 및 분과위원

최성환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김애경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심재영 (세한대학교)
김경옥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김재은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곽수경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이혜연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 답사위원

민정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홍순일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 사무국

임은옥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황일남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

2016년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

자료집 2 분과회의 [ 1분과 / 2분과 / 3분과 / 4분과 ]

---

찍 은 날 \_ 2016년 7월 2일

퍼 낸 날 \_ 2016년 7월 6일

주최 · 주관 \_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한대 산학협력단,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후 원 \_ 충청남도, 당진시,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재단





